장편소설

하나를 위한 심장

석 남 진

문학예술출판사
주체100(2011)

제 1 장

1

어둠이 내려덮인 평양의 하늘에 눈송이들이 흩날리고있다. 거리엔 가로등빛이 은은하게 흐르는데 어둠을 가볍게 물리쳐버린 그 개개의 등들은 밤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들을 반겨 미소를 뿌리는것만 같았다. 눈은 따뜻해보이는 가로등빛에 감빛으로 물들어 도로우에 푸근히 내려쌓이였다.

승용차 한대가 네바퀴밑으로 눈가루를 뽀얗게 일으키면서 도로를 달린다. 내각 제1부수상 김일이 승용차 뒤좌석에 앉아 시름겨운 눈길로 창밖을 바라보고있었다.

육중한 몸집을 좌석에 무겁게 실은 그의 퉁투무레한 얼굴에 엄숙한 빛이 어리였다.

준엄하고 복잡다단했던 한해가 저물고 새해 1969년 정월도 다 지나가고있었지만 국제국내정세는 여전히 복잡하였다.

지난해에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우리 인민군 해군경비정에 의해 나포된 사건을 계기로 조선반도에서 감히 전쟁을 일으키려고 미쳐날뛰였었다. 조성된 정세하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적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는 선언을 하시여 물불을 모르고 헤덤비는 놈들을 전률케 하시였다. 인민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온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다지였으며 생산에서도 례년에 없는 혁신을 일으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펴나갔다고 볼수도 없었다. 인민군대의 한 군부대에서 수령님께 근심을 끼쳐드린 사건이 발생하였던것이다. 민족보위성의 장령 한영덕이 긴장한 정세에 대처한다고 제나름의 《고견》을 내세우고 군사훈련에만 치중하면서 군

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홀시하는 후과를 초래하였다.

한영덕은 김일의 전우였기에 그로 인한 김일의 괴로움은 더우기나 큰 것이였다. 그의 큼직한 코의 날개에서 량쪽입귀로 휘우듬하니 패인 주름이 더 깊어진것만 같았다.

(한영덕이, 네가 어떻게 그렇게 변할수 있단 말인가.) 하고 김일은 몇번이고 마음속으로 되뇌이고있었다.

그는 속이 타드는듯 하여 차창을 조금 열어놓았다.

가로등빛에 어두운 밤도 아랑곳없이 좋아라고 눈싸움을 하며 놀아대는 소년들의 무리가 눈에 띄웠다. 눈이 두텁게 깔린 공지의 한쪽에서는 눈덩이를 크게 굴려 눈사람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서로 쫓고 쫓기우며 눈을 주먹만큼씩 빚어 깔 내기를 한다. 내뛰다가 넘어진 아이의 목덜미에 눈을 쑤셔넣으며 좋아라고 웃어대던 한 소년이 도로를 지나가는 김일의 승용차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빗장을 지른듯 한일자로 꾹 다물렸던 김일의 입귀가 느슨하게 벌려지며 미소가 어리였다. 정세가 아무리 긴장하다 하여도 아이들의 행복한 생활은 예전이나 변함없이 흐르고있었다.

(보다 행복할 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수령님을 더욱더 높이, 더욱더 충직하게 받들어모셔야 할것이다.) 하고 김일은 생각하였다.

눈발이 섞인 차거운 겨울바람이 불어들어왔다. 김일의 얼굴에 눈이 달라붙으며 녹아내린다. 그는 투박한 손으로 세면이나 하듯 얼굴을 비비였다.

《1부수상동지, 그러시다 감기걸리겠습니다.》 운전사 옆좌석에 앉은 부관 림병욱이 뒤를 돌아보며 우려섞인 목소리로 말하였다.

부관 림병욱은 30대의 미남청년으로서 몇년전에 김일의 부관으로 임명되였다.

《괜찮아.》

김일은 혼자소리처럼 짤막하게 대꾸하며 좌석등받이에 머리를 얹었다. 림병욱은 자기의 오른손을 뒤로 뻗쳐 뒤창을 올려닫았다. 김일은 상관치 않고 눈을 꾹 감았다.

(아, 수령님께서 얼마나 심려하셨겠는가.)

마음속으로 수령님을 생각하노라니 무딘 칼이 새삼스럽게 가슴을 마

구 허비는것만 같았다.

(김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그동안 너는 무엇을 하였단 말인가. 그래 군대일은 자신의 사업과 거리가 멀다고 감히 변명할수 있단 말인가.)

김일의 꾹 다문 입귀로 알릴듯말듯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새여나왔다.

《1부수상동지, 저택입니다.》

김일은 부관의 말을 듣고서야 괴로운 상념에서 깨여났다. 그는 하루동안의 분망한 사업으로 피로해진 몸을 힘겹게 움직여 승용차에서 내리였다.

만수대기슭에 자리잡은 집창문마다엔 불빛이 환하였다.

승용차소리를 듣고 몸매가 자그마한, 첫눈에 소박하고 아련해보이는 나이지숙한 녀인이 실내옷에 뜨개옷을 어깨에 걸치고 2층에서 급하게 내려왔다. 김일의 안해 허창숙이였다.

《이제야 오세요?》

허창숙은 김일의 손에서 서류가방을 받아들고 그를 부축하듯 팔을 붙잡고 2층으로 올라갔다.

침실에서 허창숙은 김일이 벗는 외투를 받아들어 옷걸개에 걸었다.

《방금전에 장종학동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댔어요.》

《장종학에게서?…》

장종학은 내각 건설부문의 일군으로서 지금 나라의 서북부에 건설되고있는 방직공장건설장에 나가있었다.

《무슨 일때문이요?》

《종학동무는 한영덕동무가 어찌되였는가 사실여부를 알고싶어 전화했더군요. 아마 벌써 무슨 뛰뛰한 소문이 도는 모양이예요.》

장종학은 김일이나 허창숙 그리고 한영덕과도 인연이 깊은 사람이였다. 그가 방직공장건설장에서 장거리전화를 걸어온것을 보면 아마 이번 인민군당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영덕이 해임철직된 소문을 듣고 어지간히 놀란 모양이다.

이제 지방지도를 나가면 방직공장건설장에도 들려봐야 한다. 아무래도 그때 장종학을 만나게 될텐데 한영덕의 일을 두고 이야기를 나눌수 있을것이다.

이때 곁에 위치한 딸애의 방쪽에서 처녀의 흐느낌소리가 희미하게 간

간이 들려왔다.

《무슨 소리요?》

《은희방에 설미가 와있어요. 은희가 대학에 갔다오다가 설미가 보통강가에서 울고있는걸 보고 데려왔다나봐요.》

허창숙의 말을 들으니 김일은 다시금 가슴에 예리한 아픔을 느끼였다.

설미는 한영덕의 딸로 은희와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다. 아버지들의 동지적관계가 그 자식들에게도 친근감을 조성하는것이였다.

은희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이고 설미는 평양상업대학(당시) 학생인데 은희가 설미보다 한살 우이다.

김일은 저녁식사를 차려놓았다고 하는 창숙의 말을 귀등으로 흘리며 딸애의 방으로 건너갔다. 책상과 의자, 자그마한 책장이 놓여있고 긴 쏘파와 침대 하나가 놓여있는 소박한 방이였다.

은희와 설미가 긴 쏘파에 나란히 앉아있었다. 두 처녀가 다 늘씬하고 체격이 실했는데 설미가 은희보다 얼굴색이 희고 부드러워보이였다.

실내복차림의 은희가 아버지를 보고 일어나 《아버지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고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울던 설미는 당황하여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설미야, 네가 아직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겠느냐.》

김일의 말에 설미는 대꾸를 못하고 푹 젖은 손수건으로 눈만 닦아냈다.

《그래 아버지는 집에서 뭘 하고있더냐?》

설미는 또 대답을 못하고 갑자르다가 옆에서 은희가 손을 툭 쳐서야 애절한 눈빛으로 김일을 보며 목메인 소리로 말하였다.

《아버지는… 아버지는 혼자 강가에 나가계십니다.》

《그래?》 김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설미야, 너 나하고 함께 아버지를 찾아보자.》

《예?》

설미는 김일의 말이 무슨 뜻인지 리해가 안되는듯 그 자리에 오똑하니 서서 김일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머루알처럼 동자가 새까맣고 쌍까풀진 두눈이 서서히 고이는 눈물방울로 뿌옇게 흐려진다.

《어서 차비를 해라. 나하고 함께 가보자.》

김일은 은희에게 설미를 도와주라고 눈짓하고는 먼저 그 방을 나섰다.

잠시후 김일은 설미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한영덕이 나가있다는 보통강변으로 향하였다.

밤이 깊어지면서 눈바람은 사납게 휘몰아치기 시작하였다. 승용차를 타고가면서 김일은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문득 장종학에게서 한영덕을 념려하는 전화가 걸려왔었다는 안해의 말이 떠올랐다.

(종학동무도 남달리 신경이 씌여질수 있지. 하지만 나를 포함한 그 누구의 아픈 심정일지라도 우리 수령님의 심뇌에야 미칠수 있겠는가.)

×

눈은 세찬 바람에 마구 흩날리며 하염없이 떨어져내렸다. 밤이 깊어 고즈넉해진 보통강가에 견장이 없는 장령외투를 입은 중년사나이가 홀로 서있었다. 중키에 단단한 체격을 가진, 둥그스름한 얼굴에 날카로운 빛이 어린 그는 어제날 인민군대에서 그 이름이 쟁쟁하던 한영덕이였다. 지금은 과오를 범하고 철직되였지만 그 정신과 육체는 여전히 군인의 세계를 갈구하고있었다. 비판을 받고 철직된 그는 무서운 절망상태에 빠져 이 강변으로 나왔다.

그의 주위에 너저분하게 널려진 담배꽁초들이 내리는 눈에 묻혀가는데 그는 또 한대의 담배를 피워물었다.

한영덕은 후— 하고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괴로운 한숨을 토해냈다. 지금도 그는 자기자신이 어떻게 되여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였는지 똑똑히 알수가 없었다.

민족보위성의 요직에서 근무하고있던 그는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나포된 이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자 군대의 군사기술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전연군부대에 내려갔었다.

자기딴의 그럴듯한 계획에 현혹된 그는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홀시하게 되였으며 결국은 그가 시범을 창조한다고 내려갔던 부대

의 일부 군인들속에서 군사기술만능을 우상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것은 사상의 힘으로 제국주의원쑤들과 싸워이겨온 혁명군대의 전통을 무시한것으로서 대단히 엄중한 과오였다. 하여 그는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된것이였다.

(내가 언제 그렇게 어리석은 놈으로 되였단 말인가.)

한영덕은 어찌나 자기자신이 저주로웠던지 그냥 선자리에서 얼어 죽고싶은 심정이였다.

자신이 걸어온 인생길이 얼핏얼핏 떠올랐다. 함경북도의 산골마을에서 태여나 온갖 고생을 다 겪으며 살아온 한영덕이였다.

어머니가 밀가루마대를 얻어다 해준 옷을 입고 형과 손우누이와 함께 부모들의 일손을 도와 지주놈의 소작농사를 했다. 아버지가 솜씨있는 사냥군이여서 영덕은 아버지를 따라 험한 산발을 톺아오르며 짐승사냥을 주로 다니였다. 어려서부터 총쏘는 법을 배우고 사냥묘기를 터득한 영덕은 크고작은 짐승들을 곧잘 잡아 아버지와 동네어른들의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집이 워낙 빚을 많이 지다보니 사냥물을 지주놈에게 떼우기만 했고 생활은 여전히 펴이지 않았다.

온 가족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아득바득 일하였건만 살림은 갈수록 쪼들리고 생활고에 지친 형이 탈가하여 간도로 넘어갔다. 그후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 부모들과 누이가 앓다가 사망하고 홀로 남은 영덕은 간도로 간 형을 찾아 조국땅을 떠났다. 고아의 설음을 뼈저리게 체험하며 방황하던 그가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된것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에 입대해서부터였다. 그때부터 그는 곧바른 성장의 길을 걸어왔다.

수령님의 품을 떠나서 자신의 영광과 행복에 대해 어찌 생각할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오늘 그는 수령님께 크나큰 걱정을 끼쳐드린 배은망덕한 놈으로 되고말았다.

《이따위 몸뚱이가 숨을 쉬여 무엇에 필요하단 말인가.》 그는 입속으로 나직이 뇌이였다.

이때 발목까지 빠지는 눈을 걷어차며 한사람이 영덕에게로 다가왔다.

《영덕동무.》

귀에 익은 그 부름소리에 한영덕은 흠칫 놀라며 돌아섰다. 다음순간 그는 삽시에 뜨거운 그 무엇이 머리를 때리는것을 느끼며 온몸이 굳어

져버렸다. 김일이 이밤중에 한영덕을 찾아 강변으로 나온것이였다.
영덕의 손에서 담배꽁초가 떨어지고 그동안 몸에 쌓여있던 눈의 일부가 부실부실 떨어졌다.
《아니 이밤에 여기엔 어떻게?》 영덕의 커다래진 두눈이 이렇게 묻고있었다.
《설미가 우리 집에서 울고있더구만. 잘난 아버지의 해임철직앞에서 그 애의 마음이 편할리가 없겠지.》
그제야 한영덕은 먼발치에 서있는 처녀의 모습을 띄여보았다. 김일과 함께 온 딸애가 자기들을 지켜보고있는것이였다.
송구스러운 마음이 밀물처럼 가슴에 차올랐다.
(나같은 놈이 무엇이라고…)
《1부수상…동지…》
《그래 여기서 뭘하고있는거요?》
한영덕은 입이 얼어붙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1부수상동지를 볼 낯이… 없습니다.》
《동무에 대한 소리를 전해듣고 난 놀랐소. 그래 영덕동무의 사상정신상태가 그게 다요?》
바람이 세차게 몰아쳤다. 얼어붙은 강바닥에 깔렸던 눈들이 장막처럼 일어나서 몰려갔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여… 어떻게 되여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였는지…》
《내가 보건대 동무에겐 무서운 영웅주의와 소총명이 잠재해있었소. 다른 사람들을 다 자기 발밑으로 내려다보았지. 그래 내 말이 틀리오?》
《맞습니다.》
《인정하는군.》 김일의 얼굴에 얼핏 조소가 어리였다.
《그래서 다른 동무들의 충고를 듣지 않았지. 저만 저라고 냅다 내밀었지. 그런 면에서야 한영덕을 당해낼수가 있나. 군사관료주의, 독단이 어느 지경으로 사람을 끌고가는지 내 동무를 보고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오.》
영덕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길게 내그었다. 그 한숨소리는 휘파람같은 바람소리속에서도 뚜렷이 들리였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정말이지 이 손으로 동무에게 무서운 벌을 안겼으면 좋겠소. 한영덕이 감히 사상교양을 등한히 하다니…》

《아닙니다.》 영덕이 절규하듯 부르짖었다. 《제가 어떻게… 그럴수 없지요. 그럴수 없단 말입니다.》

《본의는 어떻든간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지금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혈전만리를 함께 헤쳐온 전우들이 동무에 대해 얼마나 격분하고있는지 아는가, 응? 최현동무랑 림춘추동무랑 그리고 박성철동무랑… 모두 동무를 용서할수 없다는거야. 뭐라고 하는지 아오? 배신자가 나왔다고 해. 한영덕이 감히 우리 당의 고귀한 혁명전통을 무시했단 말이요.》

김일은 오른손 주먹으로 홱 눈보라를 후려갈기였다. 한영덕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하니 고이더니 주르르 볼을 타고 흘러내리였다.

《1부수상동지도 알지 않습니까. 나야 그렇게까지 배은망덕한 놈이 될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람은 더욱더 세차지고 눈발은 사납게 얼굴을 때리였다. 강변의 버드나무들이 몸부림치듯 마구 태질하였다.

김일의 눈굽도 쩌릿하니 젖어들었다. 그렇다, 나도 그렇지만 이 한영덕이도 수령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사람이다. 조선혁명이 수난을 겪던 그 시절 속절없이 시들어가던 우리는 모두 태양의 빛을 받아 다시 태여나지 않았던가.

중국 동북에서 수령님을 사무치게 그리며 흘러간 그 나날들이 되새겨졌다.

2

《민생단》으로 몰린 두사람이 감옥에 갇혀있었다. 왜놈들의 《토벌》공세로 자주 집들이 불타고 그 불탄 재더미를 헤치고 다시 건물들과 살림집들을 일떠세워야 하는 유격근거지의 간고한 생활속에서도 현

당에 틀고앉은 숙반공작위원회의 간부들은 《민생단》감옥을 세우는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있었다. 하여 근거지마을의 한귀퉁이에 통나무로 지은 감옥이 존재하고있는것이였다. 출입문이나 벽은 《죄인》들이 도망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굵은 이깔나무로 네귀를 맞추어 든든하게 해세웠지만 바닥은 그저 맨 흙바닥 그대로였다.

지금까지 이 감옥에 있던 《죄인》들은 다 총살당하였거나 어디론가 쫓기여가고 현재 단 두명의 《죄인》들이 강냉이대들을 깔고 드러누워 있었다. 골격이 굵직하고 허우대가 큰 청년이 분격을 삭이지 못해 혼자 씨근덕거리다가 벌떡 일어나앉았다.

《이거야 분통이 터져와서 참을수가 있나.》 하고 그는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 청년은 현당의 정치공작원인 박덕산(김일의 본명)이였다. 그의 옆에 누워 생각에 잠겨 지붕서까래들이 그대로 드러나있는 천정을 올려다보고있던 사람의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늘이 무심하진 않겠지요.》 하고 그는 말하였다.

《정익동지는 그래도 배포가 유하구만요.》

박덕산은 현당의 일군인 강정익을 진정으로 존경과 감탄이 어린 눈길로 내려다보았다. 키가 작달막한 정익의 다부진 체격의 그 어디라 할것없이 반《민생단》투쟁을 부르짖는 숙반의 좌경분자들이 가한 고문의 상처들이 있다. 살이 완전히 빠져 이제는 관골이 무섭게 두드러진 그의 너부죽한 얼굴도 여러군데 찢기여 피딱지가 앉았다.

강정익은 바로 어제 죽음의 문어구에까지 갔던 사람이였다. 동만의 인민들과 혁명가들속에서 신망이 있는 조선인간부들을 제거하고 당의 요직을 차지하려는 목적수행을 위해 혈안이 된자들은 강정익을 악질적인 《민생단》으로 몰아붙이고 고문을 가하던 끝에 사형선고를 내리였으며 바로 어제 그 사형집행을 단행하려고 하였었다. 강정익을 총살하려고 내세웠는데 인민들의 항거에 부딪쳤다.

현정부의 뒤산중턱의 사형장에 몰려온 헐어빠진 로동복이나 바지저고리를 입은 사람들, 살이 빠지고 얼굴색이 질그릇처럼 거멓게 탄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불만의 눈길들로 강정익의 《죄행》을 내리엮고 사형선고를 내리는 숙반공작위원회의 간부를 쏘아보았다. 로골적인 의혹과 불만, 거부의 움직임이 파도마냥 술렁술렁 군중들을 휩쓸어가

고있었다. 금시라도 그속에서 그 어떤 반항의 웨침이 터져나올것만 같았다. 이때 유격근거지 가까이에 주둔해있던 반일부대병사들이 사형장에 달려들었다. 강정익을 총살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하여 몰려온 그들은 집행석에 앉아있는 돌덩어리처럼 굳어진 표정의 인물들에게 거칠고 무지스럽게 항의를 들이대였다.

《강정익이 〈민생단〉이라면 〈민생단〉이 아닐 사람이 누구라는거요?》

《강정익동지를 죽여서는 안되오!》

한 병사는 팔이 묶여 서있는 강정익의 앞을 막아나서며 어깨에서 장총을 벗어들고 흔들어댔다.

《이 사람을 죽이려는자는 내가 먼저 죽이겠다.》

강정익은 지난날 반일부대들에 들어가 공작을 많이 하였으며 어언간에 그들과 형제처럼 가까운 사이로 되였다. 반일부대병사들은 자기들에게 반일사상을 심어주고 혁명의 길로 추동하던 강정익이 결코 왜놈들의 앞잡이가 될수 없다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당시는 《민생단》혐의자를 동정하거나 감싸고들면 곧 그자신이 《민생단》으로 몰리는 험악한 세월이였다. 박덕산이 《민생단》으로 몰린것도 다름이 아니라 현당일군인 강정익과 가까운 사이라는것이며 보다 엄중한것은 덕산이가 강정익이 《민생단》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는 리유때문이였던것이다.

반일부대병사들이 들고일어나는것은 문제가 달랐다. 그들은 모두 중국인들이고 혁명군중도 아니였기에 《민생단》으로 몰수도 없었던것이다. 민족배타적인 좌경분자들은 하는수없이 강정익의 총살을 취소하였으며 그의 《죄》를 다시 조사해보겠노라고 반일부대병사들과 군중들의 불만을 누잦혀놓았다. 그러나 강정익을 석방시키지는 않고 다시 감옥에 끌어다넣었다.

강정익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길게 한숨을 내그었다. 그도 역시 인간인지라 기막히는 현실앞에서 어찌 탄식이 나오지 않겠는가.

정익의 한숨소리를 들으며 박덕산도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여나오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며칠전의 밤에 있은 일이 떠올랐다. 적구에 공작나갔던 박덕산이 유격근거지의 집으로 돌아왔으므로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상봉이 이루

어진 그런 밤이였다. 그런데 그밤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밥 한술을 먹고나자 인차 등을 떠밀어 되돌려보내려고 애썼던것이다.

《아애비야, 어서 당장 도망치거라. 〈민생단〉에 몰리면 큰일이 아니냐.》 어머니는 저고리고름으로 자꾸 눈물을 찍어내면서 말하였다.

어머니의 가늘게 떨고있는, 모진 고생살이에 꺼칠해지고 마디진 손이 덕산의 눈을 찔렀다.

아버지는 곰방대를 물고 뒤전에 앉아 말없이 독한 써레기담배를 뻐금뻐금 피우고있었다. 방 아래목에서는 8살에 잡히는 아들 용석이가 씩씩거리며 단잠을 자고있었다. 덕산은 용석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하였다.

《내가 누구를 피해간단 말이예요. 내가 〈민생단〉이라구요? 어처구니가 없지.》

저도 모르게 허거픈 웃음이 새여나왔다.

현당간부인 강정익이 《민생단》으로 체포되면서 박덕산이도 《민생단》이라는 말이 돌았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어제 숙반공작위원회의 사람들이 박덕산의 집을 찾아왔었다고 한다. 덕산이 적구공작에서 돌아오면 즉시 숙반공작위원회에 출두시키라는것이였다.

근거지에서 《민생단》으로 몰린 사람들이 어떻게 죽고 쫓겨갔는가를 보아온 덕산의 부모들은 아들을 사지판에 들도록 내버려둘수가 없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하고 아버지는 철문마냥 무겁게 닫혀있던 입을 힘들게 열었다. 《당분간 어디로든 피해 몸을 숨기는것이 좋을것 같다.》

왕년에 함북 명천지방의 의병이였고 그후에는 독립군으로 활동하다가 쓰라린 실패와 좌절을 겪은 아버지는 모든것을 체념해버리고 세상을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였다. 의병의 화승대를 그대로 어깨에 걸치고 왜놈들에게 쫓기워 두만강을 넘어가는 아버지의 등에 업혀 4살에 잡히던 어린시절에 조국땅을 떠나온 박덕산은 나라잃은 설음을 뼈에 새기며 이국땅에서 자랐다.

연길현 석마골에 자리잡은 그의 집은 독립군들의 련락소로 되였다. 덕산은 서당에서 글을 깨치던 그때부터 독립군들의 련락원노릇도 곧잘하였고 왜놈들에게 쫓긴 독립군들이 어디론가 뿔뿔이 사라져가고 공산

주의혁명바람이 불어오면서부터는 그 바람에 몸을 맡기고 투쟁의 길에 나섰다. 강정익은 박덕산의 상급이면서 동시에 그에게 혁명적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였다.

정익은 일찌부터 **김일성**동지의 지도를 받으며 혁명투쟁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그이께서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힌 카륜회의에도, 유격전을 기본으로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한 명월구회의에도 참가하였다.

강정익은 덕산에게 조선혁명의 젊은 지도자 **김일성**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려주었고 또 우리 조선혁명가들은 모두 그이의 지도를 받으며 혁명하고있음을 일깨워주었다.

희망과 신심에 넘쳐 전진하던 조선혁명의 앞길에 오늘과 같은 시련이 닥쳐올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나도 네 마음을 안다. 하지만 어찌겠니. 혁명도 혁명이지만 가문의 운명도 생각해야 할게 아니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리를 수긋하고 앉은 덕산의 귀전을 울리였다.

어머니의 흐느낌소리가 들리였다.

《원 세상두… 이렇게도 못살게 굴다니…》

덕산은 외독자였다. 덕산의 우로 누이가 있고 아래로 누이동생이 있었다. 손우 누이와 매부는 일찌부터 혁명의 길에 나섰는데 왜놈들과 싸우다가 희생되였다. 부모들이 짝을 무어준 덕산의 안해도 왜놈들의 《토벌》바람에 목숨을 잃었다. 그러니 부모들에게는 덕산의 존재가 너무도 귀중한것이였다. (그마저 잃는다면 누구를 믿고 살아간단 말인가.) 하고 그들은 생각하고있었다.

덕산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난 결코 비겁하게 도망치는 존재가 될수는 없다. 하루를 살아도 당당하게 혁명을 위해 살아야 한다.)

《아버지, 그자들이 날 어쩌지 못할거예요. 그자들에겐 증거가 없어요.》

《그럼 현당의 그 어른에게선 무슨 죄의 증거라도 나졌단 말이냐? 그 어른이야 동만에 널리 알려진 혁명가가 아니냐.》 하고 어머니가 애타는 소리를 했다.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혁명을 피해가

고싶지는 않아요.》 덕산은 고집스럽게 말하였다.
고콜불이 금시 꺼질듯이 가물거리였다. 밖에서는 그밤따라 모질게 휘몰아치는 바람소리가 들창을 드르릉 울리였다.
다음날 아침 박덕산은 뻐젓하게 현당을 찾아갔고 거기서 강정익의 무죄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민생단》모자를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것이였다.
감옥의 구석쪽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눈길을 주니 재빛쥐 한마리가 구멍에서 기여나왔다. 낟알을 찾는지 까만눈을 반들거리며 강냉이대밑을 뒤진다. 덕산은 가만히 쥐를 지켜보았다. 이전에는 쥐만 보면 오싹하니 소름이 끼쳤는데 근거지에서 극심한 식량곤난을 겪으면서 그 작은 설치류도 먹을것으로 보이게끔 되였다. 한창 식량고생을 할 때는 사람들이 풀도 가리지 않았고 뱀도 없어서 잡아먹지 못하였다.
(사람 먹을것도 없는데 네놈은 그래도 괜찮게 살이 졌구나.)
등에는 재빛털이 부르르하고 배에는 희슥한 털이 덮인 쥐가 발볌발볌 다가오고있다. 어쩌나 보자 하고 까딱않고 앉아있으니 발치까지 다가온다. 지그시 그놈을 바라보노라니 왜서인지 속이 메슥메슥해왔다. 이어 그는 자기도 모를 강렬한 증오와 울화가 북받쳐오르면서 발길로 힘껏 쥐를 걷어차버렸다.
《찍—》
쥐는 다급한 소리를 지르면서 벽에 부딪쳤는데 놀랍게도 인차 기운을 회복하고 구멍속으로 달아나버리였다.
《공연히 쥐새끼에게 화를 내는군요.》 정익이 껄껄거리며 웃어댔다.
덕산이도 시무룩하니 따라웃었다.
《정익동지는 죽는게 무섭지 않습니까?》
정익은 일어나 앉았다. 그는 강냉이대 한대를 들고 뚝뚝 꺾어대며 말하였다.
《이 한몸 죽는거야 무서울게 있겠습니까. 숱한 혁명가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게 무섭지요. 이 허망한 사태가 빨리 바로잡혀야 하겠는데…》
정익은 해빛이 스며들어오는 뙤창을 바라보았다. 그의 해쓱하니 여윈 얼굴에는 그 어떤 그리움의 표정이 어려있는것만 같았다.

밖에서 인기척소리가 나고 수군수군 말소리가 들리더니 덕산의 아들 용석이가 꾸레미를 들고 들어왔다. 덕산의 집에서 식사를 가지고 온것이였다. 꾸레미를 푸니 강냉이알에 산나물과 도토리를 섞어 만든 범벅이 나졌다. 가을을 한지 얼마 안되였지만 여전히 식량사정은 긴장하여 근거지사람들은 세끼 배를 불리지 못하고 살고있었다.

《용석아, 넌 밥을 먹었니?》 정익이가 용석이의 더벅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물었다.

《예.》 용석은 심드렁하여 서있었다.

《앉아라.》

하고 덕산이 말하였으나 아들은 고집스럽게 서서 한쪽구석을 바라보고있었다. 어린 소년에게 무엇인가 대단히 불만스러운것이 있는것 같았다. 덕산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개의치 않고 범벅덩어리를 입으로 가져갔다.

《어서 듭시다.》 덕산은 생각에 잠겨있는 정익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식사를 끝내자 용석이가 그릇을 무명보자기에 싸며 말하였다.

《아버진 왜 여기에 그냥 갇혀있는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 덕산은 얼떠름해서 아들에게 물었다.

《왜 정익아저씨하고 둘이 도망치지 않아요?》

소년은 금시 울음을 터뜨릴듯 까밋한 얼굴을 찌프리고 울먹거리고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꾸 울어요. 아버지가 이제 죽을수 있다는거예요.》

(이 애가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소리를 귀동냥한 모양인가. …)

덕산은 쓸쓸한 눈길로 아들애를 보다가 공허한 웃음을 조용히 지었다.

《용석아,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말아. 정익아저씨하고 있는데 일없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쩌지는 못해.》

정익은 자리에서 일어나 용석의 작은 몸뚱이를 슬그머니 그러안아준다. 그러는 그의 얼굴에는 애모쁜 미소가 어려있었다. 평소에 덕산의 아들 용석을 친자식처럼 사랑해준 정익이였다.

《용석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말란다고 말해주렴.》

《알겠어요.》

용석은 정익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쿨쩍거리며 울었다.

《그만 그쳐라. 사내녀석이 울긴… 어서 가봐라.》 덕산은 가슴이 아릿하였으나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용석이가 감옥에서 나가자 정익이 한숨을 길게 내쉬였다.

《그래도 덕산동무는 복이 있습니다. 저렇게 끌끌한 아들애가 있으니 말입니다.》

《아직 가족들 소식을 모릅니까?》 덕산은 더욱더 침울해지는 기분으로 물었다.

강정익의 가족은 조선에 있었고 그는 혼자 동만에 와서 혁명투쟁에 참가하였다. 3년전에 그는 안해에게 자기를 찾아오라고 편지를 보냈었다. 그는 안해가 2살에 잡히는 아들애를 업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렸건만 끝내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기도의 고향에 알아보니 안해는 남편을 찾아간다면서 떠나갔다는것이였다. 이전에 정익은 행방불명된 가족을 그리워하며 언젠가는 만나게 될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생활해왔었는데 이마적에 와서는 그 희망마저 잃어버린것만 같았다.

《분명 왜놈들의 〈토벌〉에 걸려들어 잘못된것 같습니다. 아들애를 낳았다는데 난 아직 그 애 얼굴도 보지 못했지요. 안해와 아들이 다 왜놈들에게 잘못되였다는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몸부림치며 벌떡 일어나군 합니다.》

덕산은 저도 모르게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왜놈들의 간도지구의 조선인부락들에 대한 야만적인 《토벌》을 상기하기만 해도 덕산은 치가 떨리였다. 바로 덕산의 안해인 용석의 어머니도 본가집이 있는 마을에 갔다가 놈들의 《토벌》에 맞다들어 희생되였던것이다.

순박하면서도 자존심이 강한 안해였다. 시아버지의 생일이 박두했는데 가난한 집에는 생일상을 차려올릴만 한게 별로 없었다. 마을의 한 녀인이 가난하면 효도도 제대로 할수 없는것이라고 위로하듯 말했는데 그 말이 안해의 귀에 거슬렸다. 하여 안해는 몇십리 떨어진 곳에 있는 본가집에 가서 무엇을 얻어오겠다면서 집을 떠나갔던것이다.

《용석이 아버지, 오늘중으로 돌아오겠으니 걱정마세요.》

이런 말을 남기고 웃으면서 떠나간 안해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비보를 듣고 한달음에 처가집이 있는 마을에 달려가보니 마을은 온통 불타버렸는데 그때까지도 여기저기서 그물그물 연기를 피워올리고있었다. 왜놈들은 혁명촌으로 알려진 그 마을을 초토화해버렸던것이였다.

덕산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통곡소리, 흐느낌소리를 들으며 반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안해를 찾았다. 불에 타서 새까맣게 된 녀인, 꼭 모아쥔 손에 결혼식때 덕산이 끼여준 동가락지를 쥐고 눈도 감지 못하고 숨이 진 이 녀인이 자기의 안해라고는 정녕 믿어지지 않았다. 덕산은 안해를 그러안고 피눈물을 쏟으며 몸을 떨었다.

《이 악귀같은 놈들아.》

덕산은 땅을 치며 왜놈들을 저주하였다.

놈들은 안해뿐 아니라 처가집 일가모두를 학살하였다.

동만에 사는 조선사람들중에 왜놈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것인가. 그로 하여 중국 동북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혁명바람이 세찬 곳이 동만이였고 혁명세력의 골간을 이루고있는 사람들도 다름아닌 조선인혁명가들이였다.

그런데 지금 반《민생단》투쟁의 회오리바람이 무고한 조선인혁명가들을 쓰러뜨리고있는것이였다.

《불구대천의 원쑤인 왜놈들을 쳐없애고 빼앗긴 조국을 찾아야겠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으니 너무나 통분한 일이 아닙니까.》 덕산은 부시럭부시럭 마라초를 말며 말하였다.

덕산은 슬프거나 화가 나도 담배, 흥분되거나 기뻐도 담배를 찾는 담배질군이였다.

《나도 한대 말아 피워봅시다.》

정익이 담배연기를 내뿜는 덕산에게 손을 내밀었다. 덕산은 의아하여 정익을 쳐다보았다. 정익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였기때문이였다.

《어찌된 일입니까?》

《왜선지 담배를 피우고싶군요. 냄새가 구수한데요.》

정익은 덕산이 말아주는 담배를 몇모금 빨다가 속이 개끼는지 기침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담배불을 끄지 않고 조심스럽게 계속 피웠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담배를 한번 피워보았습니다.》

정익은 담배꽁초를 흙바닥에 비벼껐다. 그리고 한숨을 길게 내쉬였다.

《덕산동무, 나는 아무래도 동무들과 같이 얼마 더 일할것 같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권력장악에 환장한자들은 기어코 나를 죽이려고 할겁니다. 난 알고있습니다. 그걸 피할수는 없을겁니다.》

주구단체인 《민생단》을 조작한것도 일본놈들이였고 유격근거지들에서 벌어진 반《민생단》투쟁을 혁명대렬을 분렬와해시키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온갖 음모와 간계를 다 꾸며낸것도 일본놈들이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그후에 다 밝혀졌지만 그 당시의 근거지사람들은 그저 반《민생단》투쟁의 구호밑에 벌어지는 무시무시한 사태에 전률하고 통탄할뿐이였다. 사실 반《민생단》투쟁의 혼란속에서 자기의 권력야심을 이루어보려는 자들이 날뛰고있었다.

《나는 최후의 순간에 혁명만세를 웨치며 죽을것입니다.》 하고 강정익은 말을 계속하였다. 《각오를 하고있지만서도 솔직히 말하면 비통하고 억울한 생각을 어찌할수 없군요.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 동지들이 혁명가의 영예는 고사하고 기막히게도 더러운 〈민생단〉의 패쪽을 달고 희생되고있습니까. 그자들은 조선혁명을 말아먹으려고 날치는데 그 책동을 분쇄하기는 고사하고 자기의 정치적생명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게 되였으니 혁명을 한다는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아닙니다. 그자들이 정익동지를 함부로 처형할수 없을겁니다.》

덕산은 격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러나 정익은 덕산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듯 자기 생각에 잠겨 계속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난 **김일성**동지를 믿고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오늘의 이 비틀어진 험악한 사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주시고 우리모두의 정치적생명을 구원해주실것입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기에, 그이께서 북만원정에서 돌아오시면 반드시 모든것을 바로잡아주시리라고 믿기에 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익의 가슴에 굳건히 들어앉은 신념이 덕산의 심장을 울리였다. 덕

산은 정익이 어째서 비장한 최후를 예감하면서도 그처럼 태연하고 마음이 안정되여있는가를 새삼스럽게 깨닫는것만 같았다.

얼마나 훌륭한 혁명가인가. 정익을 이처럼 굳센 혁명가로 이끌어주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그리움이 덕산의 가슴에 밀물처럼 차올랐다.

(나도 한번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웠으면…)

그이를 만나뵈옵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을수 있다면 이제 당장 죽는대도 한이 없을것만 같았다.

(그이께서는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사태를 알고계시는지…)

박덕산은 강정익이 그처럼 빨리 희생되리라고는 전혀 믿지 않고있었다. 그는 **김일성**장군님께서 하루빨리 북만원정에서 돌아오시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그러나 일은 예상치 않게 벌어졌다. 2시간후에 왜놈들의 《토벌》대가 유격근거지로 쳐들어왔다.

유격근거지는 왜놈들이 쏘아대는 박격포탄소리와 적아간이 맞불질하는 자지러운 총소리들로 하여 그리고 마을들을 뒤덮는 화염과 타래쳐오르는 검은 연기로 하여 무섭게 몸부림치는것만 같았다.

박덕산은 감옥보초를 서던 자위대원청년을 부축하면서 뒤산으로 반달음을 놓았다. 이마가 좁고 머리칼이 총총한 자위대원청년은 적들이 쏘는 눈먼 총탄에 넙적다리를 부상당하였다. 그는 더 걷기가 힘이 든듯 맥을 풀었다.

《날 두고 먼저 뛰십시오.》

그는 아예 주저앉고말았다.

《무슨 소릴 하는거요? 자, 어서 내게 업히시오.》

덕산은 청년에게 등을 돌려대며 무릎을 굽히였다.

《난 일없습니다. 내 걱정은 마십시오.》

어리무던해보이는 그 청년은 그냥 내뻗치였다.

이때 한걸음 뒤져오던 강정익이 노한 소리를 질렀다.

《무슨 투정질인가? 그래 동문 놈들에게 잡혀 값없이 죽겠다는거요?》

현당의 쟁쟁한 간부였던 강정익의 목소리는 찌렁찌렁하였고 사람을 격동시키는 힘이 있었다. 머리를 숙인 자위대원청년의 두눈에 눈물이 고이였다.

《날 용서하십시오. 난 나쁜 사람이 아니예요. 난 그저 시켜서 그 더러운 일을 했던거예요.》

청년은 《민생단》감옥을 지키던 자기자신에 대한 뼈아픈 혐오감을 느끼고있었던것이다. 량심적인 청년이였다.

《우리가 왜 그걸 모르겠나. 자, 어서 가자구. 살아서 왜놈들과 싸워야 할게 아닌가. 내게 업히라구.》

정익은 들고있던 자위대원의 장총을 덕산에게 넘겨주고 청년을 업으려고 하였다. 덕산이 정익을 제지시키였다.

《내게 맡기십시오. 정익동지는 지금 몸이 말이 아닙니다. 제 한몸도 가누기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덕산은 기어코 자위대원을 등에 업고 달리였다. 빽빽한 잡관목들을 헤치느라니 삐죽한 가지들에 옷이 찢어졌고 살도 찢기워 얼굴에 피가 내배였다. 얼마간 산발을 달리노라니 땀으로 온몸이 화락하니 젖어들고 심장이 금시 밖으로 튀여나올듯이 마구 들뛰고 숨이 턱에 닿는다. 정익이 옆에서 교대하자고 소리쳤으나 듣는척도 않고 고집스럽게 걸음을 옮기였다. 산중턱에 다달았는데 저바로 골짜기에 모여앉은 사람들의 무리가 눈에 뜨이였다. 그들은 이불이나 가마, 강냉이자루와 같은 얼마간의 가산을 지고 피난해온 근거지마을사람들이였다. 대체로 늙은이들과 녀인들 그리고 아이들이였다. 청년들은 유격대와 자위대에 들어 놈들과 전투를 벌리고있었다.

《덕산동무, 이 자위대원동무를 저 사람들에게 맡기고 전투장을 찾아오시오. 아무래도 난 먼저 가야겠습니다.》 하고 정익이가 뒤에서 말하였다.

《알겠습니다.》

걸음을 옮기려던 덕산은 문득 누런 군복을 입은 왜놈들 십여놈이 피난민들쪽으로 은밀히 기여들고있는것을 발견하였다.

《왜놈들입니다.》

덕산은 다급히 말하며 자위대원청년을 내려놓았다.

왜놈들이 유격대의 진지를 우회하고있는것이였다. 놈들이 당장 피난민들을 발견할수 있었다.

강정익은 한순간 놈들을 노려보더니 덕산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아무래도 놈들을 유인해야겠습니다.》

《내가 놈들을 달고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덕산동무는 꼭 살아서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워야 합니다.》

정익은 덕산이 어쩔새가 없이 총을 들고 바위벼랑들이 삐죽삐죽한 산등성이를 향해 치달아올랐다. 그의 모습은 누렇게 황이 들어가는 참나무숲에 가리워져버리고 잡관목들과 잎새들이 흔들리였다. 이윽고 그쪽에서 총소리가 울리였다. 왜놈들속에서 비명소리가 울리고 한놈이 쓰러지는것이 보이였다.

《이놈들아, 유격대가 여기 있다.》

정익이의 큰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쳤다.

총소리가 몰방으로 터지였다. 놈들이 뒤로 돌아 정익이를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인민들이 뒤늦게 사태를 알아차리고 반대쪽으로 밀려갔다.

덕산은 부상당한 자위대원청년에게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가만 누워있으라고 말하고 정익이가 쏘는 총소리가 멀어지는쪽으로 잡관목을 헤치고 달리였다. (총! 총이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머리를 치는 속에서도 그는 정익이 제발 무사하였으면 하고 빌고 또 빌었다.

이때 그쪽에서 《만세!》소리가 울리더니 왜놈들의 띠염띠염한 총소리를 짓눌러버리며 콩튀는것 같은 요란한 총소리가 터지였다. 유격대원들이 달려와 놈들을 쓸어눕히고있었다.

(됐구나!)

덕산은 길게 숨을 내쉬면서 달려갔다. 유격대원 몇명이 곰이 웅크리고있는듯싶은 바위옆에서 누군가를 둘러싸고 들여다보고있었다. 덕산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것만 같았다. 활랑거리는 가슴을 안고 다가가니 강정익이 쓰러져있는것이 아닌가.

《정익동지!》

덕산은 유격대원들을 헤치고 들어가 정익을 그러안았다. 두손에 장총을 꼭 그러잡고있는 정익의 앞가슴을 총알이 꿰뚫었는데 피가 랑자하니 그 주위에 흘러내렸다. 이윽고 왜놈들을 몽땅 쏴눕힌 유격대원들이 달려와 정익의 주위에 둘러섰다.

《정익동지, 눈을 뜨십시오.》

피투성이가 된 정익을 붙안고 흔드는 덕산의 두볼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정익은 힘겹게 눈을 뜨더니 하늘을 쳐다보았다. 가을하늘은 마치 지금껏 아무 일도 없었던것처럼 천연스레 푸르고 맑게 개여있었다. 그의 눈길이 비통감에 입술을 떨며 우는 덕산의 얼굴에 멎어섰다. 종이장처럼 창백한 피부가 뼈를 감싼듯싶은 정익의 피기없는 얼굴에 희미하게 미소가 떠올랐다.

《덕산동무, 신심을 가지십시오.》

정익은 피가 내밴 입술을 간신히 열고 떠듬거리며 말하였다.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시고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해 잘 싸워달라는것을 부탁하고싶습니다.》

아, 최후의 순간까지 신념을 잃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죽어서는 안된다!

《함께 싸웁시다. 우리 함께 **김일성**동지를 받들어모시고 싸웁시다.》 하고 덕산은 울면서 말하였다.

정익의 오른쪽눈귀가 파르르 떨더니 끝끝내 맥이 진한듯 두눈이 스르르 감기고말았다. 덕산의 팔에 받들려있던 고개가 맥없이 밑으로 떨어졌다.

《정익동지,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덕산은 숨이 넘어간 정익을 불안고 흔들며 사나이의 울음을 터뜨렸다. 뒤에서 유격대원들도 모자를 벗고 눈물을 흘리였다. 비분의 감정이 숲을 흔드는듯 조용하던 숲이 뒤설레이였다. 락엽들이 우스스 떨어져내리였다.

덕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누구에게 항변하듯 부르짖었다.

《그래 이 사람이 〈민생단〉이란 말이요?》

누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덕산은 억이 막혀 다시 부르짖었다.

《어디 대답해보란 말이요. 정익동지가 그래 〈민생단〉이란 말인가!》

덕산의 절통한 목소리가 숲을 흔들며 메아리쳐갔다.

강정익이 희생된 후에 군중의 여론이 분분하여 박덕산은 석방되였다. 그러나 현당의 요직에 틀고앉은자들은 음으로 양으로 덕산과 그의 가족을 박해하였다. 덕산은 가족을 데리고 동남차라는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곳에는 《민생단》가족들이 서너집 와서 근

근히 목숨을 이어가고있었다. 정신육체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덕산은 동남차에서 앓아누웠다.

피눈물로 얼룩진 그해가 지나고 다음해 봄이 왔다. 그 봄에 온 가족의 지성으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덕산은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려고 결심하였다. 북만이든 소왕청이든 **김일성**장군님께서 활동하신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곳으로 천리라도 만리라도 찾아갈 작정이였다.

앓고나서 뼈가 앙상한 몸으로 집을 나서는 덕산을 아버지, 어머니는 부디 만류할념을 하지 못하였다. 아들이 얼마나 **김일성**장군님을 그리워하는가를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강정익과 같은 귀중한 동지들이 《민생단》으로 몰려 희생당하는 이 무시무시한 사태를 바로잡아주실분은 **김일성**장군님밖에 없다고 부모들에게 늘 외운 덕산이였다.

《네가 가다가 쓰러지면 어쩌겠니?》

어머니는 살이 다 빠져 솜저고리가 후렁후렁해진 덕산을 눈물이 글썽하여 쳐다보다가 그의 굵직한 손을 꼭 잡아쥐고 쓸었다.

《걱정마세요.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기 전에는 죽지 않을테니까요.》 덕산은 어머니에게 강잉히 웃어보이였다.

아버지는 방바닥에서 곰방대를 빨면서 무슨 생각엔가 잠겨있었다. 그러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한마디 했다.

《가야 할 길이면야 가는거지.》

아들 용석이 덕산에게 매달렸다.

《아버지, 나도 데리고 가줘요.》

덕산은 아들애를 그러안고 머리를 쓸어주었다.

《용석아, 아버지가 가는 길은 너무나 멀구나. 그러니 널 데리고서는 갈수 없다.》

용석은 훌쩍훌쩍 울었다.

《난 아버지를 따라가고싶어요. 내가 아버지를 돌보겠어요.》

덕산은 별안간 불덩어리를 안은것처럼 가슴이 후끈해졌다.

혁명을 한다고 늘쌍 집을 떠나 살아온 자기자신의 지난날이 돌이켜졌다.

오늘은 《민생단》혐의자로 박해를 받고 죽을 지경으로 앓다가 겨우 일어났는데 또다시 떠나겠다니 이 철없는 애도 진정할수 없는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하니 일찍 어머니를 잃은 아들애에 대한 동정과 사랑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였다.

《아버지 걱정은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집에 있어라. 난 인차 돌아오겠다. 할아버지, 할머니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덕산은 억지로 용석을 떼여놓았다.

이때 덕산의 집으로 부리나케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덕산이도 잘 아는 현정부에서 일하는 성실한 혁명가였다. 키가 자그마하고 허약한 체질이였으나 혁명에 대한 열의는 활화산마냥 세차게 타는 사람으로서 덕산이처럼 유격근거지에서 벌어지는 반《민생단》투쟁의 험악한 사태를 우려해왔었다.

그는 금방 집을 나서는 덕산을 보고 무작정 달려들어 손을 잡고 열정적으로 흔들었다.

《이젠 일어났구만. 됐소, 잘됐소.》

그는 의아하여 쳐다보는 덕산에게 환희에 넘치는 목소리로 계속하였다.

《왜 얼빠진 사람처럼 날 보는거요? 여보 덕산동무, 이젠 우리 조선사람들이 살길이 열렸소.》

《도대체 무슨 소릴 하는겁니까?》

《다홍왜에서 동만당단특위련석대회가 열렸다오. 그 대회에서 **김일성**장군님께서 반〈민생단〉투쟁의 좌경적오유들을 낱낱이 까밝히시였다오.》

《그게 정말입니까?》

덕산의 우물속같던 두눈이 초롱불이 켜진듯 번쩍거렸다.

《내가 무엇때문에 헛소리를 한단 말이요?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북만원정의 길에서 돌아오시자 원정에서 쇠약해지신 몸도 돌보지 않으시고 조선혁명의 운명을 지켜 좌경분자들과 투쟁을 벌리시였소. 그래서 극좌적인 오유들을 다 시정하도록 하시였소.》

《그게 사실이란 말이지요? 내 그럴줄 알았지요. 하늘이 무심치 않으리라고 생각했지요.》

이렇게 뇌이는 덕산의 두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였다.

눈이 내리고있었다. 덕산은 눈송이들이 날리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희뿌연 하늘에서 태양이 빛나고있었다. 안개발이 피여 연기처럼 태양을 가리워버린다. 아쉬움을 느끼는데 이어 다시 태양이 안개발을 밀어

던지고 빛을 뿌린다.

(그럴테지, 그렇구말구.)

그는 다시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아, **김일성**동지! 민족의 태양! 지금 어디에 계시옵니까?)

덕산은 왕덕태군장이 자기를 부른다는 현정부일군의 말을 듣고 한순간 온몸을 사로잡았던 감격과 흥분에서 벗어났다.

《무슨 일때문입니까? 이 〈민생단〉 협의자가 군장동지에게 무슨 필요가 있다는겁니까?》

《이젠 그 〈민생단〉이라는 소릴 그만두오. 군장동지는 원래부터 덕산동무를 믿고있었소. 유격근거지에서 강정익동지의 희생을 두고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한분이 군장동지가 아니였소?》

덕산은 머리를 숙이였다. 강정익에 대한 말만 들으면 예리한 칼날이 가슴을 마구 허비는듯 쓰리고 아픈 덕산이였다.

이들의 말을 듣고있던 어머니도 울었고 아버지는 감심한 표정으로 연신 머리를 끄덕거렸고 아들애는 좋아서 어쩔줄 모르며 다가와 덕산의 팔을 잡는다.

《아버지, 그럼 나도 근거지에 돌아가 아동단생활을 할수 있지요?》

《그렇구말구.》

잠시후 덕산은 마음을 다잡고 현정부의 일군과 함께 유격대지휘부를 찾아가 군장을 만났다. 오래동안 조선혁명가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군장으로까지 발전한 이 체소하고 얼굴이 거밋한 중국인혁명가는 조선말에도 능하고 조선사람들에 대한 리해와 동정이 깊은 사람이였다. 그는 지난날 박덕산이 적구지하공작과 반일부대공작에서 거둔 공적을 잘 알고있었다. 그는 반일부대공작임무를 주기 위해 덕산을 불렀던것이다.

왕덕태는 지금 반일부대들이 곤경을 겪고있는데 그들에게 혁명적영향을 주어 끝까지 왜놈들과 싸우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면서 부언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반일부대가 어려운 처지에 빠져있다고 크게 근심하고계십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근심하신다는 군장의 말이 반《민생단》투쟁의 회오리바람속에 싸늘하게 식어버렸던 덕산의 가슴에 불을 지피였다.

3

음침하게 흐린 하늘에는 먹장구름들이 뭉게뭉게 타래치고있었다. 그 먹장구름들은 봄을 맞아 질푸르게 초목이 살아오르는 처창즈유격구 마을들을 심술궂게 내려다보는것만 같았다. 마을의 뒤산 중턱 자작나무, 봇나무들이 우거진 속에 하나의 봉분이 솟아있는데 허우대 큰 사나이가 그앞에 머리를 숙이고 서있었다. 25살의 젊은이였지만 검스레하니 볕에 타고 뾰족하니 여윈 그의 얼굴에는 고뇌와 슬픔의 빛이 겹치고 또 거기에 심각한 사색의 빛이 감출수없이 우러나와 어지간히 나이를 먹은 중년을 방불케 하였다. 그는 어제날의 《민생단》혐의자였던 박덕산이였다.

지금 덕산은 전영림반일부대공작을 위해 유격근거지를 떠나게 되면서 한을 품고 땅속에 누워있는 강정익을 찾아왔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친다. 묘소주위에 우거진 자작나무들이 흔들리며 울부짖는다. 묘소를 향해 머리를 숙이고 서있는 박덕산의 두눈에는 눈물이 그렁하였다.

(강정익동지, 이젠 더는 일어날수 없는것입니까. 원통합니다, 정말 원통합니다.

동지의 유언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구세주로 높이 받들고 혁명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갈것입니다.)

덕산은 강정익에게 마음속 말을 하고나서 머리를 숙여 하직인사를 하였다.

이윽고 그는 처창즈의 산과 강, 유격구마을을 맹세가 불타는 눈길로 바라보다가 힘있게 걸음을 내짚었다.

오전에 처창즈를 떠난 박덕산은 저녁녘이 다 되여서야 전영림반일부대가 자리잡고있는 산에 당도하였다. 서쪽하늘에 누렇게 번져가는 황혼빛이 키높은 이깔나무들의 푸른 웃초리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여가고있었다.

덕산이 얼굴에 질펀히 내배는 땀을 닦으며 산발을 타고 오르는데 앞쪽에서 《서라!》하는 명령조의 중국말소리가 울려왔다. 도퉁을 어깨에 걸친 반일부대병사가 바위우에 앉아서 덕산을 바라보고있었다.

덕산은 저도 모르게 후 하고 숨을 내쉬였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았던것이다.

《로형, 안녕하시우? 산에서 고생많겠소.》 하고 덕산은 그 병사를 향해 류창한 중어로 인사말을 던지였다.

병사는 바위우에 걸터앉아 두다리를 흔들거리다가 옆에 대고 말하였다.

《우리 동포로구만. 어떻게 하자나?》

그러자 숲속에서 아편대통을 입에 문 병사가 또 한명 나타났다.

《뭐, 동포라구? 혹시 왜놈의 밀정인지 누가 알아?》

아편대통을 문 병사는 걸탐스레 아편연기를 삼키며 덕산에게 물었다.

《야, 넌 어디로 가는 길인가?》

《전영림대장을 찾아가는 길이요.》

《뭐 전영림대장?… 허, 이것 봐라. 우리 대장님의 성함을 알고 온걸 보니 밀정이 틀림없어. 어서 배낭을 풀어놔, 수색해봐야겠다.》

아편연기를 삼킨탓에 기분이 좋아진 대통을 문 병사가 히죽히죽거리며 노래하듯 엮어대였다.

《어서 이 어르신님께 대접할걸 내놓으시지. 빵이면 빵, 떡이면 떡, 아편이면 아편, 돈이면 돈… 반일하는 어른들은 마다하는게 없다구요.》

《화센(경계가 엄중하군.).》 덕산은 웃으며 반일부대들속에서 통용되는 은어로 대꾸하였다.

지난날 반일부대들속에 들어가 많이 공작한 경험이 있는 덕산은 그들의 은어를 잘 알고있었다. 덕산이 던지는 한마디 말에 두 반일병사의 눈이 퀭해졌다.

《어, 그러니 우리와 한족속인가? 그래 우리 대장님은 왜 만나자는거야?》

《잔말말고 날 대장님께 안내하라구, 후날 경치지 말고…》

덕산은 뚝 눈을 부릅뜨며 엄포를 놓았다. 어수룩하게 보였다간 행패질을 하며 짐을 몽땅 털고 쫓아버리든가 심심풀이하듯 매질을 가해올

수도 있었다.
덕산의 당당한 태도에 기가 질렸던지 두 병사는 이마를 마주대고 수군수군하더니 아편담배를 피우던 병사는 남고 다른 한명이 그를 이끌고 숲속의 한 귀틀막으로 데리고 갔다.
막안으로 들어가니 바닥에 마른풀을 깔고 그우에 모포 두장을 펴놓았는데 모두 세명의 군인들이 보였다. 한명은 모포우에 드러누워 잠을 자고있었고 두사람은 마주앉아 마장을 놀고있었다.
아마 부대 초입에 자리잡은 보초막인듯싶었다.
덕산을 데리고간 병사가 마장을 노는 두사람을 향해 말하였다.
《패장님, 이 사람이 대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기에 데려왔습니다.》
목갑총을 엉치쪽에 드리우고 문쪽을 등지고 돌아앉은 사람이 패장인듯 마장쪽을 바닥에 내려치며 소리를 질렀다.
《어떤 건방진 자식이야?》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는데 텁수룩하게 구레나룻은 나있었으나 눈빛과 매끈한 살결로 미루어 아주 젊은 청년이였다.
고수머리에 매부리처럼 날이 선 코날, 앞이 한대가 빠진것이 흠이라 할수 있지만 잘 생긴 미남형의 그 청년을 보는 순간 덕산은 깜짝 놀랐다.
《아니, 너 한영덕이 아니야?》
패장이라는 그 청년의 얼굴에도 반가운 웃음이 확 피여올랐다.
《덕산형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예요?》
한영덕은 벌떡 일어나 덕산을 얼싸안고 돌아갔다.
《야, 모두 인사들 해. 내게 형님되시는분이야.》
한영덕이 자기 부하들에게 절을 시키겠다고 하기에 덕산은 당황해났다.
《영덕이, 그만해라. 내가 이런 절을 받고 좋아할 사람이 아니지 않나.》
《그래도 모르는척 하고 받으시라요.》
영덕은 자는 병사까지 깨워서 덕산에게 절을 시키였다.
그만큼 박덕산을 만난 한영덕의 기쁨은 말할수없이 컸던것이다.
한영덕은 4년전 덕산이가 가족과 함께 연길현 소오도구라는 산골에서 살 때 헐벗고 지친 몸으로 그의 집에 들어왔었다. 그때 15살이

였던 소년 한영덕은 부모를 다 잃은 고아로 남만땅 어디엔가 살고있다는 형을 찾아가는 길이였는데 굶주리고 지치여 더 갈수 없는 형편이였다. 덕산은 영덕을 자기 집에 들이고 일주일동안 먹여주며 몸을 추세워주었고 그가 다시 떠나겠다고 할 때는 로자까지 보태여주었었다. 한영덕은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덕산이네 가족과 헤여졌다. 그런데 덕산이 반일부대에 와서 뜻밖의 해후를 하였던것이다.

《그런데 넌 어떻게 여기 와있는거냐?》

덕산의 물음에 영덕은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시들하게 대답하였다.

《살길을 찾다가 결국은 구국군에 들어오게 되였지요. 헌데 형님은 무슨 일로 우리 대장을 찾아오는가요?》

《나야 왜놈들과 싸우러 왔지.》 덕산은 웃으며 말하였다.

4

전영림반일부대의 패장 한영덕은 동료들에게 자신의 지난날에 대하여 말하기를 싫어하였다. 그것은 그자신이 아직 마음을 터놓을만 한 벗을 찾지 못하였고 또 자존심이 남달리 강하여 우는 소리는 그 누구에게든 할 필요가 없고 오직 힘과 능력으로 남들을 누를 때에만 많은 것을 성취할수 있다고 간주하였기때문이였다.

사실 그의 지난 생활은 불우하였다.

덕산의 집을 나선 후에도 한영덕은 이미전에 중국 동북으로 건너간 형을 찾아 방랑생활을 계속하였다. 빌어도 먹고 때로는 어떤 부자집에서 머슴을 살며 몇달을 보내기도 했고 목재소에서 소년로동도 했으며 현성의 상점에서 심부름군으로 일하다가 도적의 루명을 쓰고 단벌옷이 찢어지도록 매를 맞고 쫓겨나기도 했다. 그속에서도 열다섯살소년에게 한가닥 힘을 안겨준것은 이제 형을 만나면 만사가 풀리게 되리라는 희망이였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저녁 영덕의 지친 다리는 그리 크지 않은 마을에

있는 주막집에서 접히였다. 게딱지같은 초라한 집들이 널려있는 볼꼴없는 마을의 유축에 위치한 주막집은 제법 넉넉하고 포실한 여러칸짜리 중국식기와집이였다. 주막집에서 풍기는 구수하고 달콤한 음식냄새가 영덕의 허기진 창자를 뒤집어놓는것만 같았다. 다행히 영덕의 다 해진 베잠뱅이적삼 호주머니에는 누군가에게서 받은 동전 두잎이 들어있었다. 영덕은 그 동전 두잎을 꽉 그러쥐고 주막집안으로 들어갔다. 식당에서는 더러운 옷차림을 한 쿠리풍의 사내들이 식탁을 차지하고 권커니작커니 떠들썩하게 술을 마시는가 하면 조용히 혼자 앉아 짜장면을 먹는 농군도 있고 바지저고리차림의 사내가 섞인것을 보아 조선사람들로 보이는 몇사람이 시름겨운 낯색으로 서로 멍하니 쳐다보며 술병을 기울이는 모습도 보이였다. 영덕은 접대하는 녀인에게 호떡 한그릇을 청해다가 빈 식탁을 찾아가 앉았다. 고소한 호떡냄새를 기분좋게 한번 들이키고나서 허겁지겁 먹어대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다음끼니를 생각하고 호떡 몇개를 종이에 싸서 주머니속에 건사해두는것을 잊지 않았다.

이때 조선사람들속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 영덕을 여겨보다가 슬그머니 그의 앞에 와앉았다. 로동복차림에 수건으로 이마를 질끈 동인 그 사람이 문득 물었다.

《너 영덕이가 아니냐?》

영덕은 깜짝 놀라 머리를 쳐들었다. 그리고 《아저씨!》 하고 소리치며 일어섰다. 영덕은 형과 함께 집을 떠났던 한마을사람을 만났던것이다.

《네가 맞구나. 난 비슷한 애도 다 있구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더랬지. 그런데 네가 어떻게 여기에 나타났느냐?》

《형을 찾아다니고있어요.》

《네 형을 찾는단 말이지?》

《그래요. 형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나요?》

《형?…》

고향사람은 눈길을 어디에 둘지 몰라 허둥거리였다.

《아저씨랑 같이 만주로 가지 않았어요?》

고향사람은 대꾸없이 한손을 뻗쳐 영덕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그리고 접대원에게 술 한병을 청하였다.

《그래, 나랑 함께 만주에 와서 일했댔지. 더러운 놈의 세상…》

그는 푹 한숨을 내쉬고나서 계속하였다.

《우린 왜놈이 경영하는 탄광에서 일했다. 그러다가 네 형님은 그만 잘못되고말았구나. 락반사고가 났지.》
《아니예요!》
영덕은 벌떡 일어서서 소리쳤다. 주막집안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았다.
《그건 거짓말이예요.》
영덕은 두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밖으로 내달았다. 주막집울타리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울었다. 그처럼 의지하고싶어 찾던 형님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그 소리가 마치 하늘이 무너진다는 소리처럼 들리였다. 고향사람이 다가와 위로하듯 영덕의 등을 두드려주었다.
《나랑 같이 고향에 돌아가자. 나도 이젠 탄광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길이란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죽었는데 어떻게 돌아간단 말이예요?》
《그게 정말이냐?》
《전염병이 돌아 다 죽었어요. 집에서 나 혼자 남았어요.》
영덕은 고향사람의 손을 뿌리쳐버리였다. 그가 자꾸 무어라고 말하면서 영덕을 얼리였으나 귀에 들어오는 소리는 하나도 없었다. 어쨌든 그와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싶은 생각은 꼬물도 없었다.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간 후 천대와 멸시만을 받다가 한을 품고 떠나온 그곳에 조그마한 미련도 없었던것이다.
《그럼 맘대로 하렴. 억지로 데리고 갈수는 없으니까. 난 길이 바빠 가야겠다.》
고향사람은 영덕의 호주머니에 지전 몇장을 쑤셔넣어주고 떠나가버리고말았다.
어느덧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설음과 절망감에 사로잡힌 영덕은 어찌할바를 잊고 주막집앞에 퍼더버리고 앉아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행의 구렁텅이로 깊숙이 빠져드는것만 같은 기구한 운명의 원인이 무엇때문인지 도저히 알수가 없었다. 허기져 쓰러졌던 자기를 집에 업어들이고 돌봐준 형님과도 같이 인정깊은 사람인 박덕산이 하던 말이 생각났다.
《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네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저 그 원쑤놈들을 하루빨리 쳐없애고 나라를 찾아야 하는거다.》
그때는 박덕산의 말이 리해되는듯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꼭 들어

맞는것 같지도 않았다. 조선사람들중에서도 자기만이 특별히 더 불행한것만 같았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것인가? 눈앞이 아뜩해지는 속에서 박덕산의 수더분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 형님을 다시 찾아가볼가?

어디선가 털이 누런 강아지 한마리가 나타나 지그시 영덕을 바라보았다. 갈비뼈가 앙상하고 삼각형모양으로 흰털이 돋아난 배가 홀쭉한것을 보니 어미나 집을 잃고 방황하는 강아지인듯싶었다. 축 처진 귀박죽이며 물기가 어린 동그랗고 까만 두눈에 어쩐지 슬픔이 어려있는것만 같았다. 영덕은 주머니를 뒤져 좀전에 주막집에서 넣어두었던 호떡 몇개를 꺼내여 발치에 놓았다. 누렁개는 슬렁슬렁 다가와 호떡을 먹기 시작하였다. 영덕은 자기처럼 불쌍해보이는 강아지를 쓸어주었다. 강아지는 호떡을 다 먹고나서 동정을 구하듯 영덕의 손을 핥으면서 안겨들었다. 왜서인지 갑자기 사그라들었던 설음이 북받쳐올라 강아지를 끌어안고 털에 얼굴을 묻으며 흑흑 느껴울었다. 그때 주막집안에서는 술에 취한 어느 나그네가 부르는 타령소리가 쓸쓸하게 울려나오고있었는데 그 타령소리가 더욱더 그의 마음을 애달프게 해주었다. 그래서 그의 눈에서는 더욱더 슬픈 눈물이 쏟아져내렸다.

《얘, 너 왜 그렇게 울고있니?》

녀인의 살뜰한 목소리를 듣고서야 영덕은 강아지의 북실한 등에 틀어박고있던 얼굴을 쳐들었다. 등에 어린애를 업은 애젊은 녀인이 그를 동정어린 눈길로 내려다보고있었다. 저녁녘의 어슴푸레한 빛속에서도 녀인의 모습은 선녀처럼 아름답게 그의 눈에 안겨들었다.

《너 밥을 먹지 못한 모양이구나. 자, 여기 빵이 있는데 어서 먹어라.》

녀인은 마치 누이처럼 다정하게 말하며 찐빵 한개를 내밀었다.

영덕은 의아하여 눈물에 젖은 얼굴로 녀인을 멍히 쳐다보았다. 돌아간 어머니를 내놓고는 아직까지 그 어떤 녀인도 살뜰하게 자기를 대해준적이 없었다.

《왜 그렇게 보니? 어서 먹어라.》

영덕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럼 넌 왜 우는거니?》

이렇게 물으며 녀인은 그의 곁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는 이처럼 다

정한 녀인에게 자기의 슬픔을 몽땅 털어놓고싶은 충동을 느끼였다.
《조선에서 형님을 찾아왔는데 형님이 탄광에서 일하다가 그만 죽었대요.》
《형님이 죽었다구? 에구… 그런 일이 있었댔구나. 글쎄 내 어쩐지… 참 안됐구나. 그럼 넌 이제 어디로 가야 하니?》
《모르겠어요. 난 아무도 없어요.》
《아니, 아무도 없다니?…》
이윽고 그는 어머니처럼, 누이처럼 다정한 그 녀인에게 자신의 신상에서 일어난 모든것을 다 이야기하였다.
녀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을 보면서 영덕은 가슴이 찌르르해졌다. 아, 얼마나 마음씨 고운 아주머니인가. 이런 아주머니가 곁에 있어준다면 그 어떤 슬픔도 불행도 다 이겨낼것만 같았다.
녀인은 치마저고리 옷고름으로 연신 눈물을 닦아내더니 말하였다.
《어디 가나 우리 조선사람들은 불쌍하구나. 나도 몇년전에 헤여진 남편을 찾아가는 길이란다.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내가 네 누이가 되여줄게. 얼마간 먹어도 같이 먹고 굶어도 같이 굶으면서 어디 한번 가보자. 이제 만나보면 알겠지만 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란다. 애아버지를 찾으면 안착된 생활을 할수 있을거야. 애아버지한테서 집을 다 잡아놓았으니 빨리 오라는 편지가 왔단다.》
녀인은 품속에 소중히 간직하고있던 편지를 영덕에게 꺼내보였다.
《고마워요.》 하고 영덕은 중얼거리듯 말하였다.
녀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어보이였다.
《고마울게 있니? 너같은 동생이 있으면 내겐 힘이 되는거란다.》
어느 사이엔가 영덕의 가슴속에는 이 녀인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도 아까울것 없다는 고마움과 믿음의 감정이 꽉 차버렸다. 하여 영덕은 처음 만난 녀인에게 선뜻 자기의 앞날을 의탁하게 되였다.
녀인의 이름은 리정애였다. 정말 정애는 동생처럼 영덕을 위해주었고 영덕은 친누이처럼 정애를 따랐다. 그는 전염병에 걸려 죽은 누이가 살아있다고 해도 정애처럼 다정하게 자기를 대해주지는 못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생활은 영덕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안도현의 어느 인적드문 길에서 그들은 토비들에게 붙잡혀 그놈들의 소굴에 끌려가게 되였던것이다.

한 50여명의 부하들을 거느린 두령은 《천백룡》이라는 요란한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은 잔인한 악행들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해치우는 피비린 행적으로 하여 린근사람들에게서 공포의 대명사로 불리우고있었다. 또 이놈은 색광으로도 유명하여 자기 소굴에 두명의 녀편네를 거느리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운 녀자들을 보면 강간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놈이 제 소굴에 끌려온 리정애를 보고 대뜸 반하여 자기의 세번째 처로 맞아들이겠다고 선포할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그 두령놈에게는 정애에게 남편이 있고 또 두살잡이 어린애가 달렸다는것도 상관이 없었다.

정애가 말을 듣지 않자 놈은 하루동안 생각할 시간을 준다고 하면서 그들을 창고에 가두게 했다. 창고에는 이미 두명의 인질들이 갇혀있었다. 한명은 중국사람이였고 다른 한명은 젊은 조선녀인이였다. 그들은 가족측에서 방포(인질을 찾기 위해 바치는 돈)를 내야만 놓여나갈수 있는 사람들이였다.

정애는 어찌할바를 몰라 울기만 했고 영덕은 격분하여 가슴만 풀떡거리다가 이미 창고에 갇혀있던 조선녀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고 물어보았다. 알고보니 그 녀인은 돈푼이나 있는 의원집 며느리인데 집에서 인차 돈을 마련해가지고 데려가기로 되여있었다. 그 의원집 며느리는 이 《천백룡》에게 강요당하면 빠지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측은한 눈으로 정애를 바라보았다.

《마음을 굳게 먹어요. 혹시 귀인이 나타나서 구원해줄는지…》 하고 그 녀인은 정애를 위로해보려고 했다.

하루동안 시간을 준다던 토비놈들이 저녁이 다 되였을무렵 갑자기 정애를 불러냈다. 정애는 무슨 예감이 들었던지 품에 간수하고있던 남편의 편지를 영덕에게 맡기였다.

《영덕아, 이 편지를 건사하고있어.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가지고 애아버지를 찾아가거라.》

정애는 문쪽으로 가다가 다시한번 영덕을 돌아보았다. 무슨 말을 할듯 하다가 그만두고 창고에서 나갔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본 살아있는 다정한 녀인의 모습이 될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창고밖에서 토비들이 벅적 떠드는 소리, 정애의 울부짖음소리, 어린애의 울음소리가 들리다가 사라져버렸다.

《이놈들아, 문열어라.》

영덕은 악이 나서 발길로 창고문을 쾅쾅 걷어찼다. 이윽고 토비 두놈이 와락 문을 열어제끼고 들어와 무작정 몽둥이를 영덕에게 휘둘러댔다.

《자식, 두령님이 누나를 호강시켜주겠다는데 뭐가 맞갖지 않다는거야. 두령님이 오늘 결혼식을 방해하는 놈은 사정없이 죽이겠다고 했으니 찍소리말고 있어.》

영덕이 매를 맞고 쓰러졌는데 놈들은 정애가 업고나갔던 어린애까지 창고안에 들여다놓고 문을 덜컥 닫아버렸다. 기신없이 쓰러졌던 영덕은 겨우 일어나앉아 우는 애를 그러안고 달래였다.

《영민아, 울지 말아. 엄마가 이제 인차 돌아온다.》

토비들이 리정애를 억지로 결혼식장에 끌어갔다는것을 영덕은 후날에야 알았다. 두령놈에게는 하루동안 기다려줄 너그러움도 체면도 없었다.

밖에서는 피리에 맞추어 부르는 토비들의 게걸스러운 노래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저들끼리 소란스럽게 싸우는 소리도 들려왔다. 두령놈이 잔치상을 크게 벌려놓았던것이다.

그날 밤 소동이 일어났다. 리정애가 치욕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무에 목을 매달고 목숨을 끊었다.

이름모를 숲속에 불쌍하고 억울하게 목숨을 버린 조선녀인이 묻힌 무덤이 생겨났다. 영덕은 무릎을 꿇고앉아 그 무덤가의 흙을 움켜쥐고 자꾸만 몸을 떨었다. 친누이처럼 사랑하고 따르던 녀인의 죽음앞에서 영덕은 울지 않았다. 울고싶어도 눈물은 나오지 않고 《끅—끅—》하는 갈린 소리만이 목구멍에서 새여나왔다.

이 세상은 다시한번 영덕을 걷어차버렸고 망국노의 뼈저린 아픔과 분노를 가슴속에 서리서리 뭉치게 해주었다. 영덕의 피발진 두눈에는 린광처럼 퍼런빛이 뿜어나오고있었다. 복수의 갈망이 뼈속에서 소리내여 우는것만 같았다. 그밤으로 영덕은 때없이 슬픔에 울고 처지를 한탄하면서도 천진하기도 했던 자기의 소년시절과 결별하였다.

그후 《천백룡》토비부대에는 약삭바른 소년토비가 두드러지는 존재로 나타났다. 체격이 옹골차고 날파람있는 소년은 거치른 토비들의 심

부름을 곧잘 들어주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 환심을 샀다.
소년은 사냥에 재간이 있어 자체로 옹노를 만들어 짐승길에 놓아 산토끼나 노루를 잡아 두령에게 가져다바침으로써 메기입처럼 큰 두령의 입이 헤 벌어져 귀밑까지 찢어지게 만들군 했다.
《괜찮아, 복덩이가 굴러들어왔군.》 하고 두령은 소년의 등을 두드려주었다.
소년은 다름아닌 한영덕이였다. 영덕은 리정애의 시신을 묻은 후에 갈 곳이 없다고 하면서 토비소굴에 남아있었던것이다.
어느날 두령은 몇명의 충실한 부하들을 데리고 심심풀이삼아 울창한 숲으로 사냥을 갔는데 영덕이도 동행하게 되였다.
일행은 그만에야 황소만 한 갈색곰과 맞다들리게 되였다. 토비들의 선불질에 독이 오른 갈색곰이 미친듯이 달려들자 토비들이 혼비백산하여 들고 뛰였다. 그래도 담이 큰 두령이 허우대 큰 체통으로 버티고서서 사냥총을 쏘았다. 그러나 곰은 쓰러지지 않고 사납게 울부짖으며 그냥 두령에게 덤벼들었다. 위기일발의 순간 영덕이 도망치는 한 토비에게서 마상대를 빼앗아들고 정확한 묘준사격으로 곰의 드러난 앞가슴부위의 급소를 쏘아맞혔다. 어린시절부터 아버지에게서 배운 사격솜씨,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익히고 어른들의 감탄을 자아내던 그 사격솜씨가 여전히 그의 정신과 육체속에 잠재해있었다. 곰은 마침내 두령의 발치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네다리를 버둥거리였다. 뒤로 벌렁 나가넘어진 두령의 바위돌같은 얼굴에는 식은땀이 질펀하였고 가로 째진 큰 입술이 푸들푸들 떨리고있었다. 두령은 영덕의 부축임을 받아 일어섰다.
《개자식들…》
그는 누군가를 욕질하며 두덜거리더니 영덕이를 한팔로 와락 잡아당겨 그러안았다.
《네가 날 구원해주었구나.》
이때부터 영덕은 두령의 각별한 신임속에 호위병으로 되였고 토비들은 누구나 그를 두려워하게 되였다.
얼마후에 전영림의 반일부대가 《천백룡》토비부대에 대한 소탕작전을 벌리였다. 전영림은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있는 이 토비무리들을 징벌할 결심밑에 면밀한 작전을 세우고 이 습격전투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위험한 토비생활속에서 촉감이 예민해지고 도망치는데 남다른 장끼를 가지고있는 두령은 영덕을 데리고 반일부대병사들의 포위속에서 빠져나갔다. 반일부대병사들이 추격하는데 두령놈은 마치도 노루처럼 빠른 속도로 잡관목이 널린 산탁을 내달렸다. 영덕이 바싹 그 뒤를 따랐다. 잠시후에는 반일병사들의 추격의 총소리가 점차 멀어지고 깊은 수림속에 들어서게 되였다.

두령놈이 이젠 살았다고 생각하며 걸음을 늦추고 긴숨을 내쉬는데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울리였다.

《서라!》

두령놈이 화들짝 놀라 돌아섰다. 한영덕이 기병총을 겨누고 서있었다. 두령놈은 영덕의 치째진 두눈에서 금시 자기를 태워버릴듯 뿜어나오는 증오의 불줄기를 보고 몸을 떨었다. 그리고 영덕이 더는 소년이 아님을, 그 누구도 당해내기 어려운 당당한 사나이임을 깨달았다.

《네가?》

《총을 던져라.》

《너 왜 그러느냐?》

두령놈은 권총을 던지는척 하다가 옆으로 엎어지며 영덕을 쏘았다. 그러나 영덕은 더 날래였다. 어느새 그의 기병총이 불을 뿜었고 놈은 권총을 떨구고 왼손으로 총알에 맞아 피흐르는 오른손을 감싸쥐였다.

《네가 왜 나를?…》

놈은 믿어지지 않는지 거적눈을 흡뜨고 영덕을 올려다보았다.

《무릎을 꿇어라, 어서!》

영덕이 당장 방아쇠를 당길듯 위협하자 놈이 엉거주춤 무릎을 꿇었다.

《네가 내 누님을 죽게 만든것을 벌써 잊었는가?》

《그 녀자야 네 친누나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친누나보다 더 귀중한 녀자였다. 난 누님의 무덤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손으로 널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이젠 사연을 알았으니 맹세대로 널 죽이겠다.》

영덕은 두령놈을 향해 총을 한방 쏘았다. 놈이 머리를 땅에 구겨박고 꿈틀거리였다.

《조선사람들이 언제나 구박당하기만 하고 살지 않는다는것을 알

고 죽어라.》

영덕은 씹어밸듯 말하고 다시금 방아쇠를 당기였다. 두령놈은 걸레짝처럼 되여 너부러지고말았다. 영덕은 놈의 시체에 침을 뱉고 돌아섰다. 그리고 추격하며 달려온 반일병사들에게 총을 바치고 포로가 되였다.

전영림이 두령을 사살한 한영덕을 만나주었다. 전영림은 영덕에게서 자기 두령을 죽이게 된 사연을 듣고나서 리해가 되는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이윽고 그는 영덕에게 물었다.

《우리 부대에 들어와 싸울 생각은 없나? 우린 동북을 강점하고 중국사람, 조선사람들을 다 못살게 구는 일본놈들과 싸우는 사람들이요.》

《절 받아준다면 왜놈들과 싸우겠습니다.》

영덕은 박덕산의 집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덕산의 교양을 받았고 또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조선사람들에게서 나라를 빼앗고 죽음에로 내모는 왜놈들이야말로 자기가 복수해야 할 불구대천의 원쑤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오직 복수의 길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극악하기로 소문난 토비두령은 죽였지만 왜놈들은 아직 한놈도 잡지 못하였다. 하여 영덕은 왜놈들을 죽이기 위해 전영림의 반일부대에 입대하였다.

그는 총 잘 쏘고 전투에서 두려움을 모르는 용맹무쌍한 병사로 되였고 2년후에는 통솔력있는 패장으로 되였다.

5

한 여름의 해별이 뜨겁게 내려쪼이는 밀영지의 훈련장에서 패장 한영덕은 자기가 거느린 병사들의 사격동작훈련을 봐주고있었다.

중키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한영덕은 꼭 맞는 누런 군복의 팔소매를 팔굽까지 걷어올리였고 목깃을 열어제끼였다. 구레나룻이 시커멓게 돋아나고 치째진 두눈을 매섭게 찌프린 그는 매끈한 얼굴에 엄격한 빛을 띄우고 꿇어사격동작을 하는 병사들에게 큰소리를 쳤다.

《똑바로 자세를 취하라. 훈련은 놀음이 아니다.》

그는 엉치가 땅에 붙은 한 병사의 말궁둥이처럼 큰 엉치를 발길로 가볍게 찼다.

《엉치가 무거워서 그래? 일어섯! 일어섰다앉았다 동작을 열번 반복할것! 시작!》

덩치가 큰 병사가 총을 한손에 쥐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일어섰다앉았다 다시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보며 다른 병사들이 키드득거렸다.

《웃지들 말것!》

영덕이 성칼지게 소리치자 병사들은 찔끔해서 목을 움츠러뜨리였다.

이때 훈련장으로 박덕산이 걸어왔다. 키가 후리후리하고 뼈대가 굵은 체격에 늘쌍 심중한 빛이 둥실한 얼굴에 어려있는 덕산은 소박한 군복차림으로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고있었지만 어쩐지 닭무리속의 봉황처럼 표가 나는 존재였다.

영덕은 신뢰어린 눈길로 덕산을 바라보았다.

4년전에 덕산의 집에서 병든 몸을 추세우며 밥을 얻어먹을 때 벌써 영덕은 그가 그저 농사나 지어먹으며 사는 천덕꾸러기가 아님을 느끼였었다. 덕산은 하루종일 집을 떠났다가 밤에 들어오는적이 많았고 영덕에게 이 세상 리치에 대해 알기 쉽게 이야기해주면서 조선사람들은 조국해방을 이룩하기 위해 일제놈들과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군 했었다. 덕산에게서는 보통사람들과는 다른 그 어떤 기품이 엿보이는것이였다. 그런데 박덕산이 반일부대에 입대하겠다고 우정 찾아왔다는 사실이 영덕에게는 잘 납득이 가지 않았다. 이 동만에 왜놈들과 싸우는 조선인유격대도 있다지 않는가. 영덕이자신이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영림부대에 들어왔다치고 덕산이야 무엇때문에 중국인반일부대에 찾아온단 말인가.

박덕산이 사유를 털어놓지 않았지만 한영덕은 무슨 까닭이 있을것이라고 제나름으로 생각을 굴려보며 덕산을 주시하고있었다.

덕산은 벌써 자신이 보통 막사람이 아니라는것을 생활의 요소요소에서 드러내보이였다. 그는 붙임성이 좋은 소탈한 성격과 동료들을 형제처럼 도와나서는 의협심으로 대원들의 호감을 샀고 어느 사이엔가 주위에 사람들을 묶어세우고있었다. 더우기 세상돌아가는 이야기나 중국의 력사, 일화들을 구수하게 잘 이야기하여 병사들이 그의 말을 듣겠

다고 모여들군 하였다. 덕산의 사람됨을 전영림이 응당하게 평가했는지 그는 인차 부대의 선전간사로 임명되였다.

영덕은 자기가 형님으로 따르는 덕산의 인기가 올라감에 따라 같은 조선사람으로서 은근히 자부심이 생기였다. 평소에 그는 조선사람이 망국민이라는데로부터 많이 자존심이 상해있던터였다. 그래서 중국인 병사들을 엄격히 대하며 위신을 차리게 되는것인지도 몰랐다.

박덕산은 한영덕에게 눈인사를 하고나서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무더운 날씨에 훈련을 하느라 수고들 합니다.》

병사들이 덕산을 보고 웃으면서 머리를 끄덕끄덕하였다.

《일본놈들과 싸워이기자면 훈련을 잘해야 합니다. 총도 제대로 못 쏘면 그놈들이 우릴 허수아비군대로 여기게 되지요. 그놈들이 신식무장을 갖추고 정규적인 훈련을 받은 군대라지만 우리가 높은 애국심을 가지고 정신육체적으로 자신들을 단련해가면 능히 그놈들을 쳐물리칠수 있습니다. 한패장, 그렇지 않습니까?》

《박간사님의 말이 전적으로 옳소.》 한영덕이 수긍하였다.

덕산은 처벌을 받은 병사의 기분을 눅쳐주려는듯 그 병사에게서 총을 달래더니 자신이 능숙하게 꿇어사격자세를 취해보이였다. 지난날 여러 반일부대들에서 공작을 하며 다년간 병사들과 훈련도 함께 한 전적이 있는 덕산은 모든 제식동작이 몸에 배여있었다.

《한패장, 봐주시오. 내 자세가 어떻습니까?》

《정확합니다. 간사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란 말이요.》

영덕은 처벌을 받았던 덩치 큰 병사에게 말하였다. 농군출신의 그 병사는 헤식은 웃음을 짓고 말하였다.

《잘해보겠습니다.》

이윽고 영덕은 병사들에게 휴식구령을 주고나서 덕산과 함께 밀둥 실한 참나무 그늘속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왔어요?》 영덕은 조선말을 자유롭게 하는 쾌감을 느끼며 물었다.

《그저 영덕이 보고싶어서 찾아나왔지.》

덕산은 담배쌈지를 풀어놓고 영덕에게 권하고 한대 피워물었다.

그는 담배연기를 내뿜다가 입을 열었다.

《영덕이가 병사들을 지내 엄하게 대한다는 말이 있더구만.》

《그럴수 있지요. 하지만 부하들을 너무 어루만지면 안되는거예요.》
《그렇다고 직권으로만 내려누르려고 하면 어느 병사가 너를 진심으로 따르겠니?》
영덕은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고 궁싯거리다가 괜히 한손으로 발치의 풀대들을 잡아뽑았다. 그는 새파란 잔디밑에서 활발하게 기여다니는 개미들을 보면서 생각하고있었다.
(확실히 덕산형님은 보통사람이 아니야. 혹시 형님이 공산당이 아닐가?)
덕산이 담배꽁초를 쥐여던지고나서 군복웃주머니에서 면도칼 한개를 꺼내 영덕에게 내밀었다.
《옛다, 내 너를 위해서 하나 마련했다.》
《아니, 이건 갑자기 왜 내게 주는거예요?》 영덕은 의아한 눈길로 덕산을 보았다.
《새파랗게 젊어가지고 수염을 시커멓게 자래놓으니 늙은이같은게 보기가 딱하구나.》
덕산의 핀잔조의 말에 영덕은 저도 모르게 턱을 쓸어만졌다. 억세여보이는 그의 턱에는 구레나룻이 텁수룩하게 돋아있었다. 영덕은 시뭇이 웃으며 장알박힌 손바닥으로 면도칼을 든 덕산의 손을 밀었다.
《내가 뭐 면도칼이 없어서 그러는줄 알아요? 우정 잘 깎게 되지 않는걸요. 얼굴이나 잘 가꾸어서는 뭘 하겠어요. 왜놈새끼들과 격투하다가 이발도 하나 부러졌는데… 그저 왜놈들과 잘 싸우면 되는거예요.》
영덕은 앞이 한대가 빠진 크고 누런 이발을 드러내보이며 웃었다.
《다들 무섭게 보라는거예요.》
《넌 토비들속에서 막 살던 습성을 없애야겠다. 너야 여느 병사도 아니고 패장이 아니냐? 병사들은 알게 모르게 상관의 습성을 따르게 되지. 강하고 규률있는 군대는 우선 그 단정한 외모에서부터 기풍이 알리는거야.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원들은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되는대로 생활하는 법이 없단다. 그래서 싸움에서 패배를 모르는거지.》
《**김일성**장군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영덕의 얼굴에 짙은 호기심이 어리였다.
《알아도 잘 알지. 동만에 그 명성이 자자한분이 아니냐.》

《대체 그분이 조선사람이예요?》

《그건 또 무슨 생뚱같은 소리냐? **김일성**장군님이야 우리와 같은 조선사람이지. 넌 그것도 모르니?》

《글쎄 어떤 중국사람들은 **김일성**장군님이 다부산자차림을 하고 류창한 중국말로 반일연설을 하는것을 본적이 있는데 중국사람이 분명하다고 말들을 하거던요.》

《그이께서는 일찍부터 지하공작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중국사람처럼 변장하고 다니셨단다. 나도 아직 그분을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중국말도 중국사람보다 더 잘 하신다더라. 지금도 그분께서는 적들과 싸워이기고나서는 군중들을 모여놓으시고 연설을 하시는데 중국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한번은 중국말로, 그다음엔 조선말로 연설하신다는거야. 그래서 중국사람들이 그분께 매혹되는거지.》

《그래요? 그러니 **김일성**장군님은 조선사람이시군요.》

영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여올랐다. 덕산의 말은 정말 조선사람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것이였다.

《우리 조선사람들이 다른 민족보다 못한게 뭐예요? 조선사람 하나하나를 보면 다 똑똑한데 왜 이역땅에 쫓겨와서 천대와 구박을 받는것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다 우리 조선사람들이 참다운 령도자를 모시지 못하였기때문이다. 이제는 우리가 5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민족을 구원할 령도자를 모시게 되였다. 그분이 바로 **김일성**장군님이시다.》

《**김일성**장군님의 년세는 대체 얼마나 되셨는가요?》

《네 생각엔 얼마나 되셨을것 같니?》

《그렇게 명성높은분이시니 년세가 어지간히 많으실거예요.》

《허허허.》 덕산은 크게 웃어제꼈다. 《그분은 우리처럼 젊은분이시란다.》

《그렇게 젊으신가요?》

영덕의 가늘게 째진 두눈이 금시 동전만큼이나 동실해졌다. 그리고 계속하여 경탄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대단하구만요. 어쩌면 그런 일도 다… 그야말로 하늘이 낸분이시구만요.》

《영덕이 그 말 하나는 잘했다. 우리 조선을 위해 하늘이 낸분이시

지. 벌써 10대의 나이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이라는 청년조직을 무으시고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지도자로 등장하시였단다.》
영덕은 마침내 의문이 서린 눈길로 덕산의 아래우를 훑어보았다.
《혹시 형님은 그분의 부하가 아닌가요?》
덕산은 생각에 잠겨 솜뭉치처럼 탐스러운 구름들이 떠돌고있는 하늘가 멀리를 바라보고있었다.
《너에게야 무엇을 숨기겠니. 난 **김일성**장군님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받들고 싸우는 공산주의자다.》
영덕은 덕산이 무엇때문에 반일부대에 들어왔는지 어렴풋이 깨도가 되는것 같았다. 그의 생각을 확인시켜주듯 덕산이 명백히 찍어말하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중국인반일부대가 왜놈들과 싸우는 길에서 동요없이 줄기차게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공작원들을 파견하도록 하시였단다. 난 네가 그분이 바라는 참된 조선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알겠어요. 나도 형님처럼 **김일성**장군님만을 따르겠어요.》
《그러자면 모든 면에서 반일부대병사들의 본보기가 되여야 하는거다.》
《형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 다 알아요. 난 오늘 처음으로 조선사람으로 태여난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영덕은 구레나룻을 쓸며 덕산에게 손을 내밀었다.
《면도칼을 달라요. 내 이제부터 텁수룩한 꼴을 보이지 않겠어요.》
《자식, 그러고보면 너도 조선사람이 틀림없구나.》
덕산은 정어린 눈길로 영덕을 보며 면도칼을 그의 손에 쥐여주었다.
그때 참나무우듬지에 아름다운 꾀꼬리 한마리가 날아와 은방울 굴리는듯 한 소리로 울기 시작하였다. 영덕은 미소를 짓고 머리우의 잎새무성한 우듬지를 올려다보았다. 그에게는 마치 꾀꼴새가 민족의 앞날을 축복하는 노래를 불러주는것처럼 생각되였다.

어느날 부대는 식량공작을 위해 놈들이 경영하는 목재소를 습격하는 전투를 벌리게 되였다.
20여필의 말과 적지 않은 밀가루를 로획한 부대는 적들의 《토벌대》가 증원되여 달려들자 얼마간 맞불질하다가 인차 철수하였다. 일정한

장소에 집결하여 인원을 점검해본 결과 몇명의 행방불명자들이 생겼는데 그중에는 박덕산이도 있었다. 한영덕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것만 같았다. 행방불명된 사람들은 대체로 전투의 와중에 부상을 당해 쓰러졌거나 혹은 전사한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영덕은 뒤떨어져서 대원들을 찾아보게 해줄것을 전영림에게 부탁하였다.
  《이제는 놈들이 추격해오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좀 휴식하면서 기다려보자.》 하고 전영림이 말하였다.
  전영림은 마흔남짓한 뚱뚱한 몸집의 사나이로 말이 없고 행동거지가 점잖았다. 그는 이전에 경찰서장을 한 경력을 가지고있지만 반일감정이 강하였다. 지휘관으로서의 그의 장점의 하나는 부하들중의 기둥이라고 할만 한 사람들에게 각별한 인정을 베풀어줌으로써 그들이 단순히 명령에만 따르는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인정적으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전부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것이였다. 한영덕이 전영림의 곁에서 몇년간 생활하면서 이 중국인부대를 떠나지 못하고있는것도 바로 전영림의 그 인정때문이라고 할수 있었다.
  전영림은 부대를 산등성이에서 휴식시키면서 한영덕을 비롯한 몇명의 대원들을 파견하여 행방불명된 사람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영덕이 막 떠나려던 참에 《저기 나타났다!》 하는 누군가의 소리가 울리였다. 골짜기를 바라보니 박덕산이 부상당한 사람을 업고 힘겹게 산을 올라오고있었다.
  《덕산형님!》
  영덕은 너무 반가운김에 크게 소리치며 덕산을 맞받아 달려내려갔다.
  얼굴과 온몸이 화락하니 땀에 젖은 덕산은 부상병을 그냥 업은채 영덕을 향해 빙그레 미소를 짓고 서있었다. 영덕은 덕산의 등에서 부상병을 거칠게 안아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부상병은 왼쪽눈이 먼 애꾸였는데 그래서인지 사나운 인상을 주는 병사였다. 애꾸눈의 병사는 금시 숨이 넘어가는것처럼 죽는다고 아부재기를 치며 대굴대굴 굴었다. 영덕은 부상병을 본척도 않고 덕산에게 물었다.
  《어떻게 된 일이예요?》
  《좀 뒤떨어져 철수하댔는데 목재소 주인놈의 집 울타리곁에 이 사람이 쓰러져 살려달라고 하더구나.》

《더러운 놈의 새끼…》 영덕은 뒤따라 내려온 병사의 등에 업혀가는 부상병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저 애꾸놈은 분명 왜놈계집을 어째보려 하다가 부상당했을거예요. 벌써 오래전에 사람되기를 그만둔 놈이지요.》

박덕산이 업고 온 애꾸눈의 부상병은 원래 《천백룡》토비부대출신으로 영덕이와 리정애를 붙잡아 끌어왔고 괴롭힌자로서 영덕은 그에게 삭일수 없는 원한과 증오심을 품고있었다. 전영림의 반일부대에는 토비출신의 병사들이 많았다. 전영림은 잘못을 뉘우치고 입대를 희망하는 토비들을 부대에 받아들이였었다.

《영덕이, 그만하라구.》

《어쨌든 형님이 살아왔으니 다행이예요.》

산등성이에서 기다리고있던 전영림이 느슨한 미소를 짓고 박덕산을 바라보더니 그가 다가와 보고하자 한손으로 어깨를 툭 치며 말하였다.

《당신은 사내대장부요. 정말 장하오.》

잠시후 부대는 로획물자들을 말파리에 싣고 자기의 근거지를 향해 행군하였다.

박덕산은 한영덕과 함께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덕이, 난 타고난 토비나 강도가 없다고 생각해. 다 험한 세상에 살길이 막히니까 그런 길에 들어선거야. 난 왜놈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선 사람은 다 동지로 사귈수 있다고 본다.

내겐 강정익이라고 가까운 동지가 한명 있었어. 견실한 혁명가였고 공산당의 간부였는데 좌경분자들이 그를 〈민생단〉으로 몰아 총살하려고 했어. 그때는 〈민생단〉혐의분자를 옹호하면 곧 그 사람이 〈민생단〉감투를 쓰는 험한 판이라 강정익이 〈민생단〉이 아니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누구도 감히 그 부당함을 까밝히며 나설수가 없었지. 그런데 강정익동지를 총살하려는 그 마당에 처창즈유격구주변에 주둔하고있던 반일부대병사들이 달려들었어. 그들은 강정익동지를 총살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것이였지.》

덕산은 당시 반일부대병사들이 강정익을 옹호하여 들고일어나 소동을 일으킨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

《난 그때 구국군병사들의 깊은 의리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댔어. 한

마디로 좋은 사람들이지.

물론 구국군부대에 질이 나쁜 사람들도 있을수 있겠지. 하지만 병사들중의 다수는 로동자, 농민출신으로 천대와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고 또 만주를 타고앉은 왜놈들을 증오하는 사람들이야.》

반일부대는 사기가 올라 행군을 다그치고있었다. 한동안 식량고생을 하였던지라 전투를 짧은 시간에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식량도 해결한 사실은 모두의 얼굴들에 흐뭇한 미소를 그리게 하는것이였다. 대렬의 선두쪽에서 가끔 울려오는 말울음소리는 그들의 발걸음을 힘차게 추동하는것만 같았다.

박덕산과 한영덕은 대렬의 후위쪽에서 행군하고있었다. 덕산의 깊은 정신세계를 음미해보는지 영덕은 말없이 걷고있었다. 그에게는 박덕산이 인생과 혁명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스승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지금 그의 머리속에는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다.

(혹시 강정익동지가 정애누님의 남편되는 사람이 아닐가?)

《그래 그 강정익동지가 어떻게 되였어요?》

한영덕은 긴장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걸음을 약간 늦추기까지 했다.

《그후에 나랑 같이 〈민생단〉감옥에 갇혀있었는데 유격근거지를 〈토벌〉하려고 달려든 왜놈들과 싸우다가 희생되였어.》

《정익동지에게 가족이 있었는가요?》

《갑자기 그건 왜 묻나?》

《뭔가 생각되는바가 있어서 그래요. 그 정익이란 이름이 정애누님이 말하던 애아버지 이름같아서… 누님은 내게 자기 남편에 대한 말을 많이 들려주었어요. 조선으로 보내온 편지에 애아버지가 안도현에 있다고 주소를 적어보냈던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토비두령때문에 죽은 그 누이가 강정익동지의 안해가 아닌가?》

덕산의 유순하게 빛나던 가느다란 두눈에 경악의 표정이 어리였다.

《정익동지에겐 가족이 없었어. 가족을 조선에 두고 홀몸으로 동북에 와서 혁명을 했지. 그런데 4년전에 안해가 애를 업고 남편을 찾아 떠났다는 소식을 받은 이후로 소식을 몰라 애타하고있었어. 정익동지는 왜놈들의 총에 맞아 희생된 바로 그날에도 안해가 왜놈들의 〈토

벌〉에 걸려들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내게 말을 했었지.》

《그러니 그분이 바로 정애누님의 남편이 아닐가요?》

영덕은 걸음을 멈추고 덕산의 팔소매를 잡아당기였다. 덕산은 못박힌듯 서서 영덕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대렬은 산발을 타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데 두사람은 그것을 잊고 자기들의 감정세계에 빠져버렸다.

《누님이 나더러 꼭 남편되는분을 찾아가보라고 했는데…》

영덕은 눈물이 글썽해서 배낭을 벗어놓고 뒤지기 시작하였다. 그의 손에서 한통의 편지가 묻어나왔다. 이젠 보풀이 일대로 인 편지였다.

《난 누님을 잊을수 없어 이 편지를 아직도 건사하고있었어요. 혹시 누님 남편을 만나게 되는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비록 화염과 별에 그슬려 거칠게 탔으나 면도를 깨끗이 하여 이목구비가 또렷한 영덕의 얼굴에는 슬픈 추억의 빛이 어리였다.

영덕이 내미는 편지를 들여다보노라니 덕산은 가슴이 후들후들 떨리였다. 그는 강정익이 안해에게 쓴 낯익은 필체의 글을 보았던것이다.

《아, 강정익동지의 안해가 그렇게 잘못되였구만. 헌데 그 애는, 정익동지의 아들애는 어떻게 되였단 말인가?》

덕산이 영덕의 어깨를 붙잡고 안타깝게 흔들었지만 영덕은 침통한 얼굴로 설레설레 머리를 저을뿐이였다.

그때 당시 리정애의 아들애는 토비소굴에 인질로 잡혀와있던 의원집며느리가 놓여나가면서 데리고갔었다. 《이 애를 잘 키워주세요. 내 후날 꼭 찾아가겠어요.》 하고 영덕은 그 녀인에게 무릎을 꿇고앉아 부탁을 하였다.

《어서 대답하라구. 왜 말을 못해?》

덕산이 재촉하자 영덕은 죄스러움이 질게 어린 얼굴을 옆으로 돌려버렸다.

《모르겠어요. 의원집며느리가 데려간 후로는 나도 알지 못해요.》

덕산은 영덕의 손을 꽉 잡아쥐며 말하였다.

《영덕이, 우리 앞으로 꼭 그 애를 찾자. 아버지, 어머니가 못다 준 사랑을 우리가 주어야 할게 아니야?》

《옳아요. 나도 항상 정애누님 생각을 하면서도 처지가 이렇다보니 그 애를 찾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있었어요.》

《언제든지 찾아내자구, 언제든지… 강정익동지는 **김일성**장군님께 충

실한 혁명전사였다.》
덕산은 얼굴에 결연한 빛을 띄웠다.
《헌데 덕산형님은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예요?》
《나?》
박덕산은 새삼스레 주위를 휘둘러보았다.
앞에서 대오가 흘러가고있었고 옆에도 뒤에도 사람이 없었다. 머리우에선 한여름의 태양이 높이 떠서 무성한 나무잎새들을 뚫고 눈부신 빛을 쏘고있었다. 덕산은 목소리를 낮추어 엄숙하게 말하였다.
《영덕이, 난 이 부대를 이끌고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자고 결심하고있어.》
《그러니 형님은?…》 영덕은 놀라서 걸음을 멈칫했다.
《이 반일부대가 살아남아 끝까지 왜놈들과 잘 싸우자면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 그이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것을 난 똑똑히 알고있어.》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간다면 난 그 어떤 사지판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형님을 따라가겠어요.》
《고맙다.》
덕산은 영덕의 어깨를 와락 껴안았다. 그들은 동지적인 피가 서로의 몸에 세차게 굽이침을 느끼였다.

6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려는 박덕산의 결심은 그 다음해인 1936년에 실현되게 되였다.
일제의 《토벌》공세가 날로 강화되면서 전영림의 반일부대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날을 따라 쇠퇴하게 되였다. 투항동요분자들이 생겨나는것을 막을수 없었다. 1931년 9.18사변후 항일의 기치를 들고 반변하여 중국 동북의 산속에 들어갔던 많은 반일부대들이 1936년 이마적에 와서는 일제의 《토벌》에 쫓기여 중국관내로 들어가거나 적

들의 품으로 기여드는 형편이였다.

부대의 전도를 두고 고심하던 전영림은 마침내 일제와의 싸움에서 승승장구하고있는 **김일성**장군님의 부대에 합류할 결심을 내리게 되였다. 여기에는 박덕산이 조직한 부대내 반일회가 큰 역할을 하였다. 초기에 결의형제패로 결음을 뗀 조직은 후날 반일회로 개칭되였는데 영덕을 비롯해서 많은 장교들과 병사들이 망라되여 부대의 가장 영향력있는 세력으로 확장되게 되였다. 이 반일회성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전영림에게 **김일성**장군님부대를 찾아가자고 제기했고 전영림이 이를 받아들이게 된것이였다. **김일성**장군님의 명성은 동북땅에 널리 알려져 중국인들도 그이를 흠모하고있었다.

그 시기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무송지구에서 활동하고있었는데 전영림부대가 그곳까지 행군하자면 우선 많은 식량을 준비해야 하였다. 식량공작을 위해 여러개의 조가 파견되였는데 한영덕이 한개 조를 이끌고 현성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한영덕이 식량과 함께 자기의 가족에 대한 소식도 알아가지고 돌아올줄은 박덕산은 전혀 예측할수가 없었다.

그날 박덕산은 수림속에서 땔나무를 하고있었다. 앞으로의 행군에서 제기될 문제들을 하나하나 예견하고 해결방도들도 모색하며 땔나무단을 지고가기에 맞춤하게 가려놓는 그의 가슴은 은근한 기쁨으로 설레이고있었다. 이제 식량공작대들이 돌아오게 되면 부대는 **김일성**장군님을 찾아 출발하게 될것이다. 오래동안 마음속에 그리며 꿈결에도 달려가 안기던 그 품을 향해 가는데 어찌 그 심정이 범상할수 있겠는가.

덕산이 선들선들한 바람에 살랑거리는 나무잎새들을 유정한 눈으로 바라보며 걸싸게 일을 하느라 내돋은 땀발을 식히는데 영덕이 《형님.》 하고 부르며 달려왔다.

《영덕이.》 덕산은 반갑게 소리치며 마주 걸어갔다.

《그래 갔던 일은 잘되였나?》

《잘되였어요. 그런데 형님은 빨리 현성에 갔다와야겠어요. 어서 가자요.》 영덕은 무작정 덕산의 손을 잡아당기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현성에 들어갔다가 용석이를 만났댔어요.》

《뭐, 내 아들 용석이를?…》
영덕은 머리를 끄덕이더니 우두커니 서있는 덕산을 그냥 잡아끌었다.
《내 가면서 말하지요.》
…품팔이군으로 가장하고 현성에 들어간 한영덕은 배가 고파 지짐집에 들리였다. 그 지짐집에서 심부름을 하는 소년이 어딘가 낯이 익어 유심히 살펴보니 4년전 박덕산의 집에 있을 때 사귀였던 장난꾸러기 소년 용석이였다. 영덕은 용석을 불러 사연을 물어보았다. 영덕을 알아본 용석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처창즈유격근거지가 해산되여 인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떠나가는 속에 용석이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먼 친척이 살고있는 연길현 광지암이라는 곳을 찾아가는 길인데 할머니가 앓는 바람에 할수없이 이곳에 머무르게 되였다는것이였다. 할아버지는 어느 부자집에서 머슴을 살면서 할머니를 간호하고 자기는 지짐집에서 심부름군으로 일하면서 로자를 마련하고있다는 용석이의 말은 영덕이의 가슴을 아프게 긁었다.
《용석아, 좀 기다려라. 내 이제 인차 찾아오겠다.》
영덕은 자기의 임무가 있는지라 대원들과 같이 인차 그 자리를 뜨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는 덕산을 데리고 다시 올 결심을 품고 식량공작활동을 벌리였다.
공작대는 왜놈들의 앞잡이노릇을 하는 큰 부자를 한명 붙잡아 위협하여 많은 식량과 물자를 구입해가지고 돌아오게 되였지만 영덕은 덕산의 가족이 처해있는 어려운 사정을 풀어주지 못한것으로 하여 저으기 가슴이 무거웠다.
영덕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난 덕산은 마치 의지나 하듯 이깔나무줄기에 몸을 기대며 머리를 숙이였다. 그의 두손은 나무줄기의 터실터실한 껍질을 안타까이 뜯어내고있었다.
《덕산형님, 현성이 여기서 하루길이 아니예요? 나랑 같이 다녀옵시다. 내 용석이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머니랑 앓는다는데 병문안도 하고 하다못해 얼마간의 돈이라도 쥐여주고 와야지요.》
영덕은 목석처럼 서있는 덕산의 팔을 안타까이 잡아흔들었다.
이때 덕산은 영덕의 말에 흔들리지 말자고 안깐힘을 다하고있었다.
(하루길이라… 그닥 먼길이 아니지. 잠간 만나보고 로자를 보태주고 힘이 되는 말을 좀 해주고 돌아설수 있을것이다. 그래, 그건 그다지 어

려운 일이 아니지. 전영림대장도 승인해줄것이고… 하긴 영덕이가 벌써 그에게 다 말했다고 했던가. …)

그는 자기 몸을 의지한 이깔나무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한달음에 부모님들과 아들에게로 달려가고싶은 그 욕망을 억제하지 못할것만 같아 고집스럽게 나무줄기에 기대여 껍질을 허벼뜯어내는것이였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랴. 하긴 부모님들이야 혁명에 몸을 바친 이 자식을 리해하실것이지만 어린 용석이는 혹시 날 원망할는지도 모른다. 《민생단》으로 몰렸다가 앓고난 후에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려고 나섰을 때 같이 가겠다고 떼를 쓰던 용석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린 나이에도 장군님을 따르고 또 아버지를 걱정하던 기특한 애였다. 이겨내겠지. 그래, 이겨낼것이다.

빗장을 지른것처럼 입을 꾹 다물고 응답이 없는 덕산에게 영덕이 끝내 화증을 터뜨리고야말았다.

《싹 그만두오. 도대체 형님은 가슴에 심장을 달고있소 아니면 돌덩어리를 달고있소? 형님이 가지 않겠다면 나 혼자라도 갔다와야겠어요.》

영덕이 팩하니 돌아서 가버리려는데 덕산이가 그의 한쪽팔을 꽉 잡았다.

《영덕이, 그만두게. 날 더 괴롭힐 생각 말라구.》

《그럼 어쩌자는거요? 난 지짐집에서 심부름군으로 일하는 용석이를 보면서 내 지난날을 생각했어요. 용석이도 나처럼 부모잃고 집잃고 방황하는 고아처럼 여겨지더란 말이예요.》

《알아, 네 심정을 다 알아. 하지만 너도 생각해봐.》

덕산은 고통을 씹어삼키듯 얼굴을 이그러뜨리며 힘겹게 말하였다.

《지금 부대는 **김일성**장군님을 찾아 떠날 준비를 하고있다. 내가 이런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너도 잘 알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쉽게 여기를 뜰수가 있겠니. 내가 없으면 안된다. 부대가 출발하면 내가 길안내를 해야 한다. 난 너도 보낼수가 없어. 넌 패장이다. 그런데 네가 이 박덕산의 가족때문에 다시 현성에 걸음한다는게 어디 말이 되는 일이냐? 안돼!》

《에익—》

영덕은 큼직한 주먹으로 아름드리 이깔나무줄기를 들이쳤다. 바늘갈

은 누런 잎새들이 깃털마냥 머리우에 날아떨어졌다.
이때 저벅저벅하는 발자욱소리가 들리였다. 풀숲이 와슬렁거리더니 뚱뚱한 몸집의 키큰 중년사나이가 나타났다. 단정한 군복차림에 일본군에게서 로획한 밤색가죽장화를 신었으며 쌍안경을 목에 걸고 가방과 목갑총을 멘 위풍당당한 차림새의 그 사나이는 대장 전영림이였다.
그는 뒤짐을 진 자세로 한영덕과 박덕산의 심각하고 울기뻗친 얼굴들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알릴듯말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전영림의 퉁퉁하나 질은, 시름이 끼고 탄력이 풀어진 얼굴에 야릇한 미소가 어리였다.
《박간사의 가족이 현성에서 고생한다는 말을 들었소.》 전영림은 덕산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서 만나보고 오시오. 부대에서 좀 도와주도록 합시다.》
《대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부대는 빨리 출발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사사로운 일때문에 늦출수는 없습니다.》
《하루이틀 늦는다고 뭐가 잘못될리 없지. 어서 떠나시오! 명령이요!》
《그 명령은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덕산은 어느새 이깔나무에서 몸을 떼고 엄숙한 자세로 서있었다.
전영림의 꾹 다문 입귀로 가벼운 경련이 일었다. 그는 몹시 기분이 상한듯 덕산을 쏘아보며 거칠게 말했다.
《거역한다는거지? 대의명분은 확고한 사람이군. 좋소.》
《…》
《그래 박간사에게 하나 묻기요. 조선사람은 다 그렇게 몰인정하오?》
《조선사람이라고 왜 인정이 없겠습니까.》 덕산은 또박또박 그루를 박으며 말하였다. 《내 몸이라고 왜 더운 피가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들 매 개인의 운명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민족의 운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조선민족도 중화민족도 왜놈들의 게다짝에 짓밟히고있습니다. 동북과 조선에서 왜놈들을 모조리 쳐없애고 승리하자면 **김일성**장군님의 두리에 모든 반일력량이 하루빨리 굳게 뭉쳐야 합니다. 김장군부대에로 가는 길은 하루라도 빠르

면 빠를수록 우리에게 유익하고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도 부합됩니다. 왜놈들에게 유린당하는 조선과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빨리 길을 떠나야 합니다.》

전영림은 한동안 말없이 덕산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사색적인 길둥그런 얼굴에는 감심의 빛이 력연히 흐르고있었으나 그는 여전히 랭정하게 투시하는듯 한 태도를 허물지 않고있었다.

《박간사는 어쩔수가 없는 사람이군. 옹고집쟁이요. 어쨌든… 당신의 마음을 알겠소.》

전영림은 홱 돌아서서 스적스적 걸음을 옮겼다.

《형님은 정말…》

영덕은 팔굽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용석아, 이 무정한 삼촌을 용서해라.》

덕산도 마음속으로 부모님과 아들애에게 용서를 빌었다.

(아버지, 어머니, 조국이 광복되는 그날까지 부디 몸성히 살아계십시오.

용석아, 넌 씩씩하게, 용감하게 살아야 한다. **김일성**장군님이 계시는 한 조국광복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영덕이.》 하고 덕산은 심각한 얼굴로 말하였다. 《난 우리 민족의 재생을 위해, 조국광복을 위해 그리고 혁명을 위해 **김일성**장군님께 자신의 운명을 다 맡기기로 한 사람이다. 난 장군님의 전사로 살며 싸우는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영덕이, 너도 장군님을 따르는 전사가 되겠다고 했지?》

《예.》

영덕은 저도 모르게 상관앞에서처럼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그럼 앞으로도 명심해라. 장군님을 따르는 마음에 그 어떤 개인의 사정이나 감정을 뒤섞어놓지 말아야 한다. 오직 티없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을 받들고 따를 때에만 그이의 참된 혁명전사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영덕은 **김일성**장군님의 혁명전사의 진정한 모습을 덕산에게서 보는것만 같았다. 리해하기 힘들었고 따라서 모진 인간이 아닌가고 의심하기도 했던 덕산이 높이 돋보이였다. (혁명가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장군님의 전사는 바로 형님처럼 살며 싸워야 하는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형님, 내 생각이 짧았던것 같아요.》

《됐다. 그리고…》

덕산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계속했다.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들은 모두 동지로 된다. 그래서 난 이제부터 영덕이를 동무로 부르겠다. 그러니 너도 날 동무로 불러라.》

《예?》

《영덕동무.》 덕산이 정색한 낯빛으로 말했다.

난생처음 《동무》라고 불리운 영덕은 소스라치듯 놀라며 덕산을 쳐다보았다. 짜릿한 흥분이 전류처럼 온몸을 줄달음치는것만 같았다.

《그래 동무는 끝까지 나와 한길을 갈수 있겠소?》

《예!》

《우리 맹세합시다. 하늘이 무너진대도 장군님을 찾아가 그이를 받들어 혁명을 하자는걸 맹세하기요.》

덕산은 영덕에게 한손을 내밀었다. 영덕이 그 손을 꽉 틀어잡았다.

그다음 덕산은 싱긋 웃으며 큼직한 주먹으로 영덕의 가슴우를 가볍게, 그러면서도 은근한 힘을 주어 도장이라도 찍듯 툭 쳤다.

《장군님을 받들고 한생을 혁명을 위해 바치자구.》 덕산은 다시금 힘있게 말하였다.

《알겠습니다.》

그날 전영림의 반일부대는 **김일성**장군님의 친솔부대를 찾아 출발하였다. 그 대오의 앞에는 박덕산이 걸어가고있었다.

7

(그때부터 우리는 변함없는 한길을 걸어오지 않았던가. 수령님을 따라 생사운명을 함께 하면서 혁명동지의 정을 나누었지. 오늘처럼 절망과 비관에 빠져버린 너를 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할수 없었다.)

어둠이 서린 보통강반에 눈은 하염없이 내려쌓이였다.

김일은 망두석처럼 서있는 한영덕의 가긍한 모양을 가슴아프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었다.
영덕이 갈린 목소리로 얼어붙은듯싶었던 침묵을 깨뜨렸다.
《난 이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수령님께서 계시지 않소. 영덕동무,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든 그이만을 생각하고 그이를 따르며 살면 되는거요.》
그 순간 영덕에게는 반일부대에서 자신에게 수령님에 대한 흠모심을 심어주던 김일의 모습이 우렷이 떠오르는것이였다. 그 시절에 그가 하던 말도 귀전에 쟁쟁히 들리는것만 같았다.
《장군님을 따르는 마음에 그 어떤 개인의 사정이나 감정을 뒤섞어놓지 말아야 한다. 오직 티없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을 받들고 따를 때에만 그이의 참된 혁명전사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그 시절에 김일동지가 이 가슴에 새겨주었던 혁명가의 그 철리가 어느새 잊혀졌단 말인가.
영덕은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아니다, 그럴수 없다. 그러나…
영덕은 고통에 못이겨 눈이 두텁게 쌓인 머리칼을 움켜쥐였다. 그는 손이 얼어드는것도 느끼지 못했다.
똑똑히 반성해보라. 너는 수령님의 뜻을 받들기 전에 먼저 자기자신을 내세우려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오늘과 같은 과오를 범한 것이다.
《아!―》 하는 신음소리가 영덕의 푸들푸들 떨리는 입술사이로 새여나왔다.
이때 김일의 큼직한 주먹이 툭 하니 영덕의 가슴을 내질렀다. 영덕은 전기에라도 감전된것처럼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가슴이 찌르르해졌다. 도장이라도 찍듯 주먹으로 상대방의 가슴을 가볍게 치는 버릇은 김일이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표시할 때 나오는것임을 영덕은 잘 알고있었다.
《혁명가들에겐 처벌도 사랑이요. 동무도 그걸 알겠지?》
《알고있습니다.》
영덕은 눈물이 그렁하니 두눈에 고여오름을 느끼였다.
《영덕동무, 언제나 굳게 믿고 사시오.》

김일은 다시한번 주먹으로 영덕의 가슴을 쳤다.

《우리 수령님만 믿고 살란 말이요,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

눈물줄기가 영덕의 두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떨어졌다. 그 순간 영덕은 내각 제1부수상으로서의 김일이 아니라 고지식하고 변함없는 인간으로서의 김일의 진정어린 목소리를 듣고있음을 사무치게 느끼였던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영덕은 눈물을 감빨며 말하였다.

김일은 한영덕의 팔을 잡아당겼다. 영덕이 비칠거리며 저도 모르게 김일에게 몸을 의지하였다. 김일은 슬며시 그의 한쪽 팔을 꽉 붙잡아주었다. 영덕의 입에서 신음같기도 하고 흐느낌같기도 한 소리가 다시금 새여나왔다.

《고맙습니다, 1부수상동지.》

《이젠 돌아갑시다. 설미랑 가족들이 기다리고있소.》

김일은 영덕을 부축하여 자기의 승용차에로 이끌었다. 한설미가 뒤따라 승용차에 올랐다.

《네가 괜히 고생을 하는구나.》 하고 김일이 설미에게 한마디 하였다.

잠시후 김일의 승용차는 영덕의 집이 있는 아빠트밑에 와 멎어섰다.

《집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영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밤은 어지간히 깊어 아빠트의 창문들은 거의다 불이 꺼졌다. 사람들은 혼곤히 안식의 꿈속에 잠겨들것이다.

김일은 차라리 이밤 영덕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한자리에 누워 잠을 자고싶었다. 과오를 범하고 고민하는 전우와 이야기를 나누며 좀더 힘을 보태주고싶었다. 그에게 미리 관심을 돌리지 못한것을 두고 자책을 느끼고있기에 더욱더 그렇게 하고싶었다. 그러나 김일은 래일 지방지도를 나가야 한다는것을 자각하였다. 수령님의 의도대로 경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내각 제1부수상이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고 복잡한것이였다.

《됐소. 어서 올라가서 쉬오. 난 래일 지방지도를 나가게 되오. 동무는 자신에 대한 검토총화를 잘하오.》 하고 김일은 영덕에게 말하였다.

8

내각 건설부문의 일군인 장종학은 나라의 서북지역에 일떠서는 방직공장건설장에 틀고앉아 공사를 추진시키고있었다.

공사착공을 한지 1년이 되였으나 아직 공장건물도 완성되지 못한 상태였다. 진척이 굼뜬 공사를 하루빨리 다그칠 목적으로 김일은 내밀성이 있고 건설실무에 능한 장종학을 건설장에 파견하였다.

장종학이 내려온 후 공사장은 눈에 띄게 활기를 보이였고 건설속도가 빨라졌다. 역시 내각의 일군이 일하는 본새가 다르다는 말이 건설장에 떠돌고있었다.

오늘도 장종학은 건설장을 분주하게 돌아치다가 지친 몸을 끌고 지휘부에 들어와 판자로 투박하게 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밖에는 모든것을 얼구어버리려는듯 겨울바람이 씽씽 몰아쳤으나 지휘부안은 배불뚝이난로를 들여다놓고 와짝 불을 때여 후끈하였다.

그는 담배 한대를 붙여물고 연기를 내뿜다가 전화기를 끌어당겨 송수화기를 들었다.

《운수분과를 찾소. … 운수분과장이요? 당장 모래가 떨어지게 되였는데 동무는 뭘 하고있는거요? 뭐, 도로가 눈사태에 막혔다구? 그럼 어쩌겠다는거요? 죽든살든 보장하란 말이요!》

그는 큰소리를 치고 송수화기를 탕 놓아버리고는 길게 한숨을 토하였다. 현재 공사를 다그치는데서 무엇보다 걸린것이 골재보장이였다. 건설장가까이에는 골재가 없었으므로 먼곳에서 운반해오는데 수송이 제때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었다.

(제기랄, 눈사태가 일어났다니 이거 야단이구나. 어차피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게 아닌가. 헐치 않은걸.)

그는 또다시 담배를 피워물었다. 온몸의 맥이 담배연기와 함께 서서히 빠져나가는것만 같았다.

한영덕의 철직소식을 들은 후부터 왜서인지 그에 자꾸 신경이 쓰여

지면서 맥이 풀린다.

(한영덕이 너무 과격했어. 그가 아무렴 우리 당을 반대해나설수가 없지. 주관에 빠져버렸거던. 이 주관이란게 무서운거지. 어떤 함정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내달리다가 결국 곤두박질하게 되는거야. 아, 그의 일이 안되였구나.) 하고 그는 제나름으로 영덕을 두고 고심하는것이였다.

그의 눈앞에는 때없이 영덕의 딸 설미가 떠오르군 했다. 그는 설미를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있었다. 설미는 쾌활하고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처녀로 종학의 뇌리에 인찍혀져있다.

올해 설날에 김일의 집에서 설미를 만났을 때도 얼마나 쾌활했던가. 그 애는 명절날같은 때면 아버지를 곧잘 따라다녔고 영덕이도 딸애와 동행하기를 좋아하였다. 그만큼 영덕이 딸애를 사랑하는것이였다.

장종학이 설인사를 하기 위해 김일의 집에 찾아가니 김일은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는데 한영덕과 설미가 손님으로 와있었다.

누구도 김일이 없는것을 두고 별다르게 생각지 않았다. 내각 제1부수상의 높은 직책에 있는 김일이 오죽이나 분망할것인가. 영덕이나 종학은 김일의 안해인 허창숙에게 설인사를 하고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설미가 어른들이 있는 좌석에서 토달거리는것이였다.

《은희언니 아버진 너무하셔요. 혁명을 혼자 다 하는것처럼 설날에도 나가시면서… 그렇게 혁명을 다 안고 치를내기라면 우리 세대가 할 혁명의 몫이 있겠어요?》

《이 애가 얼마나 버릇이 없는가 보오. 그만 나불거리거라.》

영덕이가 악의없이 설미를 핀잔하는데 좌중에는 즐거운 웃음이 터지였다.

종학은 설미의 천진란만함이 마음에 들어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짓고 롱을 했다.

《이 애 말이 일리가 있소. 이 애들이 해야 할 혁명의 몫도 남겨놓는게 우리 세대의 도리가 아닐가요.》

《은희 아버지가 들어오면 설미의 말을 전달해야 할가봐요. 호호.》

허창숙이 허리를 부여잡고 웃어댔었다.

종학은 설미가 아버지의 철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겠는가를 상상해보며 가슴을 앓았다. 설미가 우는 모양이 자주 눈앞에 떠오르군 하였다.

(그 사람… 독단이 너무 심했거던.)

종학이 영덕에 대한 생각에 잠겨있는데 밖에서 부산스런 움직임소리가 들려왔다. 종학은 고달픔이 질게 어린 눈길로 짜증스럽게 출입문쪽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한사람이 들어와 내각 제1부수상 김일이 시찰나왔음을 알려주었다.

종학은 불에 덴 사람처럼 벌떡 자리를 차고일어났다. 김일이 얼마전부터 서북지역의 공장, 기업소들을 돌아보고있다는 소식을 들은 종학이였지만 여기 건설장에까지 찾아올줄은 생각지 못했다.

종학이 허둥거리며 달려나가니 김일은 벌써 건설장을 돌아보고있었다. 건설사업소 지배인이 김일을 안내하고있었다. 흙모래가 깔린 도로로 자동차들이 분주히 오가면서 먼지구름을 피워올리는데 김일은 그에 아랑곳없이 주의깊이 로동자들의 작업현장들을 돌아보았다.

지금은 겨울철이라 외부공사는 하지 못하고 주로 건물내부에 화독들을 들여놓고 미장작업을 하고있었다. 그동안 건설을 다그쳐 공장건물의 지붕공사까지 완성한것이 성과라면 큰 성과라고 할수 있었다.

장종학이 허겁지겁 달려와 인사를 하는데 김일은 마치 지금껏 함께 있었던듯이 흔연스런 태도로 무뚝뚝하게 말하였다.

《겨울전에 지붕공사를 해놓은것은 잘했소. 헌데 내부벽체미장은 왜 본격적으로 내밀지 못하고있소? 로력이 딸리는거요?》

《모래가 거의 떨어지게 되여 형편을 봐가면서 하느라고 그렇게 되였습니다.》

종학은 김일에게 도로가 막혀 모래수송이 어려워졌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김일은 아무런 대꾸가 없이 건설장을 다 돌아보고나서 종학을 비롯한 건설장 일군들과 함께 온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말하였다.

《지금 수령님께서 인민생활문제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신지 모르오. 이 방직공장을 하루빨리 조업하여야 부족한 천문제가 풀릴수 있소. 그동안 그만하면 일을 제꼈다고 볼수 있소. 그런데 오늘 내려와보니 조건타발을 하면서 앉아뭉개는 결함도 없지 않아 있는것 같단 말이요. 이런 사업태도를 극복하지 않으면 기한전에 공사를 끝낼수가 없소.》

장종학은 김일이 자기를 념두에 두고 말하고있다고 생각하면서 머리를 떨구었다. 김일을 높이 보며 머리를 숙이는 종학이지만 속으로 은

근히 불만이 차오르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그럼 어떻게 일해야 한단 말인가. 그래 내가 지금껏 놀면서 앉아뭉개였단 말인가.)

잠시후 김일은 건설지휘부에 들어가 장종학과 마주앉았다.

《어디 앓소?》 김일이 종학에게 담배 한대를 내주며 물었다.

종학은 황송한 태도로 두손으로 담배를 받아들었다. 지금까지의 인생행로에서 김일을 가깝게 대상하면서 사업해왔지만 왜서인지 날이 갈수록 김일은 더 어렵게만 느껴진다. 내각 제1부수상이라는 직위가 주는 위압감때문인지도 모른다.

《자, 불을 붙이오.》

김일은 종학의 꽂꽂한 태도를 풀어주려는듯 소탈하게 성냥을 그어 불까지 내밀어주었다.

《고맙습니다.》

《그래, 어디 말해보오. 몸이 말쨍가? 얼굴색이 좋지 않구만.》

《뭐 별로 앓는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모양이요? 도무지 꼴기가 없소.》

《솔직히 말하면…》 종학은 갑자르다가 될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머리를 쳐들고 말하였다. 《한영덕동무가 철직된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고 자꾸 생각이 그리로만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전화를 걸었댔구만. 내 창숙동무에게서 동무가 영덕동무 일을 묻는 전화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소. 그래 지금 영덕동무에 대한 동정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는거요?》

김일은 큰 주먹으로 책상을 힘주어 꾹꾹 눌러댔다.

《그건 좀 너무한 말씀같습니다.》

종학은 김일이 날카롭게 찌르고들자 속이 찔끔했으나 억울함과 섭섭함을 그 어조와 말마디들에 나타내보이였다.

《1부수상동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1부수상동지도 그렇지만 한영덕동무야 젊었던 그 시절부터 인연이 있는 사이가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어찌 영덕동무 일을 평범히 대할수가 있습니까. 뭐 동정때문에 어떻다구요? 섭섭합니다.》

《영덕동무의 과오에서 교훈을 찾고 일을 더 많이 찾아하는게 혁명가의 자세와 립장이요.》 하고 말하면서 김일은 물끄러미 종학을 건너

다보았다.
(여러 측면에서 이들이 평범하게 대할수가 없다는 그 말이 옳다고 할수 있다.)
문득 김일의 머리속에는 1936년 무송의 수림속에서 있었던 그 일이 스쳐지나갔다.

9

참나무, 분비나무들이 꽉 들어찬 깊은 수림은 가도가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아득한 고원지대에 수림이 검푸른 바다를 이루고 펼쳐진 말그대로의 천리수해였다. 수림이 얼마나 빽빽한지 하늘이 보이지 않고 대낮에도 어둑컴컴한데 해묵은 락엽들이 두툼하게 깔리였다. 이 무송의 수림지대는 일명 송풍락월지대라 불리우고있었다. 송풍락월이란 가을이 되여 솔잎이 바람에 떨어져야 소나무우듬지사이로 떨어지는 달을 볼수 있다는 말이다.
그처럼 깊숙한 이 천리수해속에서 전영림의 반일부대는 길을 잃고 헤매이고있었다. 안도에서 이 무송의 수림까지 오는 과정에 사람들은 지칠대로 지쳤고 식량도 바닥이 났다. 그런데 그들이 찾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행적이 묘연하기만 했다.
반일부대의 앞장에서 길을 잡아온 박덕산은 안타까움에 가슴이 타서 재가 되는것만 같았다.
이 시기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이미 무송지구를 떠나 장백지구에서 활동하고계셨지만 덕산은 그것을 알수 없었다.
곤난이 겹쌓이고 행군의 끝이 보이지 않자 대원들의 불만과 원망의 눈초리가 박덕산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 그가 부대를 이 사지판으로 끌고온 장본인이라는것이였다.
《박덕산이 죽일 놈이야.》
《무엇때문에 그 개자식을 따라와 이 고생이란 말인가.》
이러한 로골적인 수군거림이 덕산의 귀에도 들려왔다. 그러나 덕산

은 내색하지 않고 걸어갔다. 죽는한이 있더라도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고야말리라는 신념과 의지가 억센 기둥처럼 그를 뻗쳐주고 있었다.

헐어빠진 군복새로 굵은 뼈가 두드러져 강철처럼 꿋꿋해보이는 팔뚝이 드러난 차림새로 허덕허덕 걸어가는 박덕산의 곁으로 한영덕이 슬그머니 다가왔다.

《덕산동지, 야단났습니다. 대원들이 당장 반변이라도 일으킬 태세입니다.》

덕산의 억세여보이는 얼굴에 컴컴한 그늘이 질게 어리였다.

《반일회 형제들에게 조금만 참고 견뎌내자고 전달하시오. 언젠가는 이 죽음의 수림도 끝이 날테니까. **김일성**장군님의 태양의 빛이 우리에게 와닿게 될것이요. 나는 그것을 믿고있소.》

덕산은 영덕의 헐벗고 여윈 몸을 측은하게 바라보고있었다.

갑자기 와― 하는 여럿의 환성이 수림을 뒤흔들었다. 뜻밖에도 대오앞에 규모있고 알뜰한 인삼포가 넓다랗게 펼쳐져있었다. 사흘동안 굶주렸던 병사들이 말릴새도 없이 인삼포에 달려들었다. 그들은 저마다 푸른 잎새가 뻗친 굵직한 인삼들을 잡아뽑기 시작했다. 벌써 인삼을 캐들고 허겁지겁 입에 쑤셔넣는 대원도 있었다.

박덕산은 저도 모르게 달려가며 소리질렀다.

《형제들, 그만두시오. 이건 주인이 있는 인삼포란 말이요.》

덕산은 어떤 경우에도 인민들의 재산을 제 마음대로 도륙하는것을 절대로 방관시할수가 없었다.

그러나 굶주린 병사들에게 그의 호소가 통할리가 없었다. 그들은 덕산의 말은 들은척도 않고 그냥 인삼을 뽑아먹었다.

덕산은 어깨에 멨던 장총을 벗어들고 하늘에 대고 공포를 쏘았다.

고요한 수림속에 요란하게 울리는 총소리에 놀란 병사들이 굳어져서 덕산을 쳐다보았다.

다음순간 누군가가 소리쳤다.

《박덕산을 죽여라.》

여러명의 병사들이 덕산에게 달려들었다. 굶주리고 지친 그들은 리성을 잃고 덕산을 죽이자고 들었다.

한영덕을 비롯한 반일회성원들이 또한 덕산을 옹위하여 총부리를 들

이대였다. 하여 인삼포를 앞에 두고 수십명의 사람들이 서로 대치되여 총을 내대는 사태가 벌어졌다.

《형제들, 총들을 내리우시오. 나때문에 이렇게 서로 싸우면 안됩니다.》 덕산은 가운데로 나서며 힘껏 웨치였다.

그에게 총을 겨눈 병사들속에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네놈이 뭐라구 인삼도 못 먹게 하느냐?》

《당장 굶어죽을판인데 어쩌라는거야?》

덕산은 그들을 향해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인삼을 생채로 많이 먹으면 삼독이 올라 죽고마오. 위생병, 어디 있소? 당신이 말해보시오, 내 말이 틀리는가?》

늙수그레한 위생병이 어물어물 대답하였다.

《그 말은 옳소. 인삼은 그렇게 먹는게 아니지요.》

《죽을수 있다는건 둘째 문제요. 무엇보다 이 인삼포는 주인이 있소. 그러니 어떻게 제 마음대로 인민의 재산을 다칠수가 있소. 우리 반일부대에 인민을 옹호해야 한다는 구호가 있지 않는가.》

격분하여 멋 모르고 날뛰며 고아대던 병사들속에 의혹과 동요의 파문이 번져갔다. 이때 류인원처럼 팔이 길고 입이 삐쭉하니 나온 텁석부리병사가 나서서 침방울을 튕기며 몰풍스럽게 소리질렀다.

《네놈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있다. 넌 거짓말쟁이야. 너는 무송에 가면 **김일성**장군부대를 만날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어디 있어? 이젠 너를 믿을수 없다.》

《저 박가를 죽여버려야 해.》 다른 병사가 맞장구를 쳤다.

류인원같은 텁석부리가 와락 격발기를 당기며 사격태세를 취하였다.

《내가 이놈을 죽이겠소. 이놈은 우리를 공산당에 팔아먹은 놈이요.》

《물러서라!》

한영덕이 덕산을 막아나서며 텁석부리에게 총을 내대였다.

《한패장, 너도 함께 죽을테냐? 넌 이 박가와 한족속이지?》

이때 한영덕을 슬그머니 옆으로 밀며 한 병사가 중간에서 나섰다. 허우대 큰 애꾸눈의 그 병사는 지난해 왜놈목재소 습격전투시 부상을 입고 덕산에게 업혀왔던 그 사람이였다. 애꾸눈의 병사는 텁석부리가 꼬나든 총을 잡아 밑으로 내리우며 석쉼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하였다.

《동생, 너무 덤비지 말라구. 너 이 형님을 몰라?》
애꾸눈병사의 나직한 말이 텁석부리에게는 강한 타격으로 되였는지 그는 울상을 지으며 맥없이 말하였다.
《형님, 우린 이 박가에게 속고있어요.》
《그만둬. 박간사는 내게 은인이야.》
애꾸눈병사는 덕산에게 총을 겨눈 다른 병사들을 사납게 흘겨보았다.
《간사님에게 피해를 입히는자는 가만두지 않겠소.》
애꾸눈병사는 부대내 영향력있는 결의형제패의 맏이였다. 그는 덕산의 반일회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음으로 양으로 덕산을 옹호해왔던것이다. 그 순간 영덕은 애꾸눈병사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있던 자기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졌고 부대에서 덕산이 차지하고있는 힘을 새삼스럽게 느끼였다.
덕산에게 총을 겨누었던 병사들속에서 술렁술렁 동요가 일어났다. 그래도 총을 내리지 못하고있는 몇명의 장교와 병사들도 있었다.
이때 전영림의 위엄있는 목소리가 울리였다.
《무슨 일인가?》
전영림은 앓고있는 참모장을 들것에 눕혀 메고오는 몇명의 대원들과 함께 뒤늦게 인삼포에 도착하여 벌어진 사태를 목격하게 되였던것이다.
《인삼을 먹겠다고 삼포에 뛰여든것을 박간사님이 제지시켰다고 소동이 일어난겁니다.》하고 한영덕이 보고하였다.
《누가 총을 쏘았소?》
《내가 공포를 쏘았습니다.》 박덕산이 앞으로 나섰다. 《명령없이 발포한것을 량해해주십시오.》
《그렇다?》
전영림은 찌르는듯 한 눈길로 박덕산을 보고 한영덕을 보았으며 의기소침해진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볼꼴없이 발에 짓밟히고 파헤쳐진 인삼포를 보았다. 이윽고 그는 거센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무리 사지판에 들었다 해도 인간의 체모는 지켜야 하는거야. 이제 더 인삼을 먹겠다는 놈은 나서라.》
무시무시한 공포와 침묵이 혼란되였던 대오에 엄습하였다. 박덕산은

전영림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이 가슴에 무둑히 차오르는것을 느끼며 다가갔다.
《대장님, 내가 포주 (인삼포주인)를 찾아보겠습니다. 틀림없이 이 주변에 막이 있을것입니다.》
《좋소, 그렇게 하오.》
전영림은 어서 가보라는듯 손을 흔들었다.
덕산은 영덕을 데리고 곧 인삼포를 떠났다. 그들은 어렵지 않게 인삼포주인을 만날수가 있었다. 근처의 산전막에 있던 주인이 총소리를 듣고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부리나케 달려오고있었던것이다.
주인은 훤칠한 키에 지성이 엿보이는 젊은 청년이였는데 어깨에 사냥총을 메고있었다. 청년은 군복차림의 덕산과 영덕을 보자 당황한 자세로 사냥총을 벗겨들며 엉거주춤 서버렸다.
《어디서 온분들입니까?》 청년은 겁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우린 왜놈들과 싸우는 구국군이요. 길을 잃고 헤매던중 인삼포를 만나 주인을 찾던중이요.》 덕산이 말하였다. 《당신이 주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와 함께 인삼포에 가봅시다. 가보면 알게 되겠지만 우리 병사들이 굶주렸던차라 인삼을 얼마간 뽑아먹었습니다. 미리 용서를 빕니다. 인삼값은 치러드리겠습니다.》
덕산은 청년을 데리고 인삼포로 와서 전영림에게 인사시키였다. 그리고 자기의 배낭을 풀어 비상용으로 간수하고있던 아편덩어리를 청년에게 주었다. 그것은 왕덕태군장이 급할 때 쓰라고 준 아편이였다.
《이러지 마십시오. 인삼 몇포기 손해난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청년이 받지 않겠다고 뒤로 물러섰다.
《왜놈들과 싸우느라 고생하는데 우리가 돕지는 못할망정… 그러지 마십시오.》
《인민의 생명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는것은 우리 부대의 규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장님?》
《박간사 말이 지당하오. 주인, 어서 받소.》
전영림도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는 감심어린 눈빛으로 박덕산을 보고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대원들이 박덕산을 쳐다보고있었다.

그들은 덕산에게 탄복하면서 《저 사람 확실히 우리와는 다른데가 있거던.》 하고 수군거렸다.

부대가 처한 어려운 사정을 알아차린 인삼포주인청년이 돕겠다고 자청해나섰다. 그의 말에 의하면 멀지 않은 곳에 부모들이 살고있는 자기 집이 있는데 부모님들에게 잘 말하면 식량도 보태주고 길안내자도 붙여줄수 있다는것이였다.

덕산이 전영림의 승인하에 영덕을 데리고 청년을 따라가게 되였다. 가는 길에 덕산이 영덕과 조선말로 몇마디 주고받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청년이 슬며시 웃음을 짓고 물었다.

《혹시 당신들은 조선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소, 우린 구국군에서 싸우는 조선사람들이요.》

영덕이 대답하자 청년이 덥석 그의 손을 잡았다.

《이거 정말 반갑습니다. 나도 조선사람입니다.》

덕산과 영덕은 동포의 정을 안고 새삼스럽게 그 청년과 인사를 나누었다. 알고보니 그는 무송에서 중학을 나왔는데 인생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이 깊은 수림속에 도피하여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청년이였다.

《참 답답하구만. 성한 머리와 팔다리를 가지고 짐승사냥이나 하면서 산단 말이요? 틀렸소, 조선사람이라는게…》

푸접이 좋은 영덕은 어느새 그 청년과 구면친구가 된듯이 너나들이로 말을 했다. 그들은 나이가 엇비슷했다.

《글쎄 난 당신들처럼 용기가 부족하거던요. 사람이 좀 모자라지요.》 하고 청년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였다.

인삼포를 소유하였다는 그의 집은 생각외로 소박하였다. 통나무로 울타리를 든든하게 세운 다섯칸짜리 집에서 부모들과 함께 건장해보이는 두명의 형이 각기 자기 가족들을 거느리고 살림하고있었다. 그러니 온 가족이 인삼포를 가꾸고 그것을 팔아 살아가고있는셈이였다.

그의 아버지는 구레나룻이 탐스러운 덕스럽게 생긴 로인이였는데 덕산에게서 반일부대가 **김일성**장군님의 부대를 찾아가던중에 곤경을 겪고있다는 말을 듣자 두팔을 걷고 돕겠다고 나섰다.

《**김일성**장군이야 조선이 낸 위인이 아니웨까. 삼도왜적이 그 이름을 들어도 벌벌 떨지요. **김일성**장군님 성함을 들을 때마다 조선사

람된 궁지가 생깁니다. 얼마전까지 이 무송일대에서 활동하면서 본때 있게 왜놈들을 족쳤습네다. 지금은 장백쪽에서 소문을 내고있더군요. 만강까지 가게 되면 그분이 있는데를 찾아갈수 있을거웨다.》

인삼포주인로인은 여러대의 말파리를 동원하여 식량을 싣게 했고 길 안내자도 붙여주었다. 그들의 도움으로 전영림부대는 굶주림도 면하고 만강으로 쉽게 나올수가 있었다.

주인령감의 막내아들인 지성적이면서 성격이 활달해보이는 례의 그 청년이 만강까지 부대와 동행하였다. 덕산은 사기가 오른 대원들에게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일성**장군님은 유격대가 인민의 생명재산에 털끝만큼한 피해도 끼쳐서는 안된다고 늘 대원들을 가르치고계신다오. 이건 내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에게서 들은 소린데 언젠가 한 대원이 동지들을 생각해서 길가의 밭에서 옥수수 한배낭을 따온적이 있었다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장군님께서는 옥수수를 따온 대원을 처벌하도록 하시고 지휘관을 밭주인에게 보내여 값을 치러주게 했다는거요. 그분은 바로 이런분이시오.》

한편 영덕은 곁에서 따르는 인삼포주인의 아들과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여보게 친구,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소? 우린 이제 장군님을 모시고 싸우게 된단 말이야.》

《난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있소. 부모님들의 승낙도 받지 못했고… 그러나 앞으로 꼭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 혁명을 할 결심이요.》

《공부깨나 했다는 사람들은 역시 우리 무산자들과는 달라. 이제 후회하게 될거요.》

마침내 만강이라는 크지 않은 부락이 멀리 바라보이였다.

박덕산과 한영덕은 인삼포주인의 아들과 헤여지게 되였다. 덕산은 청년의 손을 힘껏 잡고 흔들었다.

《이번에 큰 도움을 받았소. 잊지 않겠소.》

《뭘요, 내가 할바를 했지요.》

《친구, 또 만나기요.》영덕은 청년의 어깨를 툭 쳤다.

청년은 전영림을 비롯한 반일부대성원들과도 인사를 하였다. 그들은

모두 청년에게 고맙다고 거듭 사의를 표하였다.
그 청년이 바로 장종학이였다. 박덕산은 장종학이라는 그의 이름과 인상을 머리속에 깊이 새겨두었다. 그러나 당시는 후날 장종학과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믿음은 별로 생기지 않았었다.
숲속길로 사라져가는 장종학의 일행에게 반일부대성원들은 오래동안 손을 흔들어주었다.
이때 반일부대앞에 도끼를 허리춤에 찌르고 등에는 망태기를 걸머멘 농군차림의 한사람이 나타났다.
《전영림대장의 반일부대가 아닙니까?》 그가 묻는 말이였다.
전영림이 의아한 눈길로 그의 아래우를 훑어보았다. 비록 허줄한 차림을 했어도 평범치 않은 그 어떤 기백이 엿보이는 그가 이상스러웠다.
《당신은 누구요?》
《전영림대장이 옳지요?》
《그렇소.》
《여기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았겠습니까. 난 조선인민혁명군사령부 통신원입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전영림반일부대가 조선인민혁명군을 찾아오는도중 여러가지 곤난을 겪고있다는것을 아시고 친히 저를 파견하시여 데리고오도록 하시였습니다.》
대오에서 환성이 터져올랐다. 반일부대의 전투모들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서로 부둥켜안으며 울고웃었다. 여러 사람들이 반갑다고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 통신원을 껴안고 돌아가다가 그만에야 공중으로 떠올렸다.
《**김일성**장군님이 제일이시다!》
《**김일성**장군 만세!》
병사들이 와 함성을 올리였다. 숲이 우수수 설레이였다. 뭇새들이 숲을 차고 날아오른다.
《덕산동지.》
영덕이 덕산의 팔을 잡아당기더니 불쑥 가슴에 얼굴을 묻는것이였다.
《드디여 왔군요,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덕산은 자기의 두눈에 눈물이 고이는것을 느끼였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산은 마음속으로 **김일성**장군님께 큰절을 올리였다.

×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장백현 홍두산밀영에서 전영림반일부대를 맞이하시였다.

반일부대가 도착하자 대기하고있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들꽃묶음들을 반일부대 장병들에게 안겨주었다. 박덕산도 축하의 꽃묶음을 받아안고 장군님의 모습을 찾아보았다.

군복우에 입으신 회색봄가을외투자락을 열어제끼신 장군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띠우시고 밀영이 보이는 보초소에 나와계시였다. 훤칠한 키에 비범한 풍채가 두드러져보이는 젊으신 모습이 태양처럼 빛을 뿌리는것만 같았다.

(아, 저분이 바로 **김일성**장군님이시구나. 얼마나 젊으신가! 그리고 얼마나 출중한 풍모이신가!)

덕산은 순간에 장군님께 매혹되였다. 장군님주위에서 설렁거리는 풀대들도, 가을바람에 춤추듯 흔들거리는 이깔나무 잎새들도 그리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활기찬 모습들도 모두 장군님의 몸에서 뿜어져나오는 그 어떤 신비로운 빛과 열의 작용인것처럼 느껴졌다.

전영림이 장군님을 제꺽 알아보고 한달음에 달려갔다.

《김사령님의 휘하에서 싸우고싶어 불원천리 찾아왔으니 부하로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전영림은 두손을 가슴높이에서 모두어쥐고 흔들며 장군님께 인사를 드리였다.

《당신들을 환영합니다. 전대장에 대한 소문은 내 이미전에 들은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고락을 같이하며 조중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왜놈들을 족칩시다.》

장군님께서는 겸허하게 말씀하시며 전영림을 포옹하시였다.

전영림은 뒤에 서있던 박덕산을 장군님앞에 내세웠다.

《김사령님, 우리 부대 선전간사 박덕산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김사령님을 찾아오게 된것은 전적으로 이 박덕산의 공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믿음에 찬 눈길로 덕산을 보시며 말씀하시였다.

《박덕산동무에 대해서는 내 이미 왕덕태군장에게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장군님!》

덕산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나왔다. 아, 장군님을 만나뵈옵는 이 순간을 내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였던가.

《이렇게 장군님을 만나뵈오니 이젠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덕산은 덩지 커다란 사나이가 운다는 부끄러움도 잊고 해진 팔소매로 눈물을 뻑 문다질렀다.

《덕산동무!》

《사령관동지!》

덕산은 장군님의 품에 와락 안기며 다시금 눈굽을 훔치였다. 장군님께서 힘껏 덕산을 끌어당기며 다정하게 어깨며 등을 어루쓸어주시였다.

전영림이 옆에서 두눈을 슴벅이며 말하였다.

《김사령님, 박덕산과 같은 좋은 사람을 우리들에게 파견해주시여 정말 고맙습니다. 이 사람이야 물론 나에게 숨기고있었지만 난 이미 박덕산이 장군님의 부하이고 공산당 조직원이라는것을 알고있었습니다.》

덕산은 전영림의 말에 놀라서 그를 보았다.

(이 중국사람이 참 엉큼한데…)

《김사령님, 나도 앞으로 사령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려고 합니다.》 전영림은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았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나는 전대장을 동무로 부르겠습니다. 전영림동무! 동무네 부대를 우리 8련대에 배속시키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무슨 의견이 있겠습니까.》

《그럼 며칠간 푹 쉬면서 로독을 풀도록 합시다. 전동무가 데리고온 대원들에게 군복과 먹을것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령님,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박덕산을 다른 련대에 보내지 말고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장군님께서는 덕산을 돌아보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아마 박덕산동무도 전영림동무와 함께 싸우는데 의견이 없을것입니다.》

(그후 전영림은 조선인민혁명군 8련대장으로 용감하게 싸우다가 적들과의 전투에서 장렬하게 희생되였다.)

그날 저녁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박덕산을 따로 만나주시였다.

달빛이 유정하게 내려비치는 밀영지의 우등불가에서 그이께서는 몸소 장작을 들고 불을 일구시며 덕산을 위해 아낌없이 시간을 바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덕산이 언제부터 혁명투쟁에 참가하였으며 가족들은 어디서 살고있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주시였다. 덕산은 그이의 따뜻한 물으심에 혈육의 정을 느끼며 대답을 올리였다. 장군님께서는 덕산이 부모와 아들이 살길 찾아 헤매는것을 알면서도 찾아가보지 못한데 대해 알게 되시자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말씀하시였다.

《조국이 광복되면 가족들을 꼭 찾아내여 그간 못다한 효성과 사랑을 넘치도록 쏟아부읍시다. 덕산동무가 혁명투쟁의 길에 한몸 바친 이상 이제는 동지들을 혈붙이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우린 사령관이나 전사이기 전에 사상의 피, 신념의 피를 함께 나눈 동지입니다.》

박덕산이 감격하여 벌떡 일어섰다.

《사령관동지, 한생의 끝까지 장군님과 운명을 같이하겠습니다.》

박덕산은 그이께 강정익에 대해서도 말씀올리였다.

장군님의 거룩하신 안광에는 추연한 빛이 어리였다. 그이께서는 슬픔을 견디기 어려우신듯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우등불가를 거니시였다.

《강정익동무는 카륜에서부터 나와 함께 활동했습니다. 그는 열정적이고 로숙한 혁명가였습니다. 아까운 동지를 잃었습니다. 정익동무의 아들이 살아있다는데 그 애를 어떻게 하든 꼭 찾아서 훌륭한 아버지의 대를 잇도록 해야겠습니다.》

덕산은 장군님의 뜨거운 동지적사랑에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

(정익동지, 동지가 그처럼 그리던 **김일성**장군님께서 지금 동지에 대해 잊지 못하시며 말씀하고계십니다. 나는 기어이 장군님을 찾아와 만나뵈웠습니다. 나는 앞으로 동지의 몫까지 합쳐 장군님을 받들어 조국광복의 그날까지 억세게 싸워가렵니다.)

갑자기 비꽃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주위의 분비나무들이 쏴—설레이며 그 어떤 곡진한 사연을 터놓는것만 같았다. 덕산에게는 마치

강정익이 저세상에서 자기의 심장의 말을 듣고 감격의 눈물을 뿌리는 것처럼 생각되였다.

이날 밤 박덕산과 한영덕은 병실에 나란히 누워 온밤 잠들지 못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중에는 장종학에 대한 소리도 들어있었다.

《영덕이, 난 한생 오늘을 잊을것 같지 않아. 정말 행복한 밤이요.》

《내 심정도 같습니다. 그런데 장종학이 그 친구 정말 답답하지요. 우리를 따라왔으면 행복과 보람을 함께 누리게 될터인데… 내 그치보고 후회할거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혁명의 길에 나선다는게 간단한게 아니지. 더구나 장종학이야 우리와 처지가 다르지 않는가. 어쨌든 괜찮은 친구야. 큰 도움을 받았거던. 모름지기 앞으로 우리를 찾아올수도 있소.》

10

김일의 승용차는 흰눈이 살풋이 깔린 도로를 타고 경쾌하게 달리였다. 김일의 옆좌석에 앉은 장종학은 불안과 송구함이 어린 기색으로 차창밖에 흘러가는 눈덮인 산과 들을 바라보았다.

지금 김일은 장종학을 데리고 방직공장건설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별오군으로 가고있었다. 김일은 건설장의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모래해결방도를 알아보던중에 별오군에 있는 중소형발전소 저수지바닥에 많은 모래가 쌓여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눈사태피해를 극복하고 수송도로가 열린다고 해도 원체 거리가 멀다보니 경제적수지가 맞지 않소. 별오군에서 모래원천을 찾아낸다면 얼마나 좋겠소.》

김일은 당장 가서 확인해보고 운반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장종학을 데리고 건설장을 떠난것이였다.

종학은 자기가 일을 쓰게 못하여 김일에게 수고를 끼치게 한다고 생각하면 죄송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리고 왜 자신은 김일이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문제해결방도를 탐구하려 하지 못하였던가 하는 자책으로 가슴이 무거웠다.

김일의 부관에게서 통지를 받은 별오군인민위원장 산호가 군인민위원회 청사앞에 나와 대기하고있었다. 중키보다 좀 작을사 한 키에 몸이 다부진 체구의 산호는 기운차게 잘 울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였다.

《1부수상동지, 안녕하십니까. 여기까지 오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산호가 아직 젊긴 젊었구만. 털모자도 쓰지 않고 맨머리바람이군.》

김일은 정열이 열기마냥 확확 내풍기는 산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옹골찬 어깨를 한번 툭 쳐주었다. 산호는 김일이 남다르게 생각하고있는 40대의 젊은 일군이였다. 산호는 시무룩해서 시름겨운 미소를 띄우고있는 장종학을 시까스르고있었다.

《아저씨, 아 이웃에 와있으면서도 한번 놀러오시지 않는단 말이예요? 이 산호를 아예 잊어버린 모양이지요?》

《태평스런 소릴 다 하는군. 언제 놀러 다닐새가 있단 말이냐. 일을 잘못해서 1부수상동지에게서 단단히 비판을 받고있다.》

산호와 종학은 복잡다단한 인생행로를 걸어오는 과정에 혈육처럼 친밀해진 관계를 맺었고 오늘도 역시 그 정을 유지해오고있었다.

김일은 사무실로 잡아끄는 산호를 만류하며 말하였다.

《됐다, 빨리 그 저수지라는델 가보자. 모래가 어느 정도 나는지 내 눈으로 봐야겠다.》

《알겠습니다. 내 이미 사람들을 동원시켜놓았습니다.》

잠시후 김일의 일행은 별오군중소형발전소가 있는 저수지에 도착하였다.

그 저수지는 언제로 강물의 흐름을 막아 발전소를 세우면서 이루어진 호수라고 할수 있었다. 한겨울철이라 두텁게 얼어붙은 호수가에 사람들이 나와 일을 하고있었다. 그들은 호수의 얼음을 까고 물속에 들어가 삽질을 하여 모래를 기슭에 퍼올려놓았다. 호수가에 우등불이 크게 지펴져있고 여러명의 사람들이 불을 쪼이고있었다.

김일은 그들에게 수고한다고 일일이 만나주고나서 호수에서 퍼올

린 모래를 한줌 쥐고 보다가 종학에게 말하였다.
《어떻소, 이만하면 건설장에서 미장하는데 쓸수 있겠지?》
《예, 질이 좋습니다.》
종학이도 손으로 모래를 만져보면서 머리를 끄덕이였다.
《이 호수바닥에 모래가 많겠지?》
《몇년동안 상류에서 흘러와 쌓이다나니 모래가 두텁게 깔렸습니다.》
산호는 마치 자기 자랑이나 하듯 사기가 나서 싱글벙글하였다.
《됐소, 이젠 방직공장건설에 필요한 모래문제가 풀린것 같소.》 김일이 만족하여 말하였다. 《그런데 한겨울에 물속에 들어가 모래채취를 한다는게 쉽지 않겠는데… 어떻게 한다?》
《사람이 각오만 단단히 가지면 못해낼게 없습니다. 한 몇분씩 냅다 삽질을 하고 나와 불을 쪼이면 일없습니다. 사실 내가 다 해본겁니다.》
《산호가 역시 패기가 있구만.》 장종학은 따뜻한 정이 어린 눈길로 산호를 쳐다보고있었다.
《군인민위원장이 앞장에 섰으니 모두 군말없이 따라나설거요. 하지만 헐치는 않을거요. 보통각오를 가지고선 안되지. 강산이 얼어붙은 겨울철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김일의 얼굴에는 우려의 빛이 그늘처럼 비끼였다. 이윽고 그는 심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별오군에서 모래채취를 맡아할수 있겠나?》
《1부수상동지가 지시를 떨구면 문제없습니다.》
《아니, 지시라고 생각지 말고 이 김일의 부탁이라고 생각하라구. 그리고 장종학동무를 돕는것으로도 되는것이고…》
《알겠습니다. 내가 앞장에 서서 물속에 뛰여들겠습니다.》
《좋아, 내 산호를 믿겠소.》
종학이도 산호의 손을 꽉 잡으며 감사의 말을 하였다.
《산호야, 고맙다. 네앞에 머리를 숙이게 된다. 필요한게 있으면 말해라.》
그러나 사실 종학은 산호도 산호이지만 김일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싶은 심정이였다. 김일이 아니였다면 삼라만상이 얼어붙은 이

겨울철에 누가 별오군에서 모래를 해결할 생각을 해낼수 있겠는가.
《1부수상동지, 내 여기 모래채취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술을 별도로 공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도 보내주고…》
종학의 말에 산호가 손을 흔들었다.
《그것도 우리 군에서 해결할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식료공장에서도 술을 짱짱 생산합니다. 고기도 있구요.》
《하, 이런… 내 산호에게 손을 들었다.》 종학이 흐뭇하여 크게 웃었다.
김일도 대견한 눈길로 산호를 보고있었다.
《산호가 괜찮아. 그러나 사람들을 그렇게 혹사시켜서야 안되지.》 하고 김일은 말하였다. 《또 능률도 크게 날수 없고… 장동무, 여기에 굴착기 한대를 보장해주도록 합시다. 더는 사람들이 얼음물속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되겠소.》
종학은 다시한번 김일에게 머리를 숙이였다.
(역시 김일동지는 생각하는 품이 우리와 다르거던.)
모래채취에 관한 문제를 일단락 지은 김일은 제잡담 걸음을 옮겨짚었다.
《어쨌든 네가 수고하게 됐다. 그럼 어디 발전소나 돌아보자. 전기생산도 하고 모래도 나와 나라에 리득을 주니 얼마나 좋은가.》
김일은 일행을 이끌고 중소형발전소를 돌아보았다. 도배전부에서 나와 발전소를 관리운영하고있는 발전소책임자가 김일을 안내하였다.
《이 발전소를 언제 건설했소?》
몸이 갈람하고 얼굴이 애되여보이는 발전소책임자는 김일이 큰 관심을 가지고 발전소에 대해 이것저것 묻자 사기가 나서 4년전에 완공되였으며 전기생산량이 얼마이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있는가에 대해서도 청산류수로 대답하였다.
산굽이로 흘러내리는 강물을 막아 건설한 중소형발전소는 김일의 마음에 흠뻑 들었다.
《그래, 농촌세대들이 다 전기불을 보는가?》 김일은 산호에게 물었다.
《예.》
《좋아, 아주 좋아.》

김일은 만족스레 머리를 끄덕이며 쌩쌩 돌아가는 발전기를 바라보았다.

그가 별오군으로 온데는 모래문제를 해결하는것도 있지만 중소형수력발전소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컸기때문이였다.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자면 전기가 많아야 해. 전기문제를 중요하게 보시였기때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국장을 만들 때 발전소를 넣게 하신거야.》

전력공업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수령님의 로고를 잘 알고있는 김일은 나라의 경제사업전반을 맡아보면서 여러 발전소건설장을 다니며 그 완공을 다그치는데 큰 힘을 넣어왔었다.

수령님께서는 얼마전에 농촌전기화를 완성하자면 중소형발전소도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김일은 별오군에 건설된 중소형발전소를 다른 군들에 일반화할 사색에 잠겨 발전소를 떠났다.

군소재지로 돌아오는 길에서 김일이 군내 인민들의 생활형편에 대해 두루 료해하는데 산호는 군인민위원장으로서 자기가 계획하고있는 사업에 대해서 김일에게 이야기하였다.

《…난 앞으로 군건설도 힘있게 내밀자고 합니다. 우선 군인민위원회청사를 번듯하게 지어놓으려고 합니다. 군인민위원회건물이 초라하니 타곳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좀 부끄럽거던요.》

《정말 와보니 군인민위원회건물이 한심하더구만. 난 무슨 관리위원회건물인가 했소.》종학이 웃으며 께끼였다.

《자체의 힘으로 건설을 하는거야 좋은 일이지.》 김일은 짤막하게 대꾸하고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잠시후 일행은 군인민위원회로 되돌아왔다. 김일은 밖에 서서 군인민위원회단층건물을 잠시 바라보더니 산호에게 물었다.

《인민위원장.》

김일의 목소리는 별로 근엄하게 울리였다.

《동무는 군안에 집없는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있나?》

《예, 한 20여세대쯤 됩니다.》

《그럼 우선 살림집부터 건설하여 군내 살림집문제부터 풀어보라구. 군인민위원회청사는 그다음에 건설해도 일없소. 인민위원회건물이나 멋있게 짓는다고 군인민위원회나 위원장의 위신이 서는게 아니야.

나라의 일군이라면 수령님께서 언제나 인민생활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설계하신다는걸 명심해야 해. 내가 방직공장을 하루빨리 건설해보자고 애쓰는것도 그것이 수령님의 높은 뜻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사업의 한 고리이기때문이요.》

김일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말을 이었다.

《한영덕동무의 일은 동무들이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또 동무들이 한영덕동무와는 모른다 할 사이도 아니기때문에 내 한마디 더 하겠소. 영덕동무의 일은 가슴아픈 일이요. 우린 한영덕동무의 과오에서 교훈을 찾아야 하오. 물론 사람이 사느라면 사업과정에 과오도 범할수 있는거요. 내 경우를 보아도 수령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여 그이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이 한두번이 아니였소. 그러나 과오는 범해도 정치생활에서만은 조그마한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되오. 우린 수령님밖에는 그 누구도 몰라야 해.》

종학과 산호는 깊은 감동을 안고 김일을 바라보고있었다. 그 순간 종학에게는 왜서인지 1936년 무송의 수림속에서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던 김일을 만났던 그때의 일이 떠올랐다.

(그때 벌써 김일동지는 수령님밖에는 몰랐다.) 하는 생각이 장종학의 머리를 치는것이였다.

11

한설미는 머리를 푹 숙이고 대학청사를 나섰다. 그리고 정처없이 걸음을 옮기였다.

(아, 정말 이다지도 괴로울줄은 몰랐구나. 앞으로 어떻게 대학을 계속 다니나? 동무들의 얼굴은 또 어떻게 보고…)

찬바람이 쌩쌩 불면서 그의 외투자락을 쑤시고들었다. 오늘따라 몸이 오슬오슬 추워났다.

(왜 이렇게 추울가? 감기에 걸렸을가? 아니야, 고민이 심하면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불편해지는 모양이야.)

좀전에 있었던 일을 상기해볼수록 설미는 더욱더 몸이 떨리였다.

오후에 학급 사로청(당시)초급단체위원장이 월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분공을 주었었다. 초급단체위원장은 한설미에게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중의 한제목을 연구발표할 분공을 주었다. 그런데 그가 연구하고 발표하여야 할 회상기의 필자는 아버지 한영덕이였다.

설미가 난처하고 딱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제대군인출신의 엄격한 초급단체위원장은 웃으면서 말하였다.

《아버지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동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오. 준비를 잘해야겠소.》

이때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설미 아버지야 철직되지 않았니?》

《그게 정말이야?》

《큰 과오를 범했어. 초급단체위원장동지가 아직 모르는가봐.》

설미는 모닥불을 들쓴것처럼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온몸의 피가 머리꼭대기로 올리뻗치는것만 같았다. 그다음엔 심장이 막 아파났다.

딸기빛으로 새빨갛게 물들었던 얼굴은 점차 피기가 가시듯 해쓱해졌다. 설미는 더는 그 자리에 있을수가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을 뛰쳐나왔다. 세면장에 들어가서 한참 울고나서 다시 교실에 들어서니 초급단체위원장이 조용히 말하였다.

《설미동무, 안됐소. 너무 속쓰지 마오.》

《…》

설미는 학급 사로청원들의 눈길이 모두 자기에게 집중되고있음을 느끼였다. 그 눈빛들중에는 동정이 어린 눈빛들이 있는가 하면 마치 반동의 딸을 보듯 랭혹한 멸시의 눈빛들도 있었다. 그것이 그의 과민한 정신상태로 인한 과장된 느낌일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설미는 참을수 없는 정신적압박감을 느끼면서 가방을 싸들고 교실을 나섰고 또 제정신없이 대학구내를 빠져나왔던것이다.

그는 습관적으로 집으로 가는 뻐스를 탔다. 그러나 뻐스에서 내리자 집으로 가고싶은 생각이 없어져 다시 걸음을 옮기였다. 그의 발걸음은 모란봉기슭의 어느 조용한 숲에서 멎어섰다. 소나무와 잣나무가 우거진 숲은 이불을 포근히 덮은것처럼 두터운 흰눈을 들쓰고 청신한 공기와 깊은 안정감으로 설미를 맞이하였다.

설미는 공원의자우의 눈을 쓸어내고 앉았다. 조용히 혼자서 울고싶었다. 눈물이 쏟아져나왔다. 곁에 아무 사람도 없기에 그는 마음껏 목을 놓아 울었다. 그렇게 울고나니 가슴이 좀 후련해지는것만 같았다.

모란봉기슭의 이 숲은 설미에게 정이 든 곳이였다.

그가 고민을 안고 여기 처음 왔던 때는 그 언제였던가.

숲속의 공원의자와 나무들이 추억을 불러일으켜주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설미는 상업대학입학시험을 치게 되였었다. 그런데 첫날 입학시험에서 그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제대로 쓰지 못하였다. (이젠 다구나, 대학에 입학하기는 코집이 글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였다. 그는 대학에서 돌아오던 길에 이 모란봉기슭에서 쿨적거리며 울었다. 그때 한 대학생이 가까운 곳에서 공부를 하고있었는데 설미는 그를 보지 못하였다. 그 대학생이 울고있는 설미를 보다가 종이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대학생은 그림을 그린 종이를 가지고 천천히 다가왔다. 인기척소리에 놀란 설미는 눈물을 훔쳐내며 쳐다보았다. 그리고 대학생의 모습을 알아보았다. 그 대학생은 설미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있는 청년이였다.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자기 집에 몇번인가 찾아온적이 있었던 소년, 아버지 한영덕과 친근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였다. 아버지들이 이야기하는 때면 소년은 설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었다.

《난 장현철이라고 해. 네 이름은 뭐니?》

《한설미…》

그리고 설미는 더 말을 하지 않고 달아나버렸다. 그후에 소년은 아버지와 함께 찾아왔으나 곁을 주지 않는 설미와는 더 말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 설미를 두고 한영덕은 말하였다.

《저건 좀 모자라는 애야. 남자애들만 보면 저렇게 달아나지 않나.》

소년은 설미보다 서너살우인것 같았는데 어느새 대학생이 된것이였다.

현철은 어리둥절한 눈길로 바라보는 설미에게 다가와 말없이 그림을 주었다. 설미가 그림을 보니 자기의 모습이 신통하게 그려져있었다. 그 그림 웃면에는 《울고있는 처녀애의 모습》이라고 씌여져있고 밑에는 《용기를 내, 언제든지 희망을 잃어서는 안돼.》라고 씌여져있었다.

《고마워요.》

설미는 저도 모르게 현철에게 말하였다.
《왜 우니? 내가 뭘 도와줄게 없니?》
설미는 설레설레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자 현철이 싱긋이 웃으며 그림을 가리켰다.
《명심해, 희망을 잃으면 안돼.》
설미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리고 그림을 손에 들고 그 자리를 떴다. 그는 자꾸 그림을 보며 생각하였다.
(그림재간이 보통이 아니야. 언제든지 희망을 잃어서는 안된다지. 희망이란 얼마나 좋은 말인가.)
그후 설미는 용기를 내여 대학입학시험을 계속 치르었다. 그 다음날 시험부터는 계속 우수한 점수를 맞아 그는 성과적으로 대학에 입학할수가 있었다.
현철이의 그림과 그의 별치 않은 말이 왜 그렇게 설미에게 힘을 주었는지는 그자신에게도 똑똑치 않았다. 아마 그것은 리치로는 해명할수 없는 이 인간세계의 오묘한 감정의 작용이라고 봐야 할것이다.
그후 설미는 자주 이곳을 찾아 공부도 하고 산보도 하군 하였다.
한번은 설미가 공원의자에 앉아 외국어문장을 암송하느라 골을 썩이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한손에 책을 든 대학생을 알아본 설미는 탄성을 질렀다.
《현철오빠로구나…》
현철은 싱그레 웃으며 눈을 끔뻑했다.
《한설미… 넌 또 여기 나왔니?》
《난 여기 자주 와요. 오빠도 자주 오는것 같군요.》
《그래, 왜 그런지 난 여기가 좋거던.》
《나도 그래요.》
《넌 여기서 뭘 공부하니?》
《시험공부를 해요. 외국어시험을 치거던요. 오빠네도 학년말시험기간이 아니예요?》
《그래, 나도 시험공부하려고 왔어. 우리 함께 공부할가?》
《좋아요.》
하여 그들은 나란히 앉아 시험공부를 하였다. 현철이 건설건재대학 학생이여서 학과목에서는 차이가 많았으나 함께 공부하는데는 지장

이 되지 않았다. 설미는 현철에게 자주 모를것을 물었는데 현철은 별로 막히는데가 없이 척척 대답해주군 하여 처녀의 경탄을 자아냈다.

《오빠는 수재로군요.》

《수재야 무슨… 그저 열성스레 공부를 할따름이야.》

그것이 작년도 여름에 있은 일이였다.

지금 설미는 지난날을 추억하면서 현철의 말을 다시금 입속으로 외웠다.

(용기를 내, 언제든지 희망을 잃으면 안돼.)

설미는 어쩐지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였다. 온몸이 와들와들 떨리면서 골이 아프고 뼈마디가 쑤시였다.

(이젠 집에 가자. 용기를 내, 희망을 잃지 말고.)

설미는 회전그네를 탄것처럼 눈앞이 빙빙 돌아갔다. 정신을 차리자고 안깐힘을 다하는데 한 대학생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다. 그 대학생은 현철의 모습을 하고있었다. 설미는 자기가 허깨비를 보고있다고 생각하였다.

《너 설미로구나. 또 여기 왔니?》

하고 현철이가 묻는데 설미는 그저 멍하니 쳐다볼뿐이였다.

《너 왜 그러고있니?》

현철이가 한손으로 어깨를 가볍게 건드리자 설미는 소스라치듯 놀랐다. 그리고 자기가 허깨비를 보는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오빠, 어떻게 여기 왔어요?》

《공부하려고 왔지 뭐. 넌?》

《나도 공부하려고…》

순간 설미의 발깃해진 볼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너 왜 우니? 무슨 일이 있었니?》

설미는 현철이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있다고 생각하였다.

(차라리 다행이야.)

설미는 만약 자기 아버지에 대한 말을 하면 그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것인가를 상상해보았다.

녀자처럼 희고 매끈한 얼굴, 윤기도는 검은 머리칼을 왼쪽으로 빗어넘겼는데 이 머리칼의 일부가 훤한 이마의 한절반을 가리우며 오른쪽에서 왼쪽눈섭우로 사선으로 내리드리웠다. 총명해보이는 눈이 예리하

게 빛나고 얄팍한 입술의 량귀를 그 어떤 점으로 찍어놓은듯 움푹 들어간감이 있는 현철의 어쩐지 애티가 어린 그 얼굴이 왜서인지 두려움을 자아냈다.

이제라도 아버지에 대한 말을 듣는다면 저 얼굴이 소태라도 씹은것처럼 찌프러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당황하여 눈길을 어디에 줄지 몰라 허둥거릴것인가? 혹은 얼음이 낀것처럼 찬서리를 풍기게 될수도 있다. 왜서인지 생각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만 달리였다.

대학에서 동무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면서 자기를 쳐다보던 그 이상야릇한 눈길들이 다시금 떠오른다.

설미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그런데 괴로운 이 시각 현철에게 모든 사정을 다 털어놓고 위안을 받고싶고 의지하고싶은 갈망이 아프도록 온몸을 들쑤셔대는것이 무슨 까닭인지 설미는 알수 없었다.

설미의 피로감이 짙게 어린 해쓱한 얼굴에는 알릴듯말듯 한 조소가 떠올랐다. 그 조소는 다름아닌 자기자신에게 보내는것이였다.

(필요없어, 다 필요없어. 설미, 용기를 내.)

《아무 일도 아니예요. 그저 눈물이 나와요. 난 집에 가겠어요. 막 추워요.》

설미는 공원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는 걸음을 옮기려다가 쓰러질듯 비칠거렸다. 현철이가 옆에서 설미를 부축하였다.

《너 무슨 병이 생겼구나.》

《아니예요, 그저 감기가 좀 온것 같애요.》

설미는 현철이를 물리치고 안깐힘을 다해 걸음을 옮기였다. 그러나 현철은 다시금 다가들어 설미를 붙들었다.

《병원에 가야 하지 않겠어?》

《아니, 집에 가겠어요.》

《그럼 내가 집까지 데려다주겠어.》

《일없어요.》

《고집쓰지 마.》

현철은 조심스럽게 설미를 부축하고 걸음을 옮기였다.

그들은 겨우 숲을 벗어나 거리로 나왔다. 얼마쯤 더 걷자 설미는 오금을 꺾고 주저앉았다.

《설미야, 좀 기다려. 내가 차를 잡을테야.》

현철이가 차도로에 나섰는데 한대의 승용차가 달려오다가 멎어섰다. 승용차의 문이 열리더니 김일이 얼굴을 내밀었다. 김일이 아래단위에 대한 지도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였다.

《무슨 일이냐?》

현철은 김일에게 꾸벅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나서 다급히 말하였다.

《저기 설미가 급병이 온것 같습니다.》

김일이 부관에게 눈짓을 하며 함께 내리였다.

설미는 김일을 알아보고 웃어보인다는것이 얼굴을 이그러뜨리였을뿐이였다. 주저앉은 설미를 림병욱부관과 장현철이 부축하여 차에 태웠다. 현철이도 차에 올라탔다.

림병욱이 설미의 이마에 손을 짚어보며 말하였다.

《열이 심합니다.》

《일없습니다.》 설미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하였다.

김일은 설미의 얼음덩어리처럼 찬 손을 꼭 쥐였다.

《네가 어디 갔다가 이렇게 얼었니? 운전사, 차를 돌려 병원으로 가자.》

《난 일없습니다. 집으로 가겠습니다.》 설미는 도리머리를 저으며 말하였다. 《감기가 온것 같애요.》

《하여튼 병원에 가서 알아보자.》

김일의 승용차는 병원을 향해 달리였다.

12

이날 밤도 한영덕은 민족보위성청사의 한 방에서 수령님의 로작학습에 열중하고있었다. 수령님의 로작들에는 안팎의 준엄한 정세하에서 희망찬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힘차게 달려나갈수 있는 방향과 방도가 다 제시되여있었다. 영덕은 군대를 강화하는 그 무슨 새

로운 탐구를 한답시고 군대내의 아래일군들을 억누르면서 관료주의적으로 내민 군사기술만능주의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날이 갈수록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고있었다.

수령님의 로작원문을 놓고 자자구구 따져보며 심장에 새기는 그의 귀전에는 김일의 목소리가 울리는것만 같았다.

《영덕동무,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든 그이만을 생각하고 그이를 따르며 살면 되는거요. 언제나 굳게 믿고 사시오. 우리 수령님만 믿고 살란 말이요,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

(그렇다, 나에게 그 어떤 처벌이 내린다 해도 그건 응당한것이다. 그래도 나는 수령님을 따르며 일을 할것이다.)

이때 전화종소리가 울려 한영덕은 송수화기를 들었다. 다음순간 그는 후두둑 가슴이 떨리여 송수화기를 놓아버릴번 하였다. 수화기에서는 **김정일**동지의 친근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던것이다.

《한영덕동지,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영덕은 헉— 하고 숨을 들이긋고나서 송수화기를 두손으로 꽉 잡아쥐며 말씀올리였다.

《나같은 불충한 놈의 안녕이 뭐겠습니까. 수령님께선 건강하십니까?》

《예, 수령님께서는 건강하십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되지요. **김정일**동지의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 또 이렇게 전화를 걸어주시니 황송하여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바로 며칠전에 **김정일**동지께서는 영덕에게 몸소 전화를 걸어주시였었다. 그때 **김정일**동지께서는 따뜻한 인사말씀을 하시고나서 수령님께서 이번에 한영덕동무가 정세를 정확히 가려보지 못하고 과격한 성격으로 망동적으로 일하여 과오를 범하였다고 하시며 크게 가슴아파하고계심을 말씀해주시였다. 그리고 **김정일**동지께서는 죄책감에 잠겨있는 영덕에게 맥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조직생활과 사상관점문제에 모를 박고 지난 생활을 잘 총화해봐야 한다는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영덕은 그이가 가르쳐주신대로 당조직에 찾아가 자기 비판을 심각하게 하였고 또 매일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진행하고있었다.

《내 조직을 통해 한영덕동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령님께도 보고드렸습니다.》

수화기에서 울리는 **김정일**동지의 말씀은 영덕의 가슴을 세차게 뒤흔들었다. 영덕은 흥분하여 숨이 가빠올랐다.

《수령님께서는 영덕동지가 자기 비판도 솔직히 하고 결함의 원인도 잘 찾았기때문에 로동계급속에 들어가 단련하면 능히 고칠수 있다는 믿음의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요? 이 죄많은 놈을 수령님께서 믿어주신단 말입니까. 세상에…》

어느새 영덕의 두눈에 눈물이 그렁하니 고여올랐다.

(아 수령님, 이 한영덕이 수령님께 천백번 용서를 빕니다.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서 명령을 내리십시오. 내 천길물속이라도 서슴없이 뛰여들겠습니다.)

《**김정일**동지, 수령님께 말씀드려주십시오. 난 이제 당장 로동현장에 내려가겠습니다. 성실히 일하면서 제 과오를 씻겠습니다.》

《영덕동지의 심정을 알만 합니다. 사람이 마음만 굳게 먹는다면 재생하는것은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영덕동지야 원래부터 군인이 아닙니까. 그대로 로동현장에 나가면 모를것이 많을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인민경제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서 경제를 좀 배우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영덕의 홀쭉하니 여윈 볼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였다.

어쩌면 이다지도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사랑과 믿음에 보답한단 말입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고맙다는 말밖에는… 보답하겠다는 말밖에는…》

《그럼 됐습니다. 인민경제대학에 가서 공부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시 건강에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전화를 끊으시였다.

한영덕은 그냥 송수화기를 든채 멍하니 서있었다. 귀전에는 그냥

그이의 말씀이 울리고있었다. 영덕은 가슴이 터지는듯 한 격정이 끓어올라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방안을 서성거리기도 하고 어둠이 질게 어린 창밖을 바라보기도 하였다.

전화종소리가 울리였다. 영덕은 덤벼치며 송수화기를 들었다. 그 누구한테서 전화가 걸려오든 그에게는 반가웁게 생각되였다.

《한영덕동무요?》

상대방은 김일이였다. 영덕에게는 이 시각에 자신이 가장 바랐던것이 다름아닌 김일과의 대화였던듯이 느껴졌다.

《1부수상동지, 지방에 나가셨다던데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내 지금 돌아오는 길이요. 오던 길에 설미를 만났댔소. 모란봉숲에서 혼자 모지름을 쓰는걸 현철이가 어떻게 발견하고 거리까지 데려내왔더구만. 그 애가 몸이 불덩이갈길래 병원에 입원시키고 왔소.》

《설미가… 그 애가…》 영덕은 가슴이 졸아드는것만 같아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소, 아마 감기를 소홀히 하여 폐염이 온것 같소. 병원의사들의 말이 며칠 안정하면 일없을거라더군. 내 혹시 동무네 집에서 설미때문에 걱정할것 같아 이렇게 알려주는거요.》

《그렇습니까? 애를 돌봐주어 고맙습니다. 그 애가 요즘 저나름대로 고민에 빠져있는가본데… 하기야 다 이 애비가 구실을 못한탓이라고 할수 있지요.》

《내 보건대 설미가 좀 심한 성격인것 같소. 그런 처녀들이 또 독하기도 하지. 하여간 부모들이 그 애에게 관심을 돌려야겠소.》

《알겠습니다. 그런데 1부수상동지, 이제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내 할말이 있어서… 1부수상동지를 기다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소?》

《내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상으로는 도저히 말을 다할것 같지 못합니다.》

잠시후 한영덕은 김일을 찾아 내각청사로 향하였다. 세찬 바람속에 우수수 흔들리는 버드나무처럼 여전히 가슴은 마냥 설레이고있었다. 불밝은 거리로 활기있게 오가는 수도시민들의 모습이 여느때없이 친근하

고 정답게 안겨왔다. 그의 발걸음은 딸애가 입원하였다는 의학대학병원근처에 와서 우뚝 멈춰섰다. 그의 눈길은 병원의 불켜진 창문들을 하나하나 더듬어본다. 그 어느 방에 딸애가 누워있을것이다.

(애야, 안심하고 잠을 자거라. 이 아버지가 너에게 미안하구나. 하지만 너는 앞으로 보게 될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겨 소생하는가를… 나는 이 한몸 아낌없이 불태워 그 사랑에 보답할것이다.)

×

내각 제1부수상의 집무실에는 두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흘러넘치였다. 위인의 덕망이 집무실에도 찾아와 곳곳에 스며드는듯싶었다.

김일은 어느덧 지그시 눈을 감고 (사색이 깊어질 때 그는 눈을 감는 버릇이 있었다.) 한영덕의 격정어린 이야기를 듣고있었다.

(**김정일**동지… 과시 인정깊고 다심한분이시야. 우리 수령님 그대로이시지.)

《1부수상동지,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한영덕의 이런 말이 들려와서야 김일은 눈을 떴다. 영덕이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있었다.

《영덕동무, 난 우리의 행복에 대한 생각을 하고있소. 수령님을 꼭 닮으신 그러한분이 계신다는것이 조선혁명을 위해서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말이요.》

《그렇습니다.》

《동무도 기억하겠지, 원동의 훈련기지에서 백두광명성탄생소식을 듣고 만세를 부르던 그때의 일이…》

《그 일을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우린 수령님을 모시고 백두산밀영에 가서 어리신 장군을 보고 그 앞날을 뜨겁게 축복하였었지.》

…그때 백두산밀영의 소백수가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박덕산은 나무권총을 깎고있었다. 장대한 체격에 목갑총을 찬 그가 투박한 손에 단도를 쥐고 나무를 깎는것은 어쩐지 잘 어울리지 않는것이였으나 그

시각 그는 장난감권총을 만드는데 심혈을 다 기울이고있었다.

소백수의 맑은 물이 사품쳐흐르면서 군복바지의 아래도리에 각반을 쳐서 근육이 두드러져보이는 굵직한 다리에 물방울을 튕기였는데 덕산은 아무 감각도 못 느끼는듯 그대로 앉아 없는 재간으로 권총을 깎느라 이마에 땀발이 내돋았다.

한영덕이 다가와 의아하여 덕산이 하는 일을 여겨보았다. 말끔하니 면도를 하고 반일부대에 있을 때 왜놈들과 싸우다 부러져 빠져버렸던 이발자리에 새 이를 해넣어 이제는 별로 나무람할데가 없는 영덕의 얼굴에 싱긋 웃음이 어리였다.

《정치지도원동지, 뭘 깎고있습니까.》

조선인민혁명군 8련대 정치위원이였던 박덕산은 원동에서 국제련합군이 조직되면서 조선지대 정치지도원으로 활동하고있었다.

《보면 몰라? 권총을 만들지 않나.》

《그건 만들어 뭘하자구?》

《어리신 장군께 드리자구 만드는거지.》

박덕산은 어리신 장군께서 김정숙녀사와 함께 계시는 밀영쪽을 눈으로 가리켰다.

《그러니 장난감을 만드는군요. 그런데 어리신 장군이 가지고 노는 권총이 있던데요, 못 봤습니까?》

《하나 더 있으면 좋은거지. 김정숙동무도 권총 두개를 차고다니지 않소. 헌데 앞날의 큰 장군이 권총 한개에 만족할수가 있는가.》

《하긴 그 말도 옳습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깎아주고싶어 이러는거야.》

《그런데 솜씨가 서툴군요, 안되겠습니다. 내가 깎아보지요.》

영덕이 이리 내라는듯 손을 내미는것을 박덕산이 툭 쳐버렸다.

《동무 솜씨도 뻔한거야. 내가 깎는게 어드래서 그래. 이제 보라구, 어리신 장군이 흠뻑 마음에 들어할걸. 흠―》

《그럼 난 뭘 만든다? 그렇지, 쌍안경을 만들어야겠군.》

《어리신 장군에게 쌍안경이 있소.》

《쌍안경도 두개면 좋지 나쁠게 없지요.》

《허, 한영덕동무의 머리가 지내 잘 돌아가는군. 좋은 생각이야. 그

럼 빨리 가서 쌍안경을 만드오. 한영덕이 얼마나 잘 만드는지 두고보기요.》

박덕산은 부리나케 달려가는 한영덕의 모습을 미소를 띠우고 바라보다가 계속 권총을 깎아나갔다. 그는 어리신 장군께서 씩씩하고 용감하게 자라 조선의 미래를 밝히는 별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장난감권총에 담고있었다. …

지난날의 추억들을 되새겨볼수록 김일은 감개무량하였다.

《영덕동무,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백두광명성을 축복하며 나누던 그 기대와 소망이 오늘 현실로 꽃펴나고있지 않소.》

《맞습니다. 난 우리 군대의 요직에서 사업하면서 **김정일**동지께서 얼마나 담대하고 현명한 명장이신가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지난해 〈푸에블로〉호사건때에도 그분께서는 놈들이 〈보복〉을 떠드는데 그것을 주동적으로 짓부셔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였습니다. 사실 그때 군대안의 일부 일군들속에서 〈보복〉을 떠드는 적의 위협에 동요하는 현상이 나타났댔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에 대해 전쟁관점이 바로서지 못한 표현이라고 명철하게 지적하시고 만약 적들이 우리측 지역에 기여든다면 단호히 징벌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지요.》

《나도 알고있소. 어찌 군사분야뿐이겠소. 지금 그분의 위인상은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고있소. 영덕동무도 그분께서 문학예술분야를 지도하시면서 그야말로 혁명을 일으키고있다는것을 잘 알겠지.》

《그야 뭐 최근에 사람들의 심금을 틀어잡는 영화들이 쏟아져나오고있는것만을 보고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문학예술인들은 **김정일**동지를 높이 따르며 모시고있다오. 그 사람들이 체계가 선 사람들이요.》

이윽고 김일의 입에서 조용히 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장백의 험한 산발 눈보라 헤치시고
혁명의 수만리길 걸어오셨네

김일은 노래를 그만두고 깊은 생각에 잠겨 말을 이었다.

《**김정일**동지께서 친히 지으신 노래지. 〈충성의 노래〉… 노래 제목도 얼마나 숭고하오. 이 노래에 그이의 높은 정신세계가 울리고있소. 그이야말로 충성의 귀감이요. 〈인민들은 심장으로 충성을 노래하네〉, 얼마나 좋소. 영덕동무, 난 우리가 한생 수령님에 대한 충성을 심장으로 노래하며 살자면 **김정일**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시는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있소. 그분은 우리의 미래이고 조선혁명의 미래요. 그분을 잘 모시는것이 수령님을 잘 모시는것으로 되오.》

《지당한 말씀입니다.》

김일은 한영덕과 더불어 혁명의 앞날을 두고 이야기하며 시간의 흐름을 잊고있었다.

제 2 장

1

만수대언덕은 예로부터 평양의 명당자리로 일러왔지만 《만수대》라는 그 이름이 온 나라 인민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게 된것은 1969년말부터라고 할수 있다.

만수대언덕우에 조선혁명박물관을 일떠세우고 그앞에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중심으로 조선혁명의 력사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대기념비들을 세우기 위한 건설은 1967년부터 준비사업이 진행되였는데 건설이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들어선것은 1969년 12월이였다. **김일성**광장에서 7만명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참가하여 만수대대기념비건립공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궐기모임이 진행된 이후로 만수대언덕은 그야말로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이 모여와 열화와 같이 타번지는 장소로 되였다.

국가적으로 만수대건설지도위원회가 조직되였는데 내각 제1부수상 김일이 그 위원장이 되여 전반사업을 밀고나갔다.

수령님의 탄생 60돐이 눈앞에 다가온 1972년 봄에 들어서 건설은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었다. 수령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대기념비 제막식을 거행할 계획이였다.

장종학은 공사의 현장지휘사업을 책임지고 만수대언덕에 나와살고 있었다. 온 나라 인민들의 물심량면의 지원과 헌신적인 로력투쟁의 한복판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부풀어 장종학은 몇날 밤을 지새워도 별로 피곤한줄도 모르고 건설장이 좁다하게 드달려다니였다. 이제 3년만 있으면 60고개에 올라설 나이였지만 키꼴이 후리후리하고 지성미가 엿보이는 장종학의 모습은 퍽 젊어보이였고 여기저기 다니며 찌렁한 목소리로 지시를 떨구는 그의 모습은 저으기 돋보이기까지 했다.

하늘이 구름 한점없이 맑게 개인 3월 어느날 만수대언덕우에서

공사지휘를 하던 장종학은 문득 건설에 동원된 자동차들밖에 다니지 못하게 되여있는 언덕아래의 도로에 까만 승용차 한대가 나타나 천천히 지나가는것을 발견하게 되였다.

(웬 승용차일가? 혹시…)

이상한감을 느끼며 유심히 그 승용차를 바라보는데 만수대언덕을 지나쳐갔던 승용차가 다시 되돌아오는것이였다. 역시 서서히 도로를 지나친 승용차는 점차 속도를 내여 보통문이 있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분명 어느분이신가 만수대언덕의 건설정형을 살펴보고 가신것이 틀림없었다. 종학은 왜서인지 류다른 흥분이 짜릿하게 온몸을 줄달음침을 느끼였다.

얼마후에 수령님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한 일군이 만수대언덕으로 달려와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하였다. 종학이 본 그 승용차에는 바로 수령님께서 타고계시였던것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지방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만수대언덕우에서 벌어지고있는 요란한 공사의 정경을 보게 되시였다. 자신도 모르게 벌어지는 공사에 의혹을 느끼신 수령님께서는 즉시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시였다. 만수대언덕우에 일떠서는 대기념비의 중심에 자신의 동상이 크게 세워지게 된다는것을 아시게 되신 수령님께서는 대노하시여 아직 인민들에게 좋은 집도 다 지어주지 못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당장 그만두라고 하시였다. 그때 보좌하는 일군이 사실여부를 말씀올리게 되였는데 수령님께서는 그러면 동무들은 인민성도 없고 로동계급성도 없고 당성도 없으니 간부자격은 물론 당원자격도 없다고 호되게 비판하시였다. 결국 그 일군은 공사를 중지할데 대한 수령님의 지시를 전달하기 위해 현장으로 내려오게 되였던것이다.

장종학의 얼굴은 대뜸 컴컴하게 질려버렸다. 하늘을 찌를듯 드높던 그의 사기는 푹 꺾이였고 위신있던 두어깨는 축 처져버렸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수령님의 교시는 곧 법으로 여기는데 습관된 종학이였다.

수령님께서 공사중지의 지시를 떨구었다!

종학의 눈에 성수가 나서 일하는 로동자들과 지원자들의 모습이 안겨들었다. 웃고 떠들며 노래를 부르며 이 언덕우에 충성의 한마음을 바쳐가는 저들에게 어떻게 공사를 중지하라고 감히 말할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혁명의 수도 평양의 중심부에 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을 세상이 다 보게 높이 세우기를 바라는 인민들의 그 소망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제는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수령님께서 노하시여 당장 공사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떨구지 않았는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도 없으니 간부자격은 물론 당원자격도 없다고 하시였다지 않는가! 이게 어디 간단한 문제인가.

절망에 빠진 장종학이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고 지휘부안에 주저앉아있는데 김일이 나타났다.

《장동무, 뭘하고있는거요?》

김일을 본 종학의 두눈에 마치 자기를 구원해주러온 사람을 본것처럼 희망의 불꽃이 확 피여올랐다. 종학은 저도 모르게 안도감을 느끼며 김일을 마중하였다.

《1부수상동지, 이거 큰일났습니다. 수령님께서… 글쎄 수령님께서 만수대대기념비건설공사를 당장 중지하라는 엄명을 내리셨답니다.》

김일의 무뚝뚝한 얼굴에 전에없이 엄숙한 빛이 떠돌고있었다. 사실 그도 수령님의 그 지시를 전달받았던것이다.

《그래 동무는 어쩌자는거요?》

《글쎄, 무슨 다른 방도가 생각나야 어쩌지 않습니까. 수령님께서 대노하시였다는데… 아무래도…》

《아무래도 어쩐다는건가?》

《내 생각같아선 아무래도… 일단 공사는 중지해놓고 차츰 형편을 봐가면서…》

《여보, 장종학동무!》

김일의 반달모양의 숱진 두눈섭이 푸들푸들 떨리고 그밑의 선량해보이던 두눈에서 갑자기 불줄기가 뻗어나오는것만 같았다.

종학은 그렇게 성이 난 김일을 오래간만에 보았다. 종학은 대번에 가슴이 서늘하게 얼어들었다.

《동문 도대체 제정신이요? 만수대건설지도위원회 위원장인 내앞에서 공사중지에 대한 말을 한단 말인가?》

종학은 어쩐지 억울한 생각이 들어 항변하듯 말했다.

《나야 수령님께서 대노하시여 지시를 내리셨다니까 어쨌든 일단 중지는 해놓고 차후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한겁니다.》
《안돼! 공사를 중지하지 말고 내밀어야 해. 내가 수령님께 말씀드리겠소.》
《그럼… 난 1부수상동지를 믿고 공사를 밀고나가겠습니다.》
장종학은 김일의 신념과 의지에 따르지 못하는 자기자신을 타매하며 얼굴을 붉히였다.

×

원래 만수대대기념비건설에 대해서는 수령님께서 가르침을 주시였던 바가 있었다. 1969년 2월 수령님께서는 평양시건설총계획사판을 보아주시면서 만수대에는 무슨 건물을 앉힐 계획인가를 물으시였다. 해당 설계일군이 대기념비를 조선혁명박물관과 함께 건설할 예정이라고 대답을 올리자 그이께서는 총체적으로 안만 잡아두고 그것은 후날에 보자고 하시였었다. 그때 수령님께서 알고계신 대기념비들의 내용에는 수령님의 동상건립이 예견되여있지 않았다. 그런것을 인민들의 념원이 담긴 이 건설을 **김정일**동지의 발기에 따라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맞이하면서 추진시켰던것이다.
어쨌든 수령님께서 평양시건설총계획사판을 보아주시면서 조선혁명박물관과 대기념비를 세울데 대한 계획을 승인해주신 사실이 있었기때문에 김일은 이날 오후 수령님을 찾아가 만수대건설의 명분을 내세울수가 있었다.
김일이 수령님께서 평양시건설총계획사판을 보아주신 사실을 상기시키자 수령님의 근엄한 얼굴에는 의아한 빛이 어리였다.
《아니, 그거야 이다음에 보자고 한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인민들이 어디 말을 듣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공사가 다 완공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김일은 두손을 잡아쥐고 절절한 어조로 말씀드리였다. 온 나라 인민들의 기대가 자기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등허리에서 진땀이 흘렀다. 어떻게 하든지 수령님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그로서는 가슴이 어찌나 조여드는지 숨쉬기가 가쁠 지경이였다.

《그렇단 말이지? 우리 인민들의 요구라… 인민들의 요구란 말이지?》

수령님께서는 집무실을 거니시며 혼자말씀처럼 조용히 뇌이시였다.

인민을 위해 혈전만리를 헤쳐오시였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로고를 바치시는 수령님이심을 잘 알고있는 김일은 수령님께서 이 인민의 요구앞에서 얼마나 심중한 생각을 하시겠는가를 능히 짐작할수가 있었다.

이윽고 김일을 향해 돌아서신 수령님께서는 한걸음 양보를 하시려는듯 한결 억양을 낮추어 물으시였다.

《그래 박물관을 짓느라고 모란봉을 납작하게 눌러놓지야 않았겠지요?》

《예, 그렇게 하느라고 집터도 많이 낮추고 집도 낮게 지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내가 보니 그건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혁명박물관과 우리 혁명력사를 형상화한 대기념비는 그대로 두고 동상은 그만두시오.》

수령님의 단호한 말씀에 김일은 깜짝 놀라 두눈이 휘둥그래졌다.

《사실 인민들의 요구는 수령님의 동상을 모시는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오.》

김일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계속하였다.

《수령님께서는 먼저 떠나간 동지들의 동상을 그들의 고향들에 다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김책동지랑 안길, 강건, 류경수, 조정철… 수령님, 이렇게 다 동상을 세워주시면서 어찌 자신의 동상을 세우는것을 승인해주시지 않으시는겁니까.》

김일의 목소리는 눈물겹게 울리였다. 정말이지 전사들에게는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면서 왜 수령님의 동상을 높이 모시고싶어하는 인민들의 념원은 외면하시는지 김일은 그저 안타까움에 가슴이 터질것만 같았다.

《그들은 모두 공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숙연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래서 나도 인민들도 그들을 잊지 못합니다. 김책이, 안길이, 강건이, 류경수, 최춘국이, 조정철이… 김일동무도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두 큰 공적을 세운 동무들입니다.》

어느덧 수령님의 목소리는 추연하게 젖어 울리고있었다.

《동상이란 조국과 인민을 위해 큰 공적을 세운 사람들을 내세우기 위해 건립하는것입니다. 그런데 난 아직 인민들에게 좋은 집도 지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아직 잘살지 못하고있습니다. 또 아직 나라도 통일되지 못했습니다.》

《수령님!》

김일은 눈굽이 뜨겁게 달아올라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동을 달았다.

《인민들은 수령님을 하늘처럼 생각하고있습니다. 인민들은 수령님을 조국을 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시는 민족의 구세주로, 태양으로 여기고있습니다.》

《그만두시오.》

수령님께서는 김일의 말을 자르시고 못내 섭섭하신듯 노여운 어조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여러 말 할게 없습니다. 김일동무, 동무가 진정으로 날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그 동상건립을 막아야 합니다. 내가 그처럼 동무를 믿고있는데 당신까지 이러면 난 어쩌라는거요.》

김일은 머리를 떨구었다. 크나큰 감동이 온몸을 뜨겁게 달구어 금시 눈물이 쏟아질것만 같았다.

김일은 눈물이 고인 눈을 들어 수령님을 우러러보았다.

2

밤이 깊었으나 대낮처럼 불빛이 환한 만수대언덕우에서는 선동차에서 불어대는 노래소리가 우렁차게 울리고 돌을 가공하는 기계소리, 망치질소리, 삽질소리, 활기찬 롱담소리, 웃음소리 등이 가락맞게 어울려 장엄한 건설의 대교향악을 창조하고있었다.

장현철은 충성의 야간지원돌격대에 속하여 작업에 참가하고있었다. 충성의 야간지원돌격대란 낮에는 자기가 속한 기업소들에서 일을 하고

퇴근시간후에 자발적으로 건설장을 찾아와 일손을 돕는 사람들이 속한 집단이였다. 처음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찾아와 지원로동에 참가하던 사람들이 점차 자기의 정연한 조직체계를 구성하여 중대들과 대대를 만들었다. 인원의 구성을 보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대학생들과 지어 중학생들도 포함되여있었다. 그들은 야간지원돌격대에 참가하면서 생의 보람을 찾고있었다.

야간지원돌격대에는 각양각색의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보충되기도 하였다.

장현철은 지난해에 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시원림건설사업소에 기사로 배치되였다. 그는 낮에 기업소에서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제끼고 밤에는 어김없이 야간지원돌격대에 참가하였다.

오늘 야간지원돌격대는 지대정리작업을 하였다. 작업을 마무리하자 사람들은 저마끔 인사들을 나누었다.

《수고했습니다.》

《래일 또 만납시다.》

그들은 이 친근하게 오가는 인사말속에서도 가슴뿌듯한 보람을 느끼며 각기 자기의 집들로 헤여져간다.

야간지원돌격대에는 자체의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밤이 깊어 집으로 헤여져갈 때 남자들은 꼭 녀자들을 집에까지 데려다주어야 한다는 것이였다. 젊은 청년대학생인 중대장은 대단히 섬세한데가 있어 집이 한방향에 있는 남자와 녀자들을 조를 짜서 붙여주군 하였다. 누구도 그에 의견을 가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껍게 받아들이였다.

장현철의 눈길은 몸집이 실하고 얼굴이 훤하며 눈이 억실억실한 한 처녀를 더듬어찾았다. 그 처녀는 늘 함께 일하던 짝패처녀와 작별인사를 하고있다.

《은희언니, 잘가. 래일 또 만나요.》

《래일 만나자. 오늘 수고많았어.》

그 처녀들은 다름아닌 한영덕의 딸 한설미와 김일의 딸 박은희였다. 은희와 헤여진 설미가 현철에게 뛰여왔다.

《오빠, 이젠 가자요.》

《응, 가자.》

현철이와 설미는 한중대에서 일했다.

원래 한설미를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여있던 사람은 나이지숙한 사무원이였는데 현철이가 설미와 한조가 되도록 해달라고 중대장에게 제기하였다.

중대장이 의미심장한 눈으로 보자 현철은 대담하게도 《우린 사촌형제지간입니다.》하고 말하였고 설미도 긍정하듯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하여 그들은 만수대대기념비건설장에 지원로동을 나오면서 언제나 함께 일하고 함께 집으로 가게 되였다.

장현철은 한설미와 나란히 밤의 거리를 걸어갔다.

거리는 퍼그나 한적하였다. 가로등빛속을 걷고있는 청춘남녀들의 모습이 더러 보이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투명한 공기속에 짜랑하니 흘렀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설미가 손에 들었던 우산을 펴들었다.

《넌 어떻게 우산을 다 가지고 다니니?》

《일기예보를 들었지요 뭐. 오늘 밤 비가 내린다고 했어요.》

《넌 참 빈틈이 없구나.》

현철은 설미와 한우산을 쓰고 걸어갔다.

어둠속을 내리는 보슬비로 하여 마치 밤안개가 낀것처럼 앞이 뽀얗게 보이였다.

《설미야, 춥지 않니?》

《일없어요, 오빤?》

《나야 건강체가 아니냐.》

《피―》

설미는 입술새로 혀를 내밀어보이였다. 사실 현철은 군살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마른 몸이였던것이다.

《오늘 힘들었지?》

《예, 어제 밤 일끝내고 집에 가서 시험공부를 하느라 잠을 좀 설쳤더니 막 피곤해요.》

설미는 별로 어려워하지 않고 현철을 따랐다. 그에게는 현철이가 친오빠처럼 정답고 살뜰하였던것이다. 특히 고마운것은 어찌된 일인지 자기가 정신적으로 시련을 겪을 때마다 그가 나타나서 힘을 준것이였다. 설미는 결코 지난날들을 잊을수가 없었다.

현철이도 설미를 친동생처럼 여기고있었다.

현철은 어린시절에 아버지 장종학을 따라 몇번 설미의 집에 놀러 갔던적이 있었다. 그러나 소년의 뇌리속에 설미라는 소녀는 《심술꾸러기계집애》라는 인상밖에 준것이 없었다. 그들은 별로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다.

그후 모란봉기슭의 숲에서 우연히 대학입학을 위한 첫날시험을 잘못치고 울고있는 설미를 만나게 되였었다. 현철은 사연을 묻지도 않고 절망에 빠진 처녀애에게 힘을 주려고 제나름으로 노력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의리적인 감정과 인정에 기인된것이였다. 그는 자기의 별치 않은 노력이 설미에게 그처럼 큰 힘을 주었다는것을 아직도 잘 모르고있었다.

현철이가 모란봉기슭의 고요한 숲에 정이 들어 자주 찾아가고 설미 또한 그 숲을 좋아하여 자주 찾아가게 된것으로 하여 서로 만나게 되면서 리해를 두터이하게 되였고 또 3년전 설미가 아버지의 철직으로 인하여 정신적시련을 겪을 때도 그 장소에서 만난것을 보면 그들의 인생에서 모란봉이라는 평양의 명산은 신비로운 산이라고 할수 있었다.

현철이는 3년전 급성페염에 걸린 설미를 김일의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간 그날에야 설미의 가정에서 있은 일을 알게 되였다. 그때 현철은 설미를 동정하였고 처녀를 오빠처럼 돌봐주어야 하겠다는 감정적인 충동에 사로잡히였다. 하여 그는 병원에 입원한 설미를 자주 찾아갔고 그후에 여러가지로 설미를 사심없이 도와주군 하였다. 일단 가까와지자 설미는 허물없이 현철을 대하였는데 그러한 생활은 현철에게 설미가 천성적으로 대단히 쾌활하고 활동적인 처녀라는것을 느끼게 하였다.

비발이 굵어지기 시작하였다. 현철은 우산이 설미쪽으로 더 씌워지도록 윈심을 쓰다보니 한쪽어깨와 팔이 다 젖어 축축해졌다.

《그러지 말고 똑같이 쓰자요.》

설미가 우산을 또 현철이쪽으로 기울이였다.

《난 일없어, 비를 좀 맞는게 얼마나 시원하다구. 헌데 넌 몸이 좀 약해서 비를 맞으면 감기에 걸리기십상이야.》

《내가 몸이 약하다구요? 사람 웃기네. 난 뚱보인데요 뭐. 똑똑히 알아둬요, 나야말로 건강체란걸.》

《그런데 넌 3년전에 감기에 걸렸다가 페염을 앓았지?》

《또 그 소리… 내 걱정은 말고 재미있는 얘기나 해줘요.》

《뭘 말할가? 참,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글쎄 우리 직장장아바이가 슬그머니 날 부르지 않겠니. 이것저것 묻더니 불쑥 하는 말이 처녀를 보지 않겠는가 하지 않겠니.》

《그래서요?》

《그래서 모르는척 하고 〈어디 처녀가 있어요?〉 했지. 그러니까 자기 동생네 집에 있다는거야. 뻔하지, 날 자기 조카에게 장가들이려는거지 뭐.》

《그래서요?》

설미는 어찌나 긴장했던지 우뚝 멈춰서며 현철을 보았다.

《왜 서니? 빨리 가자.》 하고 현철이 계속 걸음을 옮기자 설미는 제정신이 든듯 따라걸었다.

《난 직장장아바이에게 아직 처녀 선을 보러 다닐 생각이 없다고 했지. 청춘시절에 뭔가 큰일을 해놓고 장가가겠다고 했어.》

《정말 잘했어요. 역시 오빤 선이 섰단 말이예요.》

설미는 손벽을 치며 깔깔 웃었다.

《정말 우습지, 내가 대학을 졸업한지 1년밖에 안됐는데 벌써 장가간다는게 말이 되니? 직장장아바이도 내 말이 리해되는지 머리를 끄덕끄덕하며 말하더구나.

〈자네말도 옳으이. 하지만 장가는 천천히 간다쳐도 처녀를 친해둬서 나쁠게 없어.〉》

《아니, 그 아바이 참 한심한 사람이예요. 남이 장가가든말든 제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거예요.》

설미는 화가 난다는듯 토달거리였다.

《직장장아바이야 날 생각해서 그러는거지 뭐.》

《아니예요, 자기 조카를 오빠에게 시집보내려고 안달아하는거예요.》

《허, 이거 설미가 되게 신경이 예민해졌는걸.》

현철은 설미가 뾰로통해지는 바람에 어지간히 어리둥절해져서 처녀를 보았다. 그러다가 설미를 놀리고싶은 생각이 들어 말하였다.

《내가 직장장아바이 조카딸과 사귈수도 있는거지 그게 무슨 큰일이라구.》

《그럼 뭐…》
설미는 입술을 잘근잘근 씹다가 말을 이었다.
《그렇게 하라요. 내가 상관할거야 없지요.》
설미는 새뜩해져서 쌔근거리며 걸음을 빨리하며 앞서갔다. 우산을 현철이가 들고있었기에 설미는 우산에서 벗어나 비를 맞으면서 그냥 걸어가는것이였다.
그 순간 현철은 자기가 동생처럼 여기는 한설미도 다름아닌 다 자란 처녀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였다. 그와 함께 설미가 현철이 자기를 남다르게 생각지 않는가 하는감이 들었다.
(그럴수 없어, 우리야 오누이처럼 친한 사이일따름인데…)
현철은 피씩 웃음을 머금고 설미를 따라잡았다.
《넌 괜히 신경을 쓰는구나. 비에 옷이 젖은걸 보렴. 꼭 철부지애 같애.》
《난 오빠를 생각해서 말하는데 오빤…》
《네가 싫다면 직장장아바이 조카딸과 사귀는걸 그만두자.》
《왜 그만둔다는거예요. 맘대로 하세요. 난 그저… 괜히 그래본거예요.》
설미는 아닌보살을 하며 웃었다.
어느새 설미의 집이 있는 아빠트까지 다 왔다. 이제 현철은 자기 집이 있는 곳까지 한참이나 걸어가야 하였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있었다.
《우산을 쓰고 가라요.》
《자, 그럼 잘 자라구. 래일 다시 만나자.》
현철은 현관에 서있는 설미에게 손을 흔들고 걸어갔다.
(참, 처녀들의 속심은 모르겠다니까.) 하고 생각하며 현철은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3

밤새 내린 비로 초목은 마치 목욕이라도 하고난듯 깨끗하고 청신해

보였다. 푸름푸름 밝아오는 새벽빛에 정원의 풀잎사귀며 나무가지들에 매달린 물방울들이 반짝거리였다.

김일은 깊은 생각에 잠겨 집정원을 거닐고있었다. 그는 밤새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자반뒤집기를 하다가 일찌기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얼마나 담배를 피웠는지 입안이 쓰고 텁텁하였다. 그래도 또다시 담배를 피워물고 한숨과 함께 연기를 내뿜었다.

그는 만수대동상건립에 대한 수령님의 승인을 끝내 받을수가 없었다. 그후 최현을 비롯하여 여러 항일혁명투사들이 수령님을 찾아가 승인해주실것을 간청하였으나 그이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으시였다.

(이걸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래 장종학의 말마따나 공사를 일단 중지하고 다른 방도를 모색해봐야 한단 말인가? 수령님의 탄생 60돐이 당장 눈앞에 박두한 이 시각에…)

문득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을 건설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는 일부 불견실한자들이 수령님께서 자신의 동상을 세우는것을 승인하지 않으신다는것을 코에 걸고 기념탑의 선두유격대지휘관을 일반형상으로 바꾸려고 간교하게 책동하였었다.

《어느 놈이 감히! 보천보전투를 직접 조직지휘하신분이 누구시요? 우리 수령님이 아니신가. 항일혁명전쟁이 어떻게 승리하였는가도 똑똑히 모르는것들이 사상사업을 지도하면 얼마나 잘하겠소. 무조건 선두유격대지휘관을 위대한 수령님으로 잘 형상해야겠소.》하고 불같이 터치는 김일의 목소리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의 모형이 제작되고있던 공업 및 농업전시장(당시)에 찌렁찌렁 울려퍼지며 일군들의 정신을 후려쳤다.

그후 김일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건설현장에 천막을 치고 틀고앉아 건설과정을 지휘하였으며 보천보전투승리 30돐을 맞으며 기념탑이 제막된 다음에야 마음을 놓고 평양으로 올라왔다.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건설과정을 돌이켜보느라니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예지가 빛발치는 영상이 눈앞에 그려졌다.

그 당시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면서 건설이 옳바르게 진행되도록 제때에 대책을 세우도록 해주신분이 바로 **김정일**동지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고수하는 투쟁에서는 추호의 양보도 있을수 없다시면서 김일을 적극 고무하고 지

지해주시였던것이다.
김일의 얼굴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어리였다.
이 시기 이룩하신 업적으로 하여 인민들이 누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로 부르며 따르는 **김정일**동지, 그이께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가르침을 받자, 이 만수대동상건립을 발기하신분도 다름아닌 그이가 아니신가.
언제나 현명하고 기발한 발기로 김일을 놀라게 하시는 **김정일**동지이시였다.
바로 얼마전에도 김일은 만수대대기념비건설장에 나왔던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으로부터 **김정일**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듣고 경탄을 금치 못하며 마음속으로 그이께 깊이 머리를 숙이였었다.
그이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는데 지금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구성되고 완성된 혁명학설로 정식화하는 불후의 저작을 준비하고계신다는것이였다.
《조만간에 그이께서는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의 제한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수령님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이 현시대와 사회주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유일한 지도사상이라는것을 확증하는 사상리론을 내놓으시게 될것입니다.》
그 일군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일은 머리를 치지 않을수 없었다. 지금까지 늘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공감하며 투쟁해온 김일이였지만 그 위대한 혁명사상을 시대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한다는데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것이였다.
(아, **김정일**동지. 그이는 동서고금의 학설에 도통하시고 비범한 예지를 지니신 사상리론의 천재이시며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빛나는 귀감이시다.)
김일은 격정으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그 일군에게 말하였었다.
《그분을 내놓고 어느 누가 그런 일에 대해 생각하고 또 발기할수 있겠소. 그분이 아니시면 어느 누가 그런 사업을 해낼수 있겠는가 말이요. 도대체 엄두도 낼수 없는 일이야.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니 우리 로혁명가들은 그이께 모든 사업을 다 의탁하고싶은 심정이요.》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을 머리속에 떠올리노라니 어느 사이엔가 김일의 온몸에는 부쩍 활기가 내솟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신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그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준것이다.

김일은 삽을 들고 터밭을 뚜지기 시작하였다. 정원관리원이 밭을 일구다가 마무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밭이였다.

이때 집안에서 아이들이 달려나왔다. 당시 김일의 집에서는 손자들이 함께 살고있었다. 김일이 늘 집에 늦게 들어왔기때문에 손자들과 만나기가 힘들었다. 그가 들어오면 대체로 아이들은 잠들어있었기때문이였다.

《할아버지, 우리가 하겠어요.》

중학교학생인 맏손자 광선이 의젓하게 말하며 김일에게서 삽을 빼앗았다. 그러자 둘째손자인 박충선이 지지않고 삽에 손을 뻗친다.

《나도 삽질할줄 알아.》

박광선이가 동생에게 눈을 흘기며 주먹을 쳐들었다.

《요건, 까불랑대겠니?》

《할아버지, 형이 날 못살게 굴어요.》

충선은 김일에게 다가붙었다.

김일은 사랑스럽게 손자들을 보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일없다, 충선아. 형이 널 때리면 할아버지가 가만둘것 같으냐. 내 혼쌀내주지.》

드물게 찾아오는 손자들과의 대화는 언제나 김일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 고모는 일어났느냐?》

《예, 고모는 지금 공부하고있어요.》

딸 박은희는 **김일성**종합대학 졸업반인데 지금 졸업시험을 치고있었다.

《할아버지, 풍찬로숙이라는게 무슨 말이예요?》

《그것도 몰라?》 하고 광선이가 동생에게 퉁을 먹이였다.

《그건 찬바람부는 밖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잔다는거야.》

《할아버지, 맞나요?》

《그래그래, 광선이가 비슷하게 알고있다.》

김일은 어쩐지 이날 아침 손자들과 어울려 더 시간을 보내고싶었다.

《얘들아, 내 오늘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줄가?》

조만해서는 말을 잘 하지 않는 할아버지에게서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것이 기뻐서 아이들은 와 주위에 몰켜들었다.

《야, 좋다. 빨리 해달라요.》

《빨찌산이야기지요?》

《할아버진 왜놈들을 얼마나 쏘아잡았나요?》

세월의 흐름속에 눈귀와 입귀의 주름살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김일의 얼굴에 인자한 미소가 떠올랐다.

《내 오늘 너희들에게 우리 수령님께서 빨찌산투쟁때 어떻게 탄생일을 쇠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그때로 말하면 우리 빨찌산들이 한창 소부대활동을 벌리던 시기였단다. 우리 소부대성원들은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행군하던중에 4월 15일을 맞게 되였단다. 눈속에서 자고… 너희들은 아직 만주의 기후가 얼마나 찬지 모르지? 만주의 산야엔 4월에도 눈이 녹지 않는단다. 우리가 눈속에서 자다가 이른새벽에 깨여났는데 어둠이 가셔지지 않은 산꼭대기에서 이상한 말소리가 들리지 않겠니. 가만 들어보니 왜놈들의 말소리가 분명하더구나. 후에 알고보니 그 산꼭대기에 왜놈들의 무리가 진을 치고있었는데 우린 바로 그밑에서 잠을 잤단 말이야. 캄캄한 밤에 은밀히 행군하다보니 누구도 그것을 몰랐던거야.》

아이들은 바싹 긴장하여 숨소리마저 죽이였다. 잔뜩 겁을 먹은 8살잡이 처녀애인 수련이는 주먹을 손에 물고있었다. 김일은 담배를 한대 꺼내 피워물었다. 충선이가 감질이 나서 재촉하였다.

《할아버지,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우리는 장군님께 이 사실을 보고드렸단다. 장군님께서는 모두 백포를 벗고 왜놈군복을 갈아입으라고 하시였다. 소부대활동시기 우린 변장용으로 왜놈군복을 준비해가지고 다녔지. 왜놈군복을 입은 우리는 장군님의 명령대로 행군대오를 짓고 당당하게 행군해갔단다. 왜놈들이 자기 편으로 보았는지 아무런 반응도 없더구나. 이렇게 행군하여 도착한 곳이 훈춘현 란가당자란 골짜기였지.

망원초를 배치한 우리는 군복을 갈아입고 아침식사를 준비했단다. 싸리나무를 주어다 불을 피우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갔던 흰찹쌀로 밥을 짓고 찬을 만들었단다. 그 쌀과 반찬감들은 김정숙녀사께서 우리가 행군중에 장군님의 탄생일을 맞게 되리라는것을 생각하여 장군님의 전령

병인 전문섭동무의 배낭에 넣어준것이였단다.

잠시후에 우리는 장군님께 소박한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둘러앉았단다. 우리가 〈장군님의 생신날을 축하합니다.〉하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고맙다고 하시면서 타향에서 생일을 맞으니 어릴 때 할머님, 어머님이 차려준 생일상을 받던 일이 생각난다고 하시더구나. 그러시면서 이 흰찹쌀과 반찬감은 어디서 났는가고 물으시더구나. 그건 빨찌산생활에서는 보기 드문 음식이였기때문이지. 전문섭이 쌀은 이 할아버지가 얻어온것인데 장군님의 생신날에 상을 차려올리라고 김정숙동지께서 반찬감과 같이 배낭에 넣어주었다고 말씀올리였다. 내가 혁명임무수행중에 장군님의 식사보장을 생각해서 우정 흰찹쌀을 구해가지고와서 김정숙녀사께 드린 사실이 있었단다.

장군님께서는 그에 대해 아시고 나에게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이 밥은 단순한 생일상에 놓인 밥이 아니라 동지의 사랑이다, 이 쌀을 구해가지고 어려운 싸움을 하면서 수천리길을 걸어 밀영까지 지고왔으니 그 동지애의 높이를 어디에 비기겠는가, 세상에 동지애란 말이 생겨서 얼마나 되는지는 알수 없으나 우리 동지들의 사랑과 같은것은 없을것이다, 박덕산동무의 동지애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함께 들자고 하시면서 어서 가까이들 나앉으라고 하시더구나.

장군님께서는 어서 한숟가락씩 뜨고 동지애를 발양해서 조국광복을 하루빨리 앞당기자고 하시면서 자신에게 차례진 음식을 우리들에게 권하시였단다. 결국 그이의 생일상은 우리 소부대성원들의 생일상으로 되여버리고만셈이였지.

이 이야기는 너희들이 알고싶어하는 빨찌산들의 풍찬로숙을 리해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될수 있을거야.

이제 멀지 않아 우리 수령님께서는 탄생 60돐을 맞으신단다. 한평생 인민들을 위해, 너희들의 행복한 앞날을 위해 헌신분투해오시느라 언제한번 변변히 탄생일을 쇠지 못한 우리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뜻깊게 맞이하자면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단다. 너희들은 공부를 더 잘해서 수령님의 참된 아들딸로 튼튼히 준비해야 하고. …》

김일은 씩씩하게 터치는 아이들의 맹세를 들으면서 손목시계를 보았다. 빨리 출근하여 **김정일**동지를 만나뵈워야 하였다.

×

김정일동지의 집무실에는 널직한 창문들을 통해 밝은 해빛이 쏟아져들어오고있었다. 김일은 기이할 정도로 방안에 가득 차넘치는 따뜻한 빛을 온몸으로 느끼며 **김정일**동지께 만수대동상건립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를 말씀드리였다.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안광에는 결연한 빛이 어리였다. 허나 그이께서는 수령님의 교시앞에서 고민을 많이한 김일을 위로하시듯 다정한 미소를 지으시고 말씀하시였다.

《1부수상동지, 우리 주저하지 말고 계획대로 공사를 밀고나갑시다. 수령님의 승인을 받고 이 일을 추진시키려다가는 언제가도 동상을 세울수 없을것입니다. 해방후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나왔을 때도 수령님께서는 부르지 못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힘있는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인민들의 념원은 억제할수 없습니다. 내밉시다.》

김일은 가슴이 확 열리는것만 같았다.

(바로 이것이다. 수령님의 참된 전사의 립장은 바로 이래야 하는것이다.)

김일은 수령님의 승인을 받자고 고심을 하며 속을 태운 자신을 꾸짖으며 **김정일**동지앞에 머리를 숙이였다.

《말씀을 듣고보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1부수상동지를 비롯해서 항일투사동지들을 깊이 존경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쓰게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가르침을 주십시오. 만수대대기념비공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수령님앞에 모든 책임을 지고 냅다 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곧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김일이 인사를 드리고 방에서 나오려는데 그이께서 《가만.》하고 멈춰세우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한번 만나려 했다면서 어느 한 장을 열고 사냥총 한자루를 꺼내드시였다.

《1부수상동지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사냥총이 낡았다는것을 알고 이미전부터 생각하고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냥총을 써보십시오.》

김일은 희색이 만면하여 신형으로 제작된 맵시있는 사냥총을 받아들었다. 그는 사냥총을 들고 무게도 가늠해보고 겨냥도 해보았다.

《거 탐나게 생겼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좋아하는 김일을 보고 더없이 기쁘신듯 환한 미소를 띄우시였다. 그러시던 그이의 안색이 문득 흐리여졌다. 그이께서는 김일의 담배진이 노랗게 물든 손을 유심히 바라보고계시였다.

《아무래도 1부수상동지가 담배를 지내 피우시는것 같습니다.》

《산에서 싸울 때부터 난 담배질군으로 유명하였습니다. 이젠 하도 인이 배겨놔서…》

김정일동지께서는 항일투사들에게서 김일의 유명한 담배일화를 들으신적이 있으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어느해인가 유격대원들이 행군도중 가을걷이를 한 눈덮인 콩밭을 지나게 되였는데 대렬의 후위에서 걷던 김일이 불쑥 밭가운데에 뛰여들어 눈을 마구 파헤치였다. 지휘관인 그의 행동은 대원들모두를 의아하게 만들었고 행군대렬은 저절로 멈추어서게 되였다.

《자, 담배질군들은 여기 와서 콩잎을 줏기요. 이게 참나무가랑잎보다는 훨씬 낫소.》

김일은 금방 눈속에서 주은 콩잎을 한줌 머리우로 쳐들고 싱글벙글하였다. 그때 부대에서는 담배가 거덜이 난지 퍽 오래되여 김일과 같은 담배애호가들은 우등불가에서 가랑잎을 부스러뜨려 종이에 말아 피우군 하였던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전우들은 습격전투에 나가거나 적후공작을 나갔다돌아올 때면 담배를 얻어가지고 와서 김일에게 주군 하였다. 그는 누가 담배를 아무리 많이 주어도 됐다는 소리 한마디없이 다 받아 큰 배낭에 차곡차곡 보물처럼 소중히 싸서 넣고는 저녁마다 담배잎에서 뜬내가 나지 않는가를 냄새맡아보군 하였다고 한다. 이런 김일을 두고 수령님께서도 빨찌산투쟁을 하던 시절에 김일의 8련대에는 불이 없어도 그에게만은 담배불이 꺼지지 않고있었다고 말씀하시였었다.

김일의 력사가 깊은 담배기호에 대해 잘 알고계시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무작정 권고할수 없는 안

타까움을 느끼시였다.

《제발 담배를 적게 피우십시오. 담배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알겠습니다.》

《난 수령님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를 걸어온 항일투사동지들의 건강때문에 마음을 놓을수 없습니다. 얼마전에 한영덕동지가 심장병이 위중해져서 병원에 입원했었다는 통보를 받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한영덕이…》

김일은 목이 메여 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인민경제대학에서 공부하는 한영덕이 얼마전에 심히 앓아서 한 보름간 입원치료를 받았던적이 있었다. 비록 과오를 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수령님께 충실한 항일투사들에 대한 **김정일**동지의 사랑과 믿음은 이처럼 지극하고 뜨거운것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한영덕동무의 건강상태는 좋습니다. 난 그 동무가 반드시 과오를 씻고 더 분발하리라고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은 **김정일**동지의 집무실에 차넘치는 따뜻한 해빛을 새삼스럽게 온몸에 느끼였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자연의 빛의 작용이 아니라 **김정일**동지의 뜨겁게 불타는 심장의 열에서 시작된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였다.

4

장종학에게는 모든 일이 요즘처럼 순조롭게 펴나가는적이 일찌기 없었던것처럼 여겨졌다.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공사중지설이 언제 있었던가싶게 만수대대기념비건설공사는 힘차게 다그쳐져서 이제는 완공을 눈앞에 바라볼수 있게 되였다. 조선혁명박물관건설은 이미 끝났고 수령님의 동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형상된 기발형군상탑, 다시말하

여 우리 인민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에 찬 투쟁력사를 항일유격대원들, 인민군군인들의 투쟁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는 대형기발형군상탑건립도 완공되여가고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대기념비주변의 원림조성사업에 참가하고있었다. 이제는 새로 형상하는 수령님의 동상을 모시면 될것이였다.

작업복차림으로 건설장을 종횡무진하는 그의 입에서는 가끔 노래소리가 울려나왔다.

장백의 험한 산발 눈보라 헤치시고
혁명의 수만리길 걸어오셨네
...

김일이 사랑하는 노래 《충성의 노래》를 그도 좋아하였다. 그 노래를 부를 때면 가사에 깃든 깊은 뜻과 절절한 음악이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군 한다.

장종학은 원칙이 예리한 김일을 무서워하면서도 정신적인 거인이라고 늘 탄복하면서 존경하였다.

행운이라고 해야 하겠는지 장종학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상하게도 김일의 투쟁과 많이 얽혀돌아갔다. 그래서 김일이 또한 장종학을 남달리 생각하고 신임하고있는것인지도 모른다.

김일이 만수대언덕에 나타나자 장종학은 한달음에 달려가 인사하였다.

《1부수상동지, 나오셨습니까?》

《장동무가 수고많겠소.》

김일은 건성 인사를 받고 현장을 돌아보자고 하였다. 김일은 제잡담 동상모심돌기초공사장으로 향하였다.

얼마전 **김정일**동지께서 건설장에 나오시여 현지지도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동상의 모심돌을 예견했던것보다 낮게 설정하고 동상위치를 조각군상탑에 접근시킬데 대한 현명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김일을 비롯한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비로소 동상의 높이와 위치를 조절하지 않으면 대기념비전반의 내용상련관과 형식의 조화를 맞추는데 손색을 줄수 있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가르쳐주

신대로 동상의 높이를 조절하고 그 위치를 조각군상탑에 접근시켜야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을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이끌어오시는 수령님의 숭고한 영상이 더욱 친근하게 안겨올수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 현지지도를 하신 후 동상을 새롭게 다시 형상하고 만수대언덕에서는 동상위치를 옮기는 공사가 벌어지게 되였다.

김일은 힘차게 일을 다그치는 건설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장종학에게 말하였다.

《빨리 동상모심돌기초작업을 다그쳐야겠소.》

《알겠습니다. 오늘중으로 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좋소. 그래, 장동무 보기엔 어떻소? 확실히 명철하게 위치를 잡으셨거던.》

김일의 훤한 얼굴에는 경탄의 빛이 력연히 어리였다.

《그렇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제때에 받았습니다.》

《탁월한분이시요. 그 누구도 그분의 예지를 따를수 없단 말이요.》

그들의 눈에 공사현장을 촬영하고있는 사람들이 띄였다. 장종학도 잘 알고있는 내각사무국 부장과 촬영가였다.

김일은 부장을 소리쳐불렀다.

《그래, 뭘 찍고있는거요?》

키가 껑두룩하고 얼굴이 거밋한 부장이 달려와 김일에게 인사를 하고 기록영화에 수록하기 위한 촬영을 하고있다고 대답하였다.

《동무들이 좋은 일을 하고있구만.》 김일의 얼굴에 느슨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거야 우리들의 기본혁명임무가 아닙니까.》

부장은 길다란 허리를 약간 굽히며 겸손하게 말하였다.

《기본혁명임무라… 허허, 그 말이 마음에 드오. 그런데 난 동무들이 중요한걸 놓치고있다는 생각이 드는구만.》

《예? 무슨 말씀이신지…》

부장은 허리를 꼿꼿이 펴며 어리둥절하여 김일을 바라보았다.

《물론 지금 하고있는 촬영도 해야지. 하지만 동무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혁명활동을 기록영화에 수록하여 인민들에게도 알리고 영구보존하여 후세에 전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야겠소.》

부장이 난감한 기색을 지었다.

《실은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지지도과정을 찍으려고 여러번 시도해보았습니다만 그이께서 아예 촬영기를 돌려대지도 못하게 하시는 바람에 매번 쫓겨나군 했습니다. 속이 상하는 일이지요.》

《여보, 부장동무!》

장종학이 결이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러신다고 물러선단 말이요? 찍으란 말이요. 설마 촬영기를 빼앗기야 하시겠는가.》

장종학은 부장이 대답을 못하자 김일의 동의를 구하듯 그에게로 돌아섰다.

《1부수상동지, 그렇지 않습니까?》

김일은 머리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그리고 혼자소리처럼 조용히 말하였다.

《아니요, 이런 사업은 무작정으로는 힘들것이요.

우리가 차츰 말씀드려서 반승낙이라도 받도록 해야 할것 같소.》

《1부수상동지가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우린 더 바랄게 없습니다.》 하고 부장이 김일에게 머리를 숙이였다.

장종학은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달아올랐다. 자기의 즉흥적인 큰소리가 김일의 용의주도한 사색의 바위에 부딪쳐 파도처럼 부서진다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던것이다.

한편 김일의 사색은 더욱더 깊어지고있었다.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사진촬영이라도 놓침없이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장장 20년에 걸치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우리 수령님께서 후대들에게 남기신 사진이 과연 몇장이나 되는가?! 너무나 적었다. 김일은 이에 대해 깊이 통탄하는 사람이였다.

아, 항일빨찌산들속에 사진사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왜 이 사업에 조그마한 관심도 돌리지 못했단 말인가. 돌이켜보면 왜놈들과 싸우는 간고한 생활속에서 그럴만한 정신적여유를 찾지 못했었다. 그러나 결정적인것은 자기를 비롯한 지휘관들의 정신세계가 아직 낮았기때문이였다.

항일의 군복을 입고 부대를 지휘하시는 수령님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없다는데 생각이 미칠 때면 뼈아픈 후회감을 느끼군 하는 김일이다.
(더는 그런 후회를 우리 당력사에 남길수는 없다.)
김일은 심중하고 절절한 빛이 질게 어린 얼굴로 부장에게 말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예술인들의 간청으로 가끔 기념사진만은 찍으신다는데 우선 사진촬영부터 잘해보도록 합시다. 그러자면 필요되는게 뭐요?》
《사진제작설비가 좀. …》
《날 용서하오. 내 그것에는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했구만. 그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풀어주겠소.》
소담스러운 흰구름송이들이 한가로이 떠도는 푸르른 하늘에서는 봄날의 태양이 높이 떠서 따뜻한 빛을 아낌없이 쏟아붓고있었고 뭇새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무리지어 찾아와 만수대언덕우를 날아돌고있었다. 눈앞의 모란봉에도, 대기념비주변에 조성해가고있는 원림속에도 빨간빛, 연분홍빛, 흰빛, 보라빛, 노란빛으로 아름답게 물든 각양각색의 꽃들이 다투어 피여났는데 그로 하여 만수대언덕우에는 꽃향기가 진동하였다. 이 모든것은 마치도 이곳에서 벌어지는 뜻깊은 건설을 축복해주는듯싶었다. 활기차게 약동하는 건설장의 소음속에서 김일의 간곡한 목소리가 부장과 장종학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있었다.
《우리 항일빨찌산들은 40여년전에 수령님을 따라 혁명을 시작했지만 아직 그것을 완수하지 못했소. 왜?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기본은 우리가 수령님을 잘 받들지 못하였기때문이요. 내 나이 60이 넘은 지금에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당사업을 지도하시는것을 보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였소. 오래전에 그이와 같은분이 우리 혁명의 수뇌부에 계시면서 수령님을 보좌해드렸다면 만사가 다 풀렸으리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번씩 떠오르군 하오.
부장동무나 장종학동무도 알고있겠지만 지금 전국각지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그이를 우리 당 수뇌부에 모실데 대한 청원서와 편지들을 매일과 같이 당중앙위원회앞으로 보내오고있소. 그래서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수령님의 후계자로 모시자고 여러모로 애쓰고 안타까와하고있소.
내각사무국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늘 가까이 뵙는 사람은 아직

부장동무밖에 없소. 그러니 동무가 우리의 심정을 알고 그이의 혁명활동을 수록하는 일을 책임적으로 해주기를 바라오.》

부장도 장종학도 깊은 존경심이 어린 눈으로 김일을 바라보았다.

내각사무국 부장과 헤여진 김일과 장종학이 건설장을 돌아보는데 뜻밖에도 별오군인민위원장인 산호가 그들에게로 징겅징겅 다가왔다.

《아니, 산호가 어떻게 나타났나?》 김일이 반색을 지었다.

《평양에 회의가 있어 왔던 길에 만수대건설장에서 흙 한삽이라도 뜨고싶어 찾아왔습니다.》

《역시 산호가 산호로구만. 그렇지 않소, 장동무?》

《산호가 산호로 불리우는 이상에야… 하하.》

장종학이 즐거운 웃음을 터치였다.

다부진 체구에 정열이 확확 내풍기는듯싶은 산호는 당장 작업에 착수하려는듯 손에 들었던 가방에서 로동장갑을 꺼내면서 감탄하는 소리를 하였다.

《만수대언덕이 굉장합니다. 막 부글부글 끓는군요. 이제 여기에 수령님의 동상을 온 세상 사람들이 우러르게 높이 모시게 된다고 생각하니 막 가슴이 높뛥니다. 언제부터 와보고싶었습니다.》

《한번 혁신해보라구, 아직 젊었는데. … 그러나 내 지시를 받아야 하네.》

종학이 시까스르는데 산호는 여전히 격동된 태도로 김일과 종학에게 정색한 어조로 말하는것이였다.

《오늘은 왜선지 해방후 신의주에 찾아오시였던 수령님을 처음 뵈옵던 일이 생각납니다. 동중학교에서 신의주시민들앞에서 연설하시던 그이를 우러르면서 격동되던 그때를 잊을수가 없습니다.》

김일은 알릴듯말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래, 산호가 그때 처음으로 수령님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뵈웠지.)

《일제식민지하에서 고생살이를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희망을 간직했고 또 조국광복을 이룩하고 개선하신 그이를 열렬하게 따르고 받들며 오늘까지 이른 인민들의 그 마음이 이 만수대기념비건설에서 최대로 폭발되고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산호의 말이 그럴듯한 소리야. 력사적으로 축적된 인민의 감정이 오

늘날 여기 만수대대기념비건설장에서 폭발되는것이지.)

문득 김일은 종학이나 산호가 다 해방직후 신의주에서 다시 만났거나 인연을 맺게 되였다는데 생각이 미치였다.

그 시절의 신의주는 세 사람에게 다 잊을수 없는 도시였다.

5

1945년 10월 어느날, 한대의 찔차가 평안북도 공산당청사를 떠나 동중학교쪽으로 가는 도로를 내달렸다. 찔차의 앞좌석에는 군복차림을 하고 군모를 단정히 쓴 기품있는 30대 중엽의 사나이가 앉아 예리하면서 사색적인 눈길로 앞을 주시하고있었다. 그는 조국에 개선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평안북도에 파견하신 조선인민혁명군대표인 김일이였다. 어제날의 박덕산은 해방된 조국땅에서 김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있었다.

원동에 기지를 둔 항일빨찌산들이 조국개선을 앞두고 그 준비를 다 그치던 그때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아무르강가에서 박덕산과 담화하시며 새 이름을 달아주시였다.

김일은 주위의 야산들에는 봇나무가 우거지고 길섶에는 잡초들이 설렁거리던 강변의 오솔길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머리우에는 여름의 태양이 구름속을 뚫고 빛을 내리쏘는데 나무그림자들이 발치에서 얼른얼른거리던 바로 그 오솔길을 **김일성**장군님께서 전사와 함께 거니시면서 한생에 잊지 못할 말씀을 하시였던것이다.

《이제 해방된 조국에 나가 활동하자면 여러가지 복잡한 정황에 부닥칠수 있을거요. 그래서 나는 우리의 일부 지휘관동무들이 가명을 쓰도록 하자고 결심했소.》

장군님께서는 검푸른 아무르강의 장엄한 흐름을 잠시 바라보시였다. 강우에서 기계배 한척이 떠가고 그우를 갈매기 한마리가 날아예고있었다. 파도가 일고 강물이 뒤설레이면서 번쩍번쩍 해빛을 반사하였다.

그이께서는 정깊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박덕산동무의 가명을 두고는 별로 생각이 깊어지더구만. 어쩐지 동무에겐 내 이름자에서 한자를 따서 주고싶더란 말이요.》

순간 덕산은 흥분이 온몸으로 짜릿하게 줄달음침을 느끼였다. 장군님께서 자신의 이름자에서 한자를 딴다는건 무슨 의미란 말인가?

《사령관동지께서 달아주시는 이름이라면 어떻게 불리워도 다 좋습니다.》

《이름에는 의미가 있어야 하는거요. 일부 숙명론자들은 사람의 운수가 이름에 따른다는 말도 하고있지, 허허허.》하고 장군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난 하나 〈일〉자를 생각했소. 박덕산동무야 혁명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요. 앞으로도 혁명만 알고 혁명을 위해서만 살 사람이니 하나 〈일〉자를 생각한거요.

그래서 김일이라고 부르자고 하는데 어떻소? 박일이보다는 그게 어쩐지 더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지거던.》

덕산의 가슴에는 고마움이 밀물처럼 차올랐다.

지나친 흥분과 넘치는 행복감으로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해졌다.

《그런데… 덕산동무의 부모들이 알면 노발대발하지 않을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성까지 고쳤다고 말이요.》

《전 사령관동지께서 이끄시는 혁명을 하고있습니다. 저에게서 사령관동지께서 계시지 않는 혁명은 존재할수 없습니다. 그 혁명은 우리 조선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혁명입니다. 사령관동지와 같은 성을 쓴다면 부모님들은 분에 넘치는 영광으로 받아들일것입니다.》

《허허허… 덕산동무가 자기 사령관을 지내 춰올리는것 같군.》하고 나직하게 뇌이시는 장군님의 안광에는 뜨거운 정이 넘치였다.

장군님께서는 생각깊은 눈길로 해빛이 번쩍이는 강물을 바라보시다가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난 정말 동지복이 있소. 미더운 동지들이 언제나 날 받들어주었소. 동지들이 나에게 **김일성**이란 이름을 지어주었지. 모두들 나에게 큰 기대를 걸고 나를 위해선 목숨도 아낌없이 바치고있소.》

어느덧 그이의 두눈은 축축하게 젖어올랐다.

《이런 동지들이 없다면 이 **김일성**이 홀로 무엇을 할수 있겠소. 그래서 내 박덕산동무를 김일이라 부르고싶었던거요.》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덕산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장군님을 그리며, 장군님을 우러르며 모진 고생을 달게 여기며 싸워온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흘러갔다. 한생 따르리라 결심한 위대한분, 민족의 태양으로 받드는분에게서 의미가 깊은 이름을 받아안는것만도 더없는 영광인데 오히려 동지복에 대해 말씀하시니 무엇이라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할지 알수 없었고 그저 목이 꽉 메이는것이였다. 그는 겨우 입을 열었다.

《사령관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사령관동지께서 지어주신 〈김일〉이라는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고맙기로는 내 더 동무를 고맙게 생각하고있소. 동무가 그렇게 날 믿고 따르니 내가 고맙단 말이요. 김일동무, 우리는 누구보다 가까운 혁명동지요. 이제는 성도 같아지고 이름도 비슷하니 친형제처럼 생각되는구만.》

《사령관동지,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김일동무, 우리 앞으로 혁명의 승리를 위해 더 억세게 싸워나갑시다.》

《이 김일은 혁명승리를 위해 사령관동지 한분만을 따르겠습니다.》

김일은 세상에 다시 태여난듯 한 환희를 안고 장군님을 우러러 감사와 맹세의 표시로 힘차게 거수경례를 올리였다.

박덕산이 김일로 된 사연은 바로 이러하였다.

김일이 동중학교마당에 당도하니 제나름의 군복을 입었거나 혹은 사복차림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앉아있었다. 출입문가까이에는 숱한 무기들이 쌓여져있었고 도인민위원회와 도보안부성원들이 그옆에 서있었다.

당시 신의주국경을 통해 중국에서 활동하던 적지 않은 무장성원들이 들어왔는데 이미 치안부대들이 조직되여 활동하는 조건에서 그들이 이전처럼 무기를 휴대하게 할수 없었다. 하여 김일은 도보안부성원들이 그들의 무장을 해제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일정한 정치사업을 한 후에 각자의 희망과 능력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내는 사업을 조직하도록 하였는데 동중학교에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있는것이였다.

김일이 찦차에서 내려 다가가자 김일과 함께 신의주에 파견되여 도보안부사업을 맡아보고있는 손종준이 인사하였다. 김일은 회수한 무기

들을 살펴보다가 누구에게라없이 말하였다.
《이속에서 싸창들만 골라내야겠소.》
몇사람이 달라붙어 모젤권총들을 골라놓았는데 김일은 그 모젤권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좋은것들만 다시 골라 두개의 상자에 넣었다.
두개의 상자가 다 차자 김일은 그것을 찝차에 싣도록 하였다. 김일은 그 총들을 장군님의 호위사업에 쓰도록 하자는것이였다.
《이 총들을 시급히 평양에 올려보내야겠소.》
김일은 손종준에게 말하고나서 차에 올라탔다.
김일이 도공산당청사에 있는 자기 방에 돌아온지 얼마 안되여 도당선전부장이면서 도당기관지신문 《바른말》책임주필로 사업하고있는 김람인이 찾아들어왔다.
《파견원동지, 한가지 제기할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여기 앉아서 이야기하십시오.》
김일은 앞상에 나와앉으며 김람인에게 의자를 권하였다.
김일은 지난날에 적지 않게 시도 창작발표하였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흠모심을 간직하고 조국해방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참가한 김람인을 깍듯이 대하고있었다. 람인은 김일과 마주앉자 열이 나서 적산물취급에서 나타나고있는 부정행위들에 대한 말을 꺼내놓았다.
《…이건 저마다 눈이 빨개서 적산물자를 가로타고 사복을 채우려드는 판입니다. 중하군 중하면에서는 그곳 보안서장이 적산물자를 마음대로 처분하는것을 막아나섰다고 해서 면인민위원장을 체포했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체포된 위원장이 제 친구입니다. 해방전부터 저와 투쟁을 같이한 견실한 사람입니다.》
김람인은 안경을 벗어들고 손수건으로 꼼꼼히 닦는다. 안경을 벗으니 군살이 없는 얼굴이 더욱더 뾰족해보이였다. 그는 다시 안경을 쓰고나서 말하였다.
《파견원동지, 정말 벌어지는 실태가 말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적산물자취급은 이제부터 내가 틀어쥐고 강하게 통제할 결심입니다. 그리고 중하면보안서장문제는 내가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내 마침 국경지역들을 돌아보려고 떠나려던 참이였습니다.》

며칠후 김일은 국경지역들을 돌아보던 길에 중하면에 들리였다. 면소재지는 공장 한개 없이 농민들과 품팔이군들, 소상인들이 모여들어 사는 보잘것없는 지구였으나 압록강대안의 국경연선이여서 일제는 여기에 면사무소, 경찰서, 수비대 등 식민지통치기관들을 빠짐없이 꾸려놓았었다. 김일은 먼저 일제때의 면사무소에 자리잡은 인민위원회에 들려 실태를 료해하였다. **김일성**장군님의 새 조선건설구상을 면에 펼쳐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하는 사업을 진행한 후 보안서사업료해에 들어가자 인민위원회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터치는것이였다.

《보안서장을 하는 그자가 나쁜 놈입니다. 면의 보안사업을 한다면서 제 마음대로 날치거던요. 우리 위원장동무가 그자를 제지하려다가 오히려 화를 입었습니다.》

김람인의 말은 사실이였다. 그곳 보안서장은 당시 도인민위원회에 큰 세력을 뻗치고있던 고려민주당계통에서 내세운 인물이였는데 면의 치안을 본다는 구실로 제멋대로 날치고있었다. 적산물자를 슬슬 빼돌려 제 낯내기를 하는가 하면 첩살림까지 하여 인민들의 불평불만을 야기시키고있었다. 이런자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원칙적인 투쟁의 불을 거는 면인민위원장을 반동이라고 체포하였던것이다.

김일은 동행하고있던 도의 일군들을 군중속에 파견하여 사실여부를 확인케 하고나서 보안서로 향하였다. 보안서도 일제때의 경찰서건물에 틀고앉아있었다. 2층짜리건물이였는데 돌울타리를 높이 두르고 그 우에 가시철조망을 늘이였으며 기관총구멍이 사람들을 노려보는듯싶은 포대가 솟아있었다. 김일이 2명의 무장성원을 데리고 들이닥치자 보초소에 서있던 견장을 뗀 군복을 입고 보안서원의 완장을 낀 키가 작달막하고 얼굴에 주근깨가 다닥다닥한 사람이 눈이 휘둥그래서 우물우물 말했다.

《저… 어디서 오는분들인지요?》

아마 위풍이 당당한 김일의 일행을 보고 첫 순간에 주눅이 들어버린 것 같았다.

《도당에서 왔소.》

김일은 보초병에게 증명서를 보이였다. 보초병은 그 증명서를 보고나서 정중하게 두손으로 받쳐내밀며 허리를 굽석이였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서장동지가 자기 방에 계십니다. 안내해드릴가요?》

보초병은 어느새 자기를 수습하고 아첨기어린 웃음을 지으며 설레발을 쳤다. 보기와는 달리 어지간히 약삭바른 사람이였다.

《그만두오, 우리가 찾아보지.》

김일이 2층에 있는 보안서장의 방을 찾아들어가니 장화신은 발을 책상우에 올려놓고 저뻐듬히 앉아 거드름스럽게 전화를 하던 사람이 벌떡 몸을 일으켰다. 어디서 구해입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쏘련군대군관복을 입고 성긴 머리칼에 기름을 진하게 발라 넘긴 보안서장의 큼직한 주먹코가 냄새를 맡듯이 벌름거리였다.

《무슨 일이요?》 그는 한손을 허리에 얹으며 제법 틀스럽게 물었다.

김일이 신분을 밝히자 보안서장의 허리가 대번에 절반으로 꺾이였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많으셨겠습니다. 내 이미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한번 찾아가뵙자고 하던 참이였습니다.》

그자는 자기가 앉아있던 둥글회전의자를 손수건으로 싹싹 문지르고나서 김일에게 어서 앉기를 권하였다. 김일이 성큼성큼 걸어들어가는데 그의 장화발밑에서 마루바닥이 삐걱삐걱 소리를 냈다. 김일이 주저없이 서장의 회전의자에 위엄있게 앉자 서장은 그를 향하여 다시금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였다.

《가르치심을 주십시오.》

《여러말할것 없소. 당신은 이제부터 철직이요.》

김일은 놀라서 뒤걸음치는 그자를 쓰겁게 일별하고나서 거느리고 온 두명의 무장성원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무기를 회수하시오. 영필동무가 이제부터 보안서장대리사업을 보아야겠소.》

《난 절대로 이 조치를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도대체 나를 철직시키는 리유가 뭡니까?》

그자는 김일의 동행일군들에게 권총을 빼앗기면서도 뻣뻣하게 나왔다.

《난 도에 신소하겠습니다. 어떤 놈이 나를 헐뜯은것 같은데 이건 억울하단 말입니다.》

《도에도 신소하고 중앙에도 신소하시오.》

《난 왜놈치하에서 감옥살이까지 한 사람입니다. 난 알짜 프로레타리아선봉투사란 말입니다.》

김일은 무뚝뚝한 얼굴을 하고 나직이 말하였다.

《당신이 도박에서 돈을 떼우고 그 화풀이로 부자집에 불을 지른 죄로 감옥살이를 했다는것을 다 알고있소. 우리 사업에 방해말고 어서 나가시오.》

《다 나를 모함하는 소리입니다. 난 정말 억울하단 말입니다.》

그자는 방에서 쫓겨나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다.

김일은 어처구니가 없어 허거픈 웃음을 지었다.

《정말 뻔뻔하고 쓸개빠진 작자로군.》

이윽고 김일은 보안서 류치장에 갇혀있는 면인민위원장을 석방하여 데려오도록 하였다. 김람인의 친구라니 만나보고싶은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며칠간 보안서 류치장에 갇혀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심해서인지 얼굴이 퍼그나 상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패기가 만만해보이는 훤칠한 키의 젊은 사람이 방에 들어서자 김일은 그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났댔을가?)

《동무가 면인민위원장이요?》

《그렇습니다.》

《내 도당에 파견되여 사업하는 김일이요. 동무에 대해서는 김람인동무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소.》

김일을 유심히 바라보고있던 면인민위원장의 얼굴에 반가운 빛이 어리였다.

《저… 파견원동지는… 이거 실례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용서하십시오. 혹시 동지는 1936년에 **김일성**장군님의 조선인민혁명군을 찾아가던 그분이 아닙니까? 구국군과 함께 무송지구의 밀림에서 길을 잃고 인삼포주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김일은 놀라서 벌떡 일어섰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청년이 떠올랐다. 무송의 송풍락월지대, 식량난을 겪으며 허덕이던 반일부대, 애타는 가슴을 안고 하늘을 쳐다보던 그때 나타났던 고마운 청년…

《옳소. 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러니 동무는 무송의 인삼포주인의 아들이로구만.》

《절 잊지 않았군요. 제 장종학입니다.》

《그렇지, 이름이 장무어라고 했어. 내 어찌 동무를 잊을수 있겠나.》

김일은 흥분하여 장종학에게 달려들었다. 김일은 한손으로는 종학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한손으로는 그의 살빠진 약한 손을 틀어잡았다.

《이 사람말이야. 그때 우릴 뒤따라오겠다고 하더니 여기에 불쑥 나타나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기회는 새처럼 날아가버리면 다시 오지 않는다더니 그 말이 맞는것 같습니다. 그때 무작정 동지들을 따라갔어야 하는건데…》

지난날을 더듬는 장종학의 얼굴에는 쓸쓸한 회오의 빛이 어리였다.

…장종학은 사실 애인과 함께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찾아가려 했던것이였다.

그러나 종학은 애인을 찾아갔다가 거절당하였다. 고생을 모르고 자란 그 처녀는 사랑은 갈구했으나 산에 가서 싸우며 풍상고초를 이겨낼 용기는 없었던것이다. 종학은 혼자 **김일성**장군님의 부대를 찾아갈 결심을 내렸다. 하여 장백쪽으로 나와 헤매이다가 압록강대안에서 보통학교동창생인 김람인을 만나게 되였다. 그들은 **김일성**장군님을 동경하며 조국해방을 위해 싸우려는 립장에서 서로 뜻이 통했다. 람인은 꼭 산에 가서 싸워야만 하겠는가, **김일성**장군님부대를 찾는다는것도 막연한 일인데 우리 식대로 그이를 받들어 싸워보자고 하는것이였다. 결국 종학은 그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들은 중하땅에서 시건설사를 내오고 《시건설》잡지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그 잡지의 창간호표지에는 붉은 기발을 새겨넣었고 시문학건설의 새 출발을 호소하는 서문을 실었다. 그들은 문필능력으로 싸우는 길을 택한것이였다.

《시건설》에는 만주에서 벌어지는 항일무장투쟁의 영향하에 창작된 람인의 시작품들과 리찬이 15도구를 넘나들며 쓴 시 《기원》을 비롯한 진보적인 시들도 실었다. 1937년에 종학은 보천보전투소식에 접하였는데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경모심이 활화산처럼 터져오르는것만 같았다.

그러한 장종학에게 운명적인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 김람인이 달포전에 《시건설》잡지 두부를 가져갔던 친구의 안내를 받아 중국땅에 건너가 조국광복회 조직원을 만나게 되였던것이다. 람인은 그에게서 **김일성**장군님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조국광복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인쇄할데 대한 과업을 받고 돌아왔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친히 작성하시였다는 10대강령을 읽고 종학은 세차게 들먹이는 가슴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강령에는 이제껏 상상해보지 못한 세상이 펼쳐져있었다. 위대한 강령을 받아안은 그는 자신도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 걸음을 내디딘다는 벅찬 자부심을 의식하였고 일찌기 느껴본적이 없었던 삶의 보람을 맛보게 되였다.

그는 김람인과 함께 소리가 나지 않도록 로라를 굴려가며 며칠밤을 새워 마침내 2천부에 달하는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비밀리에 찍어내여 조직에 보내였다.

그후 왜놈들의 탄압으로 《시건설》은 강제페간되였고 그들에게는 징병호출장이 떨어졌다. 김람인과 장종학은 중하땅 깊은 산골에 들어가 숯구이를 하며 숨어살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였다. 그들은 8.15소식을 듣고 곧 중하면으로 나와 면사무소와 경찰서를 제압하고 면의 정권을 틀어쥐였다. 김람인은 인차 도당으로 소환되였으나 종학은 계속 면인민위원장으로 사업하던중에 불순분자인 보안서장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게 된것이다. …

장종학의 지난생활을 료해한 김일의 얼굴에 미소가 어리였다. 그것은 또 한명의 동지를 얻었다는 느낌에서 피여나는 기쁨의 미소였다.

《장종학동무, 이제는 손잡고 함께 일해보기요. 또 지난날처럼 한걸음 늦어져서 후회하는 일이야 없겠지.》

김일은 종학의 손을 잡고 롱조를 섞어 말하였다.

《내 다시는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학도 웃으며 김일의 거쿨진 손을 자기의 두손으로 꽉 잡았다.

종학은 김일의 큰손에 잡힌 자기의 손이 어쩐지 녀자의것처럼 작고 연약하게 여겨지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였다.

김일은 장종학을 도당으로 소환하여 김람인과 함께 선전부사업을 맡아보게 할것을 생각하고있었다.

6

장종학은 1945년 10월말부터 신의주로 와서 도공산당 선전부에서 사업하였다.

11월초의 어느날 퇴근시간에 장종학이 김일을 찾아와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고 자기 집으로 청하였다. 장종학의 생일날이라기에 김일은 군말없이 따라나섰다.

《마침 잘됐군. 그렇지 않아도 장종학동무가 어떻게 사는가 집구경하러 가려댔소. 언제 집들이를 하겠는가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어디 찾아주어야 말이지.》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실책을 범한가 보군요. 난 내 생일날에 맞추어 김일동지를 청하려고 별렀는걸요.》

《그래? 어쨌든 고맙소. 그런데 뭘 들고간다? 난 빈손뿐인데…》

김일은 두손바닥을 펴보이며 난처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어서 가십시다.》

장종학은 나무람하듯 얼굴을 찌프리며 김일의 팔소매를 잡아끌었다.

밖에서 김람인이 기다리고있었다. 그들은 함께 장종학의 집으로 향하였다. 종학은 아직 비여있던 집 한채를 배정받고 중하에 있던 가족을 데려왔었다. 종학의 부모들은 아직도 중국에서 살고있었고 젊은 안해가 가정의 전부였다.

종학의 집에 와있던 한 중학교학생이 김일에게 인사하였다. 좀 작을사 한 키에 소년답지 않게 체통이 바라지고 이마와 볼편에 좁쌀알만 한 여드름들이 내돋은 그를 보는 순간 김일은 왜선지 가슴이 후둑 뛰였다.

《림산호라고 중하에서 우리 이웃에 살던 애입니다. 신의주에서 하숙생활을 하며 동중학교에 다니고있습니다.》하고 장종학이 김일에게 그 학생을 소개하였다.

《림산호라… 부모님들은 뭘하고있소?》

김일은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아버지는 해방되기 이태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중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림산호가 머리를 숙이며 대답하였다.
《그래? 집을 떠나서 공부하느라 고생하겠구만. 공부를 잘해서 새 민주조선을 떠메고나갈 역군이 되기를 바라오.》
안주인의 성의가 엿보이는 조촐한 음식상에 둘러앉아 술 한잔씩 들었을 때 김람인은 깍듯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산호의 한손을 잡아쥐며 말하였다.
《산호는 열여섯살이지만 문학세계는 대단히 높습니다.》
보매 람인이도 산호에게 그 어떤 애정을 느끼는듯싶었다.
《선생님은 절 춰올리시는구만요.》
산호는 얼굴을 붉히였다.
《그러니 산호는 람인선생에게서 시를 배우는 모양이구만.》
김일은 옹골찬 몸집이며 검스레한 얼굴에서 어쩐지 당돌함이 느껴지는 산호에게 호기심어린 눈길을 던지였다.
《내가 뭘 배워줄게 있겠습니까.》
람인이 한손으로 안경을 밀어올리며 어줍게 미소를 지었다.
《그저 산호가 시를 사랑하고 또 나를 따르니 내 이따금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따름입니다.》
《난 람인선생님이 쓴 시들을 좋아합니다. 나자체는 별로 시를 쓰지 못했습니다. 써보느라 하는데도 잘되지 않습니다.》
산호는 겸손하게 말하였다.
《그래, 람인선생이 쓴 시들중에서 어느 시가 마음에 드나?》
《〈청색마〉도 좋고… 다른 시들도 마음에 드는게 많습니다.》
《산호, 너 이 자리에서 시를 한번 랑송해보렴. 람인선생이 해방을 맞아 쓴 시가 있지?》
종학이 산호를 부추겨댔다.
《잘 랑송할줄은 모르니 량해해주십시오.》
산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해방》이라는 제목의 시를 랑송하기 시작하였다.

…
우리 세상 내 세상이 왔다
마음놓고 살아갈
이날의 아침은 찬란도 하다

거리마다 기발을 들고
골목마다 프랑카드 걸고
해방의 은인 **김일성**장군님을 맞자
우리 나라 가꿀 농쟁기를 들고…

해방이다 해방이다
이 땅의 모든것!
자유조선의 모든것!
오호, 창천의 태양은 밝아라
2천만동포여 일어서라
명일의 앞길은 무궁하려니!

김일이도 장종학도 안주인도 박수를 쳤다. 김람인만이 씁쓸해서 앉아있었다.

《산호가 시를 잘 읊는구만, 좋아.》

김일은 산호를 칭찬하였다.

《람인선생이 쓴 시도 마음에 드오. 해방의 은인 **김일성**장군님을 맞자는 구절이 얼마나 좋소. 그런 의미에서…》

김일은 다시금 박수를 크게 쳐주었다.

저녁식사가 끝난 후에 김일은 인차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원래 이런 좌석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였다. 아마 그것은 빨찌산시절부터 재빨리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습관되여서일것이다.

람인이도 김일을 따라 일어서는데 종학이 붙들었다.

《김형은 좀더 앉아있소.》

람인과 종학이 보통학교동창이라지만 나이상으로는 람인이 서너살 우였던것으로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데서는 종학이 그를 형이라고 불렀다. 람인이 못이기는체 하고 주저앉았다.

림산호가 김일을 따라나섰다.
《난 그만 일어서겠습니다.》
《그럼 가봐라, 또 네 형이 행패질하면 야단이지.》 종학은 산호가 가는것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형이 왜 행패질을 한다는것인가?)
김일은 종학의 말에서 의문을 느끼였으나 남의 가정문제라 더이상 캐여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느덧 어둠이 내려앉았는데 희미한 가로등이며 거리의 장식등들이 명멸하면서 어둠과 싸우고있었다.
김일이 산호와 함께 얼마쯤 걸었을 때 갑자기 웬 청년이 달려들어 무작정 산호의 얼굴을 후려갈겼다. 타격이 어찌나 센지 산호는 벌렁 나가넘어졌다.
《이게 무슨 망동이야?》
청년이 다시 산호에게 달려들려는것을 김일이 막아나서며 위엄차게 소리쳤다. 허우대 크고 목소리가 우렁우렁한 김일에게 위압감을 느꼈는지 청년은 더 기승을 부리지 않고 산호에게 소리만 질렀다.
《이자식, 그만큼 일렀는데도 말을 안 듣는구나.》
김일이 슬며시 청년의 손목을 틀어잡았다.
《동문 누구요?》
《난 이자식 형이요. 내가 동생에게 버릇을 가르치는데 무슨 간참이요?》
길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여기서 그 어떤 힘을 얻었는지 청년은 김일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산호에게 덤벼들려 했다.
김일은 날랜 동작으로 청년의 팔을 잡아당겨 등뒤에서 꺾었다. 청년이 비명을 질러댔다.
《덜돼먹은 자식!》
김일은 잠시 청년을 노려보다가 담벽쪽으로 밀쳐버렸다.
《정신차려. 더 망동을 부리면 보안서원들을 부르겠다.》
비칠거리다가 자기를 수습한 청년이 김일과 마주섰다. 산호가 한손으로 코등을 싸쥐고 다가와 청년의 팔을 잡아당겼다.
《형, 그만두라요.》
그러니 형이 맞긴 맞는 모양이였다. 산호의 형이 행패를 부린다고 장

종학이 우려하는 소리를 한것이 우연치 않았다. 이자가 정신병자인가?

괴이쩍은 청년이 산호를 뿌리치고 만만치 않게 김일을 흘겨본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난 도공산당의 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내 이름을 들어봤나?》

《아하, 그러니 당신이?… 그렇구만요.》

청년은 놀란듯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꾸벅 고개를 숙이였다.

《이거 몰라봐서 안됐습니다. 신의주에서 김일동지를 모르면 안되지요.》

짐짓 정중하게 괴여올리는 말속에는 진한 야유가 슴배여있었다.

《내 동생이 공산당의 큰 간부와 동행할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은 내 당신의 체면을 봐서 이쯤하고 물러서지만 동생이 다시 공산당사람들과 다니는것을 보면 용서치 않겠습니다.》

산호의 형은 홱 돌아서더니 바람처럼 사라져버리였다.

산호는 코피를 흘리고있었는데 종이로 아무리 닦아도 멎지 않았다. 김일은 손수건을 꺼내여 산호의 코피를 닦아주었다.

《그래, 산호의 친형이 맞니?》

《예, 우리 형은 권투구락부에 다닙니다.》

《그러니 주먹이 꽤 세겠구만. 그런데 형이 공산당을 미워하는 까닭이 뭐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형은 내가 공산당간부인 김람인선생에게 다니고 장아저씨집에도 다닌다고 해보는겁니다.》

《이제 집에 가면 또 맞겠는데 차라리 나와 같이 우리 집에 가서 잘가?》

《아닙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산호는 왼쪽팔굽을 움켜쥐고있었다. 김일이 팔소매를 걷어올려보니 피가 내배였다. 아마 넘어지면서 상한 모양이였다.

《안되겠어, 우리 집에 가자. 여기 가까운데 있어. 비상약품도 있으니 제꺽 처치를 받고 가라구. 우리 집사람이 웬만한 처치는 할줄 안다니까.》

김일은 산호를 억지로 자기 집으로 끌었다. 산호에 대한 동정심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산호를 처음 본 그 순간부터 그가 남같지 않게 생각되는것이였다.

김일의 집은 신의주중심부의 도당청사가까이에 위치하고있었다. 울타리를 두른 단층짜리 아담한 기와집이였다. 김일이 산호를 데리고 들어가자 몸매 자그마한 아련한 녀인이 젖먹이애를 안고 마중하였다.
그 녀인은 김일의 안해 허창숙이였다. 김일과 허창숙은 원동의 훈련기지에 있을 때 **김일성**장군님과 동지들의 축복속에 소박한 결혼식을 하였다.
산호는 얌전하고 연약해보이는 이 녀인이 이전날 총을 들고 풍찬로숙하며 왜놈들과 용감히 싸운 빨찌산녀대원이였다는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내 손님을 데리고 왔소. 헌데 넘어져서 팔굽이 벗겨졌소. 좀 처치를 해주어야겠소.》
산호를 허창숙에게 소개한 김일은 아들애를 넘겨받았다. 그리고 애를 둥게둥게 어루며 웃었다.
《우리 애기, 잘있었나. 어이구, 우리 애가 아버지가 안아주니 반갑다고 웃는구만.》
어린애는 김일의 팔에 안겨 해죽해죽 귀엽게 웃어댔다.
방에 들어선 산호는 너렁청한 집안에 가장집물이라는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놀랐다. 깨끗한 장판방구석에 몇개의 상자와 트렁크 두개가 있을뿐이였다.
비상약품함을 찾아낸 허창숙이 치료를 하자고 다가들자 산호는 저으기 부끄러움을 느끼였다.
《뭐 별로 큰것도 아닌데 파견원동지가 자꾸 끌어서…》산호는 송구해서 중얼거렸다.
《자그마한 상처라도 소홀히 하면 안되는거예요.》
허창숙은 다정하게 말하면서 산호의 상처에 빨간약을 바르고 오징어뼈가루를 뿌려주고는 아프겠다고 입으로 호호 불어주는것이였다.
김일부부의 살뜰한 정에 산호는 코허리가 시큰해졌다.
《이젠 됐습니다.》
산호는 면구스러워서 팔을 거두어들이고는 김일이 안고있는 애의 발기우리하고 오동통한 볼을 살그머니 쓸어주었다.
《한번 안아봐요. 이 애는 어찌된 일인지 남자들을 좋아하거던요. 녀자들이 안으면 울어대는데 남자들이 안으면 웃지요, 호호…》

허창숙이 옆에서 말하였다.

《어디 산호가 안아보지.》하고 김일이 아들애를 다시 쳐들었다.

산호는 호기심이 동하여 김일에게서 애를 넘겨받아 안아보았다. 정말 어린애가 좋다고 자꾸 웃었다.

《그것 참 신통한데요.》

김일이도 허창숙이도 함께 웃었다.

《애가 돼먹었지. 새 조선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기본 남자들이라는 걸 알거던.》

김일의 말에 허창숙이 눈을 흘기며 반박하였다.

《비판받을 소리 삼가하세요. **김일성**장군님께서 녀성들은 새 사회 건설을 떠미는 한쪽수레바퀴라고 말씀한걸 잊었어요?》

《허, 이거 내 녀맹일군앞에서 큰 실수를 했구만.》

산호는 김일의 소탈함과 가정의 화목함을 느끼면서 작별인사를 하였다.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고 가라는데도 듣질 않는구만.》

김일과 창숙은 산호를 문밖까지 바래주었다. 집안으로 들어왔을 때 김일은 창숙에게 말하였다.

《저 산호라는 소년을 보면 강정익동지가 생각나거던. 정말 그 동지와 비슷하게 생겼소.》

김일이 산호를 처음보는 순간 놀랐던것은 바로 이때문이였다.

산호가 별로 친근하게 여겨지는것도 그때문인지 몰랐다.

7

11월말 신의주시에서는 반동들의 사촉을 받은 학생들의 소요가 일어났다. 김일이 **김일성**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양에 올라가 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온 그날에 사건이 터지였다. 그는 도당청사를 비롯한 시내 중요기관들의 경비를 철통같이 강화하도록 대책을 취하였고 또 란

을 일으킨 학생들을 설복하도록 사람들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소요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김일은 쓰라린 죄책감을 안고 사무실안을 거닐고있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내가 일을 쓰게 못하여 장군님께 걱정을 끼쳐드렸구나. 아 김일이, 너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을수 있단 말이냐.)

그는 밖에서 들려오는 부산스러운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김일이 불안과 자책에 빠져 안절부절하는데 의주의 농업학교와 중학교학생들이 큰 집단을 이루고 신의주시로 밀려오고있다는 전화통보가 들어왔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시바삐 시내의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

이때 문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장종학이 들어왔다. 그는 격분을 금할수 없는듯 씩씩거리며 말하였다.

《학생들이 정말 철이 없군요. 아무리 자중할것을 호소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돌을 던지는 판입니다.》

김일은 침중한 낯빛으로 장종학을 보다가 닫혀있던 입을 열었다.

《의주의 학생들이 신의주로 오고있소. 그들이 시내에 들어와 란동을 부리면 큰일이요. 종학동무가 다시한번 그들을 설복해봐야겠소.》

《어떻게 말입니까?》

《시간이 급하니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야겠소. 그들의 머리우를 돌면서 확성기로 반동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라고 호소하시오.》

《그렇게 해서야 수습해내겠습니까. 물리적인 강경조치가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위협사격이라도…》

《안되오, 마지막까지 설복해봅시다. 종학동무가 수고를 해야겠소.》

김일은 더 다른 말이 없이 단호한 태도로 방을 나섰다.

《빨리 따라오오.》

잠시후 김일과 장종학이 탄 승용차가 신의주비행장으로 내달리였다.

차가 비행장에 도착하자 김일은 비행사 리활을 불렀다. 키가 큰 건장한 사나이가 달려와 김일에게 인사하였다.

리활은 해방직후 김일의 소개신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날아가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고 돌아온 후 새 조선의 항공분야를 발전

시키기 위해 분투하고있는 인물이였다. 김일은 그 어떤 과업이라도 수행할 각오가 그 얼굴에 력력히 어려있는 리활에게 명령조로 말하였다.

《빨리 이 사람을 비행기에 태우고 의주—신의주간 도로쪽으로 날아가야겠소. 반동들에게 속아넘어간 학생들이 시내쪽으로 오고있을거요. 그들집단을 해산시켜야겠소. 급강하하면서 그들의 머리우를 선회하시오. 그다음은 이 종학동무에게 맡기시오.》

김일은 장종학을 리활에게 소개하였다.

《이 동무는 도당선전부 과장으로 사업하는 동무요. 동무들의 임무가 중요하오. 어떻게 하든지 학생들이 시내로 들어오는것을 막아야 하겠소.》

《알겠습니다.》

리활과 리종학이 힘있게 대답하고 비행기에 올라탔다.

김일은 하늘에 떠오르는 리활의 비행기를 보고 다시 차를 타고 돌아섰다. … 한식경이 지나자 시내를 소란스럽게 하던 학생들의 소요는 가라앉았다.

철없는 학생들을 부추겨 정권기관들을 습격점거하여 민심을 들쑤셔놓으려던 반동들의 음모는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신의주에는 긴장상태가 풀리지 않았고 공산당에 대한 불신의 감정이 떠돌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김일성**장군님께서 몸소 비행기를 타고 신의주로 오시였다. 장군님을 맞이하러 비행장으로 달려나간 김일은 가슴을 찢는것만 같은 죄책감으로 머리를 쳐들수가 없었다.

장군님께서는 태연하신 안색으로 비행기에서 내리시여 김일의 인사를 받으시였다.

《제가 일을 잘못하여 장군님께서 이 위험한 국경도시에…》 김일은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장군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태연히 말씀하시였다.

《내가 인민이 사는 도시에 인민을 만나러 왔는데 뭘 그러오? 너무 걱정마오. 학생들이 아직 공산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요. 이제 다 바로잡히게 될거요.》

《장군님…》

한없는 매혹과 신뢰의 감정이 김일의 가슴에 끓어올랐다.

이날 오후 장군님께서는 신의주역전호텔에 자리잡고서 학생대표들을

만나 따뜻한 분위기속에 담화를 하시였다. 장군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에 눈물을 흘리는 학생대표들을 보면서 김일은 장군님의 전사된 긍지와 자부심을 새삼스럽게 받아안게 되였다.

김일은 장군님의 신변안전에 최대의 관심을 돌리면서 그이의 사업보장을 위해서도 치밀한 조직사업을 하였다.

그는 김람인과 장종학을 불러 선전물 수천매를 시급히 찍어낼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선전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열렬히 환영. **김일성**장군 환영 신의주시민대회. 1945년 11월 27일 오후 3시…》

저녁녘 선전물이 다 만들어지자 김일은 승용차에 그것을 싣고 종학과 함께 리활을 찾아갔다. 그리고 리활과 종학에게 빨리 선전물을 비행기로 시내에 뿌릴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파견원동지, 래일 장군님께서 신의주시민들앞에서 연설하십니까?》 하고 리활이 물었다.

《그렇소. 그에 대해 신의주시민들에게 알리자는거요. 헌데… 동무네 항공대성원들이 모두 몇명이요?》

《170명 됩니다.》

《그만하면 괜찮소. 래일 장군님께서 연설하시게 될 때 항공대성원들을 다 데리고 오시오. 아무래도 무장호위대만으로는 부족할것 같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소. 그러니 동무가 항공대성원들을 데리고 주석단앞에 항공대기발을 들고 서있어야겠소.》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선전물을 살포하시오.》

김일은 선전물을 넘겨받은 종학에게 권총 한자루를 주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할수 없으니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건사하시오. 만탄창되여있소.》

《고맙습니다.》 종학은 권총을 허리춤에 찔렀다.

김일은 종학을 쳐다보다가 도장이라도 찍듯 주먹으로 가슴을 툭 쳤다.

《동무의 임무가 중요하오. 믿겠소.》

역전호텔로 돌아오던 김일은 그 주변에 서성거리는 산호의 모습을 띄

여보았다. 산호는 누구에게 맞았는지 머리에 붕대를 감고있었다.
김일은 산호를 소리쳐불렀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고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봉변을 당했나?》 김일은 의아쩍은 눈으로 산호를 훑어보았다.
《소요가 일어난 날 사실 학생자치위원회 성원들이 짜고 폭동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형님이 거기에 개입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리려들다가 맞았습니다.》
《그렇게 됐구만.》
김일은 순진한 산호에게 또다시 동정을 느끼게 되였다.
《그런데 어째서 장군님을 만나뵈오려고 하나?》
《뭐 별다른게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낳은 위인을 한번 뵙고싶어서…》
《그래?》 김일은 산호의 어깨를 두드려주었다.
《이제 장군님을 뵈옵게 될게다. 지금은 장군님께서 몹시 피로하시였다. 오늘 비행기를 타고 오신데다 휴식도 없이 시민들대표, 학생대표들을 만나 담화를 하시였거던. 래일 장군님께서 시민들앞에서 연설을 하신다.》
이때 하늘에서 선전물들이 하얗게 떨어져내리였다. 리활의 비행기가 상공을 날고있었다. 선전물을 주어읽는 사람들의 얼굴에 환희의 웃음이 어리였다.
《**김일성**장군 만세!》
누가 먼저 웨치였는지 만세소리가 터져올랐다. 하늘에서는 선전물이 계속 떨어지고 사람들은 겨끔내기로 그것을 받아들고 만세를 불렀다.
만세소리는 여기저기에서 울려나왔다. 선전물을 주어든 산호가 흥분을 걷잡을수 없는듯 김일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
《이게 정말이지요? 난 장군님께 큰절을 올리고싶습니다.》
《그래, 절을 올려라.》
김일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리였다. 요 며칠새 잊어버렸던 웃음이 되살아난것이다.

8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환영하는 신의주시군중대회는 동중학교 마당에서 진행되였다.

동중학교 마당은 물론 그 주변 역전통로며 지어 철길우에까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설레이고있었다. 시안의 인민들만이 아니라 북중의 로동계급, 부라벌과 양시벌의 농민들, 다사도의 어부들도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러뵙기 위해 백여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대회장에 찾아들었다. 어제까지 공산당을 반대하여 거리에 떨쳐나섰던 학생들의 얼굴에도, 민족의 장래를 우려하며 한숨을 내쉬던 지성인들의 얼굴에도 하나같이 떠오른것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경모와 탄복의 뜨거운 감정이였다.

장군님께서 대회장주석단에 나오신 이후로 거센 기쁨과 흥분의 파도가 군중을 휩쓸었는데 연탁에 나와 환영연설을 하는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싱글벙글하는 참가자들에게서, 격동되여 화끈 달아오른 얼굴들과 번뜩이는 눈빛들에서 김일이 찾아보게 되는것은 남보다 더 높이 목청껏 환영의 웨침을 터뜨리고싶은 의욕이였다.

대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여갔다.

여러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의 환영연설이 있은 다음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석단에서 일어서시였다.

그이께서 연탁에 나서시자 군중속에서 감격의 웨침소리가 터져올랐다.

《**김일성**장군 만세!》

《만세!》

민심은 장군님을 우러러 하나로 합쳐졌다. 여러가지로 엇갈려 다투던 사회의 분규는 흔적조차 찾을수 없는듯 하였다.

이윽고 장군님께서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연설에

서 원쑤들은 우리 인민들이 단합되는것을 제일 두려워한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신의주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소동도 결국 우리 인민의 단결을 두려워하는 반동분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일어나게 되였다는것을 낱낱이 밝히시였다.

이때 연단가까이의 군중속에서 한 청년이 손을 번쩍 들고 청높이 질문을 했다.

《장군님도 공산주의자이십니까?》

군중들은 숨을 죽이고 장군님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김일은 다시금 심장이 옥죄여들었다. 공산당을 반대하여 거리에 떨쳐나섰던 사람들이 군중속에 있었다. 김일은 당돌하고 무엄하게 질문을 던진 청년이 한없이 얄밉게 생각되였다.

다음순간 대회장에는 장군님의 굳센 신념이 넘치는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퍼지였다.

《그렇습니다! 나도 공산주의자입니다.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이 모여 만든 당이 바로 공산당입니다.》

김일은 금시 머리우에서 뢰성이 터지는듯, 구름장속에서 금시 눈부신 해빛이 내리쪼이는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장군님의 말씀은 근로하는 대중에게는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반동분자들에게는 서리발같은 타격을 안기는 선언이였다.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시여 반동들의 책동과 악선전에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애국자의 탈을 쓰고 공산당안에 들어와 나쁜 책동을 한자들은 가짜공산당원이라는것을 명백히 밝히시고 진정한 공산주의자란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득력있게 해설하여주시였다.

대회장에서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는 목소리들과 함께 우렁찬 박수가 터지더니 또다시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울리였다.

김일의 가슴은 장군님의 전사된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차올라 터져나갈것만 같았다.

《**김일성**장군님의 두리에 우리모두 하나로 뭉칩시다.》 하고 그는 웨치고싶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고 그는 웨치고싶었다.

9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며칠후 평북도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시고 신의주를 떠나시였다. 그러나 그이를 모시였던 그 감격의 여운은 오래도록 시민들의 가슴속에 남아있었다. 특히 림산호는 동중학교 마당에 빼곡 들어찬 시민들앞에서 연설하시던 장군님의 그 모습을 언제든지 잊을것 같지 않았다. 산호는 그 대회장에서 장군님을 따르는 길에 진리가 있다는것을 다시금 굳게 절감하였던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남모르게 죄책감에 시달리고있었다. 자기의 형 의호가 공산당을 반대하는 반동행위를 하다가 정체가 드러나 남조선으로 도망쳤다는 그 사실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 학생사건은 바로 형과 같은 반공분자들이 순진한 학생들을 꾀여 조작했던것이였다.

그런데 산호가 저주하던 그 형이 다음해 봄에 불쑥 산호의 하숙집에 찾아왔다. 밤중에 두억시니처럼 불쑥 들어서는 의호를 보고 산호는 깜짝 놀랐다.

《형이 어떻게 된 일이예요?》

온몸에 엄습하는 불안과 공포감으로 산호의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려나왔다.

《하루밤 자고는 가겠으니 떨건 없어.》 의호는 위협하듯 권총을 방바닥에 꺼내놓았다.

《난 남에서 장사일때문에 왔다. 거래만 끝나면 다시 갈판이야.》

산호는 의호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으나 그가 다름아닌 형이라는 혈연의 감정때문에 가까스로 자신을 억제하고있었다.

《형은 담도 크군요. 체포되면 다예요. 어서 가라요.》

《누구도 본 사람이 없으니 안심해. 그런데 넌 아직도 공산당간부들을 따라다니니?》 의호는 산호를 흘겨보았다.

《그건 형이 상관할바가 아니예요. 공산당이 뭐 어쨌다고 한사코 해

보려드는거예요?》

《자식, 너 죽자고 함부로 그따위 소리를 하는거야?》

의호는 권총으로 산호의 무릎을 쿡 찔렀다.

《공산당에 속지 말아. 공산당이란건 다 로스께들의 앞잡이들이야. 너 나와 남으로 함께 가지 않겠니? 내 너에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테다.》

《형이나 빨리 사라지라요. 난 형때문에 여기서 머리를 들고 살수 없어요.》

《그렇다? 그러니 이 형의 말은 기어코 듣지 않는단 말이지?》

의호는 산호의 목깃을 틀어잡아당겼다. 의호는 산호보다 몸집도 컸고 팔힘도 보통이 아니였다. 권투를 배우면서 늘 육체단련을 하였기때문이다.

산호는 주먹을 떨며 의호의 관골이 두드러진 넙적한 얼굴을 쏘아보았다.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고 달려들고싶었다.

《그래 어쩔테예요?》

의호도 지그시 산호를 마주 쏘아보았다. 그러다가 목깃을 틀어잡았던 손을 놓고 얼굴을 돌렸다.

《네가 내 동생이기때문에 오늘은 참는다. 그러나 앞으로 잘 생각해봐, 내 다시 올수도 있으니까. 우선 배가 고프니 뭘 좀 먹을걸 내놓아라.》

산호는 의호를 상대하고싶지도 않고 못된 형을 둔 자기자신의 운명이 기막히고 가련하게 생각되여 자포자기하듯 벌렁 자리에 누워버렸다. 그러자 의호는 방을 여기저기 뒤져 먹을것을 꺼내 게걸스럽게 먹어대는것이였다.

그날 밤 산호는 한잠도 못 자고 엎치락뒤치락하며 밤을 새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도무지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장종학아저씨에게 찾아가고싶었으나 밤중이라 단념하는수밖에 없었다. 이제 바랄것은 형이 누구도 모르게 자기의 곁에서 또 이 신의주에서, 나아가서는 이 밝은 세상에서 흔적없이 사라져버리는것이였다.

의호는 코까지 드렁드렁 골며 자더니 아직 캄캄한 새벽에 벌떡 일어나 간다는 소리도 없이 나가버렸다.

다음날 오후 산호는 학업이 끝나자 장종학을 찾아갔다. 장종학은 산

호가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 사람이였다. 종학이 도당에 없기에 저녁에 다시 그의 집으로 찾아가니 종학은 침통한 낯으로 산호를 맞아주었다. 어쩐지 그의 얼굴에는 자기자신에 대한 경원의 감정이 섞인듯싶어 산호는 인사말도 제대로 나가지 않았다.

《네가 어떻게 왔느냐?》 종학은 지치고 시름겨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전과는 다른 종학의 태도를 산호는 의아히 지켜보았다.

《아저씨,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새벽에 파견원동지의 집이 반동놈들의 습격을 받았다.》

《그게 정말이예요?》 산호는 화들짝 놀라며 눈을 흡떴다.

산호는 그때에야 왜 종학이 낮에 사무실에 없었으며 또 그의 낯빛이 전에없이 침통했는가를 짐작할수가 있었다.

《그럼 파견원동지는 어떻게 되였어요, 예?》 산호는 숨이 차서 부르짖었다.

《파견원동지는 다행히 그 시각에 집에 없었으니 화는 면했는데 허창숙동지가 부상을 입고 어린 아들애가 죽었다.》

《예?》

산호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자기가 안아본적이 있는 바로 그 애가 죽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애의 어머니 허창숙은 부상을 당했다고?… 눈앞에서 거대한 돌산이 와르르 소리내며 허물어지는것만 같았다. 어떤 놈이, 과연 어느 악당이 그처럼 잔혹한짓을 했단 말인가.

《그 악행을 저지른 놈들을 잡았어요?》

《한놈은 붙잡고 한놈은 놓쳤다. 그런데 그 놓친 한놈이 누군지 아느냐?》

산호는 머리를 싸쥐며 주저앉았다. 장종학의 다음말이 무서워 달아나버리고싶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기여들어가고싶은 심정이였다.

(제발 형이 아니였으면… 아저씨, 말을 그만두세요.)

그러나 종학은 주저앉은 산호를 동정어린 눈길로 내려다보며 동을 달았다.

《그놈이 바로 산호의 형인 의호란다.》

산호의 머리우에서 천둥벼락이 치는것만 같았다. 아,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내가 살인악당을 내 방에서 자게 하고 먹을것도 주다니…

산호는 저도 모르게 와락 종학의 두다리를 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저씨,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어제 밤 형이 내 하숙집에 왔댔어요. 내 방에서 자고 새벽에 나갔습니다.》
《뭐라구?》
종학이 산호의 어깨를 틀어잡아 일으켜세웠다.
《다시 말해봐. 그게 사실이냐, 응? 네가 그놈을 받아들였단 말이냐?》
《예, 형이 그런 악행을 저지를 흉심을 품고있는줄은 모르고…》
《에끼, 이 후레자식들같으니…》
장종학의 손바닥이 산호의 얼굴에 날아들었다. 산호는 허양 나가넘어졌다. 그는 다시 일어나 종학에게 매달렸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흙으로 매닥질되였다.
《날 더 때려주세요. 아니,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난 더 살고싶은 생각이 없어요.》
《썩 사라져라, 보기도 싫다.》
종학은 그 어떤 더러운것을 내버리듯 산호를 홱 뿌리쳐버렸다. 갓난애기를 안은 안해가 나와서 장종학을 말리였다. 안해는 얼마전에 둘째아들 현철이를 낳았던것이다.
《여보 현철이 아버지, 진정하세요. 그래도 산호 아버지나 어머니를 생각해서 당신이 참으세요.》
《이걸 어떻게 참아. 어디서 전탕 쓰레기같은것들이 아닌가. 내 그래도 산호만은 사람구실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종학의 격분에 떠는 소리를 들으며 산호는 허둥허둥 발걸음을 내짚었다.
눈앞에는 자기가 안아줄 때 해해거리며 웃던 애기의 발기우리한 얼굴이 떠오르는가 하면 자기의 팔굽에 난 별치 않은 상처를 입김을 호호 불면서 약을 발라주던 허창숙의 살뜰한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다. 김일의 슬픔에 찬 얼굴이 다가와 자기를 꾸짖는것만 같은 환각이 눈앞에 그려지기도 했다.
어느 사이엔가 그의 두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있었다.
어디로 갈것인가? 그는 눈앞이 보이지 않았다.

10

저녁녘 김일은 병원의 입원실에 누워있는 허창숙의 머리말에 앉아있었다. 허창숙은 가슴에 파편이 박혔었는데 수술을 하여 생명에는 위험이 없었다. 그러나 허창숙에게 부상보다 더 큰 타격으로 된것은 어린 아들애가 죽은 사실이였다. 하여 허창숙은 지금도 정신적인 허탈상태에서 눈물을 흘리고있었다.

아들애가 죽은것은 김일에게도 큰 아픔이고 슬픔이였다. 동북에 두고온 아들 박용석의 생사를 모르는 형편에서 뒤늦게 태여난 그 아들애가 때없이 허전해지는 그의 가슴을 위안해주었던것이였다. 그러나 이 시각 김일은 자신이 참기 어려운 고통에 허덕이기 전에 우선 허창숙을 위로해야 할 더욱더 고통스러운 절박감을 느끼고있었다.

조국해방을 위해 피바다, 불바다를 헤쳐온 혁명동지 허창숙이 해방된 조국땅에서 부상을 입은데다 귀중한 아들애마저 잃었으니 얼마나 원통한 일인가.

김일의 가슴속에는 반동놈들에 대한 증오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도당위원장인 그는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순간에 그에게 의지가 되고 용기를 주는것은 장군님이시였고 그이의 가르치심이였다. 장군님께서는 학생사건이 일어난 직후 신의주에 오시였을 때 김일에게 적들이 제아무리 발악을 해도 부강한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려는 우리의 앞길은 막지 못할것이라고, 동무는 도공산당의 책임적인 간부로서 각계각층 인민들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빨리 슬픔을 털고 일어나 장군님의 말씀을 관철하여야 한다. 혁명의 원쑤들을 제압하고 장군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세워야 한다.)

김일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허창숙을 내려다보았다. 안해에 대한 동정심은 그냥 가슴을 쓰리게 하였다. 안해가 아무리 투쟁속에 단련된 빨

찌산출신이라고 해도 녀자가 아닌가. 아들을 잃은 모성의 보이지 않는 몸부림을 어떻게 달래이면 좋단 말인가.

《창숙동무, 울지 마오. 오늘보다 더한 시련의 고비들을 넘어온 동무가 아니요. 이쯤한 슬픔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 않소?》

김일은 이렇게밖에 말할수 없는 자신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아, 차라리 내가 부상을 입었더라면 이 괴로움이 좀 덜어질수 있지 않을가? 차라리 우리사이에 아들애가 태여나지 않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상실의 아픔을 몰랐을게 아닌가. 아니, 비관적인 생각은 그만두자. 장군님을 믿고 래일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

《내 걱정은 마십시오. 난 인차 일어나겠습니다.》 허창숙이 눈물을 씻으며 하는 말이였다.

김일은 어쩐지 고마운 생각이 치밀어 안해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이겨냅시다. 우리는 자식을 또 볼수 있을거요. 아직 우리야 젊지 않소.》

《동지의 마음을 알겠어요. 내 다시는 울지 않겠어요. 빨리 일어나 일을 하고싶어요. 동지가 바빠 돌아가는데 난 이렇게 병원침대에 누워있군요.》

역시 안해는 강의한 녀자였다. 안해의 얼굴에 비오듯 흐르던 눈물은 깨끗이 씻기워졌고 비장한 각오가 푸르게 비끼였다. 몸매는 자그마해도 속은 강철처럼 단단한 투사였다.

《동무는 우선 몸을 추세워야 하오. 더 입원치료를 받소.》

김일은 다시한번 안해의 손을 잡아주고나서 일어섰다.

창문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저녁노을의 아름다움이 어쩐지 강렬한 자극으로 안겨왔다. 김일은 그 노을속에 아름다운 래일이 약속되여있는것만 같았다.

김일은 승리를 굳게 믿으며 입원실을 나섰다.

다음날 아침 김일은 한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림산호가 도당접수실에 가져다주며 전해달라고 부탁한 편지였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줄이 씌여져있었다.

《도당위원장동지, 죄많은 림산호가 하직인사를 드립니다. 도당위원장동지의 집에 큰 피해를 준 악한을 형으로 둔 불행을 하소연하고저 이

글을 쓰는것은 아닙니다. 제가 본의아니게 이번 악행의 공모자로 되였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장종학아저씨에게서 구체적으로 들을수 있을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자신을 처벌하려고 합니다. 저를 부디 용서해주십시오. 제가 진정으로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공산당을 따르고싶었음을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림산호, 자기 집에 수류탄을 던진 범죄자의 동생. 그런데 그가 림의호와 공모하였다는건 또 무슨 소리인가?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처벌한다는건?… 어쨌든 편지를 통하여 산호의 극도에 달한 고민의 세계를 엿볼수가 있었다.

김일은 장종학을 방에 불러 산호의 편지를 내보이였다.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요?》

장종학은 편지를 보고나서 한숨을 내쉬였다.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산호가 그런 자식일줄은 모르고 파견원동지에게 소개까지 했는데…》

종학은 어제 산호가 자기 집에 찾아왔던 이야기를 하였다.

《일인즉 그렇게 되였구만. 하지만 산호에게는 죄가 없소. 아직 각성되지 못한 17살 소년이 아니요. 친형이라고 찾아온걸 내쫓는다는게 그로서야 쉽지 않은 일이지. 난 산호를 믿고싶소.》

김일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계속하였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처벌한다는건 무슨 뜻일가? 혹시 이 애가 극단적인 생각을 한게 아닐가?》

《극단적인 생각이란건?…》 종학은 자기 생각을 굴리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자살할수도 있다는거지. 고민이 극도에 달하면 자포자기끝에 그런 길로 갈수도 있소. 어쩐지 이 편지에서 그런 냄새가 나오.》

《그까짓거 맘대로 하라지요.》

《장종학동무.》 별안간 김일의 목소리가 엄해졌다.

종학은 속이 찔리여 김일을 쳐다보았다. 김일의 준엄해진 눈길이 또렷이 종학을 응시하고있었다.

《그게 진정으로 하는 소리요? 아니면 그저 한번 해보는 소리요?》

《사실말이지… 난 의호는 말할것도 없고 이제는 그 동생인 산호까지도 곱게 보이질 않습니다. 파견원동지의 부인이 부상을 입고 아들애

까지 잃은 이 시각에 와서…》
《그만두시오.》 김일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앞에서 파견원소리를 하지 마오. 지금 장군님을 따르는 한사람의 운명문제를 두고 말하고있지 않소? 장군님께서 신의주에 오셨을 때 그이를 뵙겠다고 역전호텔앞에 왔던 산호가 잊혀지지 않소. 민족의 태양이신 장군님을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와 한편이요. 그 형은 제 갈데로 가라고 합시다. 그러나 우린 산호까지 구렁텅이에 밀어던져서는 안되오.》
김일은 화가 나는듯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피워물었다. 그리고 멍히 서있는 종학을 지켜보다가 담배 한대를 내밀어주었다.
《자, 어서 한대 피우오. 혁명하는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하오. 차디찬 심장으로는 혁명을 할수 없소. 림산호네 부모들을 봐서도 산호를 잘 이끌어주어야지. 그렇지 않소?》
장종학은 김일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짐작이 가서 머리를 수긋하고 담배를 피웠다. 그는 언젠가 김일에게 림산호네 부모들에게 신세를 진 일에 대해 이야기한적이 있었다.
그것은 해방전 종학이 요시찰인의 딱지가 붙어 왜놈경찰에게 쫓길 때의 이야기였다. 종학은 징병호출장을 받고 다음날까지 경찰서에 출두하게 되여있었다. 몸을 피해야겠는데 집밖에서는 형사가 감시하고있었다. 생각다못해 안해를 시켜 이웃집에 사는 림산호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림산호네는 국수집을 운영하고있었다. 반일사상이 강하였던 국수집주인은 장종학을 구원하기 위해 형사를 청하여 술을 먹이였다. 그새 종학은 자기 집을 빠져나와 산속으로 몸을 숨길수가 있었다. 그때부터 종학은 해방의 날을 맞을 때까지 깊은 산속에서 숯구이를 하며 살았는데 그동안 종학의 안해와 맏아들을 림산호네가 많이 돌봐주었다. 산호의 아버지는 왜놈경찰서에 끌려가 매를 맞고 놓여나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런 사연이 있기에 장종학은 산호를 각별하게 대하였고 해방후에는 홀로 남은 산호 어머니를 돌봐주느라 제나름의 노력도 했던것이다. 보안서장과 같은자들이 림산호네 집을 친일파로 몰아대면서 국수집을 몰수하려는것을 장종학이 제지시킨 사실도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녀인에게는 자식복이 없었다. 맏아들 의호는 일찍부터 집을 나가 학교도 다니고 권투를 배운다고 하면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아 부모들의 속을 태웠던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산호에게서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줄이야…

김일의 말을 듣고 종학은 은근히 량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면서 자신이 왜소하게 생각되였다. 그리고 이미부터 가슴을 물어뜯던 산호의 운명에 대한 불안이 갑자기 커지면서 숨구멍을 막는것만 같았다.

《동문 산호를 빨리 찾아가봐야겠소. 그 애 하숙집을 알겠지?》

김일의 말에 종학은 흠칫 놀라면서 채 타지 못한 담배불을 재털이에 비벼껐다.

《제 이제 가보겠습니다.》

종학이 허둥지둥 산호의 집에 가보니 이미 일은 터졌다. 밤중에 산호는 하숙집창고에서 천정에 바줄을 걸고 목을 매달았다. 다행히 하숙집 딸이 발견하고 그를 구원해낼수가 있었다. 산호는 방에 누워 헛소리를 치며 앓고있었다. 종학을 보는 산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였다.

《죽으려고 했으나 죽지 못했어요.》 산호는 가느다란 소리로 말하였다.

11

허창숙의 부상자리는 빨리 아물어갔다. 그럼에도 아직 일정한 시일의 안정치료가 필요되였으나 그는 자기가 맡은 녀맹사업이 마음에 걸린다면서 부득부득 퇴원하였다. 김일도 그것을 막을수 없었다.

김일이 잠시 속이 알찌근해서 앉아있는데 키가 후리후리하고 균형잡힌 미끈한 몸매에 눈과 코날이 예리해보이는 한사람이 찾아들어왔다.

《동북민주련군 길동분구 공급부 부부장 정두환입니다.》

손님이 자기 소개를 하였을 때 김일의 너부죽한 얼굴에 반가운 미소가 확 피여났다. 김일은 일어서서 정두환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니 강건동무에게서 왔단 말이지요?》

정두환이 김일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옳습니다. 강건동지가 김일동지에게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김일과 강건은 다같이 **김일성**장군님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지휘관들로서 개인적으로도 남달리 가까운 사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조국으로 개선할 때 강건은 중국혁명을 도와주라는 장군님의 명령을 받고 최광, 박락권을 비롯한 유능한 지휘관들과 함께 동북으로 나갔다. 강건은 현지의 조선사람들로 무장부대들을 조직하였으며 동북민주련군 길동분구사령관이 되여 국민당 반동군대와 싸우고있었다.

《그래 지금 동북정세는 어떻습니까? 아직 형편이 어렵습니까?》

김일의 물음에 정두환은 가슴속의 괴로움을 토하듯 긴 한숨을 후 내쉬였다.

《지금 말이 아닙니다.》 하고 정두환은 중국 동북에서 벌어진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당시 중국 동북정세는 중국공산당의 편에 불리하게 번져지고있었다. 작년 1945년 11월 쏘련군대가 동북에서 철수하면서 국민당 반동세력이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대무력을 침입시킴으로써 중국공산당 군대는 피동에 빠지게 되였다. 강건을 비롯한 조선인지휘관들이 조직한 부대들은 물자공급부족에 직면하였다. 당시의 긴박한 정세로 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에 손을 내밀수 없었던 길동분구사령부에서는 군복만이라도 어떻게 하나 자체로 풀어보기로 합의하고 정두환을 조선에 파견하였던것이다.

《여기 평북도에서 군복천을 좀 해결받을수 없겠습니까? 전장에서 한겨울을 난 대원들이 봄을 맞았어도 두터운 솜옷을 벗지 못하고있습니다.》

《얼마나 필요됩니까?》

《한 만벌가량은 있어야 합니다.》

김일은 머리를 수긋하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머리속에서 고패치는 여러가지 생각이 침침한 그림자가 되여 얼굴에 비끼였다.

사실 그가 쓰려고 건사하고있는 일정한 량의 군복천이 있었다. 강건이 어려운 처지에 빠져있는데 응당 내주는것이 혁명동지로서의 도리이고 의리일것이다. 그런데 그의 이런 생각을 억제하는 강렬한 지향이 있었다. 괴로운 사색속에 눈앞에 우렷이 떠오르는것은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이였다.

(후날 강건동무도 내 심정을 리해해줄것이다.)

김일은 솔직한 사람이였다. 그는 정두환이 자기를 좋지 않게 보리라 생각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정두환동무, 이거 정말 미안합니다. 실은 여기에 군복천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은 요긴하게 쓸 필요가 있어 건사해둔것이니 나로서는 줄수가 없습니다. 량해해주십시오.》

그는 담배를 피우며 가느다란 한숨을 내긋다가 말하였다.

《뭐 정두환동무에게 숨길것도 없지요. 우리가 조국에로 개선하기 전에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의 회의를 소집하시였습니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지금 장군님께서는 새 조선을 일떠세우는 어렵고 힘든 분망한 사업속에서도 조선이 자주독립국가로 발전하자면 하루빨리 강력한 민족군대를 창설하여야 한다고 보시고 그 준비사업을 착실히 밀고나가고계십니다. 난 조만간에 있게 될 민족군대의 창설사업에 군복천이 꼭 필요되리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나라가 갓 해방되였고 왜놈들이 도망치면서 숱한 공장들을 파괴하였기때문에 군대창건을 앞두고 숱한 군복천을 갑자기 구하자면 그게 조련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군복천들을 내주지 못하는겁니다.》

《민족군대창설사업을 위해서라면야 오히려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할터인데…》 정두환은 느슨하게 미소를 지었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쯤한것도 리해하지 못하겠습니까.》

《동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습니다. 강건동무에게 내 심정을 전해주십시오.》

정두환이 가겠다고 일어서는것을 김일이 붙들어앉히였다. 부탁은 들어주지 못하였어도 불원천리 찾아온 사람을 그냥 보낼수는 없었다.

김일은 정두환과 함께 식사를 한끼 나누었다. 정두환이 돌아갈 때 김일은 강건에게 전해달라고 한배낭의 담배와 물주리를 주었다. 강건은 김일과 더불어 항일투사들속에서 두드러지는 애연가였다.

김일은 강건에게 편지도 썼다. 그 편지에서 김일은 잊지 못할 동지인 강정익의 아들애에 대해서도 썼다. 항일무장투쟁을 하던 시절 한영덕이 임무수행중 강정익의 아들애를 데려간 의원집며느리를 찾아갔던적이 있었으나 행처를 찾을수가 없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조국에 개선하신 후 김일과 담화하시는 기회에 강정익에 대해 회고하시면서 그의 아들애를 꼭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였다. 먼저간 혁명동지들과 그들이 남긴 자녀들에 대해 잊지 않으시는 장군님의 고결한 정과 의리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자신을 두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장군님을 따르려고 늘 애쓰는 김일이였다.

김일은 강건에게 진성봉이라는 소년도 찾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 진성봉은 허창숙이 북만에서 함께 싸운 동지의 아들이였다.

김일은 정두환과 작별한 후 신의주국경경비대 지휘부를 찾아갔다. 국경경비대는 지난해말 장군님의 지시에 따라 김일이 책임지고 꾸린 부대였다. 지금 국경경비대는 신도로부터 후창군(오늘의 김형직군)에 이르는 국경연선의 시, 군들에 주둔하여 국경경비임무를 수행하고있었다.

국민당군대가 안동(오늘의 단동)에 침입한 작년말부터 국경일대가 편안치 않았다. 국민당군벌들은 압록강국경연선에서 빈번히 군사적도발을 감행해오군 하였다. 놈들을 제압하자면 국경경비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였다.

김일은 경비대지휘부 마당에서 대원들의 제식훈련모습을 한창 지켜보면서 곁에 서있는 한영덕에게 말하였다.

《전투정치훈련에서 기본은 대원들을 장군님에 대한 충실성으로 무장시키는것이요. 영덕동무도 물론 그렇게 하고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로파심삼아 강조하는거요.》

《념려마십시오. 아무렴 이 한영덕이 장군님의 슬하에서 자란 사람인데…》

한영덕은 얼마전에 장군님의 지시에 따라 평양학원졸업생들을 이끌고 경비대에 파견되여왔다. 평양학원졸업생들이 국경경비대에 배치되여오면서부터 경비대는 각종 정규훈련을 제대로 받는 부대로 강화될수 있는 조건이 완비되였다고 할수 있었다.

《영덕동무를 믿겠소.》

김일의 말에 영덕의 검실검실한 얼굴에 미소가 어리였다. 이윽고 영덕은 깊은 감회가 깃든 어조로 말하였다.

《우린 또 함께 일하게 되였구만요.》

1936년 김일이 반일부대를 이끌고 장군님을 찾아올 때 고락을 같이

한 한영덕은 그후 8련대에 속하여 김일과 함께 싸웠다. 김일이 8련대 1중대 정치지도원을 할 때는 소대장을 했고 김일이 련대정치위원을 할 때는 중대장을 했다. 소조활동시기에는 김일의 소조에 망라되였던적이 많았었다. 해방과 함께 조국에 개선한 후 헤여지게 되였는데 영덕이 국경경비대에 파견되여옴으로써 또 가까이에 있게 된것이다.

《허창숙동지가 반동놈들에게 부상을 당하고 입원했다는데 어떻습니까?》

《퇴원했소. 몸집은 작아도 속은 남자들이상으로 강한 동무요. 아들애를 잃은 상실의 아픔을 이겨냈소.》

잠시후 김일은 대렬상태에 대해 묻다가 신대원을 한명 받아야겠다고 하였다.

《김일동지가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물론 모든 면에서 합격일테지요?》

영덕은 롱을 섞어 말하였으나 김일은 정색한 얼굴표정을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있었다.

《17살난 청년이요. 사람은 괜찮아보이는데 정신적으로 좀 나약한게 탈이라고 할가… 글쎄 한창 앞길이 구만리같은 애가 자살까지 시도했더란 말이요. 아무래도 그를 우리 군대의 강한 군사규률과 화약내 풍기는 전장에서 단련시킬 때만이 구원할수 있을것 같소.》

김일은 영덕에게 림산호의 하숙집주소를 대주었다.

《지금 하숙집에서 고독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있을거요.》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영덕은 차렷자세로 서서 힘있게 대답하였다.

12

《사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살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에도 림산호는 하숙집의 방에 누워 끝없이 쉑스피어의 비극 《햄리트》의 대사를 중얼거리였다. 문학을

사랑한 그는 세계문학사에 등장한 비극적인 운명의 주인공들에 자신을 비추어보며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였다. 지어 그는 자기를 이 세상에 낳은 어머니를 원망까지 하였다. 하여 그는 자기의 고뇌의 심정이 담긴 편지를 어머니에게 보내였다.

그날 아침 그는 어머니에게서 온 회답편지를 받았다.

불쌍한 어머니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었다.

…네가 형때문에 그런 고통에 시달릴줄은 몰랐구나. 다 이 어머니 잘못이니 나를 원망하거라. 나도 살고싶은 생각이 없구나. 왜 너희들형제를 함께 낳아 키웠는지 나도 자신의 불행을 저주한단다. 하지만 산호야, 난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는 이미전에 돌아가시고 네 형도 악행을 저지르고 남조선으로 달아나버렸다니 이제 나에게 남은것은 너 하나뿐이구나. 네가 나를 어머니로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여기로 오거라. 네가 그런 정신상태에서 공부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도 외롭고 고독하니 중하의 집으로 와서 의지해살아가는게 어떻겠느냐…

온통 눈물이 얼룩진 그 편지를 보면서 산호는 뉘우침의 눈물을 흘리였다. 아, 내가 무엇때문에 애꿎은 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했단 말인가.

그때에야 그는 자신이 너무나 어머니에게 무관심하고 어머니를 잊고 살았음을 사무치도록 깨달았다. 자식들을 무한히 사랑한 어머니였다. 의호도 산호도 차별없이 사랑했었다.

의호가 소년시절부터 망나니질을 많이 하여 부모들의 속을 태웠다. 아버지는 소가죽혁띠로 죽어라고 의호를 조기면서 서슴없이 말하였다.

《이 독사같은 놈의 자식… 차라리 내 손으로 죽여버리고말테다.》 무섭게 매질하는 아버지를 붙들고 말리면서 어머니는 부르짖었다.

《여보, 차라리 나를 때려요. 나를 죽여요.》 그런 밤이면 어머니는 산호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산호야, 너는 착한 애지. 너는 나를 울리지 않겠지?》 산호는 머리를 까딱이며 말하였다. 《난 형이 싫어. 난 아빠, 엄마가 바라는 좋은 사람이 될래.》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자기가 되려는 그 좋은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스스로도 똑똑치 않았다. 좋은 사람이란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인것만은 명백했다. 그러나 다 자란 오늘에 와서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지금은 새 조선이 일떠서는 격렬한

투쟁의 시대였다. 진보와 반동간의 처절한 싸움이 벌어지고있었다. 이 속에서 산호는 허둥거리고있었다. 자신이 따르고싶고 주위의 대다수 사람들이 뭉친 공산당편에는 형으로 인하여 죄를 지어 따돌림을 면할수 없다는 생각이 온몸을 압박하는듯 했고 그렇다고 형이 서있는 반동의 편에도 설수 없으니 그자들에 대한 증오와 멸시의 감정이 나날이 더해가는 산호였다. 자살하려다가 하숙집 딸에 의해 구원되여 누워있던 날 장종학아저씨가 찾아와 위로하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장종학아저씨의 본심은 자기를 때리며 사라지라고 소리치던 그날에 드러났다고 생각하였다. 지금은 다만 자신을 동정하고있을뿐 시끄러운 존재로 여길것임이 틀림없을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어머니만은 틀림없이 믿을수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 자식들때문에 슬픔과 고통에 시달리고있을것이다. 산호는 어머니를 찾아가리라 결심을 내렸다.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살면서 세상을 관망하리라 생각하였다.

산호는 트렁크에 자기의 짐들을 쌌다. 짐들을 정리하다가 시를 쓰느라 끄적거린 습작집이 나타나자 그것들을 마당에 내다가 불질러버리였다.

(사라지거라, 도대체 무슨 시를 쓴다는거냐. 원체 재목도 아니거니와 그런 랑만적인 사고도 당치 않거니…)

방으로 들어와 트렁크를 다 싸고나서 그는 햄리트의 대사를 외웠다.

《포악한 운명의 팔매돌이나 화살을 가슴에 품은채 참고 견디여야 하는가, 아니면 바다처럼 밀려드는 고난을 박차며 끝까지 대적하여 싸움이 슬기로우냐.》

싸움이 슬기로운것은 명백하였지만 어떻게 싸워야 할는지는 알길이 없었다. 어쨌든 어머니를 찾아가자. 어머니의 품에서 지친 몸을 쉬고보자.

《가지 말아요!》

산호가 가자고 방을 나섰는데 하숙집 처녀가 달려들어 무작정 트렁크를 빼앗았다.

《어쩌면 그럴수 있어요? 도망치듯 말도 없이 그렇게 간단 말인가요?》

산호는 어리뻥해서 처녀를 보았다. 처녀의 두눈에는 눈물이 글썽하

였다. 그 눈물을 보니 산호는 별안간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였다.

《사실 인사는 하고 떠나자고 했댔어.》

《가지 말아요.》

처녀는 야무지게 말하고 돌아서서 눈물을 닦았다. 처녀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산호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죽으려던 자기를 구원해준 처녀, 만약 이 처녀가 아니였다면 자기의 목숨은 이미 이 세상에 없을것이였다. 그리고 얼마나 정성다해 자기를 간호하였던가. 자기가 심장을 가진 사람일진대 어떻게 이런 처녀의 정어린 요구를 쉽게 거절할수 있단 말인가.

산호가 대답이 궁하여 서고만 있는데 옆구리에 권총을 찬 군인이 대문안으로 들어섰다. 산호와 처녀는 다같이 놀란 눈으로 낯모를 군인을 쳐다보았다.

《지나가던 사람인데 물 한그릇 좀 먹읍시다.》 군인이 히죽 웃으며 말하였다.

그 군인은 한영덕이였다. 영덕은 밖에서 얼핏 소리를 듣고 산호가 어디론가 떠나갈 작정을 하고있음을 짐작하였다. 영덕은 처녀가 떠다주는 물그릇을 들고 마시면서 슬쩍 트렁크를 보았다.

《총각이 어디 나들이를 가려는가보군.》

산호도 처녀도 말할 기분이 나지 않아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고만 있는데 영덕은 그냥 말을 붙이였다.

《그래 어디로 가려는거요?》

《내가 어디로 가든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산호가 시답지 않게 영덕을 보며 말하였다.

《허, 이거 총각이 속이 뒤틀렸군. 그래, 처녀와 싸웠나?》 영덕은 하숙집 처녀에게 눈을 끔벅이였다.

《동무네는 내가 물이나 먹고 갈것이지 싱겁게 논다고 생각할거요. 하지만 내가 이러는데는 다 까닭이 있는거요. 실은 이 총각동무가 흠뻑 마음에 들어서 그래. 군복을 입고 총을 메면 영낙없이 영웅감이란 말이야.》

산호는 어이없어 제풀에 웃어버리였다. 그러나 영덕의 치사가 싫지는 않았다.

《날 놀리는겁니까?》
《놀리다니?… 내가 왜 동무를 놀리겠나. 난 보는 눈이 있소. 사람을 척 보면 이 사람이 군인감인가, 아니면 선비형인가 척 안겨오는게 있거던. 그런데 말이야. 남자로 태여났으면 군복입고 나라를 지키는데 한몸 내대는게 당당한거지 다른게 있나.》
《한데 난 언제한번 자신이 군인이 된다고 생각해본적이 없습니다. 난 원체 싸울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동문 아직 자기를 잘 모르고있소. 뒤골목싸움질이나 잘하는 사람은 군사복무를 잘할수 없소. 성실하고 담이 있으면 군사복무에 제격이요. 그런데 동무에겐 그런게 엿보이거던.》
산호는 영덕의 말에 귀가 솔깃해져 금시 군사복무쪽으로 마음이 쏠리였다.
《아니예요.》 하고 처녀가 끼여들었다. 《산호동문 군대가 맞지 않아요. 책이나 뒤적일 사람이예요.》
처녀의 말에 산호는 자존심이 상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나도 총을 메면 남처럼 할수 있소.》
《옳소, 동무가 이제야 제정신이 드는것 같구만. 난 국경경비대에 있는 군인이요. 한영덕이라고 하오.》
영덕은 산호에게 악수를 청하였다.
《정말 나를 입대시킬수 있습니까?》
《난 일구이언하지 않아. 래일 국경경비대 지휘부로 날 찾아오라구. 정문에 와서 이 한영덕을 찾으면 돼.》
한영덕이 대문을 향해 몇걸음 옮겼을 때 장종학이 들어섰다. 한영덕과 장종학은 서로 지그시 마주보더니 갑자기 달려들어 서로 얼싸안고 돌아갔다.
《영덕동무, 이게 얼마만이요?》
《장종학동무가 여기에 와있을줄이야… 내 김일동지에게서 동무에 대한 말을 다 들었소. 지금 본때있게 일을 제낀다면서? 하하하.》
《나도 김일동지에게서 영덕동무 이야기를 들었지요. 헌데 평양학원에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긴 어떻게 왔는가요?》
《신의주 국경경비대에 파견되여왔소.》
그다음 그들은 문득 산호와 처녀가 생각났는지 돌아보았다. 영덕이

먼저 종학에게 묻는다.
《종학동무는 이 집과 무슨 인연이 있는게 아니요?》
《이 애는 내가 조카처럼 여기는 애지요. 헌데 영덕동무는?…》
영덕은 산호를 슬쩍 쳐다보더니 껄껄 웃어댔다.
《종학동무에게야 뭐 숨길 필요도 없지. 실은 김일동지의 말을 듣고 이 산호를 찾아온거요.》
그리고 영덕은 뚜벅뚜벅 산호에게 다가와서 다정하게 한손을 어깨우에 얹었다.
《도당 파견원동지가 동무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르오. 동무를 군대에 입대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우정 찾아온거요.》
《도당 파견원동지가요?》
산호는 눈굽이 뜨겁게 젖어들어 머리를 숙이였다.
(나같은 놈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해주는가? 나야 그분의 가정에 피해를 준 악한의 동생이 아닌가?)
《산호, 군복을 입고 내 나라를 지키는데 나서겠니?》
산호는 눈물어린 얼굴을 번쩍 쳐들고 영덕에게 말하였다.
《예, 절 데려가주십시오.》
장종학이 다가와 산호를 와락 껴안았다.
《산호야, 잘 생각했다. 내가 뭐 잘못한게 있거든 용서해라. 나에겐 뉘우쳐지는 점이 참으로 많구나.》

13

회의가 있어 평양에 왔던 김일은 합숙에서 정두환과 마주치게 되였다. 한달반전 어두운 얼굴로 김일과 작별인사를 나누었던 정두환은 싱글벙글하는 웃음을 띠우고 김일에게 인사하였다. 정두환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것때문에 미안함을 품고있었던 김일은 그의 손을 잡고 대뜸 물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군복천은 구했습니까?》

《예, **김일성**장군님께서 다 해결해주시였습니다.》

정두환은 감격에 겨운 어조로 말하였다.

《오늘로 물자들을 전량 인수하였습니다.》

정두환은 받아안은 사랑을 털어놓지 않고는 견디기 힘든듯 김일을 합숙구내의 정향꽃향기가 진동하는 야외의자에로 이끌었다.

《글쎄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김일은 정두환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

정두환이 군복천을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자 길동분구 사령부에서는 **김일성**장군님께 요청편지를 드리게 되였다.

장군님께서는 정두환을 만나주시고 벌써 찾아올것을 그랬다고 하시며 우리도 천이 매우 긴장하지만 싸우는 동무들을 위해 요구대로 보장하여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연변의 형세를 일일이 알아보시고 군복천을 빨리 해결해주도록 해당 부문의 책임일군들에게 지시하신데 이어서 그들이 의약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것을 헤아리시고 최현에게 한차량분의 의약품을 해결해줄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런데 군복천을 해결할 과업을 받은 일군이 폭도 좁고 질도 좋지 못한 토목천을 마련해놓은 사실을 아시게 된 장군님께서는 못내 서운해하시며 국내형편이 어렵더라도 다른것으로 해결해주라고 이르시였다. 하여 수천여필의 군복천과 다량의 의약품이 마련되게 되였다. 장군님께서는 그래도 무엇인가 부족하신듯 따로 천여벌의 군복을 보내겠으니 길동분구 사령부의 경위대와 지휘부성원들이 입도록 하라고 하시였다.

중국 동북에서 싸우는 전사들에 대한 장군님의 깊은 관심은 물자해결에만 머무르는것이 아니였다. 장군님께서는 보름전에 평양에서 물자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있던 정두환을 급히 동북에 보내여 강건을 청진까지 데려내오게 하시고 청진에서 그를 만나시여 동북해방작전을 토의하시였다는것이였다.

정두환의 이야기를 듣는 김일의 가슴은 끝없이 격동되였다.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분을 수령으로 모시고있는가. 장군님의 령도와 사랑의 손길은 조선땅만이 아닌 광대한 중국대륙의 혁명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김일은 장군님께서 작년도 11월 신의주에 오시였을 때 료

동분구 사령원 소화의 긴급요청으로 적아간의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지고있는 안동에 건너가시여 작전협의회에 참가하시였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후 장군님께서는 중국공산당의 원조요청을 받아들이시여 10만정의 무기를 넘겨주시였다. 그리고 오늘은…

(아, 이 우직한 놈아. 너는 언제 가면 그이의 심원한 정신세계를 헤아려볼수 있을것인가.)

《나는 동북에서 장군님께서 길림에서 조직지도하신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과 일화배척투쟁의 영향하에 투쟁의 길에 나선 사람입니다. 길림에서 타오른 반일투쟁의 불길이 연길현에도 파급되여 일떠선 청년학생들의 시위대렬속에 나도 서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김일성**장군님을 동경하면서 그이의 지도를 받으며 투쟁해왔지만 정작 만나뵈옵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고 정두환은 자신의 지난날을 회고하였다.

《김일동지, 내가 얼마나 장군님을 뵙고싶어했는지 압니까.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풀리고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으니 꿈만 같습니다.》

김일은 자신이 장군님이 그리워 찾아오던 1936년이 돌이켜졌다.

《나는 10년전부터 장군님을 모시고 싸워온 복받은 전사입니다. 장군님께 충실하자고 언제나 마음을 쓰고있는데 그이의 뜻을 미처 받들지 못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번에도 결국은 그렇게 됐지요. 난 무능하고 단순하기 짝이 없는 자신이 막 밉습니다.》

김일은 자책에 잠겨 경황이 없이 정두환과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정두환동무, 장군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싸워주시오. 이제 승리하고 조국에 돌아오면 이 김일이 꼭 동무에게 진 빚을 갚겠소.》

정두환이 떠나간 후에도 김일은 계속 자책속에 모대기였다.

장군님께서 중국혁명을 위해 막대한 량의 물자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작전문제에까지 관심해주시는 사실에 접하여 김일은 자신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였다고 뉘우치고있었다.

그날 밤 김일은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장군님께 드리는 편지를 썼다.

《장군님, 불민한 전사 김일이 편지로 자신의 죄를 아뢰이고 처벌을 기다립니다. 오늘 저는 동북민주련군 길동분구 공급부 부부장 정두환동무를 만나 그가 장군님으로부터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은 이야기를 들

었습니다. 장군님의 대해같은 세계에 경탄함과 동시에 저는 죄책감을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정두환동무는 군복천을 마련하기 위해 한달반전에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김일은 자기가 확보해놓았던 군복천을 정두환에게 내주지 못한 사연을 쓰고나서 계속하였다.

《제가 구실을 못하여 장군님께서 군복천을 해결하시느라 많은 로고를 바치시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군님을 따라 10여년간 혁명을 하였지만 아직 그 뜻을 따르자면 멀고 멀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저는 평북도에서 장군님의 명령지시관철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겠습니다.》

다음날 김일은 그 편지를 장군님께 꼭 전해달라고 경위대장에게 부탁하고 평양을 떠났다.

후날 김일이 보관하였던 군복천들은 인민군대의 창건을 앞두고 귀중하게 쓰이였다.

14

장개석의 국민당군대의 빈번한 무장도발로 압록강연선의 긴장상태는 날을 따라 격화되였다. 압록강하류에 위치한 작은 섬인 황초평에 국민당무장악당들이 넘어와서 주민들을 랍치해가더니 갑자기 큰 부대가 쳐들어왔다. 하여 도발자들과 국경경비대사이에 치렬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였다.

김일이 한영덕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동북에서 아들과 어머니가 찾아왔으니 빨리 평양에 와서 맞이하라는 소식이 왔다.

벅찬 흥분으로 가슴이 높뛰였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당장 아들과 어머니를 보고싶었고 한달음에 달려가 그들의 숨쉬고 심장이 뛰는 몸을 그러안고싶었다. 10년전에 한영덕이 소식을 알려주면서 찾아가보라고 할 때 가보지 못했던 그 괴로움과 그동안 쌓인 그리

움이 그들을 만나보는 그 한순간에 기쁨으로 폭발할것이다.
그러나 김일은 국경이 불안한 상태에서 자리를 뜰수 없었다. 그는 흥분을 애써 가라앉히고 전화로 허창숙을 찾았다.
《어머니와 용석이가 귀국했다누만. 평양에 와서 날 찾는다오.》
《그래요? 정말 기쁘시겠어요. 글쎄 살아있으면 다 만나게 된다니까요.》
《내 시간이 없어 간단히 용건만 말하겠소. 난 지금 신의주를 뜰수 없으니 동무가 가서 내 인사도 전하고 여기로 데려와줄수 있겠소?》
허창숙은 김일의 마음을 다 리해하고있었다. 싸움도 함께 했고 비록 길지 않은 시일이지만 안해로서 함께 가정생활도 했으니 누구보다도 김일을 잘 안다고 할수 있을것이였다. 그 녀자는 김일이처럼 군소리가 없이 짤막하게 대답하였다.
《알겠어요. 내 당장 떠나겠어요.》
《고맙소.》
송수화기를 놓고 다시 일에 착수하자니 어쩐지 마음이 싱숭생숭해진다.
행처불명인 강정익의 아들에 대한 생각도 떠올랐다.
얼마전에 있은 일을 돌이켜보니 그의 입귀로 허거픈 웃음이 새여나왔다. 그는 림산호를 생각할 때마다 그 비슷한 모상으로 해선지 강정익이 상상되는것이여서 우정 중하면에 출장을 가는 도당의 한 일군을 통해 산호의 어머니를 만나게 했었다. 그런데 그 일군이 출장길에서 돌아와 하는 말은 김일을 실망케 하였다.
《…산호의 어머니는 산호는 자기가 낳아 기른 애라면서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느냐면서 펄펄 뛰더군요.》
(어리석은 생각으로 괜히 애꿎은 녀인만 놀라게 하고 노엽혔단 말이야.)
김일은 그 일을 회상하면서 입을 다시였다.
(그 애를 찾아야겠는데… 지금 어디서 뭘 하고있는지.)
지금 동북에서는 장군님의 세심한 관심속에 림춘추가 혁명렬사유자녀들을 찾아 조국에 내보내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있었다. 김일은 그에게 강정익의 아들 행처를 알아볼데 대해 부탁하였으나 그도 아직 찾지 못하고있었다.

저녁녘이였다. 어스름이 창문으로 발볌발볌 기여들고있었다.

김일은 번거로운 생각을 애써 털어버리고 전화로 한영덕을 찾았다. 황초평의 전투상황을 들으니 침입한 적들은 격퇴되였는데 또다시 덤벼들려고 시도한다고 하였다.

《아무래도 내 황초평에 건너가봐야겠소.》 하고 김일은 영덕에게 말하였다.

김일이 당사업에서 제기되는 다른 문제들에 대한 일련의 조직사업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장종학이 들어왔다. 어디서 달려오는 길인지 종학의 훤한 이마엔 땀발이 돋았고 숨을 씨근거리고있었다.

《어떻게 왔소?》

《멀리 동북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찾아왔는데 왜 아주머니만 보냅니까. 내 역에서 아주머니를 만나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 달려오는 길입니다.》

장종학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막 들이대였다.

《난 지금도 김일동지가 반일부대를 이끌고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다가 우리 집에 들렸을 때 하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도 헤여진 아들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일은 잠시 격한 종학을 바라보았다.

(참 마음이 고운 사람이야. 하지만 험난한 혁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자면 그것 하나만으로는 안되지.)

《종학동무, 날 너무 모진 인간이라고 생각지 마오. 내겐들 왜 부모나 자식 생각하는 감정이 없겠소. 하지만 우린 혁명을 첫자리에 놓아야 하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나를 믿고 이 국경도시를 맡겨주시였소. 헌데 동무도 알겠지만 지금 국경일대가 편안치 못하오.》

김일은 더 말하지 않고 옷걸이에 걸려있는 모자를 썼다. 종학은 얼친 사람처럼 김일을 바라보았다.

《동문 왜 그러고 섰소?》

《파견원동지는 어데 가시려고 합니까?》

《내 황초평에 건너가보겠소.》

《그럼 나도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거긴 동무가 왜 간단 말이요?》

《나도 파견원동지를 따라가고싶어 그럽니다.》

《황초평은 지금 격전장으로 화했소. 거긴 위험하오. 동무야 사민이 아닌가.》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내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을 취재해서 도일보에 글을 투고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기요. 거기 가면 림산호도 만나볼수 있을거요.》

검푸른 하늘에는 먹장구름들이 타래치고있었다. 습한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파도가 배전을 들이치고있다. 발동선은 1시간나마 검은 물결을 헤가르며 밤안개가 지꿎게 느물거리는 속으로 내달리고있었다. 김일은 한영덕과 함께 선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있는데 장종학은 갑판에 나와 서서 어둠속을 응시하고있었다.
비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으나 장종학은 선실로 들어갈념도 않고 두손으로 갑판의 란간을 꽉 틀어잡은채 까딱않고 서있었다. 그는 그 신념과 의지에 있어서 김일에게 미치지 못하는 자기자신에 대한 렬등감에 잠겨있었다. 자기는 확실히 혁명가의 그 높은 세계속에 들어설수 없는 세속적인 인간이였다. 1936년에 김일과 한영덕을 따라나서지 못하였던것도 세속적인 감정에서 탈피하지 못한때문이 아니였던가. 그래서 후회도 많이 했고 오늘에 와서는 걸음걸음 김일을 본받자고 하는데도 왜 자꾸 뒤떨어지는것일가?
비에 옷이 젖어들면서 으시시 떨려왔으나 피하고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는 자신을 매질하고 학대하고싶었다.
더 세차게 퍼부어라. 이밤에 내리는 비에 변변치 못한 몸도 마음도 깨끗이 정화시키고싶구나.
《장동무, 여기서 왜 비를 맞는거요? 어서 선실로 들어가기요.》
돌아보니 한영덕이 팔을 잡아당기고있었다.
《날 그냥 내버려두시오. 난 지금 나자신에게 벌을 내리고있는거요.》
《벌을 내린다구? 이 사람 무슨 수수께끼같은 소릴 하는거야.》
그제야 종학은 껄껄 웃었다. 자기의 고민을 내색하고싶지 않아 터치는것이여서 어딘가 공허감이 느껴지는 웃음이였다.
《영덕동무, 다른게 아니요. 내 그저 좀 해본 소리요. 자, 들어갑시다.》

잠시후에 배는 황초평에 당도하였다.

비를 맞은 땅은 감탕처럼 발목까지 푹푹 빠져들어간다. 포구에서 동뚝까지 무성하게 자란 갈대들이 비바람에 휘여들며 길을 가로막았다. 김일의 일행은 전지불로 앞길을 밝히며 갈숲을 헤치였다. 비옷들을 입었지만 벌써 아래도리는 화락하니 젖어버렸고 갈숲을 헤치면서 슴새든 물에 앞자락도 젖어들고있었다.

섬주둔 국경경비대 지휘부안은 불을 화끈 때여 건조한 공기가 떠돌았으나 방등불이 약해서인지 어둑시그레하였다. 그래서 패기가 넘치는 젊은 경비대소대장은 부랴부랴 방등 한개를 더 가져다가 심지를 크게 돋구어 불을 달아놓았다. 그리고는 주전자에 물을 끓여와서 고뿌에 철철 넘치게 따라 세사람에게 권하였다.

《당장은 물밖에 대접할게 없습니다. 식사준비를 시켰습니다. 좀 기다리면…》 소대장의 얼굴에는 미안스러운 표정이 어리였다.

《동문 마치 우리가 대접이나 받자고 온 사람들인것처럼 말하는구만.》 영덕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난 담배만 피우면 그만이요.》 김일은 담배갑을 꺼내 한대 물고 소대장에게도 한대 주었다.

《피우시오, 사내들이야 담배면 인사차림이 되는거지.》

방안에는 네사람이 내뿜는 구수한 담배연기가 그물그물 피여올랐다.

소대장은 아직 담배를 피울줄 모르는지 연거퍼 성급하게 담배연기를 들이빨더니 그만에야 기침을 터치였다. 그는 마치 기침의 원인이 국민당놈들에게 있는듯이 불시에 격분을 내뿜었다.

《정말 괘씸한 놈들입니다. 중국인민들을 앞세우고 총질하면서 들어와서는 갈단을 채가지고 도망친단 말입니다. 우리가 경비를 철통같이 하니 이제는 무력으로 침범해들어오는것입니다.》

《현재정황을 구체적으로 말해보오.》 한영덕이 하는 말이였다.

《놈들을 완전히 격퇴했습니다.》

소대장은 전투정형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

《놈들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거요. 또 덤벼들것이니 맞을 준비를 든든히 해야겠소.》

김일이 맛스레 담배를 피우며 듣고만 있다가 심중한 낯빛으로 말하였다.

《경비대력량만 가지고는 안되겠소. 마을청년들로 자위대를 조직해서 섬을 순찰시키도록 합시다.》

이윽고 김일과 한영덕이 대원들의 형편을 료해하는데 소대장이 사기가 나서 자기 대원들에 대한 칭찬을 늘여놓았다.

《모두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모릅니다. 이번 전투에서 신입병사가 용감성을 발휘해서 적 세놈을 제꼈습니다.》

《그 신입병사이름이 뭐요?》

김일의 물음에 소대장이 대답하였다.

《림산호라고 합니다.》

김일과 한영덕, 장종학은 서로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소대장을 따라 대원들이 차지하고있는 초소로 나갔다. 아직도 비가 멎지 않고 내리고있었다.

《소대원들은 지금 병실에서 휴식하고있습니다.》 소대장이 안내하면서 하는 말이였다.

중국 대안쪽에 전호를 든든하게 파놓았고 화점을 만들어 중기관총도 설치하였다. 비바람에 갈숲이 설레이고 파도가 기슭을 때리는 소연한 소리가 들려올뿐 전방엔 고요한 정적이 깃들어있다.

전호에 엎드려 감시임무를 수행하고있던 비옷을 입은 병사가 벌떡 몸을 일으켰다.

《감시근무중 이상없습니다.》

《이 동무가 이번전투에서 공을 세운 림산호동무입니다.》

김일의 전지불에 림산호의 놀란 얼굴이 비쳐졌다. 비물이 줄줄 흐르는 그 얼굴엔 이전에는 전혀 볼수 없었던 묵직하고 근엄한 기색이 어려있었다. 이제 더는 어리다고 볼수 없는 병사가 앞에 서있었다.

《산호동무, 수고하는구만.》

《안녕하십니까? 파견원동지.》

산호는 힘차게 거수경례를 붙이였다. 그 목소리도 우렁찼고 자세도 름름하여 장종학은 대견스러움에 가슴이 뿌듯해졌다. 산호는 한영덕과 장종학에게도 인사하였다.

김일이 산호의 쳐든 팔을 내리워주며 어깨를 두드려주었다.

《장해, 공을 세웠다지? 축하하오.》

산호는 머뭇거리다가 말하였다.

《고맙습니다, 파견원동지는 제 운명의 은인입니다.》
장종학이 속으로 산호의 말을 긍정하는데 김일의 얼굴이 찌프러졌다.
《산호는 잘못 생각하고있소. 내가 어떻게 산호에게 은인이 되겠는가. 나를 포함해서 산호와 전체 근로인민의 은인은 바로 **김일성**장군님이시야. 나는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관철해가는 전사야. **김일성**장군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혈육처럼 가까와지게 되지. 피줄로 련결된 혈육관계보다 더 귀중한게 바로 장군님에 대한 충성으로 결합되는 동지관계이지. 동무들, 그렇지 않소?》
찬비가 세차게 뿌려지는 속에서 김일의 말은 모두의 가슴에 뜨겁게 젖어들었다.
(장군님에 대한 충성으로 결합되는 동지관계!)
장종학은 김일의 말을 입속으로 외웠다.
그는 비에 젖은 온몸이 훈훈하게 더워지는듯 한 감을 느끼였다.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삶의 보람이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었기때문이였다.
《산호, 명심하라구.》하고 김일이 다시금 말하면서 산호의 가슴을 큰 주먹으로 쿡 찔렀다. 한영덕과 장종학은 김일이 주먹으로 도장을 찍듯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 대한 믿음의 표시라는것을 잘 알고있는지라 느슨한 웃음을 짓고있었다.
《알았습니다.》
산호는 힘차게 대답하며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15

온 나라 인민들의 충성의 마음에 떠받들려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맞으며 그이의 동상건립과 함께 대기념비들이 성과적으로 완성되였다.
혁명의 성지 백두산천지를 형상한 벽화를 배경으로 하여 좌우에 세워진 조각군상중심에 모셔진 수령님의 동상, 바른손을 드시고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을 가리키고계시는 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과 인민적품성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을 뜨겁고도 숭엄한 감정세계에로 이끌어간다.

대기념비가 완성된 후부터 만수대언덕은 우리 인민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찾아와 수령님을 뵈옵는 신성한 장소로 되였다.

만수대대기념비건설이 끝난 후 김일이 주되는 힘을 넣은것은 대성산혁명렬사릉건설이였다.

대성산에는 이미전부터 렬사묘가 있었는데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주작봉에 새롭게 꾸리는 공사가 벌어지게 되였다. 렬사릉건설은 1972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여 벌써 1년이 지나자 10여메터의 암반을 다 까내고 터를 닦았으며 릉으로 들어오는 도로로반들이 형성되였다.

한여름철의 찌는듯 한 무더위속에서도 공사는 더욱더 활기차게 진척되고있었다.

어느덧 삼복철도 다 지나간다. 대성산에 울창한 소나무숲이 시원한 바람을 안고 설레이기 시작한다. 김일은 바람결에 풍겨오는 송진냄새를 기분좋게 느끼며 렬사릉건설장을 돌아보고있었다.

건설장에 나와 돌아보면 볼수록 김일은 수령님께서 평양의 유서깊은 명산이고 대고구려의 옛성과 궁터가 남아있는 대성산의 여러 산봉우리들중에서도 주작봉에 터를 잡아주신 혁명렬사릉이 명당자리에 건설되고있다는 생각이 들군 한다. 소나무 우거진 산봉우리를 등지고 서면 왼쪽으로 풍만한 대동강이 유유히 흘러내리고 앞쪽으로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평양의 거리들이 환히 내려다보이였다. 혁명렬사들은 조선의 력사가 이름모를 바위와 못들 그리고 성돌속에 숨쉬고있는 풍치수려한 대성산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며 날을 따라 부강번영하는 조선의 심장인 수도 평양의 아름다운 모습을 부감하면서 안식할수 있을것이다.

지팽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걸음을 옮겨짚는 김일의 퉁투무레한 얼굴에는 감개무량한 빛이 어리였다. 이즈음에 와서 그는 다리가 저려나면서 제대로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그래도 그는 정무원 총리로서의 자기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쉴념을 하지 않았다. (김일은 지난해 12월 국가정권기구가 개편되면서 정무원 총리로 사업하고있었다.)

김일의 서기 허룡이 옆에서 그를 부축여주었다. 허룡은 김일의 이상한 병증세를 걱정하면서도 차마 그런 말을 하지 못하였다. 1968년부터 김일의 서기로 사업하고있는 허룡은 김일의 성격을 잘 알고있었다. 김일은 자기의 사업에 그 어떤 사사로운 문제(여기에는 그자신의 건강에 관한 문제도 포함되여있었다.)가 끼여드는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일단 해내겠다고 결심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내밀었고 그를 위해선 그 무엇도 돌아보지 않았다. 부관이나 서기가 김일의 건강상 문제로 만류하려들면 무섭게 흘겨보군 하였다. 그러니 허룡이 건강을 돌보지 않는 김일이 아무리 불만스럽다 해도 어떻게 말할수 있단 말인가. 그저 곁에서 말없이 돌봐주는수밖에 없었다.

오늘도 허룡은 조심조심 김일의 팔을 붙들어주면서 말없이 걷고있었다. 허룡은 체구가 크고 뼈대가 실한 젊은이였으나 김일의 곁에 서면 좀 키도 작아보였고 몸집도 왜소해보이였다.

《허서기는 아직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 김일이 물었다.

허룡의 아버지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북만에서 이름을 떨친 항일련군 3로군 참모장 허형식이다. 허룡이 태여나기 전부터 무장투쟁에 참가한 아버지는 가족을 돌보지 못하였다. 어머니가 고생스럽게 오누이를 키웠고 허룡은 아버지의 희생소식도 어머니에게서 들었다.

《난 아버지를 어머니나 항일투사동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얼굴을 알수 있겠습니까.》

《허형식이… 주하유격대창건자의 한사람이였지. 북만에서 함께 싸운 김책동지가 잊지 못해했소. 수령님께서는 그의 희생을 두고 그 어떤 군사작전의 성공도 허형식과 같은 큰 지휘관의 손실을 보상할수 없었다고 말씀하시였소.》

김일은 깊은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제 좀 기다려보라구. 수령님께서 허형식동지의 모습을 후대들이 다 알게 해주실거야.》

대성산혁명렬사릉에는 수령님의 발기에 따라 항일유격대 지휘성원들의 반신상이 세워지게 된다.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만수대창작사에서 창작가들이 지금 한창 창작전투를 벌리고있었다. 창작가들은 사진 한장 남기지 못한 투사들을 형상하기 위하여 많은 항일투사들을 취재하여 모상을 그리였다.

김일은 수령님을 생각할수록 가슴이 뜨거워진다. 세상에 우리 수령님처럼 혁명동지들에 대한 사랑과 의리가 지극한분이 또 어디 있을것인가.

혁명렬사릉건설을 발기하시고 세심한 지도를 주시던 수령님께서는 바로 얼마전에 또 건설장을 찾아주시였다. 한여름의 뙤약볕이 지글지글 내려쪼이던 한낮이였다. 그이께서는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렬사들의 반신상을 어떻게 세우겠는가를 가르치시다가 몇겹으로 접은 종이를 꺼내드시였다. 그 종이장들에는 수많은 혁명렬사들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들 매 사람의 생년월일이며 난곳, 사망년도는 물론 혁명에 참가한 년대, 지어 전사한 날자와 장소까지 적혀있었다.

《내 오늘 점심시간에 혼자 생각하면서 적어본거요. 내 머리속에 얼핏 떠오르는 렬사들만 해도 60명이 넘었소. 그러니 이 렬사릉에 90상 정도의 반신상은 세워야 할거요.》

수령님의 사랑의 필적이 어린 종이장을 받아드는 김일의 손은 감격으로 떨리였다.

렬사릉건설방향에 따라 숱한 일군들이 동원되여 해방전에 희생된 항일혁명렬사들뿐아니라 해방후에 사망한 투사들까지 포함하여 안을 잡은 대상이 기껏 30～40명정도였다. 그것도 겨우 이름만 적어놓은 대상이 태반이였다. 아무리 간단히 한다고 해도 생년월일, 난곳, 사망년도정도는 밝혀져야겠는데 해방전에 희생된 렬사들에 대해서는 거의나 아는것이 없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는 하루 점심시간의 단참에 60여명의 렬사들을 생각해내신것이였다. 그 비상한 기억력도 기억력이려니와 희생된 전사들을 잊지 않고 가슴에 깊이 새겨두신 그 사랑과 의리가 김일의 가슴을 쳤다.

(아, 얼마나 고결하신 위인이신가. 렬사들이여, 그대들은 아는가, 얼마나 뜨거운 품이 그대들을 안아주고있는지.) 이런 웨침이 김일의 심장에서 터지였었다.

그 한낮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으시며 먼저 떠나간 동지들에 대해 말씀하시던 수령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김일은 수령님을 받드는 전사의 의리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하고있었다.

(오늘 우리가 수령님을 더 잘 받들자면 후계자를 잘 모시는것이 무

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제는 우리가 늙어가고있으며 능력도 부족하다.)

김일의 눈앞에는 **김정일**동지의 슬기와 정력에 넘치는 젊으신 모습이 떠올랐다. 그날 **김정일**동지께서도 건설장을 찾으시였었다. 그이께서는 수령님께 렬사릉의 규모를 더 크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자신의 의견을 말씀드려 수령님을 기쁘게 하시였다. 그리고 새로 꾸리는 렬사묘를 《혁명렬사릉》으로 부르자는 제기도 올리시여 수령님의 동의를 받으시였다.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제의는 언제나 이처럼 수령님의 심중에 꼭 들어맞는것이였다. 확실히 그이는 수령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 제때에 파악하는 높은 충성심과 출중한 예지를 겸비한분이시였다.

(그이만이… **김정일**동지만이…) 하고 김일은 곱씹어 생각하고 있었다.

《수령님의 은덕으로 아버지를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이 영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은 허룡의 말에 생각에서 깨여났다.

《세상에 우리 수령님처럼 뜨겁고 고결하신분이 또 어디 있겠나.》

건설지휘부가까이 이르렀는데 사진사가 혁신자들의 사진을 찍는 모양이 눈에 뜨이였다. 혁신자들의 사진들을 영예게시판에 소개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있었다.

혁신자들이 자랑스럽게 웃으며 사진기앞에 나선다. 그 모양을 보는 김일의 입가에는 부지중 미소가 어리였다. 사진을 찍는 혁신자들속에는 장현철도 있었다. 대성산혁명렬사릉건설을 맡아하고있는 건설기업소는 장현철이 소속되여있는 평양시원림건설사업소였다. 때문에 김일은 건설장에 나올 때마다 현철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김일은 현철에게 정이 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장종학의 아들이여서만이 아니라 수령님께 충실하고 총명한 청년이였기때문이였다. 현철은 대성산혁명렬사릉건설에서 위훈을 세워가고있었다.

사진사는 모범적인 지원자들도 사진찍었는데 그속에는 한설미가 끼여있다.

설미는 만수대대기념비건설공사장에서부터 시작되였으며 만수대대기념비가 완공되자 대성산혁명렬사릉건설장에로 자리를 옮겨 계속 진행되는 야간지원돌격대활동의 가장 적극적인 참가자라고 할수 있었다. 야간지원돌격대는 일요일같은 때면 아침부터 건설장으로 찾아오군

하였다. 오늘은 일요일이였다.
현철과 설미를 발견한 김일의 얼굴에는 느슨한 미소가 어리였다.
그는 장현철과 한설미가 만수대대기념비건설장에서 늘 함께 일하였고 또 여기 대성산혁명렬사릉건설장에 와서도 변함없이 다정하게 만나는것을 알고있었다. 이 청춘남녀를 볼적마다 수령님을 받드는 그 한길에서 그들의 리상과 희망이 아름답게 활짝 피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되는 김일이였다.
그는 사진찍기가 벌어지는 지휘부 마당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저마끔 김일에게 인사를 하였다.
김일은 뒤전에 서있는 현철을 찾았다. 현철이가 앞에 나서자 그는 시까스르는 소리를 하였다.
《현철이가 청춘의 본때를 보이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넌 항상 봐야 설미와 붙어다니는구나.》
《그건 저…》
현철이가 대답이 궁해서 쩔쩔매는데 설미가 다가왔다. 얼굴이 감실감실하게 타고 작업복을 입은 설미의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총리동지, 안녕하십니까?》
《설미가 용해. 이젠 대학을 졸업했겠구나.》
《지난해에 졸업했습니다. 상업관리소에 배치받았습니다.》
《어련히 일을 잘하겠지, 설미가 누구라구.》
김일은 껄껄 웃다가 말을 계속하였다.
《내 현철이를 좀 놀려대기는 했는데 너희들이 함께 있는 모양이 보기가 좋다. 언제나 그렇게 붙어다녀라, 좋은 일도 함께 하고 좋은 정도 나누고…》
《총리동지가 오해하는것 같습니다.》 하고 현철이가 말하였다. 《사실 우린 뭐라고 할가, 그 의형제를 맺었다고 할가? 우린 오빠와 동생사이입니다.》
《뭐 의형제라구? 지금 우리 사회에 의형제라는것도 있는가? 그리고 남녀사이에도 무슨 의형제라는게 있나? 허, 그건 난생 처음 듣는 소리로구나.》
김일은 짐짓 눈을 쪼프리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의형제라는건 지어낸 소리고요. 우린 서로 그런 말을 한것

도 없는데…》 설미가 당황해하며 현철에게 곱게 눈을 할기였다.
《현철오빠, 누가 들으면 놀라겠어요. 그저 오누이사이라고 하면 될걸 가지구.》
《내앞에서야 너희들이 오누이사이라고 하면 어떻게 믿겠니? 모르는 사람들이야 속아넘어가겠지만…》
김일은 시물시물 웃으며 순진한 청춘남녀를 놀리였다.
《그저 그렇게 되였습니다.》 겨우 자신을 수습한 현철이가 의젓하게 말하였다.
《은근히 정이 통한다는 소리야.》 김일은 알겠다는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차라리 너희들의 그 처녀총각의형제를 좀더 발전시키는게 어떨가?》
《어떻게 말입니까?》 현철이가 물었다.
《그것도 몰라? 바보같으니. 아마 설미는 짐작할테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설미는 얼굴이 진달래빛으로 물들어간다.
《뭘, 잘 알고있겠는데… 좌우간 생각해봐라. 이렇게 만난김에 사진이나 같이 찍자.》
김일은 사진사를 불렀다.
《사진사동무가 좋은 일을 한가지 해주어야겠소. 이 처녀, 총각 한쌍을 나란히 세워놓고 사진 한장 잘 찍어주시오. 기념이 되게 말이요.》
현철이와 설미가 각기 김일의 팔소매를 잡았다.
《총리동지, 같이 찍읍시다.》
《우리 함께 찍자요.》
설미는 응석을 부리듯 김일의 팔을 잡고 흔들며 실팍한 제몸도 흔들었다.
《우선 너희들이 함께 찍어라.》
현철이와 설미가 나란히 붙어섰다. 나이지숙한 사진사가 사진기렌즈를 들여다보다가 너스레를 떨었다.
《이건 천상배필이구만.》
《사진사동무도 그렇게 생각하나?》
김일이가 묻자 사진사는 거침없이 대답하는것이였다.
《내 심장이 그렇다는걸 속삭입니다. 내겐 사진사로서의 육감이 있는데 사진기를 들고 들여다보면 사람의 마음속이 환히 들여다보이고

앞날까지 환히 내다보이거던요. 그런데 저 청춘남녀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나라를 위해 든든한 기둥감이 될것이고 또한 틀림없이 원앙새부부로 되여 백년해로할것입니다.》

현철이와 설미는 사진사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어 배를 잡고 웃어대고 김일이도 호탕하게 웃어제끼였다.

《이 사진사동무가 사람을 볼줄 아는 신통력을 가졌구만. 대단해, 지인지감이 있단 말이야. 뭐 심장이 속삭인다구, 정말 재미있는 동무요.》

이윽고 사진사가 사진을 다 찍고나자 김일은 자기의 량옆에 현철이와 설미를 세웠다.

《자, 또 한장 찍소.》

김일의 모습은 대견한 자식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친아버지의 모습을 방불케 했다.

《사진사동무가 수고했소. 앞으로 좋은 사진들을 많이 찍고 혁신자들을 적극 고무해주라구.》

김일은 현철이와 설미를 보며 강조하듯 또다시 말하였다.

《앞으로도 계속 붙어다녀라.》

16

평양교외의 길은 밤이 되면 인적이 뜸해진다. 현철이와 설미는 조용한 길을 웃으며 걸어갔다.

현철이는 건설자의 한사람으로 현장에서 살았는데 설미는 상업관리소에서의 일이 끝나면 렬사릉건설장에 찾아와 자기의 지성을 바치고 돌아가군 하였다. 현철은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설미를 바래주고있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서 훤한 빛을 뿌려주고 길옆에 펼쳐진 논에서는 개구리들이 소란스럽게 울어대고있었다.

사람의 감정이란 이상한것이다. 지금까지 현철이와 설미는 서로

가까이 어울리면서도 조금도 꺼리끼는것이 없이 자연스러웠는데 이날 오후 김일에게서 의미심장한 놀림을 당하고 이상한 당부를 들은 이후로 어쩐지 어색함을 느끼게 된것이였다. 현철은 이전처럼 마음대로 말이 잘 나오지 않았고 설미 또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이 없어졌다.

그래도 현철이 인차 마음을 다잡고 어언간에 둘사이에 배회하는 야릇하고 숨가쁜 분위기를 털어버리려고 웃었다.

《내 오늘 총리동지를 다시 보게 되누만. 엄숙한분으로만 생각했는데 롱담을 곧잘 하시더란 말이야. 설미, 네 생각엔 어때?》

《나도 그래요. 총리동진 참 능청스러운분이야.》

설미도 입술을 쫑긋 내밀며 웃음을 머금었다.

《그런데 오빠가 잘못 말했지 뭐예요. 의형제라는건 또 무슨 말이예요?》

《내가 그만 실수를 했지. 그럴듯하게 말한다는게 그만 그런 말이 튀여나왔거던.》

《그래도 그런 생뚱같은 단어를 생각해낸걸 보면 오빤 수재는 수재예요.》

《넌 날 놀리니?》

《놀리긴요. 사실 오빠야 수재이지요 뭐. 난 항상 그렇게 생각해왔는걸요.》

《듣기 싫다. 난 평범한 사람이야.》

갑자기 설미가 돌부리를 걷어차면서 비칠거리였다. 현철이가 제꺽 설미를 부축하였다.

《아이고…》

설미는 한쪽발을 붙들며 주저앉았다.

《아프니?》

《응.》

설미는 머리를 까닥거렸다.

《어떻게 할가? 내가 업어줄가?》

《응.》

《자, 그럼 업혀.》

현철이가 주저앉은 설미에게 등을 돌려댔다.

설미는 깔깔 웃어대며 현철의 등을 밀어냈다. 현철은 무릎방아를 찧

었다. 《됐어요. 이젠 일없어요.》
《정말 일없니?》
설미는 일어섰다.
《내가 업혔다간 오빠 그 약한 몸에 비틀거리다가 쓰러지고말걸, 흥―》
설미는 살룩거리며 걸어갔다.
《넌 정말 날 놀리는거니?》
현철이가 설미의 손을 잡았다.
《놀리긴? 사실이 그렇지요 뭐.》
설미는 살그머니 현철의 손에서 자기 손을 뽑아냈다. 현철은 다시금 어색함을 느끼면서 얼굴이 달아올랐다.
인적드문 길은 달빛속으로 휘연하게 뻗어갔는데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는 더욱더 청아하게 고요한 밤공기를 울리였다.
잠시후 설미가 입을 열었다. 처녀의 목소리는 어쩐지 쓸쓸한 애상을 담고 울리는것만 같았다.
《오빠에게 알려줄 말이 있어요.》
《무슨 말?》
《우리 아버지가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하고 배치를 받았어요.》
《어디에 배치되였니?》
현철은 저도 모르게 마음이 긴장되여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지방도시의 기계공장 지배인으로 임명받았어요.》
《잘되였구만. 이젠 됐어.》
현철은 한시름이 놓이는듯 가쯘한 흰이를 드러내보이며 웃음을 지었다.
《꼭 높은 자리에 다시 올라가야만 제대로 되는것도 아니지. 그렇지 않아?》
《오빠가 그렇게 생각하니 고마와요. 하지만 아버지는 지방에 나가 생소한 공장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을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치밀어오르는지 설미의 얼굴이 시무룩해졌다.
《그럼 설미는 어떻게 하니? 부모들을 따라가야 하니?》
《부모들과 함께 가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그건… 응당 그래야지.》

현철은 가슴이 허전해짐을 느끼였다.
(그러니 이젠 설미와 헤여져야 한단 말인가. 언제까지…)
《언제 떠나니?》
《래일 저녁차로 평양을 떠나요.》
《그렇게 빨리?》
현철은 놀라서 눈이 커다래졌다.
설미는 머리를 까닥이였다.
《그런데 넌 어쩌면 그렇게 태연하니?》
《태연하지 않으면 울겠어요?》
설미가 정말 강의하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현철의 가슴을 쳤다. 그런 괴로움을 안고있으면서도 이 처녀는 조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있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자신이 철없이 놀아댄것 같아 현철은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그리고 설미와 함께 걷는 길도 이밤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콱 막히는것만 같았다. 언제나 설미와 붙어다니라고 하던 김일의 말이 떠올랐다.
(이제는 붙어다닐래야 붙어다닐수가 없게 되였구나. 아참, 일도…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가. 정말 견디기가 힘들구나.)
현철은 걸음을 멈추고 길옆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았다.
《오빠,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좀 앉았다가 가자.》
설미가 옆에 다소곳이 앉았다.
현철은 머리를 푹 수그리고있다가 말하였다.
《난 정말 섭섭하구나. 넌 아무렇지도 않니?》
《나도 섭섭해요.》
《그러니 넌 평양을 떠나고 우린 마지막으로 함께 있게 되누나.》
현철은 저도 모르게 설미의 손을 잡았다. 설미는 손을 뽑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다만 가느다랗게 한숨을 쉴뿐이였다.
《정말 이렇게 끝이 나는걸가?》
《앞으로 만날 날이 있겠지요 뭐.》
현철은 눈물이 고여오르는것을 느끼면서 심호흡을 하였다.
《지금까지 늘 함께 있으면서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이럴가. 난 너

와 헤여지는것이 이렇게 힘들줄은 몰랐댔어.》

《나도 정말 힘들어요.》

설미는 한손으로 눈물을 씻어냈다.

《다른 방법이 없을가? 네가 꼭 부모님들을 따라가야 할가?》

《따라가야 해요.》

현철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래, 물론 그래야지. 하지만 난 우리가 이렇게 헤여질줄은 몰랐어. 너무 뜻밖이야.》

현철은 일어섰다.

《가자, 이제 막차가 올 시간이 됐어.》

설미가 눈물을 씻고 일어섰다. 그들은 다시 걸어갔다.

건설장에서 뻐스정류소까지 가자면 30분나마 걸어야 하였다. 그런데 어느새 정류소까지 왔다. 정류소에는 시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줄을 서있었다.

작별의 시각이 다가왔다. 현철이는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였다.

현철이네 건설자들은 현장에 꾸린 림시건물에서 숙식하면서 일하고있다.

현철은 설미를 따라 뻐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고싶었는데 작업복바지주머니속의 공구창고열쇠가 그를 제지하였다. 그는 현장에서 작업공구들을 관리하고있었다. 건설자들은 이제 야간작업도 하고 새벽작업도 해야 하는데 그가 작업공구들을 내주어야 한다. 이런 정황에 부닥칠줄은 모르고 기껏 한시간정도 설미와 함께 있다가 현장에 돌아갈것으로 타산했던것이다.

현철과 설미는 뻐스정류소가 바라보이는 뽀뿌라나무밑에 섰다. 현철은 팔목시계를 보았다. 이제는 더 시간이 없다. 시내에서 들어오는 마지막뻐스가 나타날 시간이다.

《설미, 내가 래일 역에 나가겠어. 너도 바래주고 설미 부모님들을 바래드리겠어.》 하고 현철은 성급하게 말하였다.

현철은 설미의 손을 더듬어잡았다. 설미는 말없이 현철의 손을 꼭 잡고있을뿐이였다.

마침내 뻐스가 나타나 달려오고있었다.

(제기랄, 무슨 차가 이리도 빠르담.) 하고 현철은 속으로 투덜거렸다.

뻐스가 태우고 온 사람들을 다 내려놓고 기다리던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하였다.

《이젠 헤여져야겠구나.》 현철은 아쉬움을 금치 못하며 말하였다.

현철은 설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가슴이 뭉클하니 젖어들었다. 훤한 달빛에 설미의 볼로 흘러내리는 눈물이 보이였다. 설미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현철을 바라보고있었다.

뻐스에 마지막사람이 오른다. 별안간 현철이가 큰소리로 뻐스쪽을 향해 웨치였다.

《같이 갑시다!》

현철은 설미의 손을 잡고 뻐스를 향해 뛰여갔다. 설미를 뻐스에 태우고 손을 흔들었다. 현철의 눈앞은 뿌옇게 흐려졌다. 그는 멍히 서서 어둠속에 사라지는 뻐스를 바라보았다.

(정말 이렇게 갑자기 헤여질줄은 몰랐어.) 하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였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도 설미를 사랑하고있는줄 정말 몰랐어.)

×

그 시각에 김일은 집무실에서 자기를 찾아온 한영덕과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한영덕은 대학을 졸업하고 새 일터로 떠나기 전에 김일을 만나보고싶어 찾아온것이였다.

《기계공장 지배인이라…》 하고 김일은 영덕의 새 배치지를 두고 혼자말처럼 뇌이였다.

《자그마한 기업소입니다. 수령님앞에 죄를 진 저에게는 과남한 일이지요.》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의 다심한 사랑이 동무를 보살펴주고있소. 한번 잘해보오.》

《은근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군인으로 살았는데 제대로 지배인사업을 해내겠는지.》

《인민경제대학에서 많이 배웠겠는데 뭘 그러오. 한영덕이야 한영덕이겠지. 일을 잘해서 한영덕의 새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오.》

《알겠습니다.》

김일은 담배를 한대 붙여물고 연기를 내뿜다가 말을 이었다.

《내 오늘 대성산혁명렬사릉건설장에 나갔다가 설미를 만났댔소. 기특한 애요. 현철이와 함께 혁신자사진을 찍더구만.》
《그렇습니까?》
《영덕동무생각엔 어떻소? 그 애들이 앞으로 부부로 결합되면 좋을것 같은데…》
《나도 현철이가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그거야 어디 제 마음대로 되는 일입니까?》
《옆에서 부채질을 자꾸 해야지. 헌데 설미는 어떻게 하려오?》
《사실 설미는 계속 부모들을 따라 함께 가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평양에 떨구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 애는 도리상 부모들을 따라가야 한다는건데 그 애가 우리를 따라 지방에 가선 뭘 하겠습니까.》
《나도 설미가 부모들을 따라가는건 반대요. 설미도 이젠 대학을 졸업하고 당당한 사회성원이 되였는데 무엇때문에 부모들에게 수족이 얽매이겠소. 그럼 설미를 설복해서 집에 남겨놓도록 합시다. 그 애 걱정은 마오, 내가 우리 딸처럼 돌봐줄테니까.》
《고맙습니다.》
영덕은 머리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총리동지, 전 평양을 떠나기 전에 빨찌산시절의 동무들을 다 만났댔습니다. 전 동지들에게 내가 일을 바로 하지 못하여 수령님께 근심을 끼쳐드리고 빨찌산망신을 시켰는데 자기를 뉘우치고 혁명화를 위해 평양을 떠난다, 그러니 비판도 더 하고 솔직하게 조언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말 좋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수령님의 후계자로 모시는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시켜야 한다는것이였습니다.》
면도를 말끔히 하여 구레나룻터가 푸릿해진 영덕의 얼굴에는 심각하면서도 간절한 빛이 어려있었다. 김일은 물끄러미 영덕을 바라보며 다음말을 기다렸다. 영덕은 마음을 가다듬듯 앞상을 내려다보고있다가 눈길을 들었다.
《총리동지, 우리는 모두 총리동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에서 총리동지의 위치가 누구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김일은 머리를 끄덕이면서 미소를 지었다.

《동무가 날 비판하는것 같구만.》

《비판이야 뭐… 그저 너무 그런 생각이 간절해지니…》

영덕은 면구스러운듯 얼굴을 돌리였다.

이윽고 김일은 《동무 말이 옳소!》 하고 크게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천천히 집무실안을 거닐었다.

《그렇지 않아도 영덕동무처럼 그런 제의를 하는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요. 며칠전에도 최현, 오진우, 림춘추동무랑 한자리에 모여앉을 기회가 있었는데 우린 수령님의 후계자문제를 두고 말을 많이 했소. 그때부터 더욱더 생각이 깊어지오. 오늘 대성산혁명렬사릉건설장에 나갔더니 또 그런 생각이 들더구만. 이것은 혁명의 전도문제이면서 동시에 수령님을 모시는 우리 전사들의 의리문제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이런 면에서도 우리의 귀감이 되고있소. 오늘도 그이께서는 만수대창작사에 나가시여 혁명렬사들의 반신상제작사업을 지도하시였다고 하더구만.》

김일은 잠시 생각에 잠기였다가 동을 달았다.

《내 수령님께 후계자문제를 제기하자는거요. 더는 미룰수가 없소.》

17

김일을 맞아주시는 수령님의 얼굴에는 친근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벼르고벼르면서 수령님을 찾아온 김일이였으나 막상 수령님앞에 서고보니 은근히 가슴이 조여드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혹시 수령님께서 찬성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것인가.

《무슨 일로 이 아침에 왔습니까?》 수령님께서는 전에없이 진중한 빛이 떠도는 김일의 얼굴을 주의깊게 보시며 물으시였다.

《행정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와는 달리 조선혁명의 전도와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조선혁명의 운명과 전도에 관한 문제라… 그러니 로선적인 문제겠

습니다. 흥미있소.

자, 그럼 앉아서 구체적으로 들어봅시다.》

수령님께서는 김일에게 의자를 권하시고 자신께서도 옆에 앉으시였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문제는 조선혁명의 운명과 주체혁명위업의 전도와 관계되는만치 이번 당전원회의 안건의 첫자리에 놓았으면 하는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며칠후에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가 열리게 된다.

전원회의에서는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된 3대혁명 수행정형을 총화하는 문제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독립채산제를 옳게 실시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기로 이미 안건이 정해져있었다. 그런데 김일이 새로운 안건을 제기하자고 하는것이다. 그것도 첫째 안건으로…

김일은 수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물러서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마음을 단단히 다지면서 온몸을 긴장시키였다.

《그럼 그 내용을 들어봅시다.》 하고 수령님께서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 심중하게 제기하는 문제인데어서 들어보고 연구를 해보아야지. 그런데 동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짐작이 가오. 동무가 속에 품고있는 생각이 얼굴에 다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수령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짓고계시였다. 그 미소는 지나친 긴장으로 짯짯해진 김일의 가슴을 부드럽게 풀어주는것만 같았다.

(수령님앞에서 무슨 사설이 필요하단 말인가. 벌써 빨찌산시절에 사람들의 속마음을 환히 들여다보시고 천기도 내다보시는 전설적위인으로 칭송받으신 수령님이 아니신가. 지금도 나의 속마음을 환히 들여다보고계실것이다.)

김일은 마침내 문제제기의 첫머리를 떼였다.

《사실 저는 조선혁명을 령도할 후계자문제를 빨리 락착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슴속에 품고있습니다.》

《내 그 문제를 들고온줄 알았습니다. 김일동무의 말마디들과 얼굴표정, 나에게로 무작정 오겠다고 하는 행동이 종전과는 다르기에 무슨 문제일가 하고 생각해보니 후계자문제일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던것입니다.》

《이미 수령님께서도 말씀하신바가 있지만 혁명의 운명문제와 전도가 수령의 후계자에게 달려있는것만큼 이번 당전원회의에서 후계자문제를 락착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혁명을 령도할 후계자문제에 대한 김일동무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는 나나 동무들이 다 한창나이의 청년들이였는데 이제는 벌써 환갑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합니다. 우리는 백두밀림에서 개척한 혁명위업을 완성하지 못했고 분렬된 조국도 통일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혁명의 내외정세는 의연히 복잡하며 앞으로 더욱 어렵고 복잡한 정세가 조성될수 있습니다. 혁명을 령도할 후계자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혁명의 전도와 나라의 운명과 관련되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김일동무가 이 절박한 문제를 우리 혁명의 운명과 전도에 관계되는 중요한 당의 로선문제로 보고 락착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것은 백번 옳은 제기입니다. 혁명을 령도할 후계자문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교훈과 현실태로 보아도 더는 미룰수 없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해 4월 만경대에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40돐을 맞으며 항일투사들을 만났을 때에도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우리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갈수 있는 능력있는 젊은 사람을 후계자로 내세우고 키워야 한다고 말하였던것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지난해 4월 만경대에서 항일투사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후계자문제에 대하여 실로 중대한 말씀을 하시였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이전 쏘련에서 레닌이 쓰딸린과 같은 혁명에 충실한 사람을 후계자로 키웠기때문에 그가 서거한 후 쓰딸린이 그의 뜻을 이어 쏘련공산당과 쏘련인민을 령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지만 쓰딸린은 자기의 후계자를 잘 키우지 못하여 그가 서거한 후 흐루쑈브와 같은 배신자가 나오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고 우리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능력있는 젊은 사람을 후계자로 선정하고 잘 키워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었다.

수령님의 긍정적인 반응에 김일은 가슴이 확 트이는것만 같았다. 이제는 문제의 요점을 짚어야 하였다. 김일은 심호흡을 하고나서 입을 열었다.

《수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서 저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혁명을 령도할 수령의 후계자로 추대하는 사업을 이번에 진행되는 당전원회의에서 락착을 지을것을 정중히 제의합니다.》

《이제야 본론을 내놓는구만. 단도직입적으로가 아니라 혁명을 령도할 후계자문제가 혁명발전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된다는 화제를 올려놓은 다음 대상문제를 제기하는것을 보면 빨찌산시기 정치위원을 한 사람의 전술이 다르긴 다릅니다.》

《그것은 수령님께서 빨찌산시기부터 저에게 배워주신 수령님식정치사업방식입니다.》

《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혁명을 령도할 후계자로 추대하여야 한다는 김일동무의 제기를 옳다고 보며 그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일동무를 비롯한 조선혁명의 1세대들이 전당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이라고 하면서 **김정일**동지를 조선혁명을 령도할 후계자로 추대할것을 제기하고있는것은 력사발전의 흐름으로 되고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김일은 저도 모르게 흥분되여 몸을 솟구었다.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문무를 겸비한 백두산의 아들입니다. 그는 젊지만 자기의 실력으로 높은 사업권위를 지니고있습니다. 그의 사상리론적예지와 통찰력에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그는 조직적수완이 있고 전개력이 있으며 통솔능력이 있습니다. 인민들이 그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라고 부르며 따르고 존경하는것은 우연치 않습니다.》

(한평생 인민에 의거하여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여오신 우리 수령님, 인민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따르는것을 수령님께서 어찌 모르시랴. 그러니 수령님께서도 인민들의 그 념원을 귀중히 여기실것이다.)

김일의 가슴에는 기쁨이 차고넘치였다. 그는 너부죽한 얼굴이 환해져서 수령님께 말씀드리였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인민들로부터 한결같은 흠모와 신뢰를 받고계시기때문에 그이를 수령님의 후계자로 추대하는것은 필연적인 문제로 되고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잠시후 수령님께서는 김일을 여겨보시며 말씀하시였다.

《혁명을 령도할 후계자 추대문제는 심중한 문제이므로 좀더 연구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인민의 념원은 력사의 필연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질것입니다.》

수령님께서는 김일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일단락지으시였다.

김일이 고집스럽게 다시 후계자문제에 대한 확답을 받아보려고 움씰거리는데 수령님께서는 김일의 건강문제에로 화제를 돌리시였다.

《요즘 김일동무가 눈에 띄게 다리를 절고있는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 병원에 가봤습니까?》

김일은 당황해났다. 지금도 다리가 저려나는것은 사실이였다. 하지만 그는 수령님께 근심을 끼쳐드릴가보아 수령님앞에서는 지팽이도 짚지 않았고 또 다리도 절지 않으려고 애썼건만 수령님께서는 다 알아보신것이였다.

《뭐 별거 없을겁니다. 좀 이러다가 낫습니다. 수령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그렇게 간단할것 같지 않소. 예감이 좋지 못하거던. 병원에 가서 종합적인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전원회의가 끝나면 병원에 가겠습니다.》

《동문 또 고집을 쓰누만.》

수령님의 목소리는 안타까움에 젖어있었다.

그해 9월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김정일**동지는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추대되시였으며 다음해인 1974년 2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는 수령님의 후계자로 높이 추대되시였다.

제 3 장

1

봄이 왔다. 울창한 수림이 파랗게 살아오르는 모란봉의 여기저기에 연분홍진달래며 노란 개나리꽃들이 무덕무덕 피여나 봄향기를 짙게 풍기였다. 대동강물은 새봄을 노래하듯 더욱더 풍만하고 기세좋게 흘러가는것만 같았다. 만물이 활기를 띠는 이 봄날 김일은 중병에 들어 초대소에서 치료를 받고있었다.

지난해(1973년)말부터 팔과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증세가 점점 심해져 병원에 입원하여 대수술을 받았으나 병은 조금도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기만 하였다. 올해에 들어와서는 움쩍하지 못하고 침대에 붙들려 매인 신세가 되고말았다.

김일의 병때문에 근심하시던 수령님께서는 외국의 관록있는 의사들을 초청하시였다. 의사 3명이 와서 김일을 구체적으로 검진한 끝에 수술을 권고하였다.

김일에게는 병명을 숨기였지만 그자신은 륙감으로 엄중한 병에 걸렸다는것을 알아차리였다. 그는 어쩐지 자기가 생의 종착점에 다달은듯한감을 느끼고있었다.

그는 3년전에 사망한 어머니의 모습을 자주 꿈에 보군 하였다.

어머니는 97살까지 유한이 없이 살았다.

김일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정이 깊었다. 김일이 어렸을 때 연길현의 깊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석마골이라는 마을에서 외따로 떨어져있었던 그의 집은 독립군들이 뻔질나게 드나드는 련락소였다. 독립군의 안해인 어머니는 집에 들리는 남편의 동료들을 위해 쉽없이 밥을 지어야 하였다.

독립군이 왜놈들의 공세로 지리멸렬된 후에 아버지는 왜놈들밑에선 일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떠돌아다니였다. 김일의 집에는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김일의 누이들과 녀동생이 함께 살았는데 어머니는 그들을 다 먹여살리느라 손끝이 모지라지도록 일을 해야 했다. 김일은 소년시절에 서당에 다니며 글을 익히면서도 어머니를 도와 화전농사도 했고 소도 먹이였다.

나라를 빼앗기고 남의 나라 땅에 쫓겨와 고생을 하는 망국노의 처지를 뼈에 새기며 자란 김일은 일찌부터 혁명의 길에 나서 동분서주하였다.

김일이 반일부대공작을 위해 집을 떠난 후 유격근거지가 해산되였고 아버지는 병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해방후 귀국한것은 어머니와 아들 박용석이뿐이였다.

해방후 어머니는 고생한 보람을 느끼며 여생을 즐기였다. 어머니가 로환으로 앓고있을 때 수령님께서 몸소 집에 찾아오시였다.

그이께서는 허물없이 방바닥에 앉으시여 어머니의 여윈 손을 잡으시고 위로해주시였다. 어머니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동강과 만경대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에 묘자리를 잡아주시며 장례식까지 관심해주시였다. 그이께서 중국 동북땅에 묻힌 김일의 아버지 유골도 찾아내여 어머니와 합장하도록 할데 대해 말씀하시여 김일을 울게 하시였다. 수령님의 말씀을 받들고 사람들이 움직이려는것을 김일이 숱한 투사들과 조선사람들이 동북에서 무주고혼이 되였는데 어떻게 자기 아버지 유골만 내오겠는가고 반대하여 어머니는 홀로 묘에 묻히였지만 참으로 어머니는 한이 없이 세상을 떠났고 사후에도 수령님의 사랑속에 복을 누리는셈이였다.

그런데 왜 어머니의 모습이 자주 떠오르는것일가. 아마 마음이 나약해진탓인지도 모른다. 김일의 입가에 조소가 떠올랐다.

(죽는게 겁나는가? 아니다!) 그는 설레설레 머리를 흔들었다.

(나도 이젠 살만큼 산셈이다. 이제 죽는대도 별로 아쉬울것은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수령님의 후계자로 모시려는 소망도 풀렸는데 내 이제 더 바랄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친애하는 그이께서 수령님을 보좌하여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실것이다. 나같은 고목이 꺼꾸러지는것은 당연한 일이지.)

김일은 초대소의 한 방에서 잔디가 새파랗게 돋아나고 개나리꽃이 만발하여 웃는듯 한 정원을 내려다보며 생의 마감에 대한 상념에 잠겨있었다.

이때 림병욱부관이 방에 들어섰다.
《총리동지, 당장 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뭐?》
김일의 병색짙은 얼굴에는 허거픈 미소가 비끼였다.
《내가 거긴 뭣하러 간단 말이요?》
《총리동지.》 림병욱은 침착하게 말하였다.
《수령님으로부터 총리동지가 외국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교시가 계셨습니다.》
《수령님께서…》
김일은 눈굽이 달아올라 얼굴을 돌리였다.
별로 더 살지도 못할걸 생명을 부지하느라 애쓰며 언제까지 수령님께 근심을 끼쳐드려야 하겠는가.
김일의 가슴은 자책으로 쓰리고 아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도 더는 자신의 병때문에 걱정을 끼쳐드리고싶지 않았다.
《부관동무, 알겠소. 그러나 난 다른 나라에 가지 않겠으니 그리 아오.》
림병욱이 놀라서 한걸음 다가섰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겁니까. 수령님께서 지시하시였는데…》
《알겠다질 않나. 그러니 날 더 괴롭히지 말라구.》
김일이 딱 잘라 말하는 바람에 림병욱은 입이 얼어붙어버리였다.
림병욱이 방을 나가자 김일은 손수건을 눈가로 가져갔다. 그의 두눈에는 눈물이 고여있었다.
(수령님, 이 불충한 김일을 부디 용서하십시오. 저는 죽더라도 수령님의 곁에서 최후를 맞고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소망입니다.)
김일은 자기의 한생을 돌이켜보았다. 정녕 수령님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는 한생이였다. 따뜻이 품에 안아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그 사랑을 눈에 흙이 들어간들 잊을소냐.
김일은 수령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루시간을 다 보내였다.
다음날 전문섭이 김일을 찾아왔다.
《허, 이거 전문섭동무가 날 다 찾아오다니… 서쪽하늘에서 해가 뜨

는게 아니요.》

김일은 반가운 웃음을 지으며 전문섭을 껴안았다.

《총리동지, 앓는다는 말을 듣고서도 바빠서 병문안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전문섭은 죄송스러운 어조로 말하면서 김일의 손을 잡고 어루쓸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수령님의 전령병이였던 전문섭을 김일은 각별히 사랑하였었다.

《무슨 소릴 하오. 동무만큼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생겨 찾아왔소?》

어느덧 김일의 얼굴에는 엄한 빛이 떠돌았다.

전문섭은 측은한 눈길로 김일을 바라보고있었다. 이 장사같은 체격의 사람에게 어쩌면 그런 병이 다 침습한단 말인가. 대원들의 앞장에서 펄펄날며 왜놈들을 족치던 왕년의 정치위원, 전화의 불길속에서 병사들을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던 전선군사위원의 그 넘치던 힘과 건강은 어디로 사라져버렸단 말인가. 수령님께서 자신의 오른팔처럼 여기시는 김일동지가 이처럼 된병에 걸리다니 하늘도 무심하구나.

《왜 말을 못하오? 혹시 수령님 건강에 무슨 일이 생긴게 아니요?》 김일의 목소리가 떨려나왔다.

전문섭은 슬며시 눈길을 돌리며 말하였다.

《총리동지, 수령님께서 저를 보내시였습니다.》

《뭐, 수령님께서?…》

《총리동지가 다른 나라에 치료받으러 가기를 거절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수령님께서는 몹시 걱정하시다가 저를 보내신것입니다. 그러니 더는 다른 생각말고 떠나야 하겠습니다.》

김일은 한숨을 쉬며 안락의자에 주저앉아버렸다. 그는 머리를 싸쥐고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냈다.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워 금시 터질듯싶은 몸부림을 가까스로 억제하는것이였다. 전문섭이 다가서며 물었다.

《몸이 불편해진게 아닙니까? 의사를 부를가요?》

김일이 번쩍 머리를 쳐들었다. 그는 노여운 눈길로 전문섭을 바라보았다.

《여보, 동무의 책임은 수령님을 호위하는것인데 나때문에 이렇게 걸음한다는게 도대체 경우가 되는 일이요? 도대체 이 김일이 뭐요?》

《총리동지, 전 수령님의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수령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총리동지는 떠나셔야 합니다.》 전문섭은 강경하게 말하였다.
김일은 설레설레 머리를 흔들었다.
《못 가겠소. 더는 내 건강때문에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근심을 끼쳐드릴수 없단 말이요. 65년도에도 내 병때문에 수령님께서 얼마나 속을 태우시였소. 그런데 지금 또 몹된 병에 걸려 수령님께서…》
김일은 말을 맺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다가 격하여 말을 계속했다.
《도대체 내가 뭐요? 내가 뭔가 말이요?
지난해 오랜 시간에 걸쳐 대수술을 받을 때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수술립회를 서주시였소.》
…수술대우에 누운 그는 수령님을 모시고 계속 혁명을 하는가 마는가 하는것이 이 수술에 달려있다는 비장한 생각이 들자 저도 모르게 긴장되고 흥분됨을 어쩔수가 없었다. 수술이 잘되지 않으면 어쩔것인가 하는 근심도 털어버릴수가 없었다. 머리우에 켜진 무영등들이 차디찬 빛을 내며 빙글빙글 돌아가는것만 같았다.
《야단났습니다. 환자의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지고있습니다.》
환자감시기구를 들여다보고있던 의사가 당황하여 하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두눈만을 내놓고 얼굴을 다 가리우게 위생마스크를 쓴 수술집도자가 김일에게 안타까운 어조로 말하였다.
《총리동지, 진정하십시오.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수술입니다.》
《난 괜찮소. 정상이요. 그러니 어서 수술을 하시오.》 하고 김일은 말하였다.
수술집도자는 숨을 크게 들이긋고나서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어떻소? 총리동지의 몸상태를 다시 봐주오.》
그러자 울음섞인 목소리가 들리였다.
《안되겠습니다. 그라프수치들이 혼란되고있습니다.》
바로 이때 누군가 수술장안에 들어섰는데 그와 함께 놀라움과 감격의 파도가 사람들을 휩쓸었다. 순간에 수술장안이 밝아지는가싶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들어오신것이였다.

김일은 자기의 곁에 다가선 위생복을 입은분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심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급히 김일을 다시 수술대우에 눕히시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일없습니다. 마음을 놓으십시오. 내가 수술립회를 하겠습니다.》

그 순간 김일의 머리속에는 65년도에 있었던 일이 불쑥 떠올랐다.

김일이 위암진단을 받았다는것을 알고 너무 상심하여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시며 계획에도 없는 지방현지지도를 떠나시던 수령님, 그러나 그이께서는 여러 의사들이 내린 그 무서운 진단을 차마 그대로 받아들일수가 없으시여 정확한 진단을 위해 온갖 대책을 다 취해주시였다. 마침내 김일의 병이 암이 아니라는것을 아시게 되자 만시름을 놓으신듯 웃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일을 찾아오시여 그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씀하시였다.

《김일동무, 이젠 됐소. 마음을 놓소. 암이 아니라누만. 공연히 걱정했댔소. 잘 치료하면 일없겠소.》

수술장에 들어서시여 수술립회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김정일**동지를 대하는 그 시각에 김일은 8년전의 그날 병석에 누워있던 자기를 찾아오시였던 수령님의 그 모습을 다시금 뵈옵는것만 같았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이께서는 병원의 어느 한 방에 설치된 산업텔레비죤을 통하여 수술장을 주시하시다가 김일의 지나친 흥분으로 의사들이 당황해하는것을 포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서시며 말씀하시였다.

《나에게 위생복을 가져다주시오. 아무래도 내가 가족들과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수술립회를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일군들이 수술이 두시간이 걸릴지 세시간이 걸릴지 알수 없다고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세시간이 아니라 열시간이 걸리면 무어라는가, 총리동지가 마음을 진정하고 수술을 받을수 있다면 백시간이라도 일없다고 하시며 수술장으로 향하시였던것이다.

김일의 두눈에는 핑— 하니 눈물이 고이였다.

《아니, 바쁘실텐데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김일은 떨리는 입술을 가까스로 열어 말씀올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고무를 주시듯 김일의 한손을 꼭 잡아주시였다.

《수술을 꼭 받아야 합니다. 힘이 들면 내 손을 꽉 잡으십시오. 제가 수술이 끝날 때까지 여기 앉아있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김일은 눈을 꾹 감았다. 자신의 손을 잡아주신 그이의 따뜻한 손을 통하여 그 어떤 신비한 힘이 몸으로 흘러드는것만 같았다. 김일은 마치 어머니에게 몸을 맡긴 아이처럼 마음에 평온이 깃드는것을 느끼였다.

이윽고 감시기구의 그라프수치들이 정상으로 되였다는 간호원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여 수술이 진행되였다. 수술전기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김일의 손을 잡으시고 그의 곁에 앉아계시였다. 김일이 수술을 다 받고 눈을 뜨니 지도자동지의 미소를 지으신 자애로운 영상이 안겨왔다. 그이의 이마에는 구슬같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돋아나있었다.

김일의 눈귀로 눈물이 슴새여 귀밑으로 흘러내리였다. …

김일은 그때일을 돌이켜보면서 저으기 흥분하여 전문섭에게 부르짖었다.

《내가 도대체 량심이 있는 놈이요? 내 더는 이 변변치 못한 몸때문에 두분께 걱정을 끼쳐드릴수가 없소. 나도 이젠 살만큼 산셈이지. 예로부터 〈로환은 무책〉이라고 했는데 내 이제 치료를 더 받는다고 병이 나으면 얼마나 더 낫겠소. 몸조리를 잘하면서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의 사업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다가 여생을 마치고싶소.》

《하지만 이제 수술을 받으면 병을 완치할수 있습니다.》

《전문섭동무, 여기 와서 좀 앉지.》 김일은 머리를 수그린채로 옆의 안락의자를 가리켰다.

전문섭이 의자에 앉자 김일은 그의 손을 잡아쥐며 절절하게 말하였다.

《솔직히 말하면 난 내 병을 잘 알고있소. 불치의 병이요. 난 내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걸 알아. 그래 내가 살겠다고 다른 나라에 갔다가 거기서 죽으면 어떻게 하겠소?》

김일의 두눈에는 눈물이 고여올랐다.

《전문섭동무, 내 심정을 알아주오. 수령님곁을 떠나고싶지 않소. 마지막힘을 깡그리 다 짜내여 일하다가 그분을 우러르며 숨지고싶소. 그것은 나의 가장 큰 행복으로 될거요. 동무는 나의 이 심정을 수령님께 잘 말씀드려주오.》

전문섭은 더 말을 못하고 슬며시 손수건으로 눈굽을 찍었다.

그때 김일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왼쪽어깨부위를 오른손으로 주물렀다. 김일은 의자옆의 상두대에 놓여있는 약봉지들속에서 진통알약 두알을 꺼내 입에 넣고 물을 마시였다.

《총리동지, 거기가 아파서 그렵니까?》 전문섭이 엉거주춤 일어나며 근심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전쟁시기 부상당했던 자리인데 요새 좀 말썽을 일으키는가 보오. 큰건 아니요. 좀 이러다가 낫소.》

《수안보로 가는 길에서 전투하다가 입었다는 그 부상자리가 아닙니까?》

《그렇소. 가끔 이런 일이 있소. 이젠 괜찮아졌소.》

김일의 얼굴에서 고통의 빛이 사라져갔다.

《전문섭동무, 여기서 나때문에 지체말고 어서 가보오. 동무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총리동지, 제발 무리하지 말고 치료를 잘 받으십시오.》 전문섭은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김일은 방을 나서는 전문섭을 따라걸었다.

《나오지 마십시오.》

《일없소. 내 바래주겠소.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내 어떻게 심상히 보낼수가 있겠소.》

김일은 절뚝거리며 걷는데 전문섭이 그를 부축하여 팔굽을 붙들어주었다. 정문가에 멎어서있는 승용차곁에 이르러 김일은 말하였다.

《난 동무가 부럽구만. 언제나 수령님을 가까이에서 뵈올수 있으니 얼마나 큰 복이요. 어련하겠지만 맡은바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라오.》

김일은 전문섭이 탄 승용차를 바래우며 한동안 그 자리에 서있었다.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차고넘쳐 가슴이 터져나갈것만 같았다. 그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올랐다.

머리우에서 새까만 털이 반지르르한 제비 두마리가 지지배배 소리를 내며 분주하게 날아돌았다. 초대소처마아래 둥지를 튼 제비들이였다.

김일은 머리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솜뭉치같은 구름덩어리들이 떠도는 파란 하늘가를 제비들이 제세상이런듯 내리꼰지고 올리뜨며 활기차게 돌아치고있었다.

저 제비들이 몇번의 날개짓으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날아갈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니 제비의 날개와 같은것이 자기에게도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싶었다.

이윽고 그는 자신의 천진하고 랑만적인 생각을 지워버리며 쓸쓸한 미소를 짓고서 자기 방으로 향하였다. 또다시 어깨부위의 부상자리가 아파났다.

(제기랄, 또 말썽인가.)

문득 어제 딸 은희가 가져다준 《조선문학》에서 본 서정시가 생각났다.

《아버지, 여기 내가 쓴 시가 실렸어요.》 하고 딸이 부끄러움이 실린, 그러면서도 은근히 긍지가 엿보이는 얼굴로 펼쳐보인 시가 있었다.

제목은 《여기는 최전선입니다》였다. 흥미가 동하여 읽어보니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최전선에 나오시였던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감정이 담겨져있었다. 언제인가 김일은 자식들에게 전쟁시기에 겪은 체험을 두루 이야기한적이 있었는데 아마 딸애가 그때 받은 감동을 시로 엮어낸것 같았다.

칶캄한 밤
포성은 쿵쿵 고막을 울리고
때없이 적기가 날고 폭탄이 튀는데
수령님 타신 승용차는 전선길을 달린다
…

(은희가 비슷하게 시를 엮어냈거던. 시를 쓴다는게 쉽지 않은 일인데… 산호녀석도 젊었을적에는 김람인선생을 따라다니며 시를 배운다더니만 포기하고 말지 않았던가.)

김일은 어깨부위를 손으로 주물러대며 걸음을 옮기였다.

2

적들이 림시수도로 선포한 대전이 해방된 후 서울에 있던 전선사령부는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작은 산골마을인 수안보로 이동하게 되였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른 밤 인민군군인들을 태운 한대의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였다. 그것은 경비소대의 일부 인원들로 이루어진 전선사령부 선발대였다. 전선사령부 군사위원 김일이 그들과 동행하고있었다.

자동차는 기세좋게 내달린다. 전선이 있는 남쪽을 향해 행군해가는 일부 인민군대오가 전조등에 비쳐진다. 그런가하면 미군포로들을 실은 호송자동차가 마주 달려오기도 하였다. 밤이 이슥하여 다시 도로는 고요해진다. 포성은 먼 남쪽에서 둔중하게 울려오고있었다.

장령복차림의 김일은 경비소대 군관 그리고 운전사와 함께 차안에 앉아있었다. 앞시창을 바라보는 김일의 얼굴에는 근심의 빛이 짙게 어리였다. 그는 그 시각 전선사령부에 두번째로 찾아오시였던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모습을 떠올리고있었다.

아, 얼마나 자애로운 모습이였던가.

전선사령관 김책이 평양에서 지휘하셔도 되겠는데 또다시 전선으로 나오시면 어떻게 하는가고 우려의 말씀을 올리자 동무들이 전선에서 수고하는데 최고사령관이 어떻게 평양에만 앉아있겠는가, 전선에서 싸우고있는 동무들을 도와주고 전투원들도 만나고싶어 왔다고 말씀하시였지. 새벽에 찾아오시여 쉬지도 못하시고 날이 밝자 전선사령부에서 작전토의를 하여주시였지. 그렇게 일하시느라니 장군님의 건강이 오죽이나 나빠질것인가. 글쎄 우리야 서로 교대하며 피곤을 풀군 하지만 어느 누가 장군님의 두어깨에 실린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고 휴식을 보장해드릴수 있단 말인가. 실로 그이의 어깨우에는 조국과 인민의 생사운명이 무겁게 실려있는것이였다.

장군님의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그 건강을 보장해드릴수가 없으니 안

타깝기만 하구나.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실가? 평양으로 올라가시였을가? 만나뵈온지 며칠밖에 안되였는데 인자하시고 예지가 넘치는 그 영상이 또다시 그리워지는구나.

김일이 울적해지는 심정을 걷잡지 못해 심란해하는데 옆에 앉았던 군관이 말을 걸어왔다.

《군사위원동지,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김일은 비주름히 미소를 그리며 군관을 돌아보았다.

《내 산호와 얘기를 한다는게 그만…》

다부진 체구에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하고 열정이 내풍기는 젊은 군관, 그는 림산호였다.

《군사위원동지, 이젠 약속을 지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산호가 불만스러운 어조로 말하였다.

《약속을 지키겠소. 전선사령부의 이동전개가 끝난 다음엔 산호동무를 놓아주겠소.》

《정말입니까?》

산호는 격동된 어조로 말하면서 김일을 슬쩍 돌아보았다.

김일은 군사위원으로 임명되여와서야 산호가 경비소대에서 복무하고 있음을 알게 되였다. 김일은 1946년 황초평에 건너가 산호를 만나본 후에 인차 보안간부훈련소 제1소 문화부소장으로 소환되면서 신의주를 떠났었다. 그후엔 산호를 만나지 못했는데 전쟁이 그들의 상봉을 마련해준것이다. 그런데 산호는 김일을 만나서부터 일선전투부대에 가게 해달라고 졸라댔다. 김일은 대전을 해방하고나서는 일선에 보내주겠다고 산호에게 약속했었는데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왔다.

(산호가 이제 일선부대에 가면 본때를 보일것이다.) 하고 김일은 생각하였다.

산호를 보낼 작정을 하고나니 어쩐지 산호와 함께 있고싶은 심정을 억제하기 어려웠던지라 김일은 산호와 함께 차에 올랐었다.

전선사령부안에 있다고 해도 단둘이 만나 오래 이야기를 나눌만 한 겨를이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

《얼마전에 김람인선생을 만났댔소. 선생이 산호의 안부를 묻더구만.》

《어디서 만났댔습니까?》
《금강도하장에서였소.》
…그때 김일은 적들의 맹폭격으로 끓어번지는듯 한 금강에 나가있었다. 인민군대가 금강을 넘어서면 대전이 위험에 처하게 됨을 잘 알고 있는 적들은 금강을 《불퇴의 선》으로 선포하고 인민군대의 강도하를 막아보려고 발악적으로 나왔다.
전선사령부는 적들의 폭격으로 무선기들이 파괴된 조건에서 통신보장을 위해 금강에 선을 늘이도록 하였다. 통신병들은 자동차다이야쥬브를 타고 강을 건너다니며 선을 늘여나가고있었다. 기본도하장과는 떨어진 곳이였지만 때없이 눈먼 포탄이 날아와 터지면서 물기둥을 일으키군 하였다. 통신보장이 중요하였기때문에 강건과 군사위원 김일이 여기에 나와있었다. 선을 늘이는 전투가 성과적으로 결속되여 강건이 송수화기를 들고 전투명령들을 하달할 때 김일은 통신참모에게 말하였다.
《우리 통신병들이 용감하오. 짧은 시간에 선을 늘였거던. 공로있는 동무들에게 훈장을 내신하도록 합시다.》
잠시후에 김일은 기본도하장으로 갔다.
인민군전사들은 나루배와 구명대, 나무판대기를 비롯한 각종 도하기재를 리용하여 강을 도하하고있었다. 김일은 도하장에서 싱갱이질을 하는 두 군관을 발견하였다. 안경을 쓴 나이 듬직한 군관은 막 떠나려고 하는 나루배를 타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못 탄다고 막아나선다. 가까이 가보니 제지당하고있는 나이 듬직한 군관은 뜻밖에도 김람인이였다.
《김람인동무, 이리 오시오.》 김일이 소리쳤다. 람인이 김일을 보고 기뻐하며 달려와 인사를 하였다.
《이게 얼마만이요? 헌데 어떻게 군복을 입었소?》
《인민군 종군기자입니다.》
《그러니 람인동무는 종군기자의 임무를 수행하겠다는거로구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김일이 람인동무를 도와야지. 하지만 우리에게 담배한대 나누어 피울 짬이야 있겠지. 자, 한대 피우기요.》
김일은 김람인에게 담배를 권하였다.
김일이 평북도를 떠난 후에 김람인은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

였다.

김람인은 도당의 요직을 차지했던 종파분자를 날카롭게 비판한것 때문에 그자에 의해 출당철직되였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김일을 통해 김람인에 대해 료해하시고 그를 평양에 불러 인민군신문창간사업에 참가하도록 하시였다. 김람인은 인민군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전쟁이 일어나자 종군기자로 전선에 나왔다.

《김람인동무야 장군님께서 아끼시는 시인인데 그렇게 불속에 뛰여들었다가 상하기라도 하면 어쩌자고 그러오?》

《군사위원동지도 장군님께서 어떻게 제 운명을 건져주시였는지 알지 않습니까. 미국놈들이 나라를 먹자고드는데 내가 제 한몸을 생각할수 있습니까?》

람인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말을 이었다.

《참, 장군님께서 서울에 나오셨댔다는게 사실입니까?》

《그렇소, 장군님께서는 안전을 념려하는 우리들에게 자신을 해칠 총탄은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다고 호탕하게 웃으시였다오.》

《우리 장군님은 정말 하늘이 내신 위인이십니다. 장군님께서 이 나라와 인민을 지키자고 전선을 나드시는데 우리 전사들이 물불을 가릴수가 없지요.》

《람인동무의 말이 옳소. 잘 싸우시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옛친구들끼리 한번 모여앉자구, 장종학동무랑… 그리고 림산호도 있지.》

《산호가 전선사령부에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림산호는 전선사령부 경비소대에 있소. 지휘관이요. 나에게 전투구분대에 보내달라고 성화를 먹이군 하지.》

《림산호를 한번 만나보고싶군요. 시재가 있는 청년인데 너무 일찌기 문학을 포기한게 지금도 아쉽게 생각됩니다.》

《시인이 되기 전에 먼저 참다운 사람이 되여야지요.

람인동무는 종군하면서 좋은 글을 많이 쓰오. 내 하나 부탁할가? 군사위원으로라기보다 혁명동지로서 부탁하는거요.》

《무엇입니까?》

《동무야 기자이기 전에 시인이 아니요. 우리 인민군대의 영웅적모습을 형상한 서사시를 잘 써보오.》

《알겠습니다. 나도 단단히 각오를 하고있습니다.》

김람인의 안경이 해빛을 받아 번쩍이였다.
《좋소. 동무가 쓰는 작품들에 우리 군대가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군대라는 점을 강조하시오. 이런 작품이라야 전사들에게 긍지를 안겨주고 힘을 줄것이며 위훈에로 불러일으키게 될거요.
동무가 훌륭한 작품을 써낸다면 제일로 기뻐하실분은 바로 **김일성**장군님이시오.》
김일은 김람인을 이끌고 도하장으로 갔다. 전선군사위원앞에서 도하장군관은 다른 소리를 할수 없었다. 김일은 김람인과 그리고 인민군전사들과 함께 나루배에 올랐다. 나루배는 불타면서 사납게 들끓는것만 같은 금강을 건너갔다.
머리우에서 적비행기들이 돌아치면서 폭탄을 떨구고 기총사격을 퍼부어댔다.
인민군병사들이 적기들을 향해 일제사격을 들이대였다. 격분한 김일은 한 전사의 경기관총을 빼앗아들고 적기를 향해 맹사격을 퍼부었다. 한대의 적기가 불길에 휩싸여 떨어지고있었다.
마침내 배는 대안에 당도하였다. 여기서 김일은 김람인과 헤여졌다.
김일은 전사들과 함께 달리는 람인의 뒤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
김일에게서 람인을 만난 이야기를 듣고나서 산호는 말하였다.
《람인선생님은 정말 훌륭한분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극악한 반동분자가 된 내 형이 군사위원동지의 어린 자식을 죽이고 아주머니를 부상입힌 다음부터 나를 외면했지요. 물론 나도 선생님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지금 나는 선생님에게 죄를 지은듯 한 심정입니다.》
김일이 말없이 산호의 복잡한 심경을 헤아려보고있는데 남쪽하늘에서 우릉우릉하는 비행기동음이 울려왔다.
《군사위원동지, 적비행기입니다. 계속 달리잡니까?》 운전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잠간 대피하기요. 보름달이 밝아 적기에 발견될수 있소.》
김일의 명령에 따라 자동차는 도로옆의 풀숲에 들어가 은폐하였다. 이윽고 미국놈들의 비행기편대가 북쪽으로 날아갔다.
다시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총소리들이 몰방으로 터지였다. 어떤 놈

들이 자동차를 습격하는것이였다. 총알이 유리창을 꿰뚫으며 짱하고 옆시창에 금이 갔다. 산호가 와락 김일을 감싸안으며 차문을 열었다.

《하차하여 놈들을 제압하라!》

적재함에 탔던 병사들이 대응사격을 가하면서 뛰여내렸다.

적아간에는 치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인민군병사들의 강력한 대응전에 습격자들이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보잘것 없는 놈들이였다. 쉽게 무너지는것을 보아 아마 괴뢰군패잔병무리들인것 같았다.

오금을 꺾고앉아 전투상황을 감시하던 김일은 몽둥이를 드세게 치는듯 한 타격을 왼쪽어깨죽지에 받았다. 저도 모르게 어깨죽지를 그러잡았던 손을 펴보니 끈적끈적하니 피가 발렸다.

《부상당하지 않았습니까?》

옆에서 놈들에게 사격하던 산호가 물었다.

《한방 맞은것 같소. 제기랄…》

산호는 다급히 위생병을 찾았다. 위생병이 당도하는것과 함께 산호는 기관단총을 쏘며 내달리였다.

《추격하여 소멸하라!》

산호의 명령에 따라 대원들이 일어서서 총을 쏘며 내달리였다.

《개새끼들…》

산호의 씹어뱉는듯 한 목소리가 총소리들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리였다.

잠시후 전투는 끝났다. 전사들은 자동차곁에 모여들었는데 산호는 보이지 않았다.

《소대장동무는 어디 갔소?》 김일은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저기에 있습니다.》

한 전사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멀리서 누군가 땅에 전지불을 비치고 있었다. 김일은 그곳으로 갔다.

훤한 달빛에 죽어너부러진 놈들의 시체들이 보이였다.

땅을 그러안으려고 모지름을 쓰는듯 한 자세로 엎드려죽은 놈, 자는듯 한 태평한 자세로 네활개를 펴고 죽은 놈, 배가 아파 참을수 없어 배를 그러안고 태질하다가 숨이 넘어간듯 한 자세로 온몸을 달팽이처럼 꼬부리고 죽은 놈… 각양각색의 시체들이 여기저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널려있었다. 산호는 어떤 시체앞에 머리를 숙이고 서있었다.

《왜 그렇게 서있는거요? 안면이 있는자인가?》
산호가 김일에게로 얼굴을 돌렸는데 그것은 모진 고통이 어려 침침하고 이지러진 모습이였다. 산호는 한순간에 백년이나 늙어버린것만 같았다. 그는 갈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군사위원동지, 이자는 제게 형이 되는 림의호입니다.》
《옳긴 옳소?》
김일이 전지불로 최후의 순간에 그 무엇을 벼르듯 듬성듬성한 이발로 입술을 앙다물고 굳어진 시체를 비쳐보는데 산호가 놈의 증명서를 내밀었다.
(산호가 쏴죽였는가?)
《나도 믿어지지 않아서 증명서를 뒤져보았습니다. 림의호가 맞습니다.》
김일은 림의호의 괴뢰군장교증명서를 보고나서 머리를 끄덕이였다.
《음— 여기서 죄악의 인생의 막을 내렸구만. 그래 산호는 형의 죽음을 놓고 무슨 생각을 하고있나? 조상이라도 하는게 아니요?》
《형이라는 사람이 우리와 맞불질을 하다가 죽었다는 사실이 어쩐지 기막히게 생각되였습니다. 내 운명이 기구하다는 생각도 들고…》
《림의호는 제 갈길을 갔소. 우리도 갈길이 바쁘니 어서 떠납시다.》
잠시후 전선사령부선발대는 자동차에 올라 다시 도로를 내달리였다. 야산들과 벌판들이 빠른 속도로 마주달려왔다가 뒤로 사라진다. 포성은 더욱더 가깝고 크게 들려왔다. 벌써 화약내가 풍기고 화염으로 공기가 달아오른듯 더위가 운전칸에 물큰거리였다. 전선이 바투 다가서는것이였다.
《군사위원동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까?》 산호가 흰 붕대로 감싼 김일의 부상자리를 다시 살피며 근심스럽게 물었다.
《일없소. 뼈는 상하지 않은것 같소.》
《내가 군사위원동지에게 또 죄를 진것만 같습니다.》 산호는 침울하게 말하였다. 《나와 한피줄을 나누었다는 놈때문에 이번엔 군사위원동지가 부상을 당했군요. 해방후엔 아주머니가 부상을 입고 아들애가 죽었지요. …》
《됐소, 그만하오. 죄는 지은데로 가고 물은 곬으로 흐르는 법이요. 악한짓을 하는 놈은 벌을 받기마련이지…》

《차라리 이렇게 일찍 결말이 지어진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 일찌기 형과 사상적으로 결별하고 그를 증오하였지만 어쩐지 혈육이라는 그 감정이 늘 나를 괴롭히였습니다. 오늘도 그의 시체를 보았을 때 어째서 형이라는자가 이렇게 미국놈의 앞잡이로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그를 옳바른 길로 이끌어줄 기회가 과연 없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쩔수없이 자기 환멸에 빠져들었댔습니다. 이제는 결산했습니다.》

김일은 옆눈으로 산호를 힐끔 바라보았다. 그 순간에 다부진 체격이며 까맣고 정열적으로 불타는듯 한 눈, 코날이 성큼하게 들린것이 어쩐지 강정익을 련상시키는 그 얼굴과 모습이 별로 련민의 정을 강하게 안겨주는것이였다.

《우리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혁명의 피줄만을 인정할뿐이야. 장군님께서 산호동무를 혁명가로 키웠소. 그걸 알고있소?》

《명심하고있습니다. 군사위원동지, 난 **김일성**장군님의 전사이고 그이의 아들입니다. 의호와 같은 놈과는 철저히 결산할것입니다.》

《결심이 좋소. 우리 언제나 장군님을 생각하자구. 장군님만 계시면 이 전쟁은 이기는거야.

그이께서는 전쟁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해 벌써 두차례나 전선사령부에 나오시지 않았소. 그러다가 그 귀하신 몸 상하기라도 하시면 어쩌는가 말이요. 장군님의 안녕때문에 언제나 불방석에 앉은것처럼 불안하고 불면증이 온것처럼 잠도 제대로 잘수 없구만. 그이께서 더는 위험한 전선에 나오시지 않게 하자면 우리가 더 잘 싸우고 더 잠을 못 자고 더 용감해야 해.》

자동차는 수안보의 산기슭으로 들어서고있었다.

3

문경고개로 올라가는 산밀의 깊은 골짜기에 거의나 납작납작한 초가집들뿐인 가난한 마을이 있었다. 전선사령부는 이 마을에 자리잡았다.

이동전개가 성과적으로 끝난 다음날 밤이였다. 김일은 군의소에서 부상당한 상처를 처치받고있었다.

총탄에 어깨의 살점이 떨어져나갔을뿐인데 동통이 지속되고있었다.

처치를 다 받고 군의소를 나섰을 때 전선사령관의 방쪽에서 놀라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김일은 의아한감을 느끼며 그쪽으로 갔다. 여러대의 초불을 켜놓은 방에서는 김책과 강건이 한 군관을 붙들고 격해서 말하고있었다.

《장군님께서 여기까지 나오시다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요?》

《여긴 서울하고도 다르단 말입니다. 수안보는 최전선입니다.》

김일은 김책과 강건의 앞에 서있는 군관이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부관장임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장군님께서 나오셨습니까?》 김일은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김책은 말이 나오지 않는듯 슬그머니 얼굴을 돌려버렸고 강건은 격정을 금할수 없어 머리를 수그리였고 부관장만이 침착한 어조로 대답하였다.

《예, 이제 곧 도착하시게 됩니다.》

김책이 주먹으로 쾅 하고 야전탁을 내리쳤다.

《아, 내가 전선사령관구실을 똑바로 못해 장군님께서 여기까지 나오시게 했구나.》

그 통탄의 목소리는 김일의 가슴을 찢는것만 같았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구… 예측할수 없는 적기의 공습… 게다가 어중이떠중이 패잔병놈들까지 날치는데…)

김일은 생각만 해도 피가 얼어드는것만 같았다.

《전선사령관동지, 저희들이 장군님을 얼마나 만류했는지 압니까.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기어이 이 최전선길에 나서시였습니다.》 부관장의 뜨겁게 달아오른듯 한 석쉼한 목소리가 울리였다.

《그래 오는 길에 별고는 없었소?》 김일이 조용히 물었다.

《예, 장군님께서는 무사하십니다.》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부관장은 장군님을 모시고 오던 그 이야기를 하였다.

…수안보에로의 길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위험의 빈도가 높아졌다.

그것은 적들이 무력을 증강하면서 발악이 드세여졌기때문이였다.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자 전조등을 켜고 달리도록 하신 장군님께서는 몹시 들추는 야전승용차에 몸을 맡기시고 말씀하시였다.
《적들의 공습이 있으므로 10리가량 불을 켜고 전속으로 달리다가 멈춰서서 불을 끄고 항공감시를 한 다음 다시 전속으로 달리군 하여야 하오. 자동차가 보병들이 약진하는 식으로 달리면 적비행기의 습격을 받지 않고 빨리 전선사령부에 가닿을수 있습니다.》
장군님을 모신 일행이 충주를 가까이했을 때 불의에 나타난 적비행기들이 이미 조명등을 끄고 달리는 야전승용차를 향해 곧바로 내리꽂히며 폭탄을 떨구고 기총사격을 해대였다. 위기일발의 순간이였다. 옆에서 터지는 폭탄의 폭풍에 야전승용차가 뒤집힐듯 기우뚱거리고 기총탄이 귀전을 아츠럽게 스치였다. 장군님께서는 빨리 차를 세우고 은폐하라고 지시하시였다. 공습이 끝나고 적기들이 사라지자 다시 차에 오르신 장군님께서는 운전사에게 차의 앞유리를 내리우도록 하시였다. 조명등을 꺼버렸는데도 차가 적비행기들의 목표물로 된 원인이 바로 충주시가지에서 타오르는 불빛에 차의 앞유리가 반사된데 있음을 예리하게 포착하시였던것이다. 하지만 앞유리를 내리우면 차에 들씌워지는 흙먼지는 어찌한단 말인가.
망설이는 운전사의 심정을 헤아리신 그이께서는 먼지가 들어오면 뭐라는가, 전쟁시기인데 어떻게 편안하게만 다니겠는가, 내 걱정은 말라고 하시며 그를 도와 앞유리를 내리워주시였다.
《자동차를 최대속도로 몰아야 하겠소. 자동차가 지금처럼 달려가지고는 전선사령부가 있는 수안보에 언제 도착하겠는지 모르겠소. 전선의 동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 수안보로 오시는 길에서 하시였다는 그 말씀이 김책이며 강건, 김일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 그들은 한동안 말을 못하고 눈만 슴벅이며 서있었다.
김일은 부관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나 긴장해서인지 온몸이 땀으로 젖어버렸다. 위험한 고비들을 넘어서시는 장군님을 생각하며 얼마나 가슴을 조이였던지 심장이 막 아파나는것이였다.
이윽고 김책을 비롯한 전선사령부의 지휘성원들이 **김일성**장군님을 맞으러 달려나갔다.

장군님께서는 정력에 넘치신 걸음걸이로 그들앞에 나타나시였다. 적비행기의 공습을 겪으며 먼길을 달려오신 피로감은 조금도 나타내지 않으시였다. 인자하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어려있었고 동지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이의 손에는 따뜻한 정이 스며있었다.

《그새 몸들은 상하지 않았소?》

《예, 다 건강합니다.》 하고 김책이 말씀올리였다.

김책은 장군님께 김일의 부상에 대해 말씀드리지 못하였다. 김일이 미리 김책에게 부탁을 했거니와 그자신도 이 깊은 밤 피로하시고 걱정도 많으신 장군님께서 주무시지 못하게 될것을 바라지 않았던것이다. 이밤엔 장군님께서 빨리 쉬시게 해야 하였다.

그런데 김책의 안내를 받으시며 그의 방에 들어서신 장군님께서는 야전탁옆에 걸상을 끌어다놓고 앉으시며 작전지도를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일을 하시려 하는것이였다.

《방이 좀 어둡구만.》 하고 그이께서는 방안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였다.

그동안 다른 초는 다 타버리고 한대의 꽁다리초만이 야전탁우에서 타면서 희붐한 빛을 내고있었다.

《오늘 밤에는 일을 보실수 없습니다.》 하고 김책이 말씀드리였다.

《이 꽁다리초가 마지막초입니다. 그러니 빨리 휴식하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초라?》 장군님께서는 김책의 속마음을 꿰뚫어보시고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아무리 전쟁을 한다고 해도 전선사령관의 방에 어울리지 않소. 꽁다리초가 다란 말이지? 허허허… 그럼 우리 앉아서 이야기나 합시다.》

그러나 김책은 그냥 꼿꼿이 서서 말씀드리였다.

《오래지 않아 날이 밝습니다. 그러니 잠시라도 쉬여주십시오.》

김책은 장군님께서 더 말씀하실새도 없이 황황히 방을 나섰다.

김책은 문밖에서 대기하고있던 김일을 데리고 경비소대천막으로 갔다. 강건이 김책에게 지도를 짚으며 특별경비조직에 대해 보고하였다.

《여기… 그리고 또 여기, 여기 이 지점들에 경비초소들을 새로 증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선사령부 군관들로 여러개의 야간순찰조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만하면 경비조직을 빈틈없이 했소.》 김책의 얼굴에 만족한 표정이 떠올랐다.

이때 림산호가 체격이 웅골차고 날파람있어보이는 두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그는 김책에게 거수경례를 붙이고 보고하였다.

《전선사령관동지, 참모장동지의 명령대로 보초에 나갈 성원들을 데려왔습니다. 이 동무들은 제1근무조입니다.》

김책은 그들의 장구류들을 살피고 기관단총들을 넘겨받아 깐깐히 검사해보았다.

《잘 준비되였소.》

두 병사의 준비상태를 칭찬한 김책은 림산호에게 돌아섰다.

《그러나 오늘 밤 장군님께서 계시는 최고사령부보초는 나와 군사위원동무요. 교대는 필요없으니 최고사령부보초로 준비시킨 성원들로 다른 초소들을 더 증강하시오.》

산호가 놀란 눈길로 김일을 보았다. 그는 김일의 부상을 목격하였고 그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있었다. 그런 몸상태로는 장시간 립초근무를 설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김일과 김책사이에 어떤 뜨거운 대화가 오갔는지 다 알길이 없었다. 사실 김책과 김일이 경비소대천막에 들어서기 전에 최고사령부의 보초에 대해 심각한 말이 오갔었고 김책은 김일의 절절한 호소에 감복하여 손을 들었던것이였다.

《전선사령관동지, 군사위원동지는 이틀전날 밤 적패잔병들과의 전투시 어깨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비소대장!》

김일이 소리치는데 김책이 웃으며 산호에게 말하였다.

《소대장동무, 군사위원에 대해선 우리가 잘 알고있소. 걱정마오. 동무는 주변경계근무를 철저히 세워야겠소.》

김책은 강건을 따로 만나 무엇인가 지시를 주었다.

이윽고 강건은 간절한 표정이 어린 낯으로 김책과 김일에게 거수경례를 하였다.

《부탁합니다.》

림산호와 두명의 대원들도 그들에게 거수경례를 하였다.

《동무들.》 하고 김책이 힘있는 어조로 말하였다.

《우리 최고사령관동지의 안녕을 목숨으로 지킵시다. 자, 그럼 모두

자기 임무에 착수하시오.》

김책은 결연한 자세로 돌아섰고 김일이 그의 뒤를 따랐다.

한편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김책이 오래도록 나타나지 않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창문가로 다가가시였다. 달빛이 밝아 밖이 훤히 내다보이였다.

다음순간 그이께서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전선사령관의 군복에 혁띠를 두르고 허리에 권총을 찬 김책이 출입문 바깥계단에 차렷자세로 서있었다. 그 맞은편에는 김일이 또한 장령의 군복에 혁띠를 띠고 권총을 차고 서있었다. 그들은 장군님의 안녕을 지켜 쌍보초를 서면서 한밤을 지새려는것이였다.

《사람들도 참…》

장군님께서는 가슴이 뭉클하시여 입속으로 뇌이시였다.

강건의 모습이 나타났다. 강건이 김책에게 보고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전선사령관동지, 순찰중 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당장 뛰여나가 그들을 다 끌어안고 방으로 데려들어오고싶으시였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응하지 않을것이다. 어쩔수가 없다. 그들의 눈물겨운 성의를 받아들이는수밖에…

피로가 걷잡을수없이 밀려들었으나 그이께서는 침대에 눕고싶지 않으시였다. 사랑하는 동지들과 함께 이밤을 새우고싶으시였고 또 자신께서 그들을 지켜주고싶기도 하시였다. 하여 장군님께서는 창가에 그냥 서신채 그들과 얽혀진 지난날의 추억에 잠겨계시였다.

(김책이, 우리가 처음 만난것은 국제당이 소집한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하바롭스크에 갔을 때였지. 그때 김책은 북만성위와 동북항일련군 3로군을 대표하여 국제당이 소집한 회의에 참가했었다. 나를 만나 인사를 나누면서 《**김일성**동지를 만나는 길이 왜 이다지도 멀었던지…》 하고 눈물을 보이던 사나이… 명석하고 관록있는 혁명가였다. 그때이후 내 오른팔이 되여주었지…)

김책에 비해 김일은 참으로 오랜 지기처럼 생각되시였다. 김일은 동만에서 자신의 지도를 받으면서 혁명투쟁을 했고 반일부대를 이끌고 찾아온 이후부터 줄곧 함께 생활했기때문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안도현과 돈화현의 경계점에 위치한 소할바령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하시고나서 부대들을 소부대로 편성하여 각지로 떠나보내신 후 김일을 동녕현 2도구부근의 오배에서 활동하고있던 최현과 최춘국의 부대에 보내시던 때의 일이 불쑥 머리속에 떠오르시였다. 당시 최현과 최춘국부대들은 천여리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고있다보니 지휘관들이 소할바령회의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그들에게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소부대활동으로 넘어갈데 대한 소할바령회의 방침을 전달해야겠는데 그곳으로 가야 할 김일이 사령부를 두고 떠날수 없다고, 동지들이 박덕산이 사령부에 있기때문에 마음놓고 가니 사령부를 부탁한다고 하였는데 자기까지 가면 어떻게 하는가고 막 들이대였던것이다. 사령관의 명령이라면 천길물속이라도 뛰여드는 김일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자 장군님께서는 자신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지시였다.

《장군님, 그 명령만은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눈물이 글썽하여 웨친 김일은 더 면대해있기가 괴로운듯 성급하게 천막밖으로 나갔다.

장군님께서는 김일의 심정이 리해되시였다. 그때 사령부에는 큰 부대들이 다 떠나가고 15명의 경위대원밖에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혁명승리를 위해 김일을 한시바삐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굳게 하시였다. 어차피 김일은 자기 부대가 활동하고있는 동녕현으로 가야 할 몸이였다.

밖에서는 누군가 천막가를 도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이께서는 김일이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것임을 직감하시였다.

나가보니 아닐세라 휘연한 달빛을 받으며 군복입은 덩치 큰 사나이, 다름아닌 박덕산이 사령부천막가를 거닐고있었다. 아마 날이 밝도록 저렇게 천막가를 거닐는지도 모를 사람이였다.

(그때도 저렇게 문밖에서 나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울 잡도리였었지. … 그저 하나밖에 모른다니까. 이름그대로 김일이지.) 하고 장군님께서는 뜨거운 마음으로 생각하고계시였다.

장군님께서 자기들을 지켜보고계심을 알리 없는 김책과 김일은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매혹과 흠모 그리고 전사의 량심과 의리로 가슴을 불태우며 시간의 흐름을 모르고 묵묵히 보초를 서고있었다.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김일성**장군님, 다시는 위험한 전선길에

나서는것을 삼가해주십시오. 귀하신 몸 상하시기라도 하면…)

이런 생각을 하니 김일은 온몸이 부르르 떨리고 금시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김책도 같은 생각을 하는듯 갱핏한 얼굴에 숭엄한 표정이 떠돌고있었다.

김일은 시간이 갈수록 부상당한 어깨가 쑤시고 동통이 옴을 느낀다. 그래도 김일은 이를 악물고 참아낸다. 그는 자신이 궁지로왔고 후날에 다시 없을 영광의 시간을 보내고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허리에 찬 권총집에 손을 얹고 온몸을 긴장시킨다.

그의 눈앞에는 장군님을 따라 싸워온 지난날에 있은 일들이 영화화면처럼 흘러갔다. 문득 강정익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

김일에게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그이에 대한 매혹과 숭배심을 키워준 혁명선배.

《**김일성**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사시오. …》

그것은 강정익의 유언이였다. 그의 안해는 토비놈들에 의해 희생되고 아들애는 행처를 모른다. 강정익처럼 이국땅에 쓰러진 투사들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어느덧 새벽이 푸름푸름 밝아오고있었다.

4

전쟁시기의 일들을 돌이켜보노라니 김일은 새삼스럽게 김책이나 강건이 그리워졌다. 그들은 간고한 전쟁의 나날에 자기의 생명을 수령님과 조국을 위해 바치였다. 만약 그들이 살아있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제꼈을것인가.

김일은 어쩐지 그들에게 죄를 진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까짓 병때문에 손발이 묶여있다니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먼저 간 전우들의 념원까지 다 합쳐 수령님을 받들어야 할것이다.

김일은 어디론가 흩어져버렸던 힘이 서서히 온몸에 모아지는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 나는 아직도 일을 할수 있다. 치료받기 위해 다른 나라에 간다는게 말이 되는가.)

김일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해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진다. 김일이 환자복을 벗으려는데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오시오.》

장종학이 음식꾸레미를 한가득 들고 들어섰다. 그의 혈색좋은 얼굴엔 왜선지 서글픈 미소가 어려있었다.

(분명 내가 중병에 들었다는 소리를 들었겠지.)

김일은 장종학의 자기를 위하는 그 심정이 리해되였으나 짐짓 눈살을 찌프렸다.

《장동무가 어떻게 왔소?》

《총리동지가 앓으신다기에 찾아뵙고싶어서 왔습니다.》

장종학은 김일의 병상태를 가늠해보듯 지그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는 그의 얼굴에는 침침한 그늘이 비끼였다.

《총리동지, 퍽 못쓰게 되였습니다.》

《할일도 많겠는데 무엇때문에 날 찾아다니는거요?》 김일의 목소리는 퉁명스럽게 울리였다.

《총리동지가 사람들이 면회오는걸 달가와하지 않는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고싶었습니다.》

장종학은 주눅들지 않고 다가와 꾸레미속에 들었던 꿀병이며 과일 등을 탁자우에 꺼내놓았다.

《그저 내 성의뿐입니다. 총리동지, 오늘은 일요일 휴식일입니다. 그러니 날 쫓을 생각은 아예 마십시오.》

김일은 허거픈 웃음을 지었다.

《장동무한테는 어쩔수가 없군. 내가 어떻게 옛친구를 내쫓겠소. 어서 앉소.》

장종학은 의자를 김일의 가까이에 끌어다놓고 앉았다.

《그래 장동무는 건강이 일없소?》

《예, 속탈이 좀 있긴 하지만 일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오. 나처럼 된병에 걸리면 큰일이야.》

김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다.

《그래 사람들이 내가 다 죽게 되였다고 말하지 않소?》

《아닙니다, 그저 총리동지가 너무 무리하여 중병에 걸렸다는 정도로 말하고있습니다. 총리동지, 마음쓰지 마십시오. 이제 치료를 잘하면 나을겁니다.》

《나을수도 있겠지. 그런데 사람이 지지리 앓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걱정만 끼치면서 살아선 또 뭘하겠소. 동무한테니 말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난 불치의 병에 걸렸소. 난 다 알고있소.》

김일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탁자우의 서류들을 들추더니 여러장의 신문을 꺼내들었다. 신문의 종이와 활자, 사진들로 미루어 우리 신문이 아니였다. 김일은 그 신문을 장종학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적들의 신문이요. 이 대목을 한번 읽어보오, 나에 대해 어떻게 썼는가.》

장종학은 어쩐지 섬찍한감을 느끼며 김일이 지적해준 대목에 눈길을 주었다.

《북한정권의 거두 김일 사망.》

종학은 놀라서 얼굴을 쳐들었다.

《이놈들이 어떻게 허튼 나발을 불어대는지 더 읽어보오.》 김일은 침착하게 말하였다.

종학은 더 읽어보았다.

《…유피아이, 비비씨통신이 전한데 의하면 북한정권의 총리 김일이 급병으로 사망하였다고 한다. 김일은 반만반일 게릴라시절부터… 의 충실한 전우로 활동하였는바 8.15해방후와 6.25내전때에는 군의 요직에서 정권을 뒤받침하는 위치에 있었다.… 전후에 김일은 북한정책 집행의 일선에 서서…》

신문을 읽는 종학의 볼편이 푸들푸들 떨리였다.

그는 적들의 신문을 김일에게 돌려주며 격분하여 말하였다.

《정말 고약한자들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그럴듯하게는 꾸며댔군요. 글쎄 장례식에 대해서도 썼으니…》

《이게 바로 놈들의 심리전이라는거요. 민심을 오도해보자는거지. 그래서 난 어떻게 김일이 살아있는가를 보여줘야겠소. 참된 혁명가는 침대에서 죽는 법이 없지.》

《그럼 총리동지는 그 몸으로 일을 한다는겁니까?》
《그래, 난 그만큼 치료를 받았으면 됐소. 아직 내 몸엔 힘이 충분히 있소.》
《안됩니다.》 장종학이 놀라서 벌떡 일어섰다.
김일은 그를 보지 않고 태연한 자세로 말하였다.
《내 나이 올해 예순네살이요. 이만하면 살만큼 살았소. 예로부터 〈인생 70고래희〉라는 말이 있소. 그건 70살까지 사는 사람이 드물다는것을 의미하는 말이지. 사실 난 수령님의 사랑이 아니였더라면 이미전에 죽었을 몸이요. 65년도에 다 죽게 된걸 수령님께서 구해주시였소. 수령님께 더는 걱정을 끼쳐드리고싶지 않소.》
김일은 천천히 일어났다.
《총리동지,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안됩니다.》
장종학이 눈물이 글썽해서 김일의 팔을 부여잡았다.
《종학동문 날 잘 알지. 난 한번 결심하면 흔들리는 법이 없소.》
종학을 응시하는 김일의 희슥한 눈섭이 두드러지면서 얼굴이 서슬이 낀듯 엄해졌다. 종학은 문득 자세가 굳어졌다. 그는 김일의 바위처럼 드놀지 않는 이런 태도에 위압된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이때 방문이 열리면서 허창숙을 위시해서 김일의 가족들이 들어왔다.
《장동무 말마따나 오늘이 휴식일이 분명하군. 몽땅 쓸어드는걸 보니…》 하고 김일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김일의 아들 박용석의 부부와 손자들, 딸 박은희의 얼굴이 보이였다. 그리고 30대중엽나이의 름름한 체격을 가진 인민군군관이 가족을 데리고왔다. 그 인민군군관은 김일이가 친아들처럼 여기는 진성봉이라는 사람이였다. 진성봉은 지금껏 외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일하다가 귀국하였기때문에 김일이와는 실로 오래간만의 상봉이였다.
《그래 그간 건강했느냐? 이젠 아예 들어왔느냐?》
김일은 군관복차림을 한 진성봉의 끌끌한 자태를 아래우로 훑어보며 물었다.
《예, 새 직무에 배치되여 사업하게 되였습니다.》
《당의 신임이 크구나. 너희들은 언제든지 수령님의 은공을 잊어서는 안된다.》
김일은 자기의 말에 제가끔 결의를 표명하는 가족들을 미덥게 바라

보았다. 박용석이까지 3대외독자였던 가문이 이제는 대가족이 된셈이였다. 당중앙위원회 부장으로 사업하는 박용석은 김일이처럼 입이 무겁고 행동이 진중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력사연구소에서 사업하는 박은희도 대견스럽다. 김일은 은희에게 칭찬의 말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내 네가 쓴 시를 읽어보았다. 잘 썼더구나. 네가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은희는 얼굴을 붉히였다.

손자 박충선은 저도 할아버지의 칭찬을 받고싶은지 중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자기가 5점을 맞았다고 자랑을 한다.

《그래, 그래… 용쿠나.》

《할아버지, 난 대학사로청위원으로 선거되였습니다.》 맏손자 박광선이도 한마디 하였다.

《허허… 우리 손자들이 다 자랑이 있구만.》

이윽고 김일은 허창숙을 보며 말하였다.

《오늘 괜히 여기 온것 같소. 난 이제 당장 퇴원할테니까…》

《아니, 그건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허창숙의 유순한 두눈이 휘둥그래지고 가족들도 모두 아연해서 김일을 쳐다보았다.

《그리 알고 돌아들 가오. 참, 너희들 영화 보고싶겠지?》

김일은 손자들을 둘러보았다.

《그럼 너희들은 영사실에 가서 영화들을 보다 가거라. 은희도 함께 보겠으면 그렇게 하고…》

김일은 할말을 다했다는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허창숙은 장종학에게 다가가 슬그머니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예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장종학은 한숨을 쉬며 말하였다. 《총리동지가 결심하면 어쩌는수가 있습니까. 아마 총리동지는 비장한 결심을 하신것 같습니다.》

누구도 김일의 앞길을 막아나설수가 없었다. 허창숙은 그것을 잘 알고있었다.

허룡서기와 림병욱부관이 김일을 동행하였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자기들의 무맥함을 한탄하는 빛이 력연하였다.

떠나가는 김일을 바래우는 허창숙의 두눈에는 눈물이 글썽하였다.

《어머니, 이럴수가 있어요? 중병을 앓는 아버지를 저렇게 내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진성봉이 불만스러운 눈길로 허창숙을 쳐다보았다.

《내가 어떻게 저 령감을 만류해낼수 있겠니. 누가 저 령감의 고집을 당해내겠는가 말이다. 너희들도 아버지를 잘 알지 않느냐.》

진성봉의 얼굴에도, 박용석부부의 얼굴에도 추억의 빛이 어리였다.

5

1954년 봄,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평양역홈에서 우람한 체대의 기품있는 중년사나이와 자그마한 몸매의 아련한 녀인이 이제 도착하게 될 렬차를 기다리며 서성거리고있었다. 그들은 김일과 허창숙이였는데 중국에서 귀국하는 한 소년을 마중나온것이였다. 그 소년은 허창숙과 함께 싸운 동지의 아들로 해방후부터 김일의 부부가 안타깝게 찾던 진성봉이였다. 그 진성봉을 오늘에야 비로소 만나게 되였으니 기쁘고 반가운 심정은 이루 다 말할수가 없었다.

흥분과 초조감을 억제하기 어려운듯 김일은 련속 줄담배를 피워댔고 허창숙은 자주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군 하였다.

렬차가 들어오게 될 북쪽방향을 살피던 김일의 눈에 화판을 놓고 그림을 그리고있는 한 어린 소년이 띄였다. 김일은 기다리는 지루감도 덜고 호기심도 풀겸 소년에게로 다가가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소년은 연필로 역구내에 서있는 렬차를 그리고있었다. 그 그림에는 기차를 배경으로 키높은 아빠트들이 우뚝우뚝 서있는 희한한 정경이 펼쳐졌는데 그것이 김일을 은근히 놀라게 하였다. 사실 당시의 평양역이라는건 단층집 한채가 서있었을뿐 그 근처는 페허나 다름없이 한산하였던것이다.

《얘야, 내 보기엔 네가 그림을 잘못 그리는것 같구나.》

김일은 소년의 등가까이로 허리를 굽히며 슬쩍 말을 붙이였다.
어린 소년이 시쁜 표정을 띤 얼굴로 김일을 돌아보았다. 한 8～9살 정도 되여보이는데 무척 영특한감을 주는 소년이였다. 그 소년은 김일의 모습에서 그 무엇을 발견한듯 씩 웃으며 벌떡 일어서서 꾸벅 인사를 하였다.
《안녕하십니까?》
《넌 참 인사성도 밝구나.》 김일은 소년의 등을 두드려주었다.
《헌데 이 그림속의 아빠트들은 어디서 생겨났니? 내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거 말이예요? 이 집들은 이제 저기에 서게 될 집들이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미국놈들을 쳐부셨으니 멋있는 집들을 인차 짓게 된대요. 아버지가 편지에 그렇게 써보냈습니다.》
《편지에 써보냈다고?》
김일은 의아함을 금치 못해 다시 물었다.
《아버지가 집에 없는 모양이구나. 군대에 나가있느냐?》
《아닙니다. 아버지는 외국에서 류학하고있습니다.》
《그래?!》
김일이 머리를 끄덕이는데 소년이 별빛을 띤것처럼 영채도는 눈을 반짝이며 말하였다.
《난 아저씨를 압니다. 우리 집에 아버지랑 아저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있거던요.》
《허, 네가 나를 안다구? 집에 내 사진이 걸려있다?! 허허… 그래 내가 누구냐?》
《아저씨는 김일아저씨지요?》
김일은 어지간히 놀라 소년을 찬찬히 보았다.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장종학입니다.》
《아하, 그러니 네가 장종학의 아들이였구나. 그러고보니 넌 아버지를 꼭 닮았구나.》
김일은 껄껄 웃으며 소년의 머리를 쓸어주었다. 김일의 눈앞에는 장종학의 훤칠한 키에 지성적으로 잘생긴 모습이 떠올랐다. 아마 이 소년이 큰다면 꼭 아버지처럼 미남형의 사나이로 번질것이라고 생각되

였다.

《해방직후에 너희 집에 갔을 땐 갓난애기였댔는데 이렇게 몰라보게 자랐구나. 네 이름이 현철이지? 네 아버지가 아들애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긴 맞구나, 응… 그림을 잘 그린다. 환상도 놀랍고…》

김일은 소년이 대견하여 자꾸 머리를 쓸어주었다. 그리고 허창숙을 소리쳐불렀다.

《여보, 여기 와서 이 애가 그린 그림을 좀 보오.》

허창숙이 다가오자 김일은 다시 소년을 칭찬하였다.

《얼마나 엉뚱하오. 이제 여기에 설 아빠트들을 상상하여 그렸구만. 이 기특한 애가 누군지 아오? 장종학동무의 아들 장현철이요.》

《그래요? 참 우리 현철이가 똑똑하구나.》

허창숙도 미소를 짓고 소년의 어깨를 쓸어주다가 김일에게 눈길을 돌리였다.

《이 애 아버지는 아직 류학중이지요?》

장종학은 1948년에 외국류학의 길을 떠났었다.

김일은 장종학이 보내온 편지를 통해 외국의 건설전문대학에서 공부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이제 얼마 안있어 귀국하게 될거요. 그동안 많이 배웠겠으니 전후복구건설에서 한몫 해야지.》

이때 렬차의 기적소리가 들려왔다. 바라보니 멀리에 기관차가 렬차를 달고 나타났는데 연기를 내뿜으며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있었다.

《현철아, 공부 잘하거라, 좋은 그림도 많이 그리고… 이제 평양시에 네가 그린 아빠트보다 더 훌륭한 집들이 꽉 들어차게 된단다.》

김일은 소년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렬차가 정차하게 될 역홈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렬차가 홈에 들어서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홈은 내리고오르는 사람, 마중나온 사람, 바래주는 사람들로 소란스러워졌다. 김일과 허창숙은 그 자리에 서있기만 했다. 김일은 이제 만나게 될 진성봉의 얼굴을 본적이 없었고 허창숙은 아기때 헤여진 애가 어떻게 자랐는지 알길이 없었다.

드디여 양복을 잘 차려입은 한사람이 조선바지저고리차림의 허약

한 소년을 데리고 그들앞에 나타났다.

《김일부수상동지가 아닙니까? 이쪽분은 허창숙동지이시지요?》

양복을 입은 사람의 말에 김일과 허창숙은 허약한 소년이 다름아닌 진성봉임을 알아차렸다.

《성봉아, 네가 이렇게 컸구나. 내가 허창숙이다.》 창숙은 와락 소년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였다.

진성봉은 허창숙이 중국 흑룡강성 료하현 다반촌에서 살 때 함께 투쟁한 동지가 남긴 애였다. 당시 애의 아버지는 유격대지휘관으로 산에서 싸우다 전사하였고 애어머니는 집단부락에서 지하공작을 하면서 유격대 원호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였다. 그러다가 왜놈들에게 체포되여 희생되였다. 그 녀성혁명가를 친언니처럼 따르며 지하공작을 함께 하던 창숙은 동지가 남긴 젖먹이어린애를 자기의 아들로 삼았다. 하여 그는 성봉이를 안고 동네를 다니며 젖을 먹이였고 밤에도 꼭 껴안고 잤다. (난 시집가지 않을테다. 이 애를 키우며 이 애를 친자식으로 삼고 살면서 동지의 뜻대로 끝까지 혁명을 할것이다.) 하고 창숙은 생각하였다. 그러나 생활은 창숙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변절자가 생기는 바람에 창숙이 급히 몸을 피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 정황이 조성되였다.

창숙은 1년간 안아키우면서 정을 쏟아부은 성봉이와 헤여져야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애를 맡기면서 창숙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였다. 그는 성봉의 야들야들한 볼에 입을 맞추며 정신없이 중얼거리였다.

《성봉아, 부디 앓지 말고 잘있거라. 그리고 날 기다려라. 내 꼭 너를 찾겠다. 혁명이 승리한 다음에 꼭 찾아오겠어.》

그날 저녁 날이 어슬어슬해질 때 창숙은 빨래함지를 이고 집을 나서 강으로 향했다. 그다음 물에 빠져죽은것처럼 강가에 신발을 벗어놓고 유격대를 찾아떠났다.

그렇게 헤여진 성봉이가 16살의 소년으로 자라 창숙의 앞에 나타난 것이였다. 성봉의 손에는 퇴색한 사진 한장이 쥐여져있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친어머니와 함께 허창숙이 찍은 사진이였다.

《네가 진성봉이로구나.》 김일이 성봉이의 어깨에 큰 손을 얹었다.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성봉은 서름서름한 감정이 진하게 어린 얼굴로 김일을 보다가 꾸벅

절을 하였다.
잠시후 김일은 허창숙과 진성봉을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내각으로 나갔다.
집에는 딸애인 박은희가 있었는데 처음 보는 성봉이를 졸졸 따랐다. 1946년도에 김일을 찾아온 아들 박용석은 외국류학중이였다.
허창숙은 성봉에게서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리였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심화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성봉은 열살우였던 누이의 손에서 변변히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고생스럽게 살았다. 그때문인지 성봉은 공부도 제대로 못하였고 몸도 튼튼치 못하였다.
《성봉아, 네 누이는 어떻게 살고있니?》
허창숙은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였고 혼자 시집을 가서 아득바득 가정살림을 유지하면서 어린 남동생을 돌보느라 모진 고생을 다 겪은 성봉의 누나가 불쌍하고 그리워 가슴이 미여지는 것만 같았다.
《누이는 먼저 나를 떠나보내면서 인차 가족을 다 데리고 나오겠다고 했어요.》
어머니와 말하면서도 성봉은 자꾸 식은땀을 흘리였다.
《오빠, 그렇게 덥나? 땀을 닦으라요.》
철없는 박은희가 곁에서 성봉을 빤히 쳐다보다가 손수건을 가져다주었다.
《난 일없어. 그런데 너 꽤나 똑똑하구나.》
성봉은 어색하게 웃으며 은희의 오동통한 볼을 손가락으로 꼭 찔러준다.
그러는 성봉에게 창숙은 말하였다.
《이젠 내게 자식이 또 생긴셈이다. 성봉아, 여길 네 집으로 생각해야 한다. 은희 아버지도 그리고 나도 널 친자식으로 생각한단다.》
성봉의 해쓱하게 질린 얼굴에는 다시금 땀발이 돋아났다.

내각부수상 겸 농업상이였던 김일은 평양시주변의 어느 한 농장에 시범적으로 조직된 농업협동조합에 지도사업을 나갔다가 황혼이 깃들무렵 시내로 들어오고있었다. 그는 《책방》이라고 쓴 간판앞에서

차를 세우게 했다. 책방주인이 문을 잠그려고 나서는것을 김일이 량해를 구하였다.

《어떤 책들이 있는지 한번 구경을 좀 합시다.》

턱수염을 자래운 늙수그레한 주인은 승용차를 타고온 간부풍의 사나이가 책방을 보자는 바람에 금시 얼굴이 환해져서 김일을 안내하였다.

《비록 집은 초라해도 여기엔 동서고금의 인류문화가 숨쉬고있는 신성한 곳이지요. 어떤 책을 요구하십니까. 김부식의 〈삼국사기〉도 있고 리기영선생의 〈고향〉, 한설야선생의 〈황혼〉도 있습니다. 일문판 세계문학선집들도 있구요.》

《전쟁통에도 용케 책들을 보존했군요.》

김일은 주인을 칭찬하며 이것저것 책들을 뒤적이다가 김람인의 유고작품인 서사시 《강철청년부대》를 발견하였다.

김람인의 시집을 보노라니 전쟁시기에 겪은 일들이 떠올랐다. 김람인은 1951년 6월에 전선동부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좋은 작품을 더 많이 쓸 사람인데 일찍 희생되였다고 비분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가 서사시원고를 남기고 희생된것만큼 우리가 그를 대신하여 세상에 내놓도록 하자고, 작품이 출판되면 그의 유가족들에게도 보내주고 자신께도 한부 보내달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바로 그렇게 되여 세상에 나온 서사시였다. 한권의 서사시가 김일에게 전쟁으로 인한 상실의 아픔을 다시금 느끼게 하였다.

(귀중한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였지. 김책, 강건, 최춘국…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전사자, 피살자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하며 김일은 김람인의 시집을 비롯한 소설책 몇권을 사들고 책방을 나섰다.

김일은 퇴근하면서 책방에서 산 책들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다.

그는 진성봉에게 그 책들을 안겨주었다.

《좋은 책들이니 읽어보아라. 조국에 대해 알게 하는데 얼마간 도움을 줄게다.》

허창숙이 당황해하며 김일에게 말하였다.

《성봉인 아직 조선글을 몰라요. 중국소학교에 좀 다니다가 중퇴했대요.》

《그래?!》

얼굴이 새빨갛게 되여 외면하는 성봉을 보노라니 김일은 가슴이 아릿해왔다.

(그래도 용석이는 모진 생활고를 이겨내면서 공부를 좀 했었지.)

《일없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마음먹고 공부하면 된다.》 하고 김일은 성봉에게 말하였다.

그는 성봉이를 볼 때마다 어쩐지 강정익이 남긴 아들애가 생각나면서 동지에게 죄를 지은것만 같은감을 느끼군 하였다.

(과연 그 애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대체 찾을 길이 없으니…)

어언간에 성봉은 김일에게 있어서 동지들이 남긴 후대를 상징하는 존재처럼 여겨지게 되였다. 말하자면 성봉의 육체에 강정익의 아들의 혼도 깃들어있는듯싶어 김일은 성봉에게 온갖 정을 다 쏟아붓고저 하였다.

6

진성봉은 만경대혁명학원에 입학하였다.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해 설립된 학원은 학생들의 교육교양적측면에서 당시 우리 나라에서 최고수준을 이루고있었다. 이를 잘 알고있는 김일은 성봉이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학원은 전쟁전의 그 자리에 원상그대로 보존되여있었다.

그런데 이 자랑할만 한 혁명학원이 진성봉에게는 마음에 붙지 않았다. 우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소년들과 함께 공부하기가 창피하였다.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학업기초가 없었기때문에 낮은 학년에서 공부하게 했던것이였다. 다음은 중국에서 살 때 누이의 손에서 제멋대로 자라면서 방랑생활을 많이 한 성봉이로서는 학원의 강한 규률생활을 견디기가 어려웠다.

입학한지 한주일만에 성봉은 학원을 뛰쳐나왔다. 한밤중에 일어난 성봉은 학원복을 벗어놓고 자기가 입고 들어왔던 옷을 입고서 남몰래 학원을 벗어났다. 그러나 그는 갈 곳이 없었다.

김일의 집으로 가기는 싫었다. 그는 허창숙이 자기가 젖먹이때 업어 키웠고 친자식처럼 사랑한다는것을 알고있었으나 오래동안 떨어져 살아오다나니 별로 정을 느끼지도 못하였다.

하여 성봉은 가루개시장부근을 떠돌면서 때로는 빌어먹고 때로는 훔치기도 하면서 살아갔다. 잠은 당시 모란봉에 많이 널려있던 방공호에 들어가 잤다.

허창숙의 속이 타서 재가 된다는것도 생각지 않았고 김일의 부관들이 자기를 찾아 안타깝게 평양시내를 훑고있다는것도 알리 없었다.

저녁녘 림산호는 대학에서 집으로 돌아오고있었다. 그는 인민군대에서 제대되면서 김책공업대학(당시)에 추천받아 입학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전쟁의 불길속에서 살아돌아왔을뿐아니라 제대되여 대학생이 된 아들을 더없이 자랑스럽게 여기였으며 아들의 대학공부를 뒤받침해주어야겠다고 하면서 부득부득 이사짐을 싸들고 평양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모란봉근처의 빈집을 꾸리고 살림을 차려놓았다.

어머니는 산호의 성공과 행복에서 여생의 락을 찾으려는듯 산호에게 있는 정성을 다한다. 산호가 대학에서 집에 돌아오면 공부하느라 힘들었겠다고 가방을 받아주었으며 가마속에 넣어 따끈히 덥혀놓은 밥과 국을 차려 저녁상을 들여와서는 옆에 앉아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미소를 짓고 들어주군 한다. 때로 산호는 피곤하여 잠을 자다가 깨여나는적이 있었는데 그때면 어머니가 곁에서 잠도 안 자고 자기를 사랑스럽고 대견스러운 눈길로 지켜보고있는것을 알아차리고 가슴이 찌르르해질때가 한두번이 아니였다.

산호는 아직 어머니에게 전쟁시기 수안보로 가는 길에서 있은 적패잔병들과의 전투후에 형 림의호의 죽음을 목격한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였다. 어머니에게 너무나 큰 타격을 주게 될것이 두려웠고 또 어머니가 자기를 원망하지나 않겠는가 무섭기도 했다. 어머니는 맏이 의호가 남조선으로 도망쳐 생사운명을 알수 없는것으로 생각하고있었지만 어쨌든 어머니에게는 이젠 잃은 자식이였다. 어머니는 맏이를 잃은 상실의 슬픔을 산호에게 사랑을 쏟아붓는것으로 메꾸려는듯싶었다.

산호는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에 접할 때면 언제건 말하지 않으면 안될 형의 죽음에 대한 사실을 여전히 숨기고있는데 대한 죄의식과 자격

지심을 느끼고있었다.
(후날에 기회를 보아 털어놓자.)
오늘도 산호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야 오느냐?》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문밖으로 달려나오며 산호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어머니, 잘있었어요?》
산호는 방안으로 들어서자 낯모를 소년이 자리를 펴고 누워있는것을 보았다.
《누구예요?》
《응, 불쌍한 애란다. 내 너무 동정이 가서…》
산호의 어머니는 료리솜씨도 있고 국수집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지라 평양에 와서 음식을 만들어 팔았다.
이날 장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던 산호의 어머니는 문밖에 한 소년이 쓰러져있는것을 발견하였다. 허약한 소년은 신음소리를 내고있었다. 머리를 짚어보니 불덩어리처럼 뜨거웠다. 인정많은 녀인은 소년을 데리고 들어와 방에 눕히고 약을 먹이였다.
《어쩌겠니. 열이나 좀 떨어지면 보내자꾸나.》
어머니는 산호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소년을 들인것이 안됐다고 생각하는지 소심한 어조로 말하였다.
《어머니, 잘했어요. 불쌍한 애인데 돌봐주는거야 응당한거지요. 참 잘했어요.》
산호가 칭찬하자 어머니의 얼굴에는 금시 환한 웃음이 피여오른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마음이 가볍구나. 난 혹시 네 공부에 지장을 주지 않겠는가 걱정스럽더구나. 배고프겠는데 어서 밥이나 먹자.》
어머니는 제꺽 상을 차려들여왔다. 앓는 소년까지 세명이 둥글상에 앉았다.
《넌 이름이 뭐냐?》
산호는 어려워하는 소년의 마음을 눅쳐주려고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진성봉이예요.》
《어서 먹어라.》

진성봉은 배가 고픈듯 허겁지겁 먹어대였다. 그 모양을 마음이 아릿하여 동정어린 눈길로 바라보던 산호가 다시금 물었다.

《넌 집이 어디 있니?》

《…》

《아버지, 어머니는 있느냐?》

성봉은 숟가락질을 멈추고 굳어졌는데 무엇인가 선뜻 말하기를 주저하고있었다.

산호는 어쩐지 이 애가 전쟁통에 부모를 다 잃은 고아가 아니겠는가 하는데 생각이 미치였다.

《됐다, 어서 마저 먹으렴.》

산호는 후에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로 했다.

진성봉은 하루밤 산호의 집에서 자면서 병구완을 받았다. 다음날 일찍 일어나 대학으로 갈 준비를 하던 산호는 성봉이 잠자리에 누운채 어떤 사진을 하염없이 들여다보면서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성봉은 이미 열이 떨어져 몸이 한결 가벼워진것 같았다.

《넌 무슨 사진을 그렇게 들여다보니?》

성봉이 흠칫 놀랐다가 사진을 산호에게 내밀었다.

《어머니 사진이예요.》

산호는 두 녀인이 찍힌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성봉이가 친어머니를 가리켜보이였다.

《그리고 이쪽은 허창숙어머님이예요.》

산호는 사진에서 허창숙의 처녀시절 모습을 알아보았다.

산호는 형 의호가 피해를 입힌 그 녀자를 똑똑히 기억하고있었다. 김일을 처음 알게 되던 날 저녁 그의 집에 갔을 때 살뜰한 정을 받아안게 해준 녀인이였다. 그후 형 의호가 던진 수류탄에 의해 허창숙과 아들애가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제정신없이 찾아갔던 곳은 병원이였다. 그는 허창숙이 입원했다는 호실을 찾아들어갔었다. 문을 빠끔히 열어보니 김일이 등을 돌리고 앉아있었고 허창숙이 반쯤 누운 상태로 눈물을 흘리고있었다. 그때 산호의 눈에 안겨온 슬픔에 잠긴 그 녀자의 모습은 세월이 가도 잊혀질것 같지 않았다. 바로 그때 산호는 자기가 더는 이 세상에 살아갈 길이 없다는것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슬며시 문을 닫고 돌아섰던것이였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 소년은 허창숙과 무슨 인연을 맺었단 말인가.

《넌 허창숙어머니를 어떻게 알고있니?》

《허창숙어머님은 내 엄마가 되여주겠다고 했어요. 김일아버지는 아빠가 되고요.》

산호는 대학에 갈 생각도 잊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어디 네 이야기를 좀 듣자. 그걸 듣기 전엔 내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것 같지 않구나.》

잠시후 산호는 성봉이의 운명에 깃든 모든 사연을 알게 되였다.

산호는 어머니에게 성봉이를 집에 두고 잘 돌봐줄데 대해 부탁하고 대학으로 갔다.

김책공업대학은 평북도 피현군에서 1953년 9월 평양으로 이전하였으나 전쟁전의 교사가 폭격으로 파괴된 상태여서 수도건설자들이 맨처음으로 복구한 전쟁전 로어대학(현재 김형직사범대학)과 미술대학교사에 자리잡게 되였다. 그나마도 교실이 부족하여 상급학년 학생들은 당분간 대동군 와우리일대를 차지하고 거기서 교육사업을 진행하였다. 산호는 로어대학교사에서 강의를 받았다. 교실에 앉아 학습장을 펴놓고 교원들의 강의에 열중하려 했으나 생각은 자꾸만 김일과 허창숙에게로 달려가고있었다.

(그들은 분명 진성봉이 혁명학원에서 달아난것을 알것이다. 지금 얼마나 성봉이를 찾고있을것인가. 그런데 성봉이는 학원은 물론 집으로도 갈념을 하지 않는다. 어찌할것인가. 김일동지부부에게 성봉이가 우리 집에 와있는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

산호는 대학에서 학업을 마치면 김일의 집을 찾아 떠날것을 결심하였다. 인차 평양시 륜환선도로건설공사에 동원될것이 예견되기때문에 대학생들은 오전오후에 걸쳐 집중적으로 강의를 받았으므로 산호는 저녁이 되여서야 김일의 집에 도착하였다.

그때 허창숙은 집에서 한영덕과 마주앉아 애타는 심정을 토로하고있었다. 한영덕은 인민군부대 지휘관으로 복무하고있었는데 평양에 오면 꼭 김일의 집에 들려 하루밤 자고가군 하였다.

《창숙동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애가 평양에서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찾게 될겁니다.》

영덕은 행방불명된 성봉이때문에 속을 태우느라 며칠새에 할끔하게 여윈 허창숙을 위로하였다.
《그 애가 무슨 생각으로 학원을 뛰쳐나갔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창숙의 두눈에는 눈물이 글썽하였다.
《먹을 걱정이 있길 한가, 입을 걱정이 있길 한가. 도대체 무엇이 불만스러워 달아났을가?》
《갓 중국에서 나왔으니 모든게 마음에 붙질 않겠지요.》
그들이 이런 말을 나누고있을 때 림산호가 들어섰다. 한영덕은 오래간만에 만난 산호를 붙들고 반가운 소리를 질렀다.
《아니, 산호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소? 이게 얼마만인가?》
산호는 한영덕과 허창숙에게 인사하였다.
《그간 안녕들 하셨습니까?》
허창숙은 재빨리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웃음을 지어보이였다.
《산호동무, 오래간만이로군요. 내 동무에 대한 말을 애아버지에게서 많이 들었어요.》
산호는 지난날의 일이 되살아나며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러나 언제까지 자기 감정에 포로되여있을수는 없었다. 그는 창숙의 어색한 웃음과 한영덕의 우선우선한 웃음밑에 감추어진 불안의 빛을 어렵지 않게 가려볼수 있었다. 그는 단도직입으로 말을 꺼냈다.
《진성봉이를 찾고있지 않습니까?》
허창숙과 한영덕은 깜짝 놀랐다. 그들은 말없이 의혹의 눈길을 주고받더니 다시 산호에게로 눈길을 돌리였다.
《자네가 어떻게 진성봉이를 아는가?》
영덕의 물음에 창숙이 말꼬리를 이어 숨찬 소리로 재우쳤다.
《우리 성봉이가 어디 있어요?》
《성봉이가 지금 우리 집에 있습니다.》
산호는 허창숙과 한영덕에게 성봉이를 알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그 애가 미쳤구나, 미쳤어.》
허창숙이 눈물이 글썽해서 뇌이다가 벌떡 일어섰다.
《산호동무, 빨리 집으로 가자요.》
영덕이 덤벼치는 창숙의 팔을 잡아당겼다.
《좀 진정하십시오. 우선 부수상동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지금 부수상동지가 성봉이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있겠습니까.》

영덕은 아직 내각에서 퇴근하지 않은 김일에게 전화를 걸었다.

《뭐, 성봉이를 찾았다구?》

송수화기에서 김일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산호의 집에 가있다? 허, 그거 산호가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나타났구만. 알겠소. 이젠 한시름이 놓이누만. 내 차를 보내겠으니 제꺽 가서 그 방랑자를 모셔오오.》

잠시후 창숙과 영덕, 산호는 김일이 보내준 승용차를 타고 달리였다.

창숙은 산호의 집에 도착하여 어리둥절해 앉아있는 진성봉을 무작정 끌어안았다.

《성봉아, 너 왜 그러니? 응? 왜 그래?》

창숙의 두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였다. 성봉은 말없이 머리를 숙이고있었다.

《에이, 이 애군같으니…》

영덕이가 성봉의 머리를 가볍게 툭 쳤다. 성봉이 얼떠름한 눈길로 보자 영덕은 웃으며 말하였다.

《넌 날 모르지만 난 널 잘 안다. 나로 말하면 너에게 아저씨가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영덕은 산호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였다.

《산호 어머니, 이 애를 돌봐주어 감사합니다.》

《뭘요, 그런데 애가 퍽 약합니다. 몸조리를 잘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어디선가 본듯 한감을 느꼈으나 그 누구도 해방전 중국동북에서 살 때 토비부대에서 만났던 그 사실을 기억해내지 못하였다. 이윽고 창숙과 영덕은 산호네와 다시 만날것을 약속하면서 성봉이를 차에 태우고 돌아갔다.

7

밤이 되여 김일이 집으로 왔다. 그가 들어오니 성봉이는 잠자리에 들

어있었다. 김일은 말없이 자고있는 진성봉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애정과 아픔이 엇섞인 착잡한 표정이 떠돌고있었다.
김일은 묵묵히 방바닥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담배꽁초를 재털이에 비벼끄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엄하게 말하였다.
《성봉이를 깨우오.》
창숙은 애원의 눈길로 김일을 보았다.
《은희 아버지, 성봉이가 금방 잠들었어요.》
《깨우오.》
김일은 드놀지 않는 자세로 창숙에게 준엄한 눈길을 던지였다. 창숙은 그 눈길에 위압되여 성봉이를 깨웠다. 성봉이가 일어나자 김일이 말하였다.
《옷을 입고 날 따라오너라.》
김일이 어안이 벙벙해있는 성봉을 데리고 나가는데 창숙이 아연해서 물었다.
《은희 아버지, 왜 그러세요?》
《당신도 따라오오.》
흥정을 조금도 허용치 않는 명령조의 그 목소리에 창숙은 가슴이 옥죄여짐을 느끼였다.
김일은 밖에 세워져있는 승용차에 창숙과 성봉을 태웠다. 그리고 말없이 차를 몰아갔다. 차는 도로를 냅다 달려 대동강가의 으슥한 곳으로 들어갔다. 밤은 깊어 대동강기슭에는 사람들이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 달빛을 받은 대동강이 진한 기름처럼 번들거리며 흘러가고 있었다.
김일은 성봉이를 데리고 걸어가 둔덕우에 섰다. 가파로운 벼랑턱이여서 더는 갈수가 없었다. 발밑 몇길아래에서는 물결이 철썩철썩 바위들을 들이치고있었다.
김일은 발밑을 내려다보자 무엇인가 가슴을 치는 충격에 흠칫 놀랐다.
여기까지 올 때는 결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뒤흔들리고있었다.
(내 친아들 용석이라면 내 무엇을 주저할것인가. 하지만 이 애는… 이 진성봉이나 애어머니가 과연 나를 리해할수 있을것인가. 만약 친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이 애가 오늘과 같이 철없이 놀수 있을것인가? 모

든것이 나로 인하여 발생한것일수도 있을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잠겨 김일은 한동안 말없이 대동강물을 바라보았다. 허창숙과 성봉이는 어쩐지 심판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서있었다.
(아, 이건 사람이 할짓이 못되는것 같다.)
김일은 거듭 생각하고있었다. (돌아서자. 성봉이를 따뜻하게 일깨워주면 그만이 아닌가. 이 앤 고아로 자랐으니 선입견 또한 보통이 아닐것이다.)
가까이에서 아카시아꽃의 향기가 풍겨왔다. 날이 밝으면 꽃들이 하얗게 만발한 아카시아나무들을 찾아볼수 있을것이다. 지금은 봄철이라 여기 대동강기슭에는 아카시아뿐아니라 철쭉과 매화꽃도 피였을것이고 각종 이름모를 꽃들이 다투어 피였을것이다. 아름다운 조국강산, 어려운 전쟁을 이겨내고 바야흐로 더 아름답게 변모되여갈 이 조국강산에 자기의 노력으로 한떨기 꽃도 피워놓지 못하고 시들어버릴 그런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로 될것인가.
(설사 누구든지 나를 모진 놈이라 욕을 한대도 할수 없다. 문제는 이 성봉이가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혁명의 후비대로 자라나는가, 마는가 하는 거기에 귀착되는것이다.)
김일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나서 성봉이에게 말하였다.
《네가 학원에서 도망친 후 난 너의 앞날을 두고 생각을 많이 했다. 그리고 네가 가루개시장부근을 떠돌면서 거지처럼 산 그 이야기를 듣고나서는 더욱더 생각이 많아졌다. 결국 내가 내린 결론은 네가 더 살아서 사람구실을 못하고 부모들의 얼굴에 흙칠이나 하면서 버러지처럼 살바치구는 깨끗이 죽어버리는게 낫다는것이다. 그래서 널 여기로 데려왔다. 자, 어떻게 하겠니? 네 스스로 저 강물에 떨어지겠느냐, 아니면 내가 도와달라느냐?》
《은희 아버지, 무슨 말을 하는거예요?》 창숙이 깜짝 놀라 부르짖었다.
성봉은 겁에 질려 주춤거리고있었다.
《창숙동무는 가만있소.》 하고 김일은 엄하게 말하였다.
함께 부부생활을 하면서 중년나이에 이르렀어도 김일이 격해졌을 때는 창숙을 동무라고 불렀다.
《제 부모가 어떻게 싸웠는지도 모르고 이 귀중한 조국을 위해 어떻

게 투쟁해야 하겠는가도 생각지 못하는 이런 애가 살아서 누구에게 필요한가 말이요?》

성봉이는 추운것처럼 온몸을 우들우들 떨고있었다. 만월에 가까운 달이 검푸른 구름속을 뚫고 신비한 광채를 뿌리며 삼라만상을 어루만지고 강물은 무엇인가 애타게 소리치며 흘러가는데 김일의 얼굴은 얼음마냥 서늘한 빛을 내고있었다.

《성봉아, 똑똑히 결심해라. 우린 언제까지 네 응석이나 받고 엉덩이를 두드려줄새가 없다. 16살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야. 항일빨찌산들중엔 너보다 더 어린 나이에 총을 멘 사람도 많고 네 나이에 벌써 소대장을 한 사람도 있었다. 네 아버지 진강순동무는 불굴의 혁명정신을 소유한 지휘관으로 북만에 널리 알려져있었다. 네 아버지 최후가 어떠했는지 너는 아느냐? 혁명임무를 수행하다가 수적으로 우세한 왜놈들과 조우했을 때 강순동무는 대원들을 이끌고 결사전을 했다. …》

1930년대 후반기 항일유격대의 한 부대는 **김일성**장군님의 전략적구상을 받들고 요하와 호림 등지에서 활동하고있었다. 재봉대원들은 보마정자와 쓰빠상의 골안에 남아서 부대성원들에게 입힐 솜옷을 만들고있었다. 어느날 황혼이 깃들무렵 부대의 군수장인 진강순은 대원들에게 입힐 솜옷을 가지러 재봉대에 찾아왔다.

부대에서 떠나기는 다섯명이였는데 다른 동무들은 도중에 외딴 곳에 있는 빈집에서 기다리게 하고 그 혼자만이 왔다. 많은 사람들이 재봉대에 드나들면 적들에게 재봉대의 위치를 로출시킬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재봉대원들의 신변이 위험하게 될것을 념려하였기때문이였다. 그는 군복을 가지고 그날 밤으로 떠나려 했는데 솜옷이 미처 되지 않아 다음날 새벽에야 길을 떠났다. 함박눈이 펑펑 쏟아져내리고있었다.

진강순이 네 동무와 함께 외딴곳의 빈집을 나서려는 때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왜놈들이 사면으로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유격대원들은 즉시 놈들에게 대응사격을 들이대였다. 얼마 안 가서 빈집의 벽은 온통 총알구멍으로 숭숭해지고말았다. 의지할 곳이 없게 된 유격대원들은 구들장을 뜯어 그것을 방패로 하여 계속 적들을 무리로 쓸어눕혔다. 그러나 워낙 적들이 수적으로 우세하다보니 사태는 각일각 위급해졌다. 방패로 삼았던 구들장마저 산산이 부서졌다. 대원들은 다 쓰러지고 진강순만이 남았다. 그는 허리에 부상을 당하여 피를

흘렸다. 그러나 그는 한손으로 출혈을 막으면서 안깐힘을 다해 뒤뜰안에 있는 연자매돌을 향하여 한치, 두치 기여나갔다. 매돌을 부여잡고 몸을 일으킨 그는 그에 의지하여 다시 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심한 출혈로 하여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소스라치며 다시 정신을 차렸다.

그는 연자매돌에 의지하여 천근의 무게로 잦아드는 몸을 일으켜세웠다. 그리고 매돌을 끼고 맴돌면서 가까이 달려든 앞뒤와 좌우의 적들을 쓸어눕히기 시작하였다. 그의 발자국으로 매돌둘레의 눈은 얼음처럼 반반히 다져지고 눈우에는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가 마치 붉은 띠를 둘러놓은것 같이 원을 그렸다.

이윽고 그는 자기의 총에서 총알이 나가지 않는것을 알았다. 그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집안에 들어가 전우들의 품안에서 총알을 꺼내여 다시 복수의 총탄을 적들에게 안기였다.

마침내 그는 연자매돌을 껴안은채 쓰러지고말았다.

해는 이미 서산에 기울어졌다. 이른아침부터 시작된 전투가 해가 질무렵까지 지속된것이였다. 붉은 저녁노을에 비낀 주위는 더없이 아름다웠다. 그는 멀리 산과 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무한히 아름다운 이 산천과 자기의 서른살 청춘과도 영원히 결별하여야 한다는것을 알았다. 희미해지는 기억속에 지난날의 모든것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는 혁명에 대한 자기의 충실성과 책임감에 자부심을 가졌으며 피 한방울이 남을 때까지 왜놈들과 싸운 자기의 최후를 만족스럽게 생각하였다. 한이 있다면 그리도 흠모하며 그리던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옵지 못하고 세상을 하직하는 그것이였다.

(동무들, **김일성**장군님을 받들어 조국광복의 그날까지 용감히 싸워주시오.)

진강순은 간절한 소원을 아름다운 저녁노을에 얹으면서 눈을 감았다. …

진성봉은 울고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북만땅의 그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보는것만 같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평소에 간직하였던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에 사무쳐왔다.

김일의 말은 계속되였다.

《네 아버지 진강순동무가, 왜놈들에게 학살당한 네 어머니가 네가

이 꼴로 살고있다는것을 알면 아마 땅속에서 분하여 통곡할게다. 그래, 어떻게 하겠느냐. 저 강물에 떨어져 깨끗이 없어지겠느냐, 아니면 힘껏 배우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부모들이 피흘리며 찾은 이 나라의 기둥이 되겠느냐?》

성봉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며 주먹으로 땅을 쳤다.

《용서하세요. 제가 불효막심한 놈이였습니다.》

김일의 얼굴에는 여전히 엄한 빛이 비껴있었다.

《그래 널 믿어도 되겠느냐?》

《예, 아버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김일은 성봉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가 꽉 틀어잡아 끌어당기였다.

성봉은 김일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계속 흐느꼈다.

《이제 너는 단순히 진강순의 아들로 살아서는 안된다.

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참다운 아들로 자라나야 한다. 네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김일성**장군님의 전사였고 지금 나도 허창숙 어머니도 모두 장군님의 전사들이다.》

잠시후 김일은 다시 진성봉과 허창숙을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왔다.

허창숙과 한방에 들었을 때 김일은 물었다.

《동무는 내가 너무했다고 생각하오?》

《아니예요. 은희 아버지 심정을 내 어찌 모르겠어요. 단지 강에 빠져 죽으라는 그 소리에 너무 놀라 심장이 활랑거렸던거예요.》

《우리가 바라는거야 하나밖에 없지. 저 애들이 수령님을 진심으로 받드는 충신이 되라는거지. 난 성봉이를 은희나 또 지금 류학가있는 용석이나 조금도 다름없는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있소.》

8

외국에 류학갔던 박용석이 귀국하였다. 페허로 된 조국을 보는 그의 가슴은 미여지는듯 하였다. 그는 광복후 아버지를 찾아 조국에 와서 공부하다가 1948년에 외국류학을 위해 조국을 떠났었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는 혁명을 하러 집을 떠나갔고 그후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나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그가 못해본 일이 없었다. 농사도 짓고 도시에서 도로청소부, 우편배달도 했고 병원의 잡부로 들어가 심부름도 했다. 때로는 소달구지를 끌고 강가에 나가 자갈을 춰서 실어다 파는 일도 하였다. 모진 생활고속에서도 숯불처럼 빨갛게 타오르는 열망이 있었으니 그것은 배움에 대한 지향이였다. 하여 소학교를 겨우 나온 그는 15살에 목단강시에 가서 신문배달을 하면서 사범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였다. 어려운 생활난으로 하여 학비를 댈수 없어 중도에서 학교를 그만두다나니 그의 지식은 공고하지 못하였다.

용석이의 이러한 고충을 헤아리신 김정숙녀사께서는 향학열에 불타는 그의 소망을 귀중히 여기시며 앞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하여 새 조국건설에 이바지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고 그가 류학을 가게 되였을 때에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몸소 시장에 나가시여 사신 트렁크에 학습에 필요한 일용품들도 넣어주시였다.

박용석은 조국해방전쟁이 시작된 소식을 외국에서 들었다.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을 때 용석이를 비롯한 류학생들은 자기들도 싸우겠다고 귀국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류학생들이 싸움에 참가하지 않아도 전쟁은 이길것이라고, 류학생들은 더욱더 열심히 배워 전후복구건설에 참가하여 한몫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전달받은 류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들이 공부하던 대학으로 돌아갔고 학업에 열중하게 되였던것이다. 그러나 용석은 막상 재가루만 날리는 조국의 현실을 보니 어쩐지 죄스러움을 느꼈고 또 마음이 아팠다.

외국에서 철도에 대한 공부를 한 그는 교통성중앙설계연구소 설계가로 배치되여 일하게 되였다. 어느 휴식일, 그는 한 부서의 청년이 결혼식을 하게 되여 거기에 참가하게 되였다. 결혼식집에서 나와 류학시절의 친구와 함께 걸어갔다. 양복차림을 한 그들은 새 아빠트들이 갓 일떠서기 시작하는 평양의 거리에서 두드러지는 존재들이였다. 용석은 키가 대단히 큰 아버지와는 달리 키가 그리 크지 않았고 너부죽한 얼굴은 순박하고 수더분한 인상을 주었는데 웃을 때면 량볼에 보조개가 패이는 매력있는 청년이였다.

《용석이, 신랑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구. 자네도 이제 장가가면 될게 아닌가.》

용석은 친구의 말마따나 자기도 장가갈 때가 되였다고 생각하였다. 나이가 29살이면 적은 나이도 아니지 않는가.

《아무래도 장가를 가야겠어. 그런데 마땅한 처녀가 있어야 말이지.》

《그건 걱정말라구. 그렇지 않아도 내 자네에게 미인을 한번 선보이자고 작정하고있었댔어.》

친구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웃옷주머니에서 사진 한장을 꺼내려고 하였다.

그들의 앞에 어린애의 손을 잡은 군관복차림의 처녀가 나타났다. 날씬한 몸매에 얼굴이 아름다운 처녀는 친척애인듯싶은 총각애와 즐겁게 말하면서 천천히 걸어오고있었다. 사진을 꺼낸다고 앞을 보지 않고 비칠비칠 걸어가던 용석의 친구는 처녀가 데리고 오던 애와 부딪쳤다. 애가 넘어지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용석이가 당황하여 애를 일으켜세웠다. 처녀군관은 총각애의 흙묻은 옷을 털어주면서 얼리였다.

《울지 말아, 응? 사내대장부는 울어선 안돼.》

용석의 친구가 히죽거리며 말을 붙이였다.

《너 울보로구나. 엄마 말을 명심해라, 사내대장부는 우는게 아니라는거…》

처녀는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맵짠 소리로 쏘아붙이였다.

《동무들은 제 몸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가요?》

처녀군관이 내쏘는 서슬푸른 눈빛과 질책은 대뜸 용석이와 친구를 얼떨떨하게 만들었다. 처녀의 군관혁띠에 매달려있는 묵직한 권총집이 용석의 눈에 들어왔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용석을 보던 처녀군관의 얼굴에 갑자기 놀라움이 비끼였다.

《아니, 어쩜…》

그제야 용석이도 처녀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용석은 주접이 들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저 개천에 있을 때…》
《그래요. 개천에서 함께 살았지요. 류학갔다더니 돌아왔군요.》
처녀는 살짝 한번 웃어보이고 총각애를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해방후 보안간부훈련소 제1소는 개천에 자리잡고있었다.
정규적인 혁명무력의 건설을 위한 준비사업으로 보안간부훈련소를 세우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김일을 평북도에서 소환하시여 보안간부훈련소 제1소 문화부소장으로 임명하시였다.
그때 지휘성원들의 집들은 한곳에 모여있었는데 김일의 집과 처녀의 집은 나란히 있었다. 처녀의 아버지는 후방부소장이였다. 용석이가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방학이 되여 집에 내려가면 가끔 이 처녀를 볼수가 있었다. 처녀는 집에 놀러 왔다가 용석이만 오면 피하군 하였다. 그들은 한마디 말도 나누어본적이 없었다. 그후 김일도, 처녀의 아버지도 다른 직무에 소환되면서 헤여졌었다. 그때의 그 처녀가 별안간 군복차림으로 용석이앞에 나타났던것이다.
용석에게서 이런 사연을 들은 친구는 말하였다.
《처녀가 대단히 건방지구만. 얼굴은 고운데 말이야. 난 그 처녀가 권총을 뽑아들가봐 막 가슴이 조여들더구만, 하하하.》
용석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용석에게도 그런감이 들었던것이다.
《자네 말이 맞아. 처녀가 좀 건방진데가 있거던. 그 눈이 꼭 사람을 깔보는 눈이야. 하지만 처녀는 곱게 생겼어.》
《여보게 용석이, 내가 자네에게 소개하려는 처녀는 이자 그 군관처녀보다 더 얼싸하다구. 한번 보라니까.》
친구는 술이 좀 깬듯 좀전부터 꺼내려고 애를 쓰던 그 사진을 손상이 가지 않게 꺼내 용석에게 보이였다.
《실은 내 사촌동생이야. 내 자네 소리를 했더니 그 애는 잔뜩 달아올라있어.》
용석은 처녀의 사진을 보았다. 정말 처녀는 사랑스러운 미인이라고 할수 있었다. 그는 은근히 호기심이 동하였다.
《그럼 한번 만나볼가?》
용석의 불그스레한 두볼에 보조개가 패이면서 미소가 어리였다.

《만나야지. 만나고만나면 정이 생기고 정이 생기면 결혼에로 발전하고 결혼하면 아들, 딸이 태여나게 되지.》 친구는 제풀에 사기가 나서 시를 읊듯이 말하였다.

9

김일은 효자였다. 그는 퇴근하면 꼭 어머니에게 들려 인사를 하고 잠간이나마 어머니와 마주앉았다가 자기 방으로 가군 하였다. 어느날 밤 김일이 어머니에게 들렸는데 어머니 강정순이 섭섭한 소리를 하였다.

《내 용석이 애비가 일이 몹시 바쁜 사람이라는걸 모르지 않아. 하지만 그렇게도 자식에게 무관심할수가 있나.》

어머니가 박씨문중의 외독자인 용석이를 끔찍이 애지중지함을 잘 알고있는 김일은 묵묵히 어머니의 푸념을 들었다.

《지금 용석이 나이가 스물아홉이야. 옛날같으면 애를 서넛은 거느려야 할 나이가 아닌가. 아버지가 관심이 없으니 용석이가 저 혼자 장가갈 생각을 하는가보네.》

김일은 찔금하니 놀랐다. 그제야 김일은 용석이가 장가들 때가 되였음을 깨닫게 되였던것이다.

《용석이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군요. 내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강정순은 사진 한장을 꺼내놓았다.

《글쎄 용석이가 이 처녀를 생각하고있구만. 뭐 외무성 타자수라나.》

김일은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처녀가 곱게 생겼군.》

《헌데 난 마음에 들지 않아. 사내들의 혼을 빼는 가인이 이 집에 들어와서는 어쩐단 말인가.》

김일은 어머니에게 무슨 생각이 있을것이라 짐작하면서 물었다.

《어머니가 용석이의 대상자로 작정하고있는 처녀가 있는가요?》
《정금순이라고 있지? 개천에서 살 때 우리 이웃에 살던 처녀 말이야. 아버지이름이 정두환이던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김일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알만 합니다. 정금순이를 본 생각이 납니다.》
정두환은 해방후 동북민주련군의 군복천을 해결하고저 평북도당위원장으로 사업하던 김일을 찾아 신의주에 왔던 사람이였다. 그후 정두환은 강건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보안간부훈련소 제1소에서 후방부소장을 했다.
아직 정규군이 아니여서 지휘성원들이 모두 사복을 입고 다니였는데 정두환은 동북에서 입고온 군복을 그대로 입고있었다. 겨울이 가까와오던 때 김일은 정두환에게 옷을 한벌 해주었다. 정두환이 받지 않겠다고 하자 김일은 말하였다.
《동무가 군복천을 해결받자고 왔을 때 내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는데 그에 대한 갚음이라고 여기고 어서 입소.》
그후 정두환은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양에 소환되여 **김일성**종합대학 총경리장의 직무를 수행했고 후에는 민족보위성 재정부문에서 사업하였다. 전쟁시기에는 최고사령부에서 사업했고 지금은 당중앙위원회에서 부장으로 사업하고있었다. 김일이와 너무도 잘 아는 사이였다. 그의 딸 정금순은 별로 대상은 해보지 못했으나 옆집에 살던 처녀여서인지 김일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였었다. 당시 김일이나 보안간부훈련소의 지휘성원들을 만나면 인사를 깍듯이 하여 례절이 밝은 처녀로 주위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던 처녀였다.
《그런데 용석이는 금순이가 싫다는거야. 뭐 처녀가 군복을 입고 권총을 찼는데 거만하다나.》
강정순의 주름살이 얼기설기한, 이제는 탄력이 풀어지는 늙은 얼굴에 안타까운 표정이 가득 어려있었다.
《용석이에게 금순이 말을 비쳤댔습니까?》
《말했지. 그런데 그저 도리질이더구만.》
《알겠어요. 내 좀 알아보지요.》
며칠후 김일은 퇴근하여 용석이를 불렀다. 자기 방에서 무슨 설계도

면들을 놓고 열심히 일을 하던 용석은 한손엔 제도연필을 들고 다른 손에는 자막대기를 들고 방에 들어왔다.

《바쁜 모양이구나.》

《예, 일감이 자꾸 쌓이는걸요.》

용석은 뒤더수기를 긁으려고 손을 쳐들다가 그제야 자기 손에 들려있는 연필과 자막대기를 보고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도면에 정신을 팔다보니…》

《누가 뭐라냐? 일에 묻혀 사는 때가 좋은 때란다. 요새야 모든 사람들이 두몫, 세몫씩 일하면서 뛰여다니고있지. 더구나 너야 조국이 어려운 전쟁을 치르고있을 때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외국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느냐.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그 보답을 해야 하는거야.》

《알겠어요.》

김일은 머리를 수굿한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물었다.

《그런데… 너 요즘 외무성처녀를 따라다닌다지?》

《무슨 소리를 하는거예요?》

용석은 놀란 표정으로 김일을 보았다.

《내 네가 가지고다닌다는 그 처녀의 사진을 보았다.》

《그 사진은 친구가 주었는데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일이 바쁜데 언제 처녀를 따라다닐새가 있나요.》

용석의 말은 사실이였다. 그는 전후복구건설에서 제기되는 설계도면들을 그리느라 눈코뜰새가 없어 자꾸 처녀를 만나러 가자는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고있었다. 집에 와서까지 도면을 그리는 판이니 더 말해 무엇하랴.

《그럼 됐다. 그 외무성처녀 생각은 머리속에서 싹 지워버려라.》

김일은 정금순의 말을 꺼냈다.

《…내 생각엔 정금순이가 괜찮을것 같구나. 생김새도 삐여나고 또 부모들을 봐도 그래… 그만한 처녀가 없을것 같다.》

용석의 가느스름한 두눈이 커지고 입이 약간 벌어지더니 못마땅한 표정이 얼굴에 떠올랐다.

《정금순이는…》

《왜, 싫다는거냐?》

《저… 뭐라고 할가…》
용석은 머밋머밋하다가 말하였다.
《녀자가 차고 거만해 보이더군요. 군복차림을 하고 권총을 차고있는걸 피뜩 만나본 일이 있습니다. 내 친구는 정금순이 권총을 뽑아들가봐 혼났다더군요.》
《너희들이 무슨 오해를 했겠지. 금순이는 그런 처녀가 아니다. 그 처녀는 전쟁시기에 군복을 입었는데 지금 부대의 참모로 있는거란다. 내 알아보았는데 파악있는 좋은 처녀다.》
김일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혼자소리처럼 나직하게 동을 달았다.
《너같은건 오히려 짝이 기운다고 할수 있다.》
아버지를 어려워하면서 그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데 습관된 용석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었다.
《가장 중요한건 정금순이가 우리 수령님께서 아시고 사랑하시는 처녀라는 그 사실이다.》
《예?》
용석은 눈길을 들어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김일은 정금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용석은 얼굴을 외로 돌리며 자신없는 소리를 하였다.
《그 처녀가 나를 좋다고 하겠습니까?》
사실 용석이는 금순이 정 마음에 없는것이 아니였다. 다만 처녀가 곁을 주지 않으니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것이였다. 그는 금순이 자기를 하찮게 본다고 생각하고있었다.
《글쎄 금순이가 너를 좋아하겠는지 싫다고 하겠는지 그거야 나도 모르지. 하여간 처녀의 집에 통혼을 해보자.》
몇달후에 박용석은 정금순과 결혼하게 되였다.
혼사가 일사천리로 결실을 본것이였다.
결혼식날 아침 김일은 수령님께서 계시는 집무실로 들어갔다. 수령님께서는 원고를 쓰고계시였다. 책상우에는 그이께서 밤새 쓰신 친필원고들이 몇장씩 여러갈래로 펼쳐져있었다. 수령님께서는 피로하신 안색에 미소를 지으시며 김일을 맞이하시였다.
《마침 잘 왔소. 그렇지 않아도 내 동무와 의논을 해보자던 문제가

있었소.》

《수령님, 또 밤을 지새우신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면 무쇠라도 견디여낼수 없습니다.》

《난 지금 글을 하나 준비하고있습니다. 헌데 낮에는 회의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하니 어디 글을 쓸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니 밤시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합니다. 어제 밤엔 생각이 집중되여 글의 기본골격을 세울수 있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책상우의 원고들을 순차대로 모두어 한옆에 놓으시였다. 그 원고들이 다음해 4월에 발표되여 《4월테제》로 불리워질 사회주의에 관한 글의 초안이라는것을 김일은 미처 알수 없었다.

《우리는 새해 1955년도를 우리 혁명에서 새로운 거대한 전환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글을 쓰고있는데 동무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싶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김일에게 담배를 권하시며 말씀하시였다.

《나는 우리 나라에 조성된 오늘의 정세를 보아 이제는 우리가 사회주의혁명에 본격적으로 들어설 때가 되였다고 보고있습니다. 동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협동조합문제를 놓고도 시비하는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자들은 나라가 통일되지 못했는데 북반부에서만 사회주의를 하겠는가, 그러면 조선혁명이 절름발이가 되지 않겠는가, 공업화를 하지 못했는데 협동화를 하는것은 또 무엇인가고 잡소리를 줴치고있습니다. 그러나 인민들은 사회주의혁명이란 말은 잘 몰라도 다 수령님을 지지하고 수령님께서 내놓으시는 정책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릅니다.》하고 김일은 자신의 견해를 말씀올리였다.

수령님께서는 김일과 마주앉으시여 시간가는줄 모르시고 나라의 전망문제를 놓고 심중한 토의를 하시였다.

담화가 끝났을 때 김일은 수령님께 아들의 결혼식에 대한 말을 꺼내였다.

《수령님, 오늘 아들 박용석이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에 참석해주시였으면 합니다.》

《저런… 용석이가 벌써 장가를 든단 말이요? 며느리감으로 누굴 골랐소?》

김일의 말을 듣고 수령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였다.

《김일동무의 집에 경사가 났구만. 아무리 바빠도 가서 축하를 해주어야지. 우리 후대들의 창창한 앞날과 행복을 축복해주잔 말이요.》

이날 오후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들을 데리시고 김일의 집을 찾아주시였다. 좌중을 일별하시던 수령님께서는 정금순을 바라보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새색시가 누군가 했더니 우리 선생님이였구만.》

수령님의 말씀에 좌중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신부가 선생님이라니 무슨 소리인가? 그 사연을 알고있는것은 몇사람뿐이였다. 정금순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 약 1년간 수령님의 자제분들이 다니시던 유치원 교양원을 했던것이였다. 그때 정금순은 수령님과 김정숙녀사의 사랑을 받았다.

이윽고 수령님께서는 용석이와 금순이 부어올리는 술잔을 받으시였다.

《일본놈 세상에는 헐벗고 못살았지만 이제야 우리 세상인데 얼마나 좋소. 아들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사시오. 앞으로 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서 전후복구건설에서 한몫 단단히 해야지. 부디 행복하기를 바라오.》

수령님께서는 술잔을 쳐들면서 말씀하시였다.

《자, 축배를 듭시다!》

신랑, 신부도 좌중의 모든 사람들이 감격하여 술잔을 들었다.

수령님을 모시고 환희로운 시간이 흘렀다.

김일부부는 정두환부부와 나란히 앉아있었다. 김일은 곁에 있는 정두환에게 조용히 말하였다.

《난 수령님께서 지금처럼 환히 웃으시는 모습을 뵈올 때가 제일 행복한 때요. 그때는 정말 사는 보람을 느끼게 되거던.》

10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근심만 끼쳐드리면서 값없이 사는 삶은 무의미하다고 김일은 생각하였다. 하여 그는 병치료를 받으며 생활

하던 초대소를 나서는 길로 서해안의 어느 한 제철소로 향하였다. 나라의 야금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제철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령님께서 그 건설을 발기하시고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터전도 잡아주시였고 그후에 김일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군들을 데리시고 또다시 건설장을 찾아주시며 제기되는 문제를 다 풀어주시여 일떠선 제철소였다.

생산에 들어간 제철소의 여러 직장들을 먼지를 뽀얗게 들쓰면서 돌아보는 김일의 눈앞에는 해묵은 덤불을 헤치시며 찬바람부는 산언덕에 오르시여 건설장전경을 바라보시면서 야금공업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시던 수령님의 모습이 자꾸만 얼른거리였다.

(이제는 삼화철생산을 부단히 장성시키면서 주체철을 완성하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은 로동자, 기술자들과 담화하면서 수령님의 높은 뜻을 그들에게 심어주려고 애썼다.

《총리동지, 걱정마십시오.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을 더 잘하겠습니다.》

제철소 일군들은 김일의 수척한 모습을 아프게 바라보면서 그를 안심시키려고 결의들을 다지였다.

제철소에서 돌아온 김일은 정무원 소회의실에서 **김일성**종합대학 새 교사건설문제를 놓고 관계부문 일군들의 협의회를 열었다. 그는 장종학을 통해 종합대학 새 교사건설이 잘 추진되지 않고있음을 료해하였던것이다.

김일은 회의실 집행석에 앉아 자신의 의지력을 총발동하여 협의회를 이끌어갔다. 건설부문의 책임일군인 장종학도 이 협의회에 참가하였는데 그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김일을 지켜보고있었다. 김일의 여윈 얼굴은 피기 한점없이 백지장처럼 창백하였다. 김일은 가끔 손수건으로 이마에 내배는 식은땀을 닦아내군 하였다.

(저러다가 협의회도중에 쓰러질수 있다. 그러면 어쩐단 말인가.)

장종학은 자기의 손에 진땀이 나는것을 느끼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이 주석단에 나와 새 교사건설에서 걸린 문제들에 대한 보고를 끝내자 김일이 한사람, 한사람 관계부문 일군들을 일으켜세워 따지고들었다.

《새 교사를 빨리 완공하는데서 제일 걸린것이 자재보장이라는데 어디 한번 들어보기요. 금속공업부장, 동무넨 무엇이 걸려 강재를 보장하지 못하는가?》
금속공업부장이 일어섰다.
《예, 요새 콕스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철생산에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 예비로 가지고있던 강재들은 중요대상들에 먼저 공급하다나니 종합대학 새 교사건설장에 제때에 보장해주지 못했는데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림업부장, 왔소?》
《예, 저희들은 통나무생산은 원만히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비가 오지 않고 가물이 들면서 강수위가 낮아져 류벌사업소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도 대책을…》
《건재공업부에선 누가 왔소?… 왜 세멘트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동무는 또 무슨 구실을 대자는거요?》 김일은 서리발같은 눈길로 일군을 쏘아보았다. 《전탕 조건타발이란 말이요.》
《조건타발이 아니라 걸린 문제를 풀어야겠기에…》
다음순간 김일이 탕 하고 주먹으로 앞상을 내리쳤다. 협의회참가자들은 깜짝 놀라 김일을 쳐다보았다.
《내 다른 건설대상이라면 말도 하지 않겠소.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대학의 새 교사건설이 아닌가. 그래 수령님께 종합대학 새 교사건설에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걸렸다고 보고드리자오?》
김일은 잠시 말을 끊고 좌중을 둘러보다가 다시한번 소리쳤다.
《수령님께 보고드리자는가?》
장종학은 가슴이 막 활랑거렸다. 다른 일군들은 머리를 푹 숙이였다.
《장종학동무.》
장종학은 벌떡 일어섰다. 너무 긴장하여 눈앞이 휙 돌아가는것만 같았다.
《그래 수령님께 보고드려서 해결받자는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수 없습니다.》

김일은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한결 잦아든 목소리로 그러나 준절하게 말하였다.

《동무들이나 나나 다 수령님의 품속에서 성장한 일군들이 아니요. 그러면 의리가 있어야지.》

다음순간 김일은 맥없이 자리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푹 떨구었다. 그는 졸도했던것이다.

《총리동지.》

장종학이 웨치며 집행석으로 달려나갔다. 벌써 서기와 부관이 달려와 김일을 부축하고있었다.

《의사를 부르시오.》 누군가 다급한 소리로 부르짖었다.

김일이 졸도하여 실려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으신 수령님께서 초대소를 찾으시였다. 김일은 이미 의식을 회복한 상태여서 안깐힘을 다해 일어나 정중히 수령님을 맞이하였다.

《앉소, 김일동무 앉소.》

수령님께서는 흐려진 안색으로 몹시도 살이 빠져 입고있는 줄무늬환자복이 후렁후렁해지고 얼굴이 누렇게 뜬 김일을 바라보시였다.

(몸이 이 지경이 되여가지고서도 일을 하겠다고 나다니니 참…)

수령님께서는 너무나 가슴이 쓰리고 기가 막혀 말이 다 나오지 않으시였다.

김일과 나란히 쏘파에 앉으신 그이께서는 한참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시였다.

《그래 지금 몸상태가 어떻소?》

《이젠 일없습니다. 어제는 내가 좀 흥분하다보니 정신적긴장이 심했던것 같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격한 어조로 김일을 질책하시였다.

《동무가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꾸 몸을 혹사하면 어떻게 하오. 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도 몇번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를 않지. 그래 전문섭동무까지 보내여 김일동무를 외국에 보내여 치료받게 하라고 했는데도 듣지 않고 나가서 일을 본단 말이요? 동무까지 쓰러지면 난

어쩌라는거요. 내 너무 기가 막혀 동무를 찾아왔소. 당장 떠날 준비를 해야겠소.》

《수령님, 저는 수령님곁을 떠나고싶지 않습니다. 죽어도 수령님의 곁에서 숨지고싶습니다.》

김일의 두눈에 눈물이 그렁하였다. 그 눈물에 어린 충정을 헤아리시는 수령님의 가슴속에는 뜨거운것이 가득차올랐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소할바령회의가 끝난 직후 김일을 최현, 최춘국이네 부대에 보내려고 했을 때에도 그가 저처럼 고집을 쓰면서 사령부를 떠날수 없다고 했었지. 그때는 경위대원들이 몇사람 남아있지 않는 조건에서 사령부의 안전이 념려된다면서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내곁에서 숨지겠다면서 떠나지 못하겠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설복하면 좋단 말인가.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곧은목이란 말인가.)

그이께서는 나직이 한숨을 쉬시였다.

《왜 그렇게 나약한 생각을 하오? 끝까지 병을 고치고 혁명을 해야지. 동무가 오래 앉아있어야 젊은 세대들에게도 힘이 되고 나와 장기도 둘수 있지 않겠소. 더는 고집쓰지 말고 빨리 치료를 받도록 해야겠소.

여기 걱정은 말고 병치료부터 해야겠소.

지금 부총리들은 다 젊었기때문에 일들을 제낍니다. **김정일**동무가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한지도 10년이 되여오는데 앞으로 한 10년 우리와 함께 일하느라면 나라의 전반사업을 더 잘 떠메고나갈것입니다.》

《수령님께서 일제놈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에 개선하시였을 때 얼마나 젊으셨습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중앙전원회의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후계자로 추대한것은 백번 지당한것이였습니다. 그날 어찌도 기쁘던지 몸이 아픈것도 몰랐습니다.》

김일은 계속 말을 이었다.

《이제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체계를 더 튼튼히 세우는 문제가 중요한것인데 우리가 경제사업을 맡아본다고 하면서도 **김정일**동지의 사업을 잘 받들어드리지 못하여 자책감을 느끼고있습니다.》

《**김정일**동무는 원래 일하는 과정에 난관이 제기되여도 절대로 손을 내미는 성미가 아닙니다. 그는 담력과 통이 크며 조직적수완도 비상합니다. 지금 국제정세도 그렇고 국내정세도 그렇고 매우 착잡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당의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데서 나와 같이 일하던 동무들이 응당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일동무는 병마와 싸워 이길 생각을 하여야지 나약한 생각을 하면 되겠소. 난 이것이 더 괴롭고 가슴아프단 말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중심으로 한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해 이 김일이 하여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김일은 이런 생각을 하며 말씀올리였다.

《수령님, 제가 또 과오를 범한가 봅니다. 제가 수령님의 높은 뜻을 아직도 잘 받들지 못하고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됐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한결 시름이 풀리는듯 미소를 지으시였다.

《난 여기로 오면서 동무를 끝내 설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고 걱정을 했더랬소. 동무가 한번 고집을 쓰면 그게 어디 간단한거요? 허허, 항일무장투쟁시기 우리가 소할바령에서 군정간부회의를 하고나서 동무를 동녕현 오배에 보내려고 했을 때도 가지 못하겠다고 고집을 써서 내 어지간히 땀을 뺀적이 있었지. 생각나오?》

《어찌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수령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있습니다.》

김일은 저도 모르게 그때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게 되였다.

…사령부에 얼마 안되는 경위대원들밖에 없는 조건에서 자기마저 떠나면 어찌하는가고 하는 김일에게 장군님께서는 동무가 빨리 떠나는것은 소할바령회의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의 요구라고 설복하시였다. 그래서 김일은 《사령관동지, 혁명의 최고요구는 사령관동지의 신변을 보위하는것입니다. 그때문에 모든 군정간부들이 저더러 사령부곁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한것입니다.》 하고 절절하게 웨치였던것이다.

《정치위원동무가 이런 떼질군인줄 몰랐구만.》

장군님께서 반롱조의 말씀을 하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계실 때 김일

은 《사령관동지, 그럼 전 여기 사령부에 그냥 남아있는걸로 알고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사령부천막을 나왔다. 장군님께서 다시금 자기를 타이르실것만 같아 두려웠던것이였다.

김일이 사령부천막가를 떠나지 못하고 주변을 돌고있을 때 장군님께서 나오시여 그를 부르시였다.

《덕산동무, 우리 여기 앉아 이야기나 합시다.》

그리고 천막가의 잔디밭에 나란히 앉으시여 먼 남쪽하늘가를 이윽토록 바라보고계시다가 말씀하시였다.

《언제인가 나는 소부대를 이끌고 연길현 봉암상촌이라는 마을에 간적이 있었소.》

그때 장군님께서는 지하조직과 련계를 가지고 산기슭의 한 농가에 들리시였는데 그 집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딘가 침울한 분위기를 느끼게 되시였다. 웃방에선 환갑나이가 되여보이는 늙은이가 울적한 표정으로 뻐금뻐금 곰방대를 빨고있고 아래방에선 며느리인 젊은 녀인이 벽에 돌아앉아 울고있었다.

방안분위기를 일별하신 장군님께서는 집에 무슨 불상사가 생긴게 아니냐고 로인에게 물으시였다.

《아니웨다, 별치 않은 가정싸움이 있었수다.》

로인은 자기 집에 들리신분이 세상에 명성이 자자한 **김일성**장군님이시라는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범상히 대꾸하였다.

장군님께서는 예로부터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전해오는데 가정불화가 있어서야 되겠는가, 무슨 일로 집안싸움이 생겼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때 벽에 돌아앉아 옷고름으로 눈물을 찍고있던 젊은 녀인이 얼굴을 다소곳하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집의 며느리입니까?》

《우리 맏며느리웨다.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인데 아들녀석이 성미가 못돼먹어서 며늘애한테 단단히 해봤수다.》

로인은 어줍게 말하고는 곰방대를 털며 긴 한숨을 지었다. 로인은 자기의 슬하에 두 아들이 있는데 1년전에 둘째아들은 《봉공대》라든지 《보국대》라든지 하는데 끌려가 먼 외지에 나가 살고있다고 하면서 말

을 이었다.

《그래 지금 내가 맏아들과 같이 살고있는데 우리 맏며늘애는 효도가 지극해서 없는 살림이지만 여태 부모공대를 잘했수다. 하루 세끼 매번 때식을 끓여 따뜻한 밥을 먹게 하고 반찬 하나라도 구미에 맞도록 갖은 정성을 다했지요. 그런데 부모심정이란 참… 며늘애의 정성이 깃든 밥이 살로 가지 않습데다. 둘째녀석이 그 몹쓸 일을 하면서 밥이나 제대로 먹고있는지, 앓지나 않는지 이런저런 잔걱정에 하루 한시도 마음이 편안한 날이 없습데다. 밤에 자다가 문밖에서 바람소리만 나도 둘째생각에 화닥닥 놀라 일어나군 했지요. 둘째때문에 발편잠을 못 자고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맏이가 오늘 아침 동생에게 찾아가보겠다면서 집에 있는 쌀 한말을 지고나섰는데 며늘애가 그 쌀을 다 가지고가면 여기에 계시는 아버지는 어떻게 대접하겠느냐고 조금 푸념을 한가봅니다. 그랬다고 아들녀석이 글쎄…》

장군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나서 말씀하시였다.

《로인의 말이 옳단 말이요. 부모들이란 먼곳에 있는 자식일수록 더 생각하게 되는거요. 사실 밤에 자다가도 문밖에서 바람소리만 나도 외지에 나가있는 자식생각에 소스라쳐놀라 깨여나게 되는것이 자식을 가진 부모들의 심정이요. 둘째를 생각하는 봉암상촌로인의 마음이자 내 마음이나 조금도 다를바가 없소. 내가 정치위원동무를 빨리 보내자고 하는 목적에는 우리 동무들에게 소부대활동방침을 알려주자는데도 있지만 멀리 떨어져있는 그들을 잘 보살펴주어야겠다는 심정이 더 크게 깔려있소. 덕산동무, 내 심정을 부디 리해하여주시오.》

《사령관동지.》

김일은 목메여 불렀을뿐 더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제야 그는 사령부와 멀리 떨어져있는 전사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걱정하시는 장군님의 그 뜨거운 어버이사랑을 깨닫게 되였다. 하여 그는 즉시 배낭을 지고 사령부를 떠나 최현, 최춘국부대를 찾아 동녕현 오배로 총총히 향하게 되였던것이다. …

수십년전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는 김일의 두눈에는 눈물이 고여올랐다.

아, 그때나 지금이나 전사들에 대한 사랑이 조금도 변함없이 뜨겁게

불타시는 우리 수령님, 이 미련한 전사를 나무람하지 않으시고 그때처럼 설복하시는 우리 수령님, 내 언제면 그 사랑에 다 보답할수가 있단 말인가.

어떤 일이 있어도 병치료를 잘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여야 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지며 김일은 손수건으로 쏟아지는 눈물을 닦아냈다.

《수령님, 더는 마음쓰지 마십시오. 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김일동무, 나는 동무의 병치료와 관련하여 신심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치료를 받고 완쾌되여 돌아와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합시다. 20년은 더 활동해야 합니다.》

잠시후 수령님께서는 김일과 작별인사를 나누시고 돌아가시였다.

다음날 김일이 출발준비를 하는데 **김정일**동지께서 오시였다.

그이께서는 깜짝 놀라는 김일을 부축하시며 말씀하시였다.

《나와 함께 차를 타고 비행장으로 가십시다.》

그이께서는 김일을 자신의 차에 태우시고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차를 몰아가시였다.

《총리동지.》 하고 그이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신심을 가지고 병치료를 잘해야 합니다. 난 언제나 우리 수령님을 생각하는 총리동지의 심정을 잘 알고있습니다. 총리동지가 건강하여 수령님곁에서 오래 사업하는것이 수령님을 더 잘 받들고 수령님을 위해드리는것이라는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 이제야 제정신이 드는가봅니다.》

김일은 눈물이 어리는 눈을 창가로 향하였다. 차창을 스쳐지나는 가로수나 벌판들은 하나도 똑똑히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안개가 서린듯 부옇기만 하였다.

어쩌면 두분의 인품이 이다지도 꼭같단 말인가!

어느덧 승용차는 비행장에 도착하였다.

김일은 바래주러 나온 가족들, 정부의 간부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그가 **김정일**동지께 인사를 올리려는데 그이께서는 김일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나와 함께 비행기에 오릅시다.》

그이께서는 김일을 부축하시고 비행기에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이께서는 비행기안에까지 들어가시였다. 앓고있는 김일이 생활하기 편리하게 개조된 비행기안은 으리으리하였다.

《총리동지를 위해 비행기집무실을 좀 개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김일을 보시였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송구스러울뿐입니다.》 김일은 눈물이 솟구쳐올라 슬며시 머리를 돌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시금 치료를 잘 받아 건강을 회복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비행기에서 내리시였다.

이윽고 비행기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가족들과 정부의 간부들이 손을 흔들었다.

김정일동지께서도 손을 흔들고계시였다.

김일의 눈에는 그이의 인자한 모습만이 뜨겁게 안겨들고있었다.

제 4 장

1

나라의 중부에 위치한 영천시는 큰 공장, 기업소들이 많이 집중되여 있는 도시였다. 도시의 중심부엔 현대적인 건물들과 주택들, 극장과 영화관, 상업봉사기지들이 구색에 맞게 일떠서 시민들의 생활상편리를 보장해준다. 영천시의 상업봉사활동에 대한 료해지도차로 이 도시에 온 상업부 지도원(당시) 한설미는 즐겁고 만족한 기분으로 거리를 걸어가고있었다. 평양시의 어느 한 구역상업관리소에서 일하던 설미는 1년전에 상업부에 소환되였다.

몸집이 실하면서 균형이 잡힌 처녀는 한여름철에 맞게 아름다운 함박꽃을 수놓은 흰색달린옷을 입었는데 경쾌한 걸음걸이에 따라 치마자락이 실팍한 다리에 감겨들기도 하고 펄럭이기도 하였다.

(그만하면 깨끗하고 발전된 도시야. 주민들에 대한 상업봉사도 원만하게 진행되고있으니 이만한 정도면 괜찮지 뭐.)

반짝반짝 윤기도는 숱많은 검은 머리채를 목뒤에서 댕기로 묶어 흰목이 상큼하니 드러난 처녀의 흰 얼굴에서 가장 볼만 한것이 쌍까풀지고 억실억실 빛나는 두눈인데 그윽해보이는 그속에서는 미소가 남실거리였다.

처녀의 머리속에는 17일전에 현철이와 헤여지던 일이 떠올랐다. 2년전에 평양도시설계사업소로 조동된 현철은 당창건 30돐을 맞으며 본격적으로 벌어진 평양시건설사업에서 공로를 세웠다. 기업소의 혁신자들에게 금강산휴양권이 내려왔는데 현철이도 동무들과 함께 휴양을 가게 되였다. 설미는 휴양을 떠나는 현철이를 바래주기 위해 평양역에 나갔었다.

그들은 렬차시간을 기다리며 역전공원에 앉아있었다. 그들의 얼굴에

는 행복에 겨운 웃음꽃이 피여있었다.

현철이와 설미가 사귄지도 이제는 퍼그나 세월이 흘렀고 또 그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지도 3년이 된다. 바로 3년전 대성산혁명렬사릉 건설이 한창 진행되던 그때 현철의 가슴속에 자신도 모르게 싹터자란 사랑은 뜻밖의 리별이 닥쳐든 정황에서 세차게 솟구쳐올라 설미를 따뜻이 감싸안았다. 설미의 사랑도 리별이 참기 어려워 울었다. 그런데 일은 다시 뒤집어져 지방에 배치받은 부모를 따라간다던 설미는 끝내 그들에게 설복당하여 평양에 남게 되였다. 결국 쓰라린 가슴을 안고 평양역으로 나왔던 현철은 사랑하는 처녀와 함께 그의 부모를 바래워주게 되였다. 얼핏 보면 일이 괜히 맹랑하고 엉뚱하게 불거졌던것 같았지만 이 청춘남녀를 위해서는 참으로 유익한 시험이였으니 그들은 품고있던 사랑을 어쩔수없이 폭로하였고 드러난 그 사랑을 서로 기껍게 받아들이였던것이다. 이제 더 무슨 사랑의 고백이 필요하랴.

하지만 그들은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다. 이 자랑할만 한 청춘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결혼할것을 약속하였다. 하여 그들은 지성을 다 바쳐 힘껏 일하였다.

그후 현철이가 먼저 조선로동당에 입당하였고 설미도 뒤따라 입당하게 되였다. 현철이는 값높은 위훈을 세워 신문에도 소개되였다.

설미의 아버지 한영덕이 이해(1976년) 6월에 남쪽지역의 도행정경제위원회(당시) 위원장으로 임명되였다. 그것은 아버지일로 적지 않게 고심을 한 설미에게 더없는 기쁨을 안겨주었다.

마침내 그들은 서로의 부모들과의 합의하에 결혼식날자를 정하였다.

현철이 휴양을 끝내고 돌아오면 인차 결혼식을 하게 될것이다. 휴양기간은 보름이였다.

렬차를 기다리면서 설미는 현철의 아래우를 훑어보았다. 참으로 마음에 드는 미남자이지만 어쩐지 몸이 약해보이는것이 눈에 거슬리였다.

《너 왜 그렇게 보니?》 하고 현철이가 물었다.

《오빠, 내 하나 간절하게 하고싶은 말이 있어요.》 설미는 새물거리며 웃었다.

당장 결혼을 앞둔 이 시각에도 그들은 여전히 오빠, 동생처럼 지내

던 그 시절의 말투를 버리지 못하였다. 이제는 너무나 습관된탓에 달리 부른다면 퍽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것이였다.
《오빠, 지금 몸무게가 얼마예요?》
《61키로야.》
《나보다 도제 3키로가 많군요, 호호… 아무래도 몸무게를 늘궈야 하겠어요. 키에 비해 너무 말랐단 말이예요. 배가 사흘이나 굶은것처럼 홀쭉해가지고… 안되겠어요. 그래서 내 오빠에게 중요한 임무를 하나 주자는거예요.》
《아니, 동생이 오빠에게 무슨 임무를 준단 말이야. 버릇없이…》 현철은 웃으면서 큰소리를 쳤다.
《아이구, 무섭게는 구네. 그럼 부탁이라고 하자요.》
《어디 말해봐라.》
《심각히 들어야 해요.》
《응.》
《내가 주는 임무가 무엇인가 하면… 아니, 부탁이라고 해야지. 안됐어요. 정말 까다롭게는 군다니까. 내 부탁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휴양가서 몸을 부쩍 내야 한다는거예요. 알겠지요?》
《그거야 뭐가 어려울게 있니. 네가 몰라보게 살이 피둥피둥 쪄서 오겠다, 하하…》
《좋아요. 한 10키로는 불어야 해요. 총화를 단단히 짓겠어요. 이 동생이 짓는 총화는 간단한게 아니예요.》
《부탁이라면서 총화는 무슨 총화야?》
《오빠가 동생에게 얼마나 성실한가 판결을 내리겠다는거예요.》
《그 판결은 어떻게 내리니?》
《10키로가 불어나지 않으면 결혼을 포기한다는거.》
《네가 날 막 위협하는구나. 에이, 내가 동생에게 져야지. 하긴 동생이라는것도 이젠 낡은 말이지. 이제야 미래의 안해가 될 녀자가 아니야. 설미가 그렇게도 간절히 부탁하니 내 결사적으로 몸을 내겠다. 금강산의 맑은 물이 날 도와주겠지. 그런데 10키로까지는 좀 힘들겠는데…》
현철은 웃으면서 슬쩍 설미를 보았다.

《언제든지 희망을 잃어선 안돼.》 하고 설미는 엄숙하게 말하였다. 《이게 누구의 격언이지요?》
《글쎄…》
《이게 바로 저명한 설계가이신 장현철선생의 격언이지요. 생각 안 나요? 내가 대학입학시험 잘못 치고 울 때 슬그머니 다가와 그림에 이런 격언을 써주었지요. 〈언제든지 희망을 잃어선 안돼〉 호호…》
《내가 그랬던가? 하하…》
현철은 뻔히 기억하고있으면서도 모르쇠를 하였다.
《그런데 난 몸이 자꾸 나서 고민이예요. 처녀가 이렇게 몸이 나면 어쩌나.》
《그럼 나는 몸이 더 나고 넌 몸을 좀 까겠다는것을 약속해야지. 몸매가 날씬해지게…》
《노력해보겠어요. 한 5키로는 까야겠는데…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뭘 먹지 말아야겠는데 자꾸 입에선 당기지요 뭐.》
현철은 속상해서 입술을 삐죽 내미는 설미를 사랑스럽게 여겨보았다.
《언제든지 희망을 잃어선 안돼.》 현철은 설미의 말투를 흉내내며 말하였다.
《그래요, 언제든지 희망을 잃어선 안돼. 호호…》
《하하하…》
역전공원에서 현철이와 나눈 대화를 상기하노라니 설미의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실리였다.
(현철오빠가 이젠 돌아왔을거야. 몸이 좋아졌을가. 몸이 좀 나면 정말 보기 좋을거야. 내가 평양에 없다는걸 알면 아마 조바심이 나겠지. 내가 그렇게 그를 그리워하는데 그야 뭐 나보다 더하겠지. 현철오빠, 좀 기다려요.)
설미는 눈앞에 떠오르는 현철을 향해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그렇게 얼굴을 찌프리지 말고 하루만 참고있으라요. 난 래일 돌아갈거예요.)
이날 설미는 출장의 마지막일정인 영천시 백화점에서의 료해사업을 마무리하였다. 그는 백화점지배인과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이번에 지도원동무가 내려와서 우리에게 큰 방조를 주었어요.

앞으로 자주 내려오세요.》
몸집이 뚱뚱한 녀인인 지배인은 밝은 인상으로 머리를 숙이였다.
《나야 당의 상업정책이 어떻게 집행되는가를 료해하는건데 방조랄게 있어요? 앞으로 기업관리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판매원복장을 한 녀인이 지배인방에 들어왔다.
《지배인동지, 아무래도 시간을 받아야겠습니다. 집보수공사를 해야겠는데 세대주는 출장을 가서 없으니 나라도 들어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울상을 한 판매원은 갑자기 설분을 터쳐놓았다.
《이거야 어디 살겠어요. 시행정위원장이란 사람은 도대체 뭘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도 인민생활에 무관심하니… 그래가지고서도 우쭐해서 승용차만 타고다니니 녹아나는건 우리같은 주민들이예요.》
지배인은 옆에 설미가 있는데서 말하는것이 딱한듯 판매원의 말을 중둥무이했다.
《됐어요. 여기서 말해야 뭘하겠어요. 어서 집에 들어가봐요.》
판매원이 나가자 설미는 지배인에게 물었다.
《무슨 소리예요?》
지배인은 설미를 외면하고 책상을 내려다보다가 말하였다.
《지도원동무에게 뭐 숨길것도 없지요. 시행정위원장이 자기가 책임진 시민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소리예요. 영천시는 최근년간에 일군들을 잘못 만나 시민들이 좀 고생을 한답니다. 지도원동문 지금 영천려관에 들어있겠지요? 시간이 있으면 그앞에 있는 아빠트 4층에 한번 가보세요. 4층짜리 아빠트니까 만장이지요. 이자 시간을 받겠다고 왔던 판매원이 그 4층에 살고있는데 비가 오면 집에 물이 새서 야단입니다. 그러나 행정위원회에선 제기를 받고도 꿈만해하지요. 위원장이 책임지고 제때에 대책을 세워야 할게 아닙니까.》
이날 오후 설미는 지배인이 대준 아빠트에 가보았다. 며칠째 비가 자주 내리고있었다. 설미는 우산을 쓰고 차색외장재를 바른 아담해보이는 아빠트를 다시한번 바라보았다. 겉보기엔 별로 나무랄데가 없어보

이였다. 설미는 지배인이 대준 집주소를 찾아들어갔다.
《아이, 지도원동무가 어떻게 여기에 왔어요?》
오동통한 몸집에 얼굴이 귀염성스러운 판매원녀인이 놀라면서 설미를 맞아들이였다.
《예, 집구경 한번 해보고싶어서 왔습니다.》
《집구경을 한다구요? 아이구, 어서 들어와요.》
집에 들어가니 비가 새서 어느 방에는 소랭이들을 여기저기 놓았고 어느 방에는 천정에 비닐박막을 쳐놓고있었다.
《밖에서 보기엔 아빠트가 괜찮아보이던데…》
설미는 혼자말처럼 말하였다.
《빛좋은 개살구지요. 우리 집의 꼴이 바로 괜찮아보이는 아빠트의 실태랍니다.》
《왜 이렇게 살고있어요? 간부들에게 제기를 단단히 해야지요.》
《그 사람들이 우리같은 사람들을 윈눈으로나 쳐다본답니까? 아빠트를 지어놓고 만세를 부르면 그만이지요. 그후의 일은 주민들이 해결하라는거예요. 그러니 어떤 집들에선 자체로 지붕공사를 다시 하지만 우리같은 집에서야 비가 올 때면 하기 싫어도 샤와를 해야지 별수 있어요? 우린 그래도 비물을 가득 받아놓아 다른 집들보다 물고생을 적게 하니 그건 또 하나의 유리한 측면이라고 할수 있지요. 다른 집들엔 수도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물을 길어먹느라 고생이랍니다. 그래도 행정위원회에선 〈좀 참으라, 대책을 강구하고있다.〉는 말로 굼때군 하지요.》
설미는 생각이 깊어져서 아빠트의 층계를 내리였다. 어쩌면 우리 일군들이 이렇게도 인민생활에 무관심할수 있단 말인가. 설미는 의분이 치밀어올라 견딜수가 없었다.
그는 즉시 시행정경제위원회를 찾아갔다. 접수실에 앉아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없다고 하면서 물었다.
《무슨 일로 위원장동지를 만나러 왔는가요? 아는 사이인가요?》
《난 출장을 왔던 사람인데 그저 위원장동지를 만나 제기할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후날에 오십시오.》

벼르고 왔는데 당사자가 없다니 설미는 맥이 풀리였다. 그가 멍히 서 있는데 누구인가를 만나러 와서 기다리던 사람이 한마디 하였다.

《위원장을 만나기가 쉬운줄 아시오?》

성미가 퍽 늘어진듯 기다림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담배를 피우고있던 그 사람은 설미를 놀리듯 히물히물 웃었다.

《위원장을 아세요?》 설미는 깔끔하게 물었다.

《영천시사람이 자기 위원장을 모르겠소? 일을 하겠다는 열성이 높은분이지요. 그러니 무사분주하게 다닌단 말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걸 보면 평이 좋지 않던데요?》

《간부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비위를 다 맞추겠소? 더러 싫다는 사람이 있어도 할수 없는거요. 그래 무슨 제기를 하려고 하오?》

《동지는 누구세요?》

《영천시사람이라지 않소?》

《그럼 됐어요.》

설미는 기분이 나빠서 행정위원회를 나섰다. 어쩐지 행정위원장을 두둔하던 그 사람이 얄밉게 생각되였다.

(뭐 간부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비위를 다 맞추는가구? 더러 싫다는 사람이 있어도 할수 없다구? 저게 진정한 인민의 목소리일가? 하긴 위원장을 긍정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건 좋은 일이다. 위원장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흰쌀에 뉘섞이듯 보잘것없을수도 있지. 하지만 인민의 고생을 외면하고 무슨 일을 한다고 무사분주히 돌아친단 말인가.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선 일군들이 낡은 사업방법, 사업작풍과 결별하고 일본새에서 혁신을 가져올것을 요구하고있지 않는가.)

어느덧 비가 걷히여 거리는 다시 활기로와졌다.

려관으로 돌아오던 설미는 려관근처의 아빠트에서 물을 긷는 사람들의 모습을 띄워보게 되였다. 여러명의 녀인들이 바께쯔와 비닐통들을 들고 아빠트층계를 오르내리고있었다. 아이들까지 자그마한 비닐통들을 들고 땀을 빨빨 흘리며 어머니를 따라 종종걸음을 치고있다.

설미는 늙수그레한 녀인에게 다가가서 물바께쯔를 받아들었다.

《제가 좀 도와드리지요.》

《저… 누구신지…》 녀인이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난 평양에서 출장온 사람인데 려관에 들어있어요. 일을 다 보고 시간이 좀 있길래…》 설미는 물바께쯔를 들고 걸음을 옮기며 말하였다.
《그럼 좀 쉬여야지 이러면 미안하지 않나. 어서 바께쯔를 이리 달라구.》
《괜찮아요.》
《원 고맙기도 해라.》
《물을 길어먹자니 얼마나 고생많겠어요?》
《수원지에 물이 얼마 없어 그런다는데 이제 대책을 세운다는구만.》
《물을 어디서 길어오는가요?》
《가까이에 우물이 있다오.》
설미는 물바께쯔를 들고 녀인의 집에 올라갔다. 위생실에 들어가보니 물탕크에 약간 물이 깔려있는데 빨래줄에는 어린애기저귀가 가득 널려있었다.
《우리 며늘애가 갓 애기를 낳다보니 빨래감들이 많아서 다른 집보다 물을 많이 써요.》 녀인은 변명처럼 말하였다.
방에서 얼굴이 부석부석한 애젊은 녀인이 애기를 안고나왔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죄송스러워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내가 물을 긷겠어요.》
《아서라, 산모가 찬바람을 맞으면 안돼. 산후탈에 걸리면 온 집안이 고생이야.》
설미는 한숨을 내쉬며 물바께쯔를 들고 그 집을 나섰다. 아빠트에서 한 백여메터 떨어진 곳에 우물이 있었다. 우물가에 여러명의 녀인들이 모여 드레박질을 하며 불평불만을 늘어놓고있었다.
《이건 언제까지나 물고생을 해야 하는지…》
《언제 해결되기나 하겠어요. 우리가 사는 아빠트에는 간부들이 살지 않으니 해결될 전망이 없는거예요.》
《간부들도 물을 좀 길어봐야 해요.》
그래도 리해력이 있는 녀인들도 있는지 반박하는 소리도 들린다.
《간부들에게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 아무렴 그들이 변학도가 되겠나요.》
설미가 물바께쯔를 들고 다가가자 녀인들이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았

다. 낯이 선데다가 옷차림과 자태에서 자기들과는 다른 체취가 풍기는 것 같았기때문이였다.

《안녕하십니까?》 설미는 례의를 차려 인사를 하였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녀인들중의 한명이 물었다.

뒤에서 따라온 례의 그 늙수그레한 녀인이 설미를 대신하여 대답하였다.

《출장을 와서 려관에 든 손님이라누만. 우리가 물고생을 하는걸 보고 도와주겠다고 나섰구려. 고맙기도 하지.》

설미는 녀인들과 어울려 드레박질을 하였다. 그러면서 녀인들에게 물었다.

《이렇게 물고생을 하는지 오래되였는가요?》

《새 아빠트에 입사한 후 한 몇달은 수도물을 받아써본것 같애요. 그다음부터…》

《만장에 있는 세대들은 비가 오면 물이 새서 고생하는것 같더군요.》

《어떻게 잘 아는구만요. 정말 말이 아니예요.》

설미는 두팔이 뻣뻣해지도록 땀을 흘리며 물을 길어 날랐다.

힘이 들면 들수록 격분의 감정은 더욱더 강해진다.

(이 실태를 어떻게 참을수 있겠는가.)

그의 머리속에는 얼마전의 명절날에 김일의 집에 갔다가 들은 말이 떠올랐다. 그때 김일과 그의 아들 박용석이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박용석이 수령님을 모시고 인민생활문제를 토의하는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의 회의에 참가했다고 한다. 그 회의에서 수령님께서는 장판지 한평방에 종이가 몇그람 들어가는가를 물으시였는데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박용석에게도 물었는데 그도 대답을 못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이 이렇게 인민들의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지고드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인민생활이 올라가겠는가고 못내 서운해하시였다는것이다.

박용석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김일은 감심어린 얼굴로 말하였다.

《우리는 수령님의 사업방법을 배워야 한다. 수령님의 머리속엔 어떻게 하면 인민들을 잘살게 하시겠는가 오직 그 한생각뿐이시란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고 김일은 그 자리에 있던 설미를 보면서 말을 계속하였다.

《자기들이 인민의 충복이 되기 위해 노력할뿐만아니라 인민생활에 무관심한 관료주의자들을 반대해서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설미의 귀전에는 그날 김일이 하던 그 당부가 울리는것만 같았다.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이날 설미는 물긷기를 끝마친 후 여러 아빠트의 주민들을 만나 실태를 상세하게 료해하였다.

다음날 평양으로 돌아오는길에 시행정위원회에 다시 들리였는데 역시 행정위원장을 만날수가 없었다.

평양행렬차를 타고오면서 시종 그의 눈앞에는 비물이 새서 불평을 늘어놓던 백화점판매원이며 물을 긷던 사람들, 자그마한 물통을 들고가던 아이들의 모습이 자꾸만 얼른거리였다. 그와 함께 김일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것이였다.

《인민생활에 무관심한 관료주의자들을 반대해서 강한 투쟁을…》

(뭐 간부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비위를 다 맞추는가구? 더러 싫다는 사람이 있어도 할수 없다구? 설사 인민들속에 좋게 리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간부들로선 원칙적으로 이런 견해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설미는 입속으로 중얼거리였다 .

×

설미는 저녁녘 장현철을 만나 함께 걸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란히 거리를 걸어가는 설미에게는 눈에 보이는 모든것이 그대로 즐거움이였다.

키꼴이 후리후리하고 잘생긴 현철의 모습도 기쁨을 주었고 거리를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도 까닭없이 흥그러움을 자아낸다. 엄마손을 잡고 걸어가는 귀여운 어린애도 설미의 들뜬 감정을 자극하여 그는 괜히 걸음을 멈추고 어린애의 볼을 쓸어주었다.

《아이, 고와라.》

현철이가 느슨한 웃음을 짓고 설미를 놀리였다.
《설미가 빨리 아이를 낳고싶은게 아니야?》
설미는 부끄러워 귀뿌리가 달아올라 현철이의 손을 꼬집었다.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군요.》
그들의 노는 모양을 재미있게 보며 애어머니가 말하였다.
《빨리 결혼식을 하세요.》
《아무래도 그래야 할가봅니다.》
현철이가 숫기좋게 받아넘기는데 설미는 기겁하여 현철의 팔을 잡아당겼다.
《가자요. 정말 망신스럽게는 노네.》
현철은 껄껄 웃어대며 설미를 따라걸었다.
설미도 입을 싸쥐고 웃었다. 그는 현철의 롱지거리가 싫지 않았다.
《내 부탁을 성실히 집행했겠지요?》 설미가 물었다.
《부탁도 집행했다고 말하나? 부탁은 들어준다고 말해야 해.》
《오빠는 정말 성격이 못됐어요, 참 까다롭거던요.》
《내 성격이 못됐다고 말하는건 설미 한사람뿐이야.》
《오빠가 못됐으니까 오빠에게 말하기 싫어하는거예요.》
《그런가? 허허… 내 좀 생각해봐야지.》
《그래 내 부탁은?》
《무슨 부탁을 했던가?》
《날 놀리겠어요?》
《아참, 그렇지. 몸무게 불구는것 말이지?》
《잊진 않았군요. 아주 좋아요. 그래 어떻게 실천하였나요?》
《응, 그건 그닥 어렵지 않더구만. 공기좋고 물좋은 곳에서 휴식하는데 몸이 안 날수가 있나. 어디 한번 봐. 굶주린 승냥이배처럼 홀쭉하던 배가 쑥 나오지 않았나?》
현철은 싱글벙글하며 자기 배를 손으로 쓸었다.
가로등빛속에서도 현철의 얼굴이 번들번들 윤기가 돌았다.
《10키로 불었어요?》
《몸무게를 떠봤더니 정확히 10키로가 불어났더구나. 결혼식에 당당히 나설수 있어, 하하하…》

《거짓말을 잘도 하는군요. 정확히 10키로가 불었다구요? 어처구니가 없군요, 호호…》
《정말이라니까. 넌 어떻니? 몸이 좀 깠니?》
《난 몸무게를 달구어보지 못했어요. 오빠처럼 거짓말은 안해요.》
《뭐 저울에 올라갈 필요까지 있겠니? 그렇게 하지 않고도 간단히 잴수 있는데.》
《어떻게요?》
《그건 말이야. 내가 한번 들어보면 알수 있어. 난 정확히 무게를 가늠하는 재간이 있거던. 한번 안아볼가.》
현철이 다가서자 설미는 기겁을 했다.
《미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보는데…》
《뭐라니, 1초면 충분하겠는데… 하하.》
그들은 즐겁게 웃으며 걸어갔다.
《설미는 출장갔댔다지? 어디 갔댔니?》
《영천시에 한 3일간 갔다왔어요.》
《영천시에?》 현철이 놀라면서 설미를 바라보았다.
《난 영천시 상업봉사정형을 료해했어요.》
《그래, 어떻던?》
《그만하면 원만해요. 그런데 거기 행정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참 한심하더군요.》
설미는 영천시에 가서 목격한 일들이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격분이 치밀어올랐다.
《도대체 자격이 없는 사람이예요.》
《무슨 일이 있었니?》 현철은 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설미는 목격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난 그래서 돌아오는길로 중앙인민위원회에 찾아가 낱낱이 제기했어요.》
《뭐라구?》 현철이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거 야단났구나. 그 제기를 취소할수 없을가?》
《아니, 왜 그래요?》
《영천시행정위원장은 산호라고 내가 친삼촌처럼 따르는분이야.》

《산호라구요?》
설미의 쌍까풀진 눈이 장난감토끼의 눈처럼 동그래졌다.
《그래, 너도 알수 있을거야. 설미 아버지와도 친분관계에 있는분이지.》
그렇다, 설미는 산호를 알고있었다. 비록 만나본적은 없지만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하여 잘 알고있었다.
《설미, 제발 부탁하는데 래일 중앙인민위원회에 찾아가서 그 제기를 취소해줘.》
《그걸 어떻게 취소한다는거예요?》 설미는 절망적으로 부르짖었다.
《네가 잘 알지 못하고 그런 제기를 했다고 하면 될게 아니야?》
《아…》
설미는 고통스럽게 한숨을 내쉬였다.
《어떻게…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해. 문제가 제기되면 큰일이야.》
현철은 심각한 얼굴로 단호하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지?》
《정말 이건 뭐가 뭔지…》
《그렇게 하지?》
현철의 목소리는 어느덧 애원조를 띠고있었다.
《생각해보겠어요.》
《생각해본다는게 뭐야? 제기를 취소해놓고 생각해보잔 말이야.》
《…》
설미의 우유를 바른듯 희고 뽀얗던 얼굴이 해쓱하니 질리였다.

2

장종학은 1년전부터 중앙인민위원회안의 중요한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업하고있었다. 그는 저녁에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사업보고를 받

다가 영천시행정경제위원장에 대한 좋지 않은 제기가 들어왔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부장이 나간 다음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산호가 이런 신소가 제기되도록 인민생활에 무책임할수가 있는가. 산호의 일이 저으기 마음에 걸리였다.

(헛참, 그 사람이 이젠 관료주의자가 되고말았는가? 변질되지 않았는지 모르겠군. 하지만 산호문제가 크게 제기되게 그냥 내버려두지는 못하겠다. 인정상 그렇게는 할수 없지 않는가. 한설미가 제기를 한게 다행스러운 일이야. 내가 미리 손을 쓰는게 투사동지들에 대한 도리일것이다.)

그는 전화로 산호를 찾았다. 수화기에서 산호의 반가운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아저씨, 그간 안녕하셨어요? 집에서는 다 잘 있는가요?》

《잘 있지.》

장종학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다. 그는 우물쭈물하지 않고 툭 빠개놓고 말하리라고 생각했다.

《자네 무슨 일을 그렇게 하나?》

《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산호의 목소리가 긴장해졌다.

다음순간 장종학은 자신이 일처리를 잘못하고있다는 가책을 느끼며 입이 얼어붙었다. 그는 송수화기를 든채 숨을 씨근거리고만 있었다.

《아저씨, 어서 말씀하십시오. 왜 그럽니까?》

산호가 재촉하자 종학은 누가 듣는것을 겁내듯 나직이 말하였다.

《산호가 일을 제대로 하는것 같지 않아.》

《도대체 무슨 소릴 하는겁니까?》

종학은 다음말이 떠오르지 않아 갑자르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하여간 내 긴말은 하지 않겠는데… 자네가 무슨 과오를 범하지 않는가 잘 따져보라구.》

《예? 좀 구체적으로 말해줄수 없는가요?》

산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였다.

《자네가 저지른 일을 모른다는게 제정신이야?》

종학은 부아가 치밀어올라 저도 모르게 큰소리가 나갔다.

《행정위원장이면 응당 시민들의 아빠트보수도 잘하고 수도물문제에도 관심을 돌려야지. 도대체 틀려먹었단 말이야.》

수화기에서는 산호의 긴장한 숨소리만 들렸다. 이윽고 소심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러니 신소가 제기되였군요. 문제가 심각합니까?》

(이 녀석이 눈치가 빠르군.)

《그쯤 알아둬라. 어쨌든 빨리 대책을 세우라구.》

종학은 송수화기를 탕 하고 놓아버렸다.

(됐어. 산호가 알아들었어.)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는 퇴근하여 집에 들어서자바람으로 아들을 불러앉히였다.

《너 요즘 설미를 만나군 하느냐?》

《어제 밤에도 만났는걸요.》

《네가 알고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설미가 영천시에 출장을 갔다가 와서 행정위원장에 대해 제기를 했더구나.》

종학은 세월의 흐름속에 머리칼이 점점 희여지고 주름살이 깊어가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지성적이고 고상한 남성미를 잃지 않은 그 얼굴에 신중한 빛을 띄우고 말하였다.

《생각해봐라. 어떻게 그 사람을 욕되게 할수 있겠니?》

《나도 그걸 알고있어요. 그래서 설미에게 그 제기를 취소하라고 충고를 주었는걸요.》

종학의 얼굴에 만족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도 네가 용쿠나. 설미가 꼭 그렇게 하도록 잘 타일러라. 그 애도 산호가 누구인지 알지?》

《예, 아버지에게서 들어서 알고있더군요.》

《그래, 한영덕동지랑 김일동지랑 그리고 산호랑… 우린 다같이 남다른 인연으로 맺어지고 깊은 정으로 통하는 사람들이야. 산호 그 사람이 무슨 실책을 범한것 같은데 이제라도 잘 이끌어주면 되는거야.》

장종학은 비로소 큰숨이 나갔다. (귀신은 경에 막히고 사람은 인정에 막힌다는 그 말은 옳아.)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제1부주석 김일은 황해제철소에 대한 지도사업을 마치고 평양으

로 들어오고있었다. 그가 탄 승용차는 도로우를 살같이 내달린다. 그 승용차는 수령님께서 몸이 불편한 김일이 리용하라고 보내주신것이였다.

김일은 다른 나라에 가서 뇌암을 수술하고 6개월가량 치료를 받고 귀국한 후 건강상태는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으나 여전히 손에서 지팽이를 버리지 못하고있었다. 김일은 1976년 4월부터 제1부주석으로 사업하였다.

이번에 황해제철소를 료해해본 결과 구내기관차가 자주 탈선되여 생산에 지장을 주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철길침목이 불비한탓이였다. 그리고 석탄보장이 잘 안되여 로동자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있었다. 김일은 이 두가지 문제를 수령님께 보고드려 풀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김일이 탄 승용차가 중앙인민위원회정문으로 들어가는데 체격이 좋고 달덩이처럼 훤한 처녀가 마주 걸어나오고있었다. 크림처럼 부드럽고 흰 얼굴에는 슬픔의 그림자가 비껴있었다. 김일은 승용차를 세우게 하였다.

《설미가 아니냐? 어떻게 여기 왔댔니?》

설미는 얼굴이 활딱하니 붉어져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누굴 찾아왔댔니?》

《아닙니다, 그저… 좀 일이 생겨서…》

김일은 두말없이 승용차문을 열어주며 타라고 하였다.

설미는 사양하다가 올라탔다. 승용차는 중앙인민위원회정문안으로 들어갔다.

김일은 집무실에서 설미와 마주앉았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어서 말해라.》

김일은 마치 아버지와도 같은 관심을 가지고 물었다.

설미는 김일에게 모든 사연을 다 털어놓고싶은 충동을 느끼였다. 하여 자기가 영천시에서 목격한 일, 장현철을 만나고서야 영천시행정경제위원장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 일, 현철의 부탁을 받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제기를 취소하려고 찾아왔지만 차마 거짓말을 할수가 없어 되돌아가던길이였음을 다 이야기하였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미의 억실억실한 두눈에는 눈물이 그렁하였다.

《내가 알아보마.》

《제발 관대하게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허, 이거 설미까지 원칙에서 탈선하려드는것 같구나. 허허… 됐다. 마음놓아라.》 하고 김일은 설미를 위로하였다.

설미를 보내고나자 김일의 가슴속에는 산호로 인한 괴로움과 분격이 엇섞여 끓어올랐다.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당에서 책임적인 직위에 등용했는데 인민의 머리우에 군림하다니. 사실 지금까지 산호에 대한 평이 좋았다. 작은 군인민위원장을 하다가 범위가 훨씬 큰 영천시에 가서도 여러가지 일을 해제껴 손탁이 세고 내밀성있는 일군으로 알려지고있었다. 그런데 어느새 일을 잘못하여 인민들에게서 비난을 받고있으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산호야, 너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될 사람이 아니냐.) 하고 김일은 입속으로 중얼거리였다.

3

1956년에 있은 일이였다.

그 시기에 부수상이며 농업상이였던 김일은 평남관개공사에 주되는 힘을 넣어 추진시켜나갔다.

수령님의 발기에 의하여 해방직후 그 어려운 조건에서 착수하였던 평남관개공사는 미국놈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일시 중단되였고 놈들의 야만적인 폭격으로 시설물들이 모조리 마사졌다.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끝난 그 이듬해 봄, 이 공사를 다시 시작할데 대한 방향을 가르치시고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나날에도 거듭 공사현장을 찾으시여 건설자들의 흙묻은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면서 후손

들에게 물려줄 이 공사를 만년대계로 잘해야 한다고 뜨겁게 고무해주시였다.

1단계공사가 끝난 다음 수령님을 모시고 열두삼천리벌에 나갔던 1955년 모내기철에 있었던 일을 김일은 언제든지 잊을수가 없었다.

벌이 생긴이래 처음으로 물걱정을 모르고 모를 낸 무연한 논판은 벌써 푸른빛을 띠기 시작하였으며 일손을 다그치는 농민들의 얼굴마다에는 밝은 웃음이 어리여있었다. 그런데 모내기로 흥성거리는 논판을 량옆에 끼고 달리던 차들이 평원군 삼봉리 근처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는 큰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모내기정경이 나타났다.

한쪽에는 관개수가 흘러들어 논판마다 물이 가득한데 한쪽은 아직 관개수가 미치지 못하여 농민들이 바싹 마른 논에서 꼬창모를 내고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차를 세우시고 물동이를 이여나르며 꼬창모를 내고 있는 농민들을 한동안 지켜보시다가 한 로인곁으로 다가가시였다.

논바닥에 꼬챙이로 구멍을 내고 모를 한포기, 두포기 심어나가던 로인은 뜻밖에 수령님을 맞이하게 되여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수령님께서는 허물없이 로인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담배를 권하시며 이래도 소출이 나는가고 물으시였다.

《초복전이여서 절반은 삽니다. … 이제 비만 한줄기 오면 살아납니다. 정보당 1톤은 거둘수 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로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이번에는 물을 긷는 녀인들에게 힘들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녀인들은 황송하여 저마다 일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다가 왜 힘들지 않겠는가 거듭 물으시는 수령님의 너그럽고 소탈한 인품에 끌리여 한 아주머니가 솔직히 말씀드리는것이였다.

《사실 힘이 듭니다. 동이를 이고 한이랑을 열두번도 더 다녀야 하는데 진종일 그러고나면 머리가 헐 때도 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가슴저리신 마음을 누르지 못하시며 관개수가 넘치는 길 저편 논벌을 이윽토록 바라보시였다.

이날 오후에 중요한 사업이 있기때문에 수령님께서는 오전중으로 평양에 돌아가실 예정이였다. 그런데 다시 차에 오르신 수령님께서는 차를 평양으로가 아니라 증산쪽으로 돌리게 하시고 증산에서 다시 온천

으로, 강서땅으로 그냥 에돌게 하시며 아직 관개공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 고장 농민들의 모내기정형을 살피시였다. 그이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담배만 련이어 태우시였다.

얼마나 고뇌가 심하시면 저러시랴.

김일은 수령님의 사색에 저촉될가보아 입만 꾹 다물고 그이의 뒤를 따르고있었다. 그러는 김일을 돌아보시며 수령님께서는 단호하신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다른것을 못해도 이것만은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평남관개를 완성해야 하겠습니다.》

굳센 의지가 맥박치는 수령님의 말씀은 김일을 비롯한 일군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평남관개의 제2단계공사, 연연 수천리의 크고작은 물길을 거느리는 우리 나라 굴지의 관개시설을 완성하기 위한 대공사는 이렇게 다시 시작되였다.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인민의 힘을 믿으시는 의지를 가슴에 새긴 김일은 평남관개공사의 완성을 위해 열정을 다 바치였다. 당시 나라의 경제형편이 넉넉치 못하고 식량사정도 어려운 형편에서 당과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고있던 불순분자들이 기계도 없이 방대한 공사를 제기간에 끝낼수 있겠는가고 갖은 방해책동을 다하였기에 김일은 더욱더 분발하여 공사를 밀고나가게 하였다.

(제깐것들이 감히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정책을 시비질하다니…)

하고 김일은 이를 갈군 하였다.

평남관개2단계공사가 마감고비에 이르렀던 나날에 김일은 공사현장들을 돌아보다가 김책공업대학(당시) 학생들이 맡아나섰던 승호지구에 이르렀다. 당시 김책공대 학생들은 평남관개공사의 중요구성부분의 하나인 승호지구의 40여리 등천벌에 생명수를 주기 위한 공사를 벌리고있었다. 봄비가 내리고있었는데 대학생들은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득히 뻗어간 물길구간에서 와와 웃고 떠들며 사기를 돋구고있었다.

웃동을 벗어던지고 힘차게 곡괭이질을 하고 삽질을 하는 그들의 무쇠팔뚝들과 가슴근육들이 비를 맞아 번들거리고 불끈거리였다. 그들의 뜨겁게 달아오른 육체들에서 김이 피여오르는것만 같았다.

(역시 청년들이 달라. 아마 대다수가 전선에서 싸우다 돌아온 청년들이겠지.)

감동된 김일의 심정을 더 크게 울려주듯 그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건설장에 메아리치고있었다.

…
미제를 쳐부시고 이긴 우리들
복구와 건설에로 힘차게 나간다

김일은 대학생들을 책임지고 나와있는 작업복을 입은 체소한 일군에게 말하였다.

《학생들이 홀딱 다 젖는구만. 비옷들이 없소?》

《비옷이 있더라도 거치장스럽다고 다 벗어던지는걸요.》 하고 일군이 웃으며 말하였다.

《다 젊지 않았습니까.》

하긴 김일도 그 일군도 비를 맞기는 매한가지였다.

《동무라도 비옷을 입소. 그러다 감기 걸리겠소. 동무야 그닥 젊지도 않은데…》

《부수상동지도 젊은 사람이야 아니지 않겠습니까.》

반죽좋게 받아넘기는 일군이 마음에 들어 김일은 시뭇이 웃으며 걸음을 옮기였다. 이때 한길이나 파들어간 물길속에서 한 청년이 뛰쳐나왔다. 씨름군처럼 옹골차고 여무진 몸뚱이에 온통 흙을 매닥질한 청년이 김일에게 군대식으로 힘차게 거수경례를 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제 림산호입니다.》

김일은 반가웁게 산호의 손을 잡아흔들었다.

《내 산호를 보고싶다 했더니 여기서 만나게 되는구만. 그동안 잘있었나?》

《예.》

비가 걷히기 시작했다. 구름장을 헤치고 해가 빠끔히 기여나왔다.

《비가 멎는군요.》

산호가 하늘을 쳐다보며 말하였다.

《그래, 담배를 피울수 있게 하늘이 도와주는구만.》
김일은 발치까지 오는 길다란 봄가을외투 호주머니를 뒤져 담배곽을 꺼냈는데 어느새 다 젖어버렸다.
《안되겠는걸.》
김일은 젖어서 누진누진해진 담배갑을 뒤져보다가 다시 호주머니 속에 넣고는 허허 웃어버렸다.
《어머니도 잘있나? 진성봉이를 산호 어머니가 돌봐준 얘기를 들었소.》
《뭘요. 원래 마음씨가 고운 어머니입니다.》
《내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일이 바빠 아직 인사하러 가지 못했소. 산호동무를 만나니 전쟁때가 생각나는구만. 1계단작전시 함께 전선사령부에 있었댔지. 수안보로 가는 길에서 산호가 형이라는자의 죽음을 목격한것은 정말 기이한 운명의 장난이라고 할수 있을거야.
참, 어머니가 그걸 알고계시나?》
《말을 못하고있다가 얼마전에야 기회가 생겨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산호는 말끝을 맺지 못하고 길게 한숨을 내그었다.
《그래 울던가?》
《그날 어머니는 나에게 솔직히 다 털어놓더군요. 어머니가 울면서 말하기를… 의호도 그리고 나도 다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뭐라구?》
김일은 깜짝 놀라 몸이 굳어져버리였다. 그는 어쩐지 강정익을 상기시키는 산호의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해방후 중하면에 출장가는 사람에게 산호의 어머니를 만나 산호가 친아들인가를 알아보게 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자기의 직감이 맞아떨어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던가. 그러나 부정적인 대답을 받고 마음이 아팠었다.
《도대체 산호의 친아버지, 친어머니는 누구라는거요?》
《그것도 어머니는 모른답니다. 그저 날 중국동북의 산속에서 얻어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없었기때문에 시집 사람들과 토론

하고 의호도 그래, 나도 친자식으로 삼았답니다. 날 산에서 얻어왔다고 이름도 산호라고 했다더군요.》

김일의 심장이 쿵쿵 가슴을 울리였다.

《그러니 산호의 고향이 중하라는것도 지어낸 말이였군.》

《그런것 같습니다.》 하고 산호가 침울하게 말하였다.

《음—》

(산호 어머니에게 무슨 곡절이 있군.)

김일은 말없이 해가 비치기 시작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장들이 흩어지면서 사라지고있었다.

《동북 어디라던가?》 김일은 물었다.

《안도현 어디라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소, 내 알아보지.》

김일은 더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것을 정확히 해명할수 있는 사람은 한영덕이밖에 없다고 생각되였다. 김일은 산호에게 공사장에서 위훈을 떨치며 앞으로 대학공부를 잘하라는 당부를 하고 헤여졌다. …

그로부터 얼마후 지방에 주둔한 어느 한 인민군부대 지휘관으로 복무하던 한영덕이 민족보위성의 명령으로 평양에 올라오게 되였다.

렬차를 타고와서 평양역에서 내렸는데 몰라보게 달라진 풍경이 그를 놀라게 하였다.

이제는 파괴의 잔해들을 찾아볼수 없었다. 중심거리들에 큰 건물들과 아빠트들이 일떠서고 대도로들이 번듯하게 뻗어갔으며 무궤도전차들이 다니였다.

(정말 놀라운걸?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또 다르군.)

한영덕은 절로 기분이 좋아져 한손을 허리에 짚고 주위를 휘둘러보았다. 이때 키가 후리후리하고 보기 좋게 몸이 난 사람이 역사쪽으로 걸어오다가 영덕을 보고 소리질렀다.

《아니, 한영덕동무가 아니요?》

영덕의 거밋하게 탄 얼굴에 반가운 웃음이 피여올랐다.

《아 장종학동무, 이게 얼마만인가.》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돌아갔다.
《류학갔다가 언제 귀국했소?》
《54년 가을에 귀국했소.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기사장으로 일하고있소.》
《그동안 수고많았겠구만. 평양이 일떠서는 모습을 보니 난 건설자들에게 막 감사의 인사를 하고싶은 심정이였소. 그런데 건설자의 한사람인 장동무를 만났단 말이요. 》
영덕은 종학의 손을 꽉 잡고 흔들었다.
《아, 그만그만… 손이 막 아프구만.》
《그래 어디 가는 길이요?》
《난 지금 흥남비료공장건설에 동원되였소. 그래 함흥으로 가기위해 역으로 나오는 길이지.》
영덕은 담배곽을 꺼내여 종학에게 한대 권하고 자기도 피워물었다.
《그저 수령님의 로선대로 하면 그만이라니. 우리 나라가 이제 10년안팎에 세계에 대고 소리치는 나라가 될거요. 그렇지 않소?》
《그야 그렇지 않구.》
장종학이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런데 방해군들이 쏠라닥질하는게 문제야.》
《음－》
한영덕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그 종파놈의 새끼들…》
영덕은 저도 모르게 격분하여 커다란 오른손주먹으로 왼손바닥을 들이쳤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음으로 양으로 시비질하는자들이 있다는것을 영덕은 잘 알고있었다.
《배은망덕한 놈들이야. 해방전부터 종파질만 하던 놈들을 수령님께서 크나큰 덕망으로 품에 안아 국가요직들에 등용해주었는데 딴 꿍꿍이를 하는것 같아. 그 최가놈 말이요.》
《최창익이 말이지?》
《최창익인지 최종파인지 그따위 이름은 알아서 뭘한단 말인가. 내 동무들에게서 들었는데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이 수령님을 모시고

중요한 정책문제를 토의하는 장소에서 말이야. 그 최종익이…》
《최창익이겠지?》
《아니, 최종파야. 그놈이 감히 일어나 인민생활문제를 거들며 우리 당의 경제건설로선을 시야비야했다질 않나. 그때 김일동지가 벼락치듯 그자를 꾸짖어 눌러놓았다는거야. 〈무슨 나발을 부는거야.〉 하고 말이지.》
《김일동지같은분이 수령님의 곁에 있는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요.》
《정말 그렇소. 참, 이거 바쁜 사람을 세워놓고 얘기가 지내 길어지는것 같군. 후에 한번 만나자구.》
《다시 만나세. 건강하라구.》
《건강하구 또 정신적으로 각성해야 하지.》
영덕은 종학과 헤여져 뻐스를 타고 민족보위성으로 향하였다.
성에서는 그를 어느 한 군관학교 교장으로 임명하였다.
영덕은 다음날 점심시간에 김일의 집에 들리였다. 집안은 호젓하였다. 박용석의 부부는 따로 집을 잡고 나가살았고 진성봉은 만경대혁명학원에 가있었다. 소학교에 다니는 은희가 방에서 숙제를 하고있다가 영덕을 반기였다.
《우리 은희에게 뭘 줄가?》
영덕은 가방을 뒤져 은희를 위해 사온 과자봉지를 꺼내놓았다.
《아저씨가 제일 좋아.》
은희는 영덕의 무릎에 앉아 과자를 먹어대더니 일어섰다. 그리고 사진첩을 꺼내가지고 왔다.
《나하고 사진 보자.》
영덕이 은희와 사진첩을 보는데 녀맹사업을 하는 허창숙이 집에 들어왔다.
《영덕동무가 마침 왔군요. 은희 아버지가 동무소리를 했어요. 한번 만나야겠다면서 전화라도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부대로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댔어요?》
《내가 없을 때 전화를 했는가?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구체적으로 리유는 말하지 않았는데 뭔가 알아볼 일이 있는 모양이예요. 사무실에 전화해보세요. 지금 방에 있겠는지…》

영덕은 김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윽고 영덕과 김일사이에 전화련계가 이루어졌다. 김일은 영덕의 목소리를 듣고 반가와하더니 당장 자기에게로 와달라고 하는것이였다.

영덕은 김일이 보내준 승용차를 타고 내각청사로 갔다.

《영덕동무, 강정익동지의 아들애를 찾은것 같소.》

김일은 영덕에게 앞상의 의자를 권하고나서 직방 말하였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 리정애누님의 아들애를 찾았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글쎄 내 말을 들어보라니까.》 하고 김일은 평남관개공사장에 나갔다가 산호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니 산호 그 애가요?》 영덕은 숨이 차서 부르짖었다.

《그렇소. 틀림없이 산호가 정익동지 아들인것 같소. 그런데 이걸 확인할 사람이야 영덕동무를 내놓고 누가 또 있겠소. 그러니 빨리 그의 어머니를 만나보오.》

잠시후 한영덕은 만사를 제쳐놓고 산호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산호의 어머니는 놀람과 불안이 어린 낯빛으로 영덕을 맞이하였다. 영덕은 산호 어머니의 모색에서 젊었던 시절의 흔적들을 찾아보기 위해 애썼다.

《산호 어머니, 한때 안도현 왕자툰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장령동지가 그걸 어떻게?》

영덕의 가슴이 몹시도 두근거리였다. 그는 흥분되여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산호 어머니, 1931년도에 〈천백룡〉토비두령의 소굴에 끌려간적이 있지 않습니까?》

산호의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그제야 그는 한영덕을 알아보았다.

《아니, 그럼 장령동지는 그때 애어머니와 함께 끌려와있던 그 소년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소년입니다.》

《아이구, 이렇게 다시 만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난 아주머니를 찾았습니다. 왕자툰에 갔댔습니다. 그런데 불타버린 마을에서 찾을수가 없더군요.》

녀인은 왜놈들의 《토벌》에 시부모들을 잃고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친정집이 있는 중하로 나오던 이야기를 하였다.

《산호 어머니, 그때 토비두령의 첩이 되지 않기 위해 자살한 애어머니에게서 데려간 애가 어떻게 되였습니까?》

녀인은 말을 더듬거리였다.

《그 애야… 그 애야…내가 키웠지요.》

《혹시 산호가 그 애어머니의 아들이 아닙니까?》

녀인의 두눈에 눈물이 고이였다. 그는 말없이 영덕을 쳐다보기만 하였다.

《어서 말씀해주십시오. 산호가 그 애가 맞지요?》

《맞습니다.》 녀인은 힘들게 대답하였다.

《이제 와서 뭘 숨기겠어요. 산호에게도 이미 다 털어놓은걸요.》

녀인의 두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산호 어머니, 산호가 누구인줄 압니까. 동북에서 혁명을 하다가 희생된 항일혁명렬사 강정익동지의 아들입니다.》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도 있는가.》

녀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리였다.

《장령동지, 이젠 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영덕은 손수건으로 눈굽을 찍으면서 말하였다.

《산호 어머니,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그리고 산호를 위해 기뻐해주십시오. 산호가 항일혁명투사인 친아버지를 찾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애를 얼마나 찾았는지 압니까.》

(리정애누님, 날 용서하십시오. 이제야 아들애를 찾았군요. 이젠 저승에 가서도 누님을 뵈올 낯이 생겼습니다.)

영덕의 눈앞에는 혁명동지의 아들을 찾았다고 기뻐할 김일의 모습이 선히 떠올랐다.

4

(산호가 정익동지의 아들이란 말이지?)

김일은 승용차를 타고가면서 감개무량하여 입속으로 중얼거리였다.

얼마전에 김일은 한영덕에게서 산호가 강정익의 아들임을 확인했다는 말을 전해들었었다. 산호를 데려다 키운 녀인은 해방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산호의 친아버지에 대해 알아본 사실도 털어놓았다고 한다. 그때 녀인은 친자식처럼 키운 아들을 졸지에 남에게 떼우는것이 아닌가 겁이 덜컥 나서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영덕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김일은 얼마나 흥분되고 기뻤던지 한동안 일을 못하고 사무실안을 서성거리였다. 당장 산호를 껴안으러 달려가고싶었지만 여러가지 바쁜 일들이 겹쳐 틈을 낼수가 없었다. 그래 산호를 데려오라고 했더니 산호가 대학생들이 담당한 관개공사에 필요한 어떤 자재구입을 위해 지방에 갔다는것이였다. 아쉬운대로 산호를 만나보는것을 뒤로 미루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정익이나 산호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이 때없이 떠오르며 김일을 깊은 감회에 잠기게 하였다.

지금도 그는 어느 한 단위에 대한 지도를 가면서 산호를 생각하였다.

승용차가 김책공업대학옆을 지나가고있었다.

이제는 대학생들이 맡겨진 공사를 기한전에 끝내고 정상적인 학업에 들어갔다. 산호가 다니는 대학을 보니 별스레 산호를 만나보고싶은 생각이 간절해진다.

(산호 그 녀석… 글쎄 내 어쩐지 별로 정이 간다 했더니… 산호가 그 형이라는 놈때문에 속을 많이 태웠지. 피줄은 속일수 없는거야.)

문득 대학 정문가에 세워진 알림판이 김일의 눈에 걸려들었다.

《가만, 차를 좀 세우오.》

김일은 운전사에게 말하였다.

알림판에는 오늘 오후에 윤아무개상의 강연이 있다는 소식이 씌여져 있었다. 윤아무개는 내각의 여러 상들중에서 당정책시비를 곧잘하는자로 김일이 주목하는 인물이였다. 김일은 생각되는바가 있어 차에서 내리였다. 시계를 보니 그자의 강연시간이 다되였다. 김일은 대학으로 들어갔다.

새로 일떠선 두개의 교사사이의 넓다란 대학운동장에 학생들이 모여 앉아있었다. 주석단에는 대학 학장과 당위원장이 앉아있었다.

풍채가 그럴듯한 윤아무개는 불타는듯 한 빨간색넥타이를 매고 연단에 나서서 열변을 토하고있다. 대학 간부들이 김일을 알아보고 당황하여 일어서며 인사를 하였다. 김일은 아무런 말도 없이 주석단의 빈 자리에 가앉았다.

유들유들한 볼살이 축 늘어지고 술을 마신것처럼 불그레한 빛이 돌던 윤아무개의 얼굴이 김일을 보자 금시 백지처럼 해쓱하니 질리였다. 그는 김일의 타협을 모르는 단호한 성격을 잘 알고있었다.

김일은 어디 한번 들어보자는듯 씁쓰레한 표정을 짓고 묵묵히 앉아있었다. 제딴에는 배짱있는 정치가임을 자처하는 윤아무개는 인차 자신을 수습하고 학생들에게 미소를 지어보이고나서 강연을 계속하였다. 그것은 쏘련공산당 제20차대회에 대한 강연이였다.

김일은 분격이 치밀어 앞상에 올려놓은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였다. 그는 윤아무개가 무엇을 말하자고 하는지 알아차렸던것이다. 분명 쏘련공산당 20차대회의 결정서를 빗대고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우리당을 비난하자는것이였다.

(네놈은 분명 또 개인미신에 대해 떠벌일것이다. 쥐새끼같은 놈들…)

윤아무개의 풍채에는 분명 쥐새끼가 어울리지 않는것이였으나 김일은 최창익이나 그의 패거리들에 대해서는 쥐새끼라고밖에 달리는 표현할수 없었다. 어두운 구석이나 더러운데를 쏠고다니면서 먹을것을 찾고 사람들에게 나쁜 병균을 퍼뜨리는 설치류, 반들반들한 눈알을 굴리며 뻔뻔해보이는 길다란 꼬리를 끌고 엉금엉금 기여가는것을 볼 때마다 오싹하니 소름을 끼치게 하는 그 쥐새끼같은자들을 김일은 요사이 주위에서 보군 하면서 치를 떨군 하였었다. 윤아무개는 바로 그런자들중의 하나였다. 그자는 태연하게 강연을 계속하였다.

《…제20차대회에 이어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에 개인미신과 그 후과를 극복할데 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우연한것이 아니였습니다. 〈개인미신〉이라는것은…》

김일은 묵직한 주먹으로 앞상을 쾅 치며 일어섰다. 윤아무개가 흠칫 놀라 김일을 쳐다보았다.

《상동무, 그 강연은 그만두는게 좋겠소.》

《예? 예. … 방금 끝내려던 참이였습니다.》

윤아무개는 부수상의 지시인지라 울며 겨자먹기로 격자무늬의 손수건으로 번번한 낯에 질펀하게 내밴 땀을 닦으며 물러섰다.

김일은 그를 대신하여 연단에 나섰다.

《대학생동무들, 나는 내각부수상 김일입니다. …

우리 조선인민이 한결같이 절감하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조국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라는것입니다.》

회의장에 요란한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김일은 계속하였다.

《**김일성**동지는 20여성상 백두밀림에서 왜놈들과 싸워 우리 조국의 광복을 이룩했으며 또 세계최강이라고 우쭐대던 미제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주권을 수호하시였습니다. 미국놈들은 야수적인 폭격으로 우리의 강토를 재더미로 만들고 조선은 100년이 가도 일어서지 못한다고 하였지만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으며 전후 3년동안에 재를 털어버렸습니다.》

한 학생이 벌떡 일어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하고 소리높이 웨치였다.

그 학생은 김일이 만나고싶어하던 산호였다.

《**김일성**동지 만세!》

《만세!》

대학생들은 한결같이 일어서서 격정에 넘쳐 만세를 불렀다. 김일은 가슴이 후더워져서 산호를 보고 대학생들을 둘러보았다. 주석단에 앉아있던 윤아무개상은 이미 꼬리를 사리였다.

김일은 대학 학장방에 들어가 학장과 당위원장을 호되게 다불렀다세웠다.

《…지금 우리 혁명은 여러가지로 시련을 겪고있소. 이런 때 당원들

이, 간부들이 확고한 립장에서 당을 옹호하고 수령님을 받들어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야 하오.

정신들을 차리시오. 높은 간부라고 해서 다 옳바르게 언동을 취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되오. …》

《저희들이 떨떨했댔습니다.》 하고 학장이 김일에게 깊이 머리를 숙이였다.

잠시후 김일은 산호를 불러오게 하였다.

산호를 기다리노라니 아릿한 심경속에 강정익의 모습이 떠올랐다.

(강정익동지, 오늘에야 아들을 찾았습니다. 정익동지가 희생된 그해로부터 계산해보니 21년의 해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김일성**장군님의 품속에서 어엿하게 성장했습니다. 장군님만 믿고 살라던 동지의 마지막말이 오늘도 내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는군요.)

산호가 방에 들어섰다. 김일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북받치는 격정을 이기지 못해 갈린 목소리로 불렀다.

《산호야.》

《부수상동지.》

산호가 다가왔다. 거멓게 타고 관골이 두드러진 그의 얼굴엔 소심하면서 긴장된 표정이 비껴있었다. 한영덕과 어머니의 말에 의해 친아버지가 누구임을 알게 된 오늘에 와서 산호에게는 기쁨보다도 놀라움이 더 컸다. 그에게는 그것이 잠에서 깨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꿈처럼 생각되는것이였다.

《어서 가까이 와. 한번 안아보자.》 김일이 말하였다.

김일은 와락 산호를 그러안았다. 그는 마치 강정익과 상봉하는것만 같이 심장이 세차게 뛰였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눈물이 솟구쳐올랐다.

《네가 살아있었구나. 업은 아이 3년 찾는다더니…》

《부수상동지.》

《뭘 자꾸 부수상이라고 하느냐. 난 네 아버지친구다. 이제부터 날 아저씨라고 불러라.》

《아저씨.》

《그렇지, 거 듣기 좋구나.》

산호는 머리를 숙이였다. 그를 대견하게 여겨보다가 김일은 말하였다.

《그동안 고생많았지?》

만단의 사연이 어린 김일의 말에 산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나왔다. 그는 꺽꺽 막히는 소리로 말하였다.

《지금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래도 난 한생 그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야 하구말구.》

《어머니가 불쌍합니다.》

《그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야. 잘 돌봐주어야 한다.》

김일은 오른손으로는 우는 산호의 어깨를 두드리고 왼손으로는 젖어든 눈굽을 슬그머니 닦아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해 8월에 있은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에서 우리 혁명과 건설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폭로분쇄하시고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조치를 취하시였다.

그리고 12월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12월말 수령님께서는 1만톤의 강철증산을 호소하시기 위해 강선제강소의 로동계급을 찾아 평양을 떠나시였다. 김일은 수령님을 바래워드리였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 우리가 믿을데는 오직 인민밖에 없소.》라고 말씀하시는 수령님의 안광에는 신념과 의지의 빛이 어려있었다.

여느때없이 몸이 수척해지신 수령님을 바라보는 김일의 가슴은 미여지는것만 같았다.

《참, 강정익동무의 아들을 찾았다지요? 산호를 잘 키워 혁명의 피줄기를 억세게 이어나가도록 해야겠소. 산호를 키운 어머니가 고마운 녀인이요. 세상에 우리 인민처럼 좋은 인민은 없소. 이런 인민들이 당을 받들기에 우리는 피바다만리, 불바다만리를 헤치면서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었지.》

《그렇습니다.》

《김일동무, 어서 떠나시오. 우리 인민들속으로 깊이 들어갑시다.》

김일은 농촌에 대한 지도를 떠나는 길이였다.

《수상동지께서 먼저 떠나십시오.》 김일은 고집스럽게 말하였다.

김일의 성격을 잘 알고계시는 수령님께서는 할수 없다는듯 미소를 띠우시며 차에 오르시였다.

《자, 그럼 다시 만납시다.》

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는 강선제강소를 향해 출발하였다. 김일은 수령님의 승용차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마음속으로 축원의 인사를 드리였다.

《수령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5

중앙인민위원회의 중요위원회 부위원장 장종학이 제1부주석 집무실에 들어서니 김일은 저으기 언짢은 안색으로 앉아있었다.

《영천시에 대한 신소가 들어왔을거요. 알고있소?》

장종학은 가슴이 덜컥했다. 어떻게 되여 김일이 그 사실을 알고있단 말인가. 벌써 아래일군들에게서 통보를 받았는가? 아니면 혹시 한설미가?… 아직 한설미가 중앙인민위원회에 나타나지 않아 몹시 불안해있던차에 김일에게서 불의의 질문을 받자 종학은 당황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예… 물론 알고있습니다. 산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 어떻게 생각하오?》

《강산호에 대한 문제이기때문에 저는 좀 심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했더랬습니다.》

김일은 종학의 심정이 리해되는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는 속이 답

답한듯 책상우에서 두손을 잡고 비틀다가 물었다.

《담배 한대 있소?》

종학은 놀라서 김일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종학은 허룡을 통하여 김일이 몇달전부터 담배를 끊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수령님께서 김일의 건강상태를 알아보시다가 그에게 담배를 끊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신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김일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허룡에게 피우던 담배와 라이타를 주면서 《내 눈앞에 이런것이 보이지 않게 하오.》 하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김일이 담배를 찾고있는것을 보니 속이 이만저만 상하지 않은것 같았다.

《담배가 있으면 내놓소.》 김일이 다시한번 말하였다.

장종학은 주밋거리며 호주머니에서 담배곽을 꺼내였다.

《저…1부주석동지가 담배를 끊으셨다는 소릴 들었는데…》

김일은 대답없이 갑에서 담배 한대를 끄집어냈다. 그리고 담배대를 만지작거리였다. 종학은 라이타를 꺼내여 불을 붙여드리려고 불을 켰다.

《됐소.》 김일은 종학이 내미는 라이타를 손으로 막았다.

그리고 만지작거리던 담배대를 집무탁우에 놓았다.

《내 오늘 실수를 하는구만. 수령님께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래서야 안되지.》

김일은 담배대를 밀어놓았다.

《어서 집어넣소. 내 하도 속이 타니 담배생각이 간절해졌던거요.》

그는 가늘게 한숨을 내쉬였다.

《종학동무, 산호 이녀석이 왜 이런다는거요?》

《일을 하느라면 좀 실수할수도 있지 않을가요?》 종학은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김일은 대꾸없이 멍히 앉아있다가 종학에게 지시하였다.

《시급히 영천시에 대한 료해를 조직하시오. 실태를 똑똑히 알아봐야겠소.》

종학은 어찌할바를 몰라 서있었다.

《무슨 할말이 있소? 왜 그러고 섰소?》

《1부주석동지, 강산호문제인데 좀 너그럽게 봐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한다는거요?》

《그저…》

종학은 좀 바재이다가 말을 이었다.

《조용히 비판을 주고 잘 이끌어주면 산호가 개심할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할가?》

김일은 묵묵히 생각에 잠기였다. 황해제철소에 다녀오느라 피로가 쌓인 그의 얼굴에 안타까운 빛이 비끼였다. 그는 종학의 심정을 충분히 리해하고있었다. 그리고 그는 강정익의 얼굴을 다시금 눈앞에 그려보면서 속을 태우고있는것이였다.

《그에게 한번 경고를 주는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종학이 말하였다.

《그렇게 할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의 잘못을 별도로 취급하면서 어루만졌다가 그 후과가 좋지 못할가봐 걱정되오. 사람의 사상정신상태는 누구도 담보하지 못하오. 아무리 견실한 사람일지라도 주객관적인 영향으로 변질될수가 있는거요. 그래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이 죽을 때까지 당성단련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계시는거요. 산호의 결함을 오늘 관대히 봐주면 그가 자기를 그 어떤 특수한 존재처럼 생각할수도 있소. 그렇게 되면 야단이지.》

《산호의 정신상태가 그렇게까지 한심하겠습니까. 실은 제가 가슴이 아파 전화로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그건 또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요?》

《다른건 아니고… 그저 일을 잘해야겠다고 충고를 주었습니다.》

김일이 손바닥으로 책상을 탕 쳤다.

《옳지 않소. 신소를 받고 그 당사자에게 전화한다는게 도대체 무슨 처사요? 이건 사업원칙상 대단히 엄중한 과오란 말이요.》

《신소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소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어도 암시정도는 했을거요.》

종학은 김일의 예리한 판단에 후두둑 가슴이 뛰였다.

《그래 내 말이 틀리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종학은 머리를 숙이였다.
《하지만 산호야… 인정이 어디 그렇습니까.》
《인정타령은 그만두오. 동무문제는 따로 보겠소. 우선 시급히 료해성원들을 보내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해보시오.》
종학은 어깨가 처져서 나갔다.
(국가의 중요직책을 맡고있는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처신할수가 있단 말인가.)
산호의 문제가 괴로운데다 장종학의 처사에 노여운 감정이 겹치면서 김일의 마음은 갑절이나 산란해졌다.
(그래 그밖의 다른 도리는 없단 말인가.)
《한영덕동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일은 허룡의 말을 듣고 송수화기를 들었다.
《이거 영덕동무의 목소리를 들으니 반갑구만. … 내 건강이야 그저 그렇지. 일없소. 동무는 어떻소?… 그래 일은 잘돼가오?》
《예, 힘껏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애로되는 문제가 있어서 생각다못해 1부주석동지에게 도움을 청하자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덕이 행정경제위원장으로 사업하는 도의 어느 산골에 드문드문 널려있는 집들이 몇백세대 되는데 그 집들이 아직 전기불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전주들을 세우고 전기선을 늘이자고 보니 전기선이 걸렸다고 한다.
《1부주석동지, 전기선을 좀 해결해줄수 없겠습니까?》
《영덕동무가 좋은 일감을 잡았소. 인민들이 애로를 느끼고있는 문제부터 푸는게 우리 일군들의 본분이지. 그런데 인민들의 애로를 외면하는 녀석들도 있거던.》
《그게 누굽니까?》
《아직은 료해중이니 그쯤 알아두라구. 내 너무 괘씸해서 속이 풀떡풀떡하는데 동무에게서 전화가 왔단 말이요. 알겠소. 전기선문제는 어디 알아봅시다.》
김일이 애써 마음을 다잡고 문건을 들여다보는데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박용석이 전화합니다.》

《네가 어떻게?》

《제가 오늘 철도부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래? 너에 대한 수령님과 당의 신임이 정말 크구나. 오늘 충선이랑 애들을 다 데리고 우리 집으로 일찍 오너라. 네가 철도부장으로 임명되고 또 충선이가 인민군대에 입대한다는데 저녁식사나 같이 나누자.》

저녁에 김일이 퇴근하니 박용석의 가족이 와서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진성봉의 가족도 와있었다. 응접실은 국가제1부주석의 저택응접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소박하였다. 바닥에 깐 주단도 색이 날은것이였고 긴쏘파들과 안락의자도 천이 탈색된것이였다. 부관과 서기가 나서서 저택을 꾸리자고 달라붙은적이 있었으나 김일은 중지시켰다. 외국의 손님들이 김일에게 선물의 명색으로 고급가구나 새형의 텔레비죤과 같은 물건들을 보내오는적도 있었는데 김일은 그것들을 모두 가져다 당에 바치게 하였다. 그는 그지없이 청렴결백한 사람이였다. 이 응접실벽에 김일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배라고 할수 있는 그림이 걸려있었다. 김일은 그 그림 하나만으로 저택의 응접실이 만족스러웠고 또 자랑스러웠다. 그것은 김일의 생일 60돐에 즈음하여 수령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그림이였다. 길이가 4메터에 높이가 1.6메터 폭의 대형유화로 형상된 그림에는 백두산을 배경으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밀영가에서 김일에게 지하공작임무를 주시는 장면이 그려져있었다. 김일은 새삼스럽게 그 그림을 바라보다가 가족들에게 눈길을 돌리였다.

《난 오늘 정말 기쁘구나. 우리 가족중에선 처음으로 병사가 나왔거던.》

김일은 군복입은 둘째손자 박충선을 대견스럽게 바라보았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인민군대에 탄원한 손자 박충선이 할아버지를 깨우치려들었다.

《할아버지, 난 두번째예요. 삼촌이 군대가 아니예요.》

충선이가 말하는 삼촌은 바로 진성봉이였다.

그는 지금 인민군대의 한 부대 정치일군으로 사업하고있었다.

《아니다, 네 삼촌은 병사생활을 거치지 못하였단다. 병사생활을 체

험해봐야 참된 군인이 될수 있는거란다. 그러니 너는 긍지를 느껴라.》
진성봉은 면구스러운듯 머리를 돌리며 혼자말처럼 말하였다.
《만경대혁명학원은 병사생활 맞잡이인데요 뭐.》
《그래, 그래… 그건 네 말도 맞다. 그러니 수련이 아버지도 병사생활을 했다고 보자, 하하하.》
김일은 눈길을 박용석에게로 돌리였다. 어머니를 닮았는지 키가 그리 크지 않고 너부죽한 얼굴이 유순하면서도 명석해보이는 박용석은 어느덧 몸이 부하게 나고 간부풍의 틀이 잡혀있었다. 그가 지난날 이국에서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할머니와 함께 의지할 곳이 없어 방황하던 소년이였음을 이제는 그 누구도 상기하는 사람이 없을것이다. 어느덧 나라의 큰 일군으로 성장한 아들을 볼때 김일은 대견스러웠다. 그러나 그는 아들이 결코 잘나서가 아니라 수령님의 사랑과 신임을 떠나서는 그의 발전을 생각할수 없다고 여기였으며 따라서 아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그 사랑에 보답할수 있겠는지 우려하는 때가 많았다.
《나라의 철도발전을 위한 수령님의 로고가 얼마나 크신지 너도 잘 알테지? 난 언젠가 외국방문시에 있었던 일을 잊을수가 없구나. 그때 수령님께선 어느 한 나라에서 콩크리트침목을 도입해서 쓰고있다는 말을 듣고 우정 그 성능을 확인해보시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여있는 계획을 변경시켜 렬차를 타고 가시였지. 나라의 철길을 두고 얼마나 마음을 쓰시였으면 다른 나라를 방문하시면서도 침목문제를 생각하시며 빠르고 편리한 비행기가 아니라 흔들리는 렬차를 택하시였겠니. 렬차를 타보시고나서는 콩크리트침목이 괜찮다고, 우리도 빨리 콩크리트침목을 받아들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지.》
《제가 철도부장이 되여 과연 수령님의 뜻을 잘 받들수 있겠는지 근심이 됩니다.》
《언제나 수령님의 교시와 로작을 깊이 연구하거라. 거기에 모든 방도와 해결책이 다 있다.》
김일은 가족들과 함께 단란한 분위기속에서 식사를 하였다.
그밤 김일은 잠들지 못하고 모대기였다. 강산호도 그렇지만 장종학에 대한 우려도 마음을 괴롭히는것이였다.

6

김일은 중앙인민위원회 초급당비서를 찾아갔다. 당비서는 서글서글한 웃음을 짓고 일어서서 정중하게 김일을 맞이하였다.

《1부주석동지, 일이 있으면 저를 찾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나무람하듯 말하였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다가 중앙인민위원회에 파견되여온 40대의 당비서는 겸손하면서도 로숙하고 패기만만한 당일군이였다. 김일은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아래이고 직급도 낮았지만 기관 당비서인 그를 존중하였다.

《나는 국가제1부주석이기 전에 당조직에 소속된 당원의 한사람입니다. 당원으로서 제기할 문제가 있어 찾아왔습니다.》

《어서 앉으십시오.》

당비서는 김일을 부축하듯 팔을 붙잡아 쏘파에 앉혀주었다. 김일은 당비서에게 말하였다.

《내 며칠전에 한영덕 도행정경제위원장에게서 전기선을 좀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전쟁전까지 남반부에 속해있던 산골마을들에 전기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거기 인민들에게 전기를 보내는 공사를 시작하자는겁니다. 난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꼭 풀어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동이 긴장한 형편에서 이 문제를 풀자면 수령님께 제기해야겠는데 수령님께 근심을 끼쳐드릴것 같아 결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망설이던 끝에 내 한가지 생각한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인민위원회에서 유휴자재수집을 대대적으로 해서 전선공장에 보내주면 요구대로 해줄수가 있겠다는것입니다. 한영덕위원장은 한 5톤정도면 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 파동수집을 해보자는것입니까? 난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종

업원들에게 호소해봅시다.》
《고맙습니다.》
김일은 당비서와 몇가지 문제를 더 토론하고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왔다.
그날 영천시에 파견되였던 료해조성원들이 돌아왔다. 장종학이 김일에게 료해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상업부 지도원 한설미가 제기한 내용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강산호에게도 사정은 있었습니다.》 하고 장종학은 말하였다.
려관앞 아빠트들을 한심하게 건설하여 문제가 제기된것은 전 위원장때부터였다. 강산호는 임명된지 1년밖에 안된다. 그런데 그는 지금 시에 있는 료양소와 휴양소보수공사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산호는 일단 시의 료양소와 휴양소를 잘 꾸리고나서 아빠트주민들의 애로를 풀어주려고 했다는것이였다. 강산호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이전 위원장때부터 그 감정이 쌓여온것이다. 영천시에 대한 료해보고는 강산호의 죄가 어느 정도 과장되였음을 말해주고있었다.
그러나 김일의 얼굴은 여전히 침침하였다.
《그래 료양소와 휴양소는 중요하고 주민들의 집은 중요치 않다오?》
《영천시의 온천지구에 자리잡고있는 료양소와 휴양소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소문났습니다. 그러니 영천시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데 제딴에는 이걸 잘 꾸려보자고 했던것 같습니다.》
《그러니 동무의 립장은?》
장종학은 대답을 못하였다. 산호를 비호하다가 김일의 노여움을 야기시킨 그 일을 잊을수 없는 종학이였다.
《선뜻 말을 못하는걸 보니 짐작이 가오. 아마 관대하게 봐주고싶겠지.》 김일은 조용히 말하였다.
《동문 제딴에 의리를 지킨다는것인데 그건 참된 의리가 아니요. 강정익동지가 살아있대도 그런 의리에 대해선 머리를 흔들거요. 수령님의 혁명전사들은 그 어떤 의리를 지키기 전에 먼저 수령님에 대한 전사의 의리를 지켜야 하오. 난 산호가 수령님의 뜻과 거스르게 나간다면 용서치 않겠소. 동무도 명심하시오. 언제 어떤 환경에서든 수령님과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걸… 그리고 부위원장동

무는 이번에 강산호 신소건처리에서 사업원칙을 어긴데 대해 자기비판 준비를 잘해야겠소.》

《알겠습니다.》

《영천시 행정경제위원장을 부르시오.》

7

강산호는 김일의 앞에 머리를 푹 떨구고 서있었다. 열정이 넘쳐 불깃하던 그의 얼굴은 풀이 죽어 근육이 느슨해지고 부석부석했으며 쭉 버그러진 어깨도 축 처져보이였다.

김일은 산호를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말없이 보고있던 문건을 그냥 들여다보았다. 산호는 전전긍긍하여 하회를 기다리고있었다.

김일은 어디엔가 전화를 걸었다.

《…응, 종업원들이 다 발동되였구만. … 타자수처녀 혼자서 5키로를 수집했다구?… 지방에 있는 삼촌에게 가서 해왔단 말이지? 영희가 용쿠만. … 그만한 동이면 황해남도 인민들을 우리가 크게 도와줄수 있겠소. … 그럼 전선공장에 보내주어야지. …》

송수화기를 놓고 미소를 짓고있던 김일은 그제야 앞에 서있는 산호에게 생각이 미친것처럼 물끄러미 그를 응시하였다. 그러는 김일의 주름깊은 얼굴에서 인자한 미소는 어느새 사라지고있었다.

《동무가 무엇때문에 불리워왔는지 알고있소?》

김일의 엄한 물음에 산호는 흠칫 놀라 머리를 쳐들었다. 지금까지 산호가 김일에게서 동무로 불리워본적은 별로 없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데서는 언제나 자식 대하듯 너라고 허물없이 불러주었던것이다.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딱딱하게 부르는 《동무》라는 그 소리는 산호에게 이전의 모든 애정을 다 무시한다는 선포처럼 아프게 들리였다.

《알고있는가?》 김일의 목소리가 더 크고 엄엄하게 방을 울리였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산호는 주접들고 당황하여 황황히 말하였다.
《말해보오. 동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
《저는 인민들이 살림집에 비물이 새고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고생을 한다는것을 알면서도 돌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몇번 제기를 받았으나 대담하게 달라붙어 보수하려고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 제가 인민생활에 무관심했던탓이였습니다. 이제부터 채심하고 잘하겠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인민들로부터 신소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요?》
산호는 김일이 자기의 비판을 불만스러워한다는것을 느끼면서도 대답이 궁하여 머리를 떨군채 배밑에서 두손을 맞잡고 주물거리며 서 있었다.
《아직 결함의 본질을 찾지 못했소.》 하고 김일이 말하였다.
《아직도 동문 자기 결함을 실무적으로 보고있단 말이야. 뭐 인민생활에 무관심했다구?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구만.》
김일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는 창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내 산호동무에게 우리 수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소. 1958년도에 있은 일이요. 수령님께서는 평양시 건설부문 일군들을 만나 여러가지 문제를 토의하시다가 방안에 앉아서만 의논해서는 탁상공론이 될수 있다면서 그들을 데리고 거리로 나가시였소. 그이께서는 청년거리에 있는 한 다층주택으로 들어가시여 2층에 있는 한 세대를 찾으시였소. 그리고 그 집 주인아주머니와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시였지. 집안형편을 물어주시다가 집이 살기 좋은가고 물으시였소. 집이 좋다고 하는 주인아주머니의 말을 들으시고는 마루바닥을 손으로 짚어보시며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은 따뜻한 온돌방에 올방자를 틀고앉아서 며느리한테서 밥상을 받아야 사는것 같다고 했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소. 수령님께서 이렇게까지 허물없이 말씀하시자 주인아주머니는 어려움도 잊고 평소에 생각하던것을 그대로 말씀올리였지. 사실 그렇다고, 늙은 부모들을 모시는데다 갓난아이를 키우는데는 온돌방이 제일이라고…

주인아주머니의 이 말을 들으시고 그이께서는 수행한 일군들에게 〈어떻소? 아주머니의 말이 옳지 않소? 아주머니가 참으로 좋은 의견을 말하였소. 인민들이 좋다면 다 좋은것이요. 앞으로 다층주택들에도 온돌방을 놓을수 있는가 연구해보는것이 좋겠소.〉 라고 말씀하시였소. 그것은 다른 나라 살림집구조를 그대로 받아문 건설부문 일군들에 대한 비판이였고 건설에서 교조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주체를 확립하자는 선언이기도 한 귀중한 말씀이였소.

이어 수령님께서는 방안을 둘러보시더니 자를 찾으시여 손수 방안 길이와 너비를 재여보시고 멋없이 지내 길다고 하시면서 생활에 편리하게 적당히 막아주는것이 좋겠다고 가르치시기도 하시였소. 부엌으로 내려가시여서는 가시대와 찬장에 있는 그릇들과 쌀독, 창고까지 일일이 살펴보신 다음 부엌은 녀인들이 아이를 업고도 불편없이 일할수 있도록 넓게 하여야 하겠다는 말씀도 하시였소.

그리고 주인아주머니에게 더 제기할것이 없는가, 앞으로도 생각나는것이 있으면 서슴없이 당에나 관계일군들에게 의견을 제기하라고 이르시고 그 집을 나서시였소.

이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였소.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건설도 하고 혁명사업도 하는것인데 인민들의 의견과 생활형편을 몰라서야 되겠는가, 지도일군들은 밑으로 내려가고 밑에서는 우에 더욱 접근해서 모든것을 잘 상론해야 우리 일이 잘 펴나간다고…》

창을 등지고 산호를 향해 돌아선 김일의 얼굴에는 안타깝고 절절한 빛이 가득 어려있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산호동무가 우리 수령님의 슬하에서 큰 일군인데 수령님의 뜻을 너무나 모르고있기때문이야. 한 나라 수령께서 인민의 집을 찾으시고 생활형편을 료해하고 불편한 점을 풀어주자고 애쓰는데 동무는 신소를 받고서도 모르쇠를 해? 이게 어디 일군의 자세와 립장이 됐는가.》

김일의 말은 산호의 가슴을 저릿저릿하게 쑤시고드는것만 같았다. 산호는 자기의 결함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고있었다.

《우리 일군들이 수령님을 잘 받들자면 철저히 수령님을 따라배워야 해. 인민을 위하여! 바로 이것이 그이께서 제시하시는 모든 로선과 방

침, 모든 사색과 판단의 전반을 관통하고있는 사상이며 사랑이라는것을 잊으면 벌써 일군의 자격을 상실하는거요.》
《제가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산호는 더욱 깊이 머리를 수그리며 진심으로 말하였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싶으리만큼 자기자신이 수치스러웠다.
《동무는 단단히 비판을 받아야겠소.》
산호는 가슴속으로 차디찬 얼음덩어리가 떨어지는것만 같았다.
《비판을 받아야 하겠소.》라는 김일의 이 간단한 말에 담겨진 의미가 얼마나 큰것인지 누구도 다는 알수 없었다. 산호는 김일이 비판을 받아야겠다고 말하면 그건 벌써 일이 간단하게는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여러 간부들에게서 들었었다. 단순히 비판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수령님께 보고될수도 있었고 또 해임철직으로 이어질수도 있는것이였다.
산호는 허둥지둥 김일의 집무실에서 나왔다. 서기실에 있던 허룡이 그를 동정하여 찾았다.
《산호동지, 한대 피우고 가십시오.》
산호는 이마의 땀을 닦으며 허룡이 권하는 의자에 앉았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다. 허룡이 진성봉과 만경대혁명학원을 함께 다녔고 성봉이 형님처럼 산호를 따른 관계로 허룡과도 자연스럽게 사귀게 된것이였다.
《내가 크게 과오를 범한것 같소.》
산호는 담배를 붙여물며 말하였다.
《1부주석동지가 산호동지에게 대단히 노했습니다. 글쎄 지금까지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더라니까요.》
《그렇소?》 산호의 얼굴이 더욱 컴컴해졌다.
《그렇게까지 비관할거야 있습니까. 우선 자기비판을 허심하게 하십시오.》
《거야 여부가 있겠나.》

8

저녁어스름이 덮인 보통강 수면우에서 유보도가로등빛이 번쩍이며 흔들거렸다. 낮동안 휴식을 즐기는 시민들을 태우고 강우에서 떠돌던 유람선과 놀이배들이 강건너편에 바줄로 묶이여 물결우에 흥떡이고있었다. 강변의 공원의자우에는 주로 처녀, 총각들이 쌍쌍이 앉아 다정하게 속삭이며 때로 주위의 아무것도 꺼릴것 없다는듯 유쾌한 웃음을 터뜨리기도 한다. 이들과는 달리 은근한 사랑의 세계가 있다는것을 시위하기라도 하듯 중년부부들이 속삭이며 천천히 걸어가기도 하였다. 하여튼 저녁녘의 이 강변에는 혼자서는 걷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남녀로 짝을 지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군 한다.

그런데 그들모두가 다 유쾌하고 즐거운 낯을 하고있는것은 아니였다. 강변의 버드나무밑에 서있는 처녀와 총각, 다름아닌 한설미와 장현철이 바로 그러하였다. 그들은 싸움이라도 하듯 피차 잘생긴 얼굴들이 찌프러지고 저으기 심각하였다.

《어서 말해요. 난 오빠에게서 모든 질책을 다 들을 각오가 되여있어요.》

한설미는 번뇌에 지친듯 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장현철은 설미에 대한 불만과 노여움이 가슴속에 꽉 차서 씨근덕거리고있었다.

《어쩌면 네 심장은 그렇게도 차겁니? 난 믿어지지 않아.》

《예?》

설미는 눈물이 가랑가랑한 눈으로 현철을 쳐다보았다.

《내 심장이 차겁다구요?》

《그래, 너때문에 산호동지가 지금 김일동지에게 불리워올라와 얼마나 욕을 먹고있는지 알아?

결함이야 시정시키면 될것인데 구태여 불집을 일구어 괜히 좋은 사

람에게 허물을 줄 필요가 뭐란 말이야?》
《그분의 일은 나도 가슴아프게 생각해요. 하지만… 난 량심이…》
《자꾸 량심을 거들지 말라. 그럼 나나 우리 아버진 량심이 없는 사람인가.》
《비웃지 말아요.》 설미가 야무지게 내쏘았다.
《아직도 속은 살아서…》
성이 나면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현철이가 더욱 화가 나서 소리쳤다.
《설미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피해를 입게 되였단 말이야.》
《오빠, 그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버지도 산호동지를 비호한것때문에 당조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있어. 사실 아버지야 항일혁명투사의 후손인 산호동지를 구해주려고 노력했을뿐인데… 문제가 섰단 말이야.》
《사실이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때문에 거짓말을 꾸며대겠니? 난 거짓말을 할줄 모르는 사람이야. 네가 그런 제기를 취소하기만 했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벌어지지는 않는건데… 생각할수록 네가 원망스럽단 말이야.》
설미는 머리를 돌려 검푸르게 일렁거리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현철의 아버지 장종학의 유정한 모습이 눈앞에 선히 그려졌다.
현철오빠의 집에 놀러가 혹 만나게 될 때마다 참으로 인정깊게 대해주던분, 나에게 제 손으로 탐스러운 사과를 담은 다반을 들고와서 어서 먹으라고 권하던 그 일도 잊을수 없다. 그때 제 손으로 사과를 깎아주기까지 하면서 뭐라고 말하였던가.
《설미야, 우리가 너에게 바라는건 진실한 사랑뿐이란다.》
아, 난 얼마나 행복한 녀자인가. 이런 사람을 시아버지로 모신다는건 참말 녀자의 행운이라고 생각하였었지. 아버지도 이제 시집가면 현철오빠의 아버지를 잘 모셔야 한다고, 현철의 아버지는 함께 싸운 전우와 같다고 하시지 않았던가.
그런데 나때문에 피해를 입었단 말인가.
설미는 이윽히 뒤설레이는 강물을 바라보고있었다. 다음순간 그는 자기의 행복한 결혼생활의 꿈이 실린 배가 뒤집어져서 어두운 강물속으로 가라앉아버리는 환각을 보는것만 같았다.

(그래, 나의 차거운 심장때문에 그 모든 일이 벌어졌단 말이지?)
현철의 분노가 서린 목소리가 계속하여 칼날처럼 가슴에 날아와 박히였다.
《무슨 녀자가 그래? 남자 말을 귀등으로 흘려보내는것도 괘씸하지만 더 참을수 없는건 녀자가 너무 모질다는거야.》
(난 평생 저런 말을 들으며 살아야 하지 않을가? 그건 정말 싫다. 시아버지가 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원망하고있겠는가. 일이 이렇게까지 번져질줄은 난 몰랐지.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친다더니 결국은… 꿈에서 깨여날 때가 되였구나. 아, 난 모질게 살고싶진 않았다. 다만… 다만 내가 바란건 참된 삶이였지.)
설미의 두볼로 눈물이 흘러내리였다.
현철이와 알게 되여 사랑하면서 흘러온 지난날들이 영화화면처럼 눈앞에 흘러갔다.
아, 오누이처럼 다정하게 시작된 인연, 점차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충실하게 가꾸어온 소중한 나날들이였다. 내 얼마나 현철오빠를 사랑했고 그 또한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었던가. 특히 잊을수 없는건 아버지가 철직되였을 때 뜨겁게 사랑해주고 고무해주던 오빠의 그 마음이였다. 그런데 결혼을 앞에 둔 이제 와서는 내가 그에게 환멸스러운 존재로 되여버렸단 말인가. 그것도 시아버지가 될분에게까지 피해를 준 녀자로 되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혀아래소리로 사죄하고싶지는 않았다. 지금의 자기를 리해하여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온 날보다 더 길게 이어질 앞날을 함께 살아갈수 있을것인가.
설미는 현철의 얼음같이 찬 목소리와 태도를 받아들일 심장이 자기에게는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있었다. 물론 현철의 발끈해진 성이 누그러지고 다시금 살뜰해질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 오늘의 일을 현철이나 그의 아버지가 상기시킬는지 누가 알수 있단 말인가. 어쨌든 자기의 처사로 하여 현철에게 아픈 못을 박았음을 설미는 인정하였다.
《오빠, 날 용서해요. 더는 오빠나 오빠 아버지를 볼 낯이 없어요.》
설미는 설음이 자꾸만 목구멍을 틀어막는 바람에 가까스로 말하였다.

《내 말이 지나쳤다면 용서해.》
현철은 설미의 눈물앞에서 당황해졌는지 말투를 눅치였다.
(이젠 다 쑤어놓은 죽인데 자꾸 설미를 탓해서 무얼하랴.) 하고 현철은 생각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생활에서 참작은 하란 말이야.》
《알겠어요.》
설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지막이다. 더는 이렇게 만날 날이 없을것이다. 행복은 더는 찾아오지 않을것이다.)
울지 않으려고 하여도 소용이 없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현철이와 작별하고있었던것이다.
《됐어, 그만해.》
현철은 북받치는 동정을 이기지 못해 처녀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그런데 이전처럼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쩐지 서툴고 어색하게 느껴졌다.
아, 취소한다는 한마디 말을 하기가 이 처녀에겐 그렇게도 힘든것이란 말인가. 리해할수 없는건 처녀의 마음이로구나.
현철은 한숨을 내쉬였다. 그는 설미가 원망스러우면서도 그를 사랑하고있었다.
《난 그만 가봐야겠어요.》
설미가 얼마간 마음이 진정된듯 자세를 바로하고 현철을 바라보았다.
《왜 좀 더 있다가 가지.》
《아니, 가야겠어요.》
《내가 좀 욕했다고 시뜩해졌구만. 좋아, 내 바래주지.》
《필요없어요. 나 혼자 가겠어요.》
설미는 머리를 까딱 하고나서 돌아섰다. 몇걸음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현철을 보았다.
《현철오빠를 나쁘게 생각지 않겠어요. 건강하세요.》
설미는 홱 몸을 돌려 눈물을 훔치며 반달음을 놓았다. 순간 현철은 그 어떤 불길한 예감을 느끼면서 소리쳐불렀다.
《설미.》
벌써 설미의 자태는 어둠에 가리워 보이지 않았다. 옆의 의자에서 처

녀, 총각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현철은 왜선지 어리둥절하여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는 어찌나 화가 나서 설미와의 대화에 열중하였던지 지금까지 자기들의 곁에 행복한 한쌍의 젊은이들이 앉아서 열렬하게 속삭이고있었다는것을 잊고있었던것이다.

9

강산호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어느 한 방에서 수령님의 교시와 로작학습을 하면서 자신의 지난날을 돌이켜보았고 어떻게 되여 과오를 범하게 되였는가를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그것은 마치 목적지를 향해 질풍같이 질주하던 기마수가 문득 자기가 길을 헛들었다는것을 깨닫고 달려온 길을 돌이켜보고 어디서 길을 잃었던가를 따져보는것과 비슷한것이였다.

그가 중견급간부로 사업한이래 이처럼 자신을 반성해볼 기회는 거의나 없었다.

아버지가 수령님께서 기억하시고 김일동지와 각별히 가까왔던 항일혁명렬사라는것을 알게 된 이후 산호는 반석같은 그 무엇이 자신의 뒤를 받쳐주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산호에게는 완강한 의지와 전개력이 있었다. 하여 그는 맡겨진 혁명과업들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당의 신임은 나날이 두터워져갔다. 그속에서 그는 자신의 힘과 영민한 재능을 자부하게 되였고 어언간에 자신의 존재를 더 높이, 더 널리 시위하고싶은 공명심이 싹트게 되였다. 그것은 영천시 행정경제위원장으로 부임된 후에 더욱 불타올랐다. 그는 온 나라에 소문내는 일군이 되고싶었고 하여 우리 수령님께서 사랑하시는 일군이 되고싶었다.

이러한 때 그는 영천시의 온천에 치료차로 내려왔던 전력공업부 부부장을 하는 간부와 가깝게 사귀게 되였다. 다문박식한 그 사람에게는 얻어들을 소리가 적지 않았는데 그는 산호를 위해 여러가지로 조언을 주

기도 하였다. 나이지숙한 그가 어떻게 되여 산호에게 정을 느끼게 되였는지는 알수 없었으나 그는 진심으로 산호를 도와주고싶어했던것이다.
하루는 그와 산호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고갔다.
《자네 이 온천지구를 잘 꾸려보게. 여기 온천은 유명하니 각지에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지 않나. 눈이 번쩍 뜨이게 료양소와 휴양소를 일신시켜보라구. 누구나 이걸 해낸 사람을 두고 이야기할걸세.》
《사실은 아빠트보수에 대한 의견이 제기돼서 그 보수공사를 하자던 참이였습니다.》 하고 산호는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난 자네를 생각해서 조언을 주는거야. 사실 그건 별로 빛이 나질 않아. 그 아빠트를 자네가 건설했나?》
《아닙니다. 이전 위원장시절에…》
《그것 보게. 그 사람이 이른바 공을 세우고 물러난 다음 자네가 뒤치닥거리를 한다는게 좀 억울하거던. 온천지구를 꾸리는것도 인민을 위한 일이라는걸 명심하라구. 한개 군의 인민들보다 온 나라 인민들에게서 호평을 받으면 나쁠게 없지 않은가.》
전력공업부 부부장의 말에서는 진정이 느껴졌고 또 랭정한 진실이 깃들어있는것만 같았다. 그리고 산호의 공명심을 만족시켜줄 알맹이가 금도금처럼 번쩍이였다. 결국 산호는 주민들에게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낯을 낼수 있는 사업들에 더욱 열중하게 되였던것이다.
학습을 하는 동안에 자기를 꾸짖던 김일의 모습이 자주 눈앞에 떠오르군 하였다. 아, 얼마나 분노한 모습이였던가. 지난날에는 들을수 없었던 차디찬 그 목소리… 산호는 괴로운 심정으로 한숨을 내쉬였다.
(응당한 대접을 받는거지. 아버지는 아버지이고 나는 또 나대로의 한 인간이니까.)
김일이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며 절절하게 말하던 말마디들은 마치 식지 않는 숯불처럼 그냥 가슴에 남아 불타면서 그의 깨끗치 못했던 정신세계를 환히 비쳐주는것만 같았다. 진실과 진리는 바로 김일이 가슴에 심어준 황황 타는 그 불속에 있었다. 그 불은 산호의 정신에 종양처럼 생겨난 불순한 야심을 아프게 지지면서 태워버리고있었다. 그것이 모진 진통을 동반하는것이여서 그는 속으로 신음소리를 내였다.

자신이 인민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자신을 더 생각하였고 인민의 머리우에 군림한 관료배처럼 되고말았다는 뉘우침이 몽둥이마냥 호되게 머리를 쳤고 자신에 대한 쓰디쓴 환멸감이 펄펄 뛰던 자부감을 죽여버리고 허우룩해진 그속에 돌덩이마냥 들어차는것만 같았다.

사람의 사상정신상태는 가변적인것이여서 그 누구도 앞날을 담보하지 못한다. 자기과신에 사로잡히고 도취되면 변질되는것은 순간이였다. 60년대말에 한영덕의 과오를 두고 가슴아파하던 바로 그 강산호가 수령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는 인민을 무시하는 과오를 범한것이였다. 이에 대해 산호는 사무치게 뉘우치고 절감하였으며 하여 누구앞에서도 머리를 쳐들수가 없었다.

고통스러운 며칠이 흘러갔다. 산호는 퇴근시간이 되면 려관으로 가서 저녁식사를 하고 휴식하군 하였다. 그는 저녁을 먹고싶은 생각이 나지 않아 려관방에 멍히 앉아있었다.

그는 자신이 인차 해임될것임을 각오하고있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좀 늦어지는것만 같았다. 아픈 매를 기다리는것은 실지 매를 맞는것보다 더 참기 어려운것처럼 그의 고민도 한계점을 가까이 하고있었다.

저녁식사를 앞둔 시각이여서인지 자기에게 밥을 차려주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어린애였던 자기를 데려다키운 그 어머니를 사랑하였다. 산호에 대한 당의 신임이 두터워질수록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는것은 어머니였다. 녀인은 산호를 키운 보람을 느끼였고 산호의 눈부신 발전에서 지난날의 온갖 고뇌를 잊고있었다. 산호는 어머니의 대견한 웃음을 보는것이 기꺼웠고 어머니를 더 기쁘게 해드리고싶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과오를 범하고 해임되였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머니는 얼마나 실망할것인가. 자기는 아무리 혹독한 처벌을 받아도 달게 감수할것이지만 어머니에게 타격이 가해질것이 무서웠고 그 생각은 가슴을 아프게 허비였다.

이때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산호는 뿌옇게 흐려진 눈으로 출입문을 돌아보았다. 허룡이 방에 들어왔다.

《산호동지, 혼자 방에 앉아 뭘하고있습니까?》

《뭘하긴… 그저 고독에 잠겨있을뿐이야.》

《어서 일어나십시오. 1부주석동지가 부릅니다. 자, 갑시다.》

《무슨 일이요?》

《가보면 알게 아닙니까? 빨리 갑시다.》

(결판이 내려졌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산호의 머리속에 떠올랐다.

(하기야 더 물을것도 없지. 가보면 알게 될테지.)

그는 허룡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갔다. 승용차는 뜻밖에도 김일의 저택으로 들어갔다. 희여진 머리칼을 단정하게 빗어넘겨 뒤로 쪽진 허창숙이 비록 주름살들이 많긴 하지만 깨끗하고 부드러워보이는 얼굴에 밝은 웃음을 짓고서 산호를 맞이하였다.

《령감이 반가운 손님이 온다더니 산호였구나. 어서 들어가자.》

산호는 허창숙의 안내를 받으며 응접실에 들어가 쏘파에 앉았다. 벽에 붙어있는 폭이 큰 그림, 수령님께서 김일에게 보내주신 선물인 유화가 별로 의미깊게 산호에게 안겨왔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장군님께서 산중의 밀영에서 김일에게 임무를 주시는 장면을 형상한 유화인데 산호에게는 왜서인지 그때처럼 현재의 김일이 수령님앞에서 그 어떤 과업을 받고있는 모습이 그림우에 겹쳐서 떠오르는것이였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숭엄해져서 앉아있노라니 장현철이가 들어섰다. 어쩐지 현철이는 풀이 죽어 시무룩해진 인상이였다. 산호와 현철은 놀라는 눈길로 마주 쳐다보았다.

《산호아저씨,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산호는 현철의 물음에 머리를 흔들었다.

《아저씨, 안됐습니다.》

현철은 미안한 어조로 말하면서 산호의 곁에 앉았다.

그런데 산호는 현철이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도저히 리해할수가 없었다. 하여 그는 의아한 눈길로 의기소침해진 현철을 바라보고있었다.

《네가 안될게 뭐 있니? 다 내가 잘못을 저지른탓인데…》

《그래도…》

이때 밖에서 승용차가 와멎는 소리가 들리더니 김일이 응접실에 들어왔다. 그는 덤덤한 눈길로 방안의 사람들을 휘둘러보더니 현철에게 물었다.

《왜 설미는 데려오지 않았느냐?》

현철은 고개를 숙이며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말하였다.

《설미는 나와 함께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건 또 무슨 도깨비같은 소리야?》

《그저 그럴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일은 속으로 짐작되는바가 있는지 더 캐여묻지 않았다.

《아버지는 뭘 하시냐?》

《아버지는 몸이 좀 불편해서 누웠습니다.》

김일은 어두운 안색으로 머리를 끄덕이였다.

잠시후 어둠이 깃든 저택마당에서 모닥불이 타오르고 그 주위에 김일과 허창숙, 허룡서기, 림병욱부관, 산호, 장현철이 앉았다. 그들속에 김일의 집에서 자라고있는 진성봉의 맏딸인 진수련이 끼여있었다.

모닥불속에 묻은 감자가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익어가고있었다.

《산호가 오래간만에 평양에 올라오고 또 래일은 떠나가야 하기때문에 감자구이라도 함께 하자고 불렀다.》

김일은 여전히 소심하고 송구한 낯빛을 하고있는 산호에게 말하였다.

산호는 불시에 김일의 다심한 정을 느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야 이젠 다된 놈인데 이렇게까지 날 생각해주다니…)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현철이 아버지와 한설미도 불렀는데 다 사정이 있어 오지 못했으니 할수 없지. 현철이, 네가 좀 섭섭할수 있는데 후날 또 모여앉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끼리 감자구이를 하는수밖에…》

밤하늘에 금싸래기들을 쥐여뿌린듯 한 뭇별들이 정원에 타오르는 모닥불을 시샘하듯 반짝거리는데 모닥불은 그 뭇별들을 무시하듯 너울너울 타며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각이한 얼굴을 비쳐준다. 대체로 심중한 얼굴표정들인데 유독 좋아서 방실거리는것은 12살에 잡히는 진수련이였다.

김일이 분위기를 눅치고싶은듯 웃는 얼굴로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뜻밖의 질문이여서 누구도 대답을 못하고 서로 쳐다볼뿐이였다.

《산호가 한번 말해보게. 시위원장을 하면서 잘 먹었을테지? 아래사

람들이 위원장대접을 소홀히 하지 않았을거란 말이야.》
산호는 얼굴을 붉히였다.
《뭐 특별하게… 난 뭐 이렇다 하게 맛있는걸… 난 그만하면 소박합니다.》
산호가 갑자르며 하는 말에 좌중의 사람들이 웃음을 터치였다.
《그러면서도 대감이란 소릴 듣는단 말인가?》 김일이 호방하게 껄껄 웃었다.
《난 아무리 봐도 산호동무에게서 대감같은데를 찾지 못하겠는데요.》 하고 허창숙이 말하였다.
《우리 시대의 대감은 옛날처럼 요란한 관모를 쓴것도 없으니 뭐 외형상에선 특별히 나타나지 않소. 그리고 나라에서 씌워주는것이 아니고 인민들이 일부 간부들에게 그런 모자를 씌워주는데 그땐 그 대감칭호를 받은 간부는 자신이 당의 신임을 저버렸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거지.》
김일의 말을 듣고 산호는 귀뿌리가 화끈 달아올랐다.
《전 행정위원장자격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하고 어린 진수련이 당돌하게 화제속에 끼여들었다.
《난 대감은 못되여도 무엇이 제일 맛있는지 알아요.》
《그래 뭐냐?》
《그건 바나나예요.》
그러자 좌중에서 다시 웃음이 터졌다.
《아니, 고작 짚는게 바나나란 말이야?》 하고 현철이가 진수련에게 퉁을 주었다.
《왜, 바나나가 어때서요? 오죽하면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겠어요.

…
새빨간건 사과
사과는 맛있지
맛있는건 바나나
…

어때요?》
좌중에는 순간에 즐거운 화기가 흘렀다. 김일이 곁에 앉은 수련의 등을 두드려주었다.
《우리 수련이가 아직 아이는 아이로구나.》
그러면서도 김일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유격근거지의 아동단원들이 혁명가요를 많이 불렀지. 참 듣기 좋았댔어. 우리 애들이 잰내비가 어떻고 바나나가 어떻다는 동요보다는 아동단원들이 부르던 혁명가요를 즐겨부르게 해야지. 교육부문과 사로청일군들에게 주의를 주어야겠어.)
이윽고 김일은 다시 말을 이었다.
《난 가랑잎 타는 냄새가 제일 맛이 좋더구나. 수령님의 신임으로 높은 직책에서 사업하느라니 국가연회에도 많이 참가했고 또 외국방문시 그 나라 사람들이 자랑하는 여러가지 료리들도 맛보았다만 잊을수 없는건 이 가랑잎 타는 냄새야.》
김일은 장작가치 한개를 들고 모닥불을 헤집으며 감자들을 골라내였다.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가랑잎이라도 태우면 덥힌 물이라도 먹을수 있었지. 나무할 틈도 주지 않는 왜놈들과 싸우다나니 가랑잎을 모아가지고 짧은 시간에 피우던 그 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른다.》
산호는 김일의 말에 깃든 큰뜻이 리해되면서 머리가 숙어졌다. 그것은 항일의 혈전만리가 얼마나 간고했는지를 깨우쳐주는 말이였다.
《이젠 감자가 익었나부다. 모두 먹어보자구.》
김일은 익은 감자 한개를 산호의 손에 들려주었다. 자기도 한개를 들고 굵은 소금알을 뿌리면서 말하였다.
《감자구이에는 이런 소금이 제격이지. 소금의 진맛을 알아야 사람구실을 해.》
김일은 소금을 찍은 감자를 한입 베여먹었다. 그런데 산호는 어쩐지 목이 메여와서 감자를 제대로 먹을수가 없었다.
《산호가 비판서를 여러번 썼는데 그만하면 자기 결함을 찾았다고 본다. 그래 이제 내려가면 어떻게 하겠니?》
《문제로 된 아빠트들의 보수를 다그쳐 하루빨리 끝내겠습니다.》

《아니다. 우선 첫 공정으로 시민들에게 자신이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 죄를 진데 대해 사죄해야 한다.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예. 시민들앞에서 자신의 결함을 비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 넌 수령님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인민을 우습게 여겼지. 그걸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들이 용서하고 개심할 기회를 줄 때라야만 넌 자기 사업에 착수할수 있을것이다.

내가 그동안 그 아빠트문제해결방도도 생각해봤는데 한번 들어봐라. 화를 복으로 만들어야 한다. 난 그 4층짜리 아빠트들을 증축하는게 어떨가 한다. 설계전문가들과 토론해봤는데 2층을 더 올려도 일없겠다고 하더라. 시민들의 주택문제도 해결하고 지붕공사도 새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이건 내 욕심이고 네가 한번 전문가들과 구체적으로 타산해봐라.》

산호는 눈물이 절로 솟구치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난 그동안 자신의 처벌문제만 생각하고있었는데 김일동지는 아빠트문제를 풀 방도를 생각하고있었구나.

《현철이가 쟁쟁한 설계가이니 산호위원장을 따라내려가서 도와주거라. 네가 소속된 기업소에는 내가 토론해보겠다.》

모두 감동된 표정으로 김일을 보는데 그의 말은 계속되였다.

《산호는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우선 자신을 그 어떤 특수한 존재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과오의 시작으로 된다. 너희들은 어디 가든 자신이 혁명가유자녀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자신을 내세우려는것이고 그 어떤 인정을 받으려는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털어놓고말해서 산호가 정익동지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번에 범한 잘못을 그렇게까지 엄중시하지 않을수도 있었다. 장종학동무도 그런 제기를 했었지. 하지만 난 네가 다름아닌 수령님께서 아시는 항일혁명렬사의 후손이기때문에 더욱더 너를 관대히 보아줄수가 없었다.》

김일은 아직도 기세좋게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았다. 이글거리는 모닥불속에 항일무장투쟁시기 산에서 숙영하던 유격대원들의 모습이 어려왔다. 장군님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조국을 그리며 노래를 부르던 대

원들, 장군님을 모시고 기어이 조국으로 가리라고 굳게 다지던 유격대원들의 그 맹세가 숙영지의 모닥불로 되여 타오르는것만 같았었다.

(내가 너희들에게서 바라는게 뭐겠니? 항일혁명투사들의 그 정신을 고스란히 간직해가라는거지. 백두의 혁명정신을 잊지 말라는거지.)

김일은 모닥불에 장작가치를 덧놓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혁명가라고 해서 자식들이 저절로 혁명가가 되는것은 아니며 혁명가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혁명가로 자라나는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체의 혈통이란 생물학적인 혈통이 아니라 사상의 혈통이며 주체형의 피라는것은 육친적인 피가 아니라 수령님께서 부어주신 사상의 피, 신념과 의지의 피이다. 이것은 언제인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명제이다.

오직 자각적이고 의식적인 사상수양과 혁명적인 단련과정을 거칠 때에만 부모들이 걸어온 충성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나갈수 있으며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갈수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것은 바로 그것뿐이다. 덧붙여 말한다면 나도 수령님의 사상의 피를 이어받은 그이의 아들이고 전사이다. 난 지금껏 수령님께서 주신 이 혈통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해 투쟁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것이다.》

산호에게는 문득 몇년전인가 김일이라는 이름에 깃든 사연을 물었을 때 김일이 한 말이 떠올랐다.

《네가 알고있는것처럼 김일이란 이름은 수령님께서 지어주신것이다. 김이라는 성은 수령님의 성을 받았고 일이란건 하나를 의미하는것이다. 수령님께서는 내가 혁명 하나만을 알고 살라고 김일이라는 이름을 주신것이였다. 나는 자신이 김일로 불리우는것을 최상의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고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수령님은 민족의 구세주이고 혁명의 수령이실뿐아니라 나에게 피를 주고 생명을 준 부모와 같은분이시다. 때문에 나는 수령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

산호는 사위여가는 모닥불빛이 얼른거리는 김일의 엄숙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가 자기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빛내이고있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되였다.

(이분은 결코 다르게는 살수 없는 그런분이다!)

산호는 불냄새가 별로 구수하게 느껴졌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군감자가 다시 맛보기 어려운 진미처럼 여겨지는것이였다.

《내려가기 전에 장아저씨를 만나보거라. 그 사람이 산호를 관대히 봐주자고 하기에 내가 비판을 좀 했단다. 아마 지금 괴로워하고있을게다.》

김일은 이렇게 산호에게 말하면서 장종학의 여윈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고있었다.

(좀 아프겠지. 허나 그만큼 앓아보는것도 나쁘지는 않을것이다.) 하고 김일은 생각하고있었다.

한식경이 지나 김일의 저택을 나선 산호는 김일이 일러준대로 장종학의 집을 찾았다. 김일이 말하지 않아도 장종학을 만나보려는 생각은 이미전부터 하고있었었다. 자기때문에 되게 비판을 받았는데 모르는척할수가 없는 산호였다.

(다 나때문이다. 내가 제구실을 못하여 장아저씨까지 신경을 쓰게 만들었지.)

현철이가 설미를 만나보겠다고 하는 바람에 산호는 혼자서 종학의 집으로 갔다. 종학을 생각하노라니 해방직후 림의호의 테로에 의해 허창숙이 부상당하고 어린 아들애가 죽은 다음 장종학이 산호가 의호를 집에서 재웠다는것까지 알게 되자 성이 나서 귀뺨을 후려치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산호는 종학이 그때처럼 자기의 뺨을 후려갈겼으면 속이 후련할것만 같았다. 그렇다고 철없던 지난날처럼 죽고싶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것이다. 오히려 《고마워요, 날 더 세게 때려주세요.》라고 빌것만 같았다.

산호가 집에 들어가보니 장종학은 침대에 누워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디 앓습니까?》 산호는 놀라서 침대맡에 앉으며 종학의 팔을 잡았다.

종학은 산호를 보자 놀란듯 벌떡 일어나앉았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헐끔하니 살이 빠지고 창백하였다. 그동안 종학이 얼마나 고민하였는가가 잔주름투성이의 그 여윈 얼굴이 다 말해주고있었다.

《그래, 어떻게 처리를 받았나?》

《관대하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인민들에게 사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종학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의 얼굴에는 안심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럼 됐어. 다시 그런 결함을 반복하면 용서받지 못해, 알겠나?》
《이번에 심각하게 나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앞으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될 결심입니다.》
《좋아, 1부주석동지도 다 자네를 생각해서 더 크게 문제를 본거야. 강정익동지에 대한 의리를 그렇게 지키는거지.》
《알고있습니다.》
산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얼굴을 옆으로 돌리였다.
이윽고 그는 종학에게 물었다.
《그런데 어디 앓고있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마음이 아파 앓는거야.》 종학은 시름에 겨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종학은 김일에게서 별도로 되게 비판을 받은 후에 중앙인민위원회의 당원들앞에 나서서 자기비판도 하고 당원들에게서 비판도 받았다. 지금까지 별로 큰 과오도 없어 큰 비판무대에 나서본적이 없었던 그로서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아저씬 혹시 1부주석동지를 원망하고있지 않습니까?》 하고 산호가 물었다.
《내가 왜 그분을 원망하겠나. 그분이야 원래 원칙이 칼날같은 사람인걸. 내 순간이나마 그걸 망각하고 얄팍한 인정을 기대하려 했으니 욕을 먹어도 싸지.》
산호는 김일의 집에서 감자구이를 하면서 오고간 이야기를 하였다.
《아저씨도 왔을걸 그랬습니다. 김일동지가 섭섭해하시더구만요.》
《섭섭해한다구?》
장종학은 미덥지 않은 눈길로 산호를 쳐다보았다.

제 5 장

1

김일은 너부죽한 얼굴에 밝은 웃음을 띠우고 한영덕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있었다.

《이젠 산골마을에도 다 전기가 들어갔단 말이지?… 인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당에 감사를 드리고있다면 더 바랄게 없지 않소?》

《그렇습니다.》

송수화기에서는 한영덕의 굵직하고 잘 울리는 목소리가 기분좋게 울려나오고있었다.

《1부주석동지, 전기선을 해결해주어서 고맙습니다. 내 중앙인민위원회에서 파동수집운동을 벌렸다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영덕동무가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었다면 나도 기쁘오. 수령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소. 내 보고드리겠소.》

한영덕과의 전화를 끝낸 다음 김일은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그는 나라의 전력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이 많이 일떠서면서 전력수요는 계속 높아지는데 나라의 발전능력이 그에 따라서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는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기 위해 발전소건설을 다그쳐야 한다고 여러차례에 걸쳐 경제부문 일군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고계시였다. 그이께서 산골마을들에 전기가 들어갔다는것을 아시면 필경 기뻐하실테지만 나라의 전력사정을 두고 더욱더 마음을 쓰시게 될것이라고 생각하니 어쩐지 주저되였다.

그러나 실태를 그대로 보고하는것이 전사의 자세이라고 생각한 그는

그날 저녁 수령님께 한영덕이 한 일에 대하여 전화로 말씀올리였다.
《한영덕동무가 역시 괜찮은 동무요.》 하고 수령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사람이 채심하고 달라붙으니 본때있게 일을 제낀단 말이요. 인민경제대학에서 공부시키길 잘했소.》
김일은 뜨거운 격정에 사로잡히였다. 어느 일군이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했다는것을 아시면 제일로 기뻐하시는 수령님, 더우기 지난날 자신과 함께 싸워왔고 또 과오를 범하여 걱정도 끼쳐드렸던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그 사실이 무엇보다 그이를 기쁘게 했으리라.
《영덕동무에게 내 인사를 전해주시오. 비판을 좀 받았지만 사실 영덕동무는 인민군대의 강화발전과 혁명을 위해 공로를 많이 세운 동무입니다. 일을 하느라면 실수할 때도 있고 비판도 받게 되는거지요. 완성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란 비판을 받으면서 발전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지난날을 돌이켜보아도 전쟁시기에도 그렇고 사회주의건설시기에도 수령님의 뜻을 잘 받들지 못하여 걱정을 끼쳐드리고 비판도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난 김일동무에 대해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가만… 한영덕동무 생일이 박두한것 같은데… 내 기억이 틀림없다면 아마 이달 25일일거요.》
김일은 수령님의 사랑과 비상한 기억력에 감동되여 가슴이 시큰거리였다.
《옳습니다. 이달 25일입니다.》
《글쎄 그렇다니까. 영덕동무를 평양에 불러다 생일상도 잘 차려주고 축하도 해줍시다.》
김일은 두손으로 정중하게 받쳐들었던 송수화기를 놓고나서도 감격에 사로잡힌채 그 자리에 서있었다.
(이처럼 크고도 다심하신 사랑을 베풀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서 우리 전사들이 한목숨 서슴없이 내던진들 무슨 한이 있겠는가.)

한주일후에 수령님을 모시고 당중앙위원회 경제일군협의회가 열리였는데 여기서 전력문제가 다시금 중요하게 론의되였다. 이 자리에 김일

도 참석하였는데 집행석에서 말씀하시는 수령님의 어두운 안색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긁었다.

《…화력발전소건설을 다그치고 발전설비들의 보수정비를 잘해야 합니다.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최근에 계속 가물이 들어 수력발전소들을 만부하로 돌리지 못하고있습니다. 올해갈수기에 전력부족으로 공장들을 제대로 못 돌렸습니다. 래년도에도 우려됩니다. 전기가 인민경제의 생명선입니다.》

회의실에 모여앉은 일군들은 무거운 표정이 어린 얼굴들을 수긋하고 수령님의 말씀을 사업노트에 적고있었다.

수령님께서는 발전소들의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면서 계속하여 말씀하시였다.

《기존설비로 다음해 전기문제를 풀기 위한 주공대상은 북창화력입니다. 새 건설로서는 다음해 청천강화력발전소와 웅기(당시)화력발전소의 조업을 당겨야 전기문제가 해결됩니다. 청천강화력발전소는 올해말까지 1호기와 3호기를 먼저 조업해야겠는데 지금형편을 보면 긴장합니다.》

수령님께서 그 건설을 발기하시고 몸소 현지에서 터까지 잡아주신 청천강화력발전소는 공사가 시작된지 몇해 잘되였지만 아직까지 조업을 못하고있었다.

(내가 경제사업을 맡아보던 총리시절에 일을 쓰게 하지 못한 후과가 아니겠는가.)

김일이 이런 자책에 잠겨있는데 수령님께서는 좌중을 둘러보시며 저력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씀하고계시였다.

《…다음해 전력문제를 풀 방도는 명백합니다. 지시문이 중요한게 아니라 조직사업이 중요합니다. 화력건설과 발전설비보수정비를 다그치기 위해 발전소들에 전권대표를 파견하여야 합니다. 전권대표는 발전소건설과 발전설비들에 대한 보수정비를 직접 틀어쥐고 모든 사업을 다음해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돌격전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

(내가 수령님의 어깨에 실린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맡아나서야 한다. 내가 할 도리를 해야 한다.) 하고 김일은 마음속으로 다짐하였다.

수령님께서 각 발전소들에 전권대표로 파견할 일군들에 대해 언급하

시자 김일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정중히 말씀올리였다.

《수령님, 저를 청천강화력발전소에 보내주십시오.》

수령님의 얼굴에는 놀라는 기색이 어리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도리머리를 저으시였다.

《김일동무는 건강이 좋지 않은데 그만두는게 좋겠소.》

《일없습니다. 제가 올해안으로 발전소조업을 하도록 내밀겠습니다.》

수령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자 김일은 속이 달아올라 다시금 절절하게 제기하였다.

《나라의 전력사정이 긴장한 이 시각에 1부주석이 사무실에나 앉아있어서는 뭘하겠습니까. 전 아직도 기력이 살아있습니다. 얼마든지 전권대표로서의 사업을 감당할수 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김일의 건강이 우려되시는듯 심중한 안색으로 그냥 그를 바라보시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할수 없지. 김일동무가 일단 결심하고 나섰으면 그땐 나도 별수 없소.》

그이께서는 미소를 띠우시였다. 김일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변함없이 믿음을 주시는 그이께 고마움의 인사를 마음속으로 올리였다.

《하지만 김일동무는》 하고 수령님께서는 안심이 되지 않으시는듯 강조하시였다. 《절대로 자기 몸을 혹사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여 김일은 청천강화력발전소건설장에 전권대표로 나가게 되였다.

한영덕의 부부가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양으로 올라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나서시여 한영덕의 생일상을 훌륭하게 차리도록 조치를 취하시여 그들부부는 옥류관에서 60돐생일상을 받아안게 되였다. 항일투사들을 비롯한 동지들이 함께 생일잔치에 참가하여 영덕을 축하해주었는데 김일은 그날 수령님의 선물인 그이의 존함이 새겨진 손목시계를 그들부부에게 전달하였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한영덕에게 김일은 뜨겁게 당부하였다.

《수령님을 위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충성을 다합시다.》

김일이 밤이 되여 집으로 돌아오니 맏손자 박광선이 찾아와 기다리고있었다.

《네가 오래간만에 우리 집에 왔구나.》

김일은 대견스런 눈길로 대학생복을 입은 광선의 아래우를 훑어보았다.

외할아버지 정두환을 닮은 광선은 후리후리한 키에 얼굴의 이목구비도 또렷하고 영민한 미남자로 자랐다. 광선은 씩 웃으면서 말하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자강도에 3대혁명소조로 파견되게 되였습니다. 집떠나기 전에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자고 왔어요.》

《우리 광선이가 벌써 대학을 졸업하게 되였구나. 세월도 빠르군.》

김일은 광선에게 식사를 시킨 다음 그를 데리고 저택을 나섰다.

《광선아, 너 생각나니? 만수대대기념비를 건설할 때 네가 날 많이 따라다녔댔지. 어떤 땐 네가 현장에서 로동자들의 일손을 도와주고 밤에 나랑 같이 지휘부에서 자기도 했고…》

김일은 깊은 감회가 어린 눈으로 만수대대기념비를 바라보았다.

《그때 일이 기억에 생생해요. 지휘부에 있던 한사람이 나에게 할아버지의 〈꼬마부관〉이라고 했지요.》 하고 광선은 말하였다.

김일은 집안의 그 누구보다도 이 맏손자를 사랑하였고 그의 장래를 크게 기대하고있었다.

잠시후 김일은 맏손자와 함께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셔진 수령님의 동상앞에 서있었다.

투광등이 비치는 동상주위는 대낮처럼 환하였지만 밤이 깊어 고즈넉한 정적이 깃들어있었다.

《광선아, 평양을 떠나기 전에 우리 함께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자. 너는 우리 당의 3대혁명소조원으로서, 나는 수령님의 전권대표로서 평양을 떠나게 된다. 우리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돌아올것을 맹세하자.》

투광등의 빛을 받은 김일의 얼굴에는 한없는 경모의 정이 어리여있

었다.

《위대한 수령님, 3대혁명소조원 박광선은 수령님과 당의 뜻대로 살며 투쟁하겠습니다.》 광선이 숭엄한 감정에 잠겨 말하였다.

김일은 손자와 함께 수령님의 동상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리였다.

이윽고 계단을 내려서던 김일은 동상을 다시 돌아보았다.

밤하늘에서 내리는 어떤 자연현상이 그의 마음을 저으기 언짢게 하는것이였다.

《수령님의 동상을 보다 밝게 모셨으면 좋겠는데…》 김일은 혼자소리처럼 나직이 말하였다.

손자 박광선이 그가 하는 말을 주의깊이 새겨듣고있었다.

2

김정일동지께서는 삼지연대기념비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고 평양으로 돌아오시였다. 왕재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새롭게 일신시키신 그이께서는 지금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인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꾸리는데 힘을 넣고계시였다.

평양을 떠나있는 기간에 집무실에는 문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그이를 기다리고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휴식할 사이도 없이 문건처리에 열중하시였다. 문건들중에는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전력증산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여러 발전소 로동계급에 대한 긍정자료들도 있었다. 그이께서는 청천강화력발전소건설장에 전권대표로 나가있는 김일의 자료를 보게 되시였다.

김일은 지금 현장의 가설건물에 자리잡은 지휘부에서 숙식하면서 하루에도 여러차례 지팽이를 짚고 발전소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공사를 추진시켜왔다. 지휘부에는 4대의 전화기를 놓고 공사에서 제기되는 자재보장을 비롯한 실무적문제들을 여러 도와 각 기업소들과 련계를 가

지고 제때에 풀어주군 하였다. 그의 치밀한 조직사업과 년로하고 불편한 몸도 아랑곳없이 늘 현장에서 로동자들과 함께 살며 혁신에로 불러일으키는 사업기풍으로 하여 청천강화력발전소에서는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났으며 하여 공사는 거의 조업단계에 이르렀다. …

김정일동지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여올랐다. 백두산지구를 메주밟듯 하시느라 쌓이신 피로가 풀리는듯 하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의 자그마한 사업성과도 그이를 기쁘게 하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투사동지들이 언제까지나 혁명과 건설의 맨 앞장에 서있을것을 바라시였다.

그이께서는 문득 김일의 건강이 념려되시였다.

(필경 자기 몸은 돌보지 않고 사업에만 열중하고있을것이다.)

김일이 청천강화력발전소에 전권대표로 나가겠다고 제기한 사실을 아시게 되였을 때부터 그이께서는 마음을 놓을수 없으시였다. 일단 일감을 안으면 끝장을 볼 때까지 그 무엇도 돌아보지 않는 김일의 성격을 잘 알고계시기때문이였다. 하여 그이께서는 김일의 부관과 담당의사를 불러 김일동지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청천강화력발전소건설추진을 위해 충성의 전투를 벌리도록 하시고 당중앙위원회 일군들로 조직된 중앙지도소조를 파견하시여 현장에서 김일을 도와주도록 하시였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보시던 문건을 밀어놓으시고 전화로 발전소건설장에 중앙지도소조성원으로 나가있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찾으시였다.

《1부주석동지가 지금 청천강화력발전소건설장에 계시겠지요? 지금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놓이지 않는단 말이지?… 1부주석동지가 탄광에 갔단 말이요? 무엇때문에?…》

김일은 보이라가 가동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석탄문제가 걸리게 된다는것을 내다보고 그 고리가 튀지 않게 미리 대책을 세우기 위해 탄광으로 왔다. 김일이 탄광의 일군들을 만나 생산정형을 알아보고 걸린 문제의 해결방도를 토의하고는 돌아갈것이라고 생각하였던 부관 림병욱은 김일이 갱막장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후들쩍 놀랐다.

《1부주석동지, 그건 안됩니다.》 병욱은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김일은 사무실을 나서서 무작정 걸음을 옮기였다.
몸집이 좋은 탄광지배인도 놀라서 김일의 앞을 막아나섰다. 김일이 탄광에서 걸린 문제들을 료해하고 풀어주었고 탄광사업방향도 가르쳐주었는데 그것이면 더 바랄게 무엇이란 말인가. 막장에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것이다.
《1부주석동지, 저희들이 일을 잘하겠습니다. 1부주석동지가 갱목이랑 탄차수리에 필요한 베아링이랑 다 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젠 자신이 있습니다. 무조건 석탄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은 뚱뚱보지배인을 흘겨보았다.
《내가 탄광에 왔다가 탄부들을 만나보지 않고 가면 되는가. 탄부들에게 내 직접 수령님의 뜻을 전달해야겠소. 안전모나 가져다주시오.》
김일은 지배인을 옆으로 밀어제끼고 절뚝절뚝 걸어갔다.
김일이 갱입구까지 이르렀을 때 림병욱은 더는 참을수 없어 앞길을 막아나섰다.
《막장엔 들어갈수 없습니다.》
허룡도 병욱과 합세하여 앞길을 막았다.
《1부주석동지, 그 몸으로 막장에 들어갔다가 사고라도 나면…》
뜻밖의 도전에 부딪친 김일은 화가 동하여 얼굴이 시뻘개졌다.
《이게 뭣들인가!》
김일이 노성을 지르며 허룡과 병욱을 뚫어지게 보았다.
《1부주석동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저에게 1부주석동지의 신변안전을 책임지라고 하시였습니다. 전 1부주석동지를 막장에 들어가게 할수 없습니다. 설사 처벌한대도 말입니다.》
병욱은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김일에게 양보하지 않으리라고 굳게 마음먹고있었다. 그러나 김일의 무서운 눈길앞에서 여기가 질리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동문 이 김일을 위해 사는 사람이요, 아니면 혁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요?》 김일은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다.
병욱은 부관으로 사업한이래 그가 이처럼 자기에게 성을 내는것을 처음으로 당해보고있었다.

《수령님께서 전기문제때문에 잠을 못이루시는데 이 김일이 도대체 뭐요? 청천강화력발전소에서 전기와 증기를 보장하게 되여있는 화학종합공장에서 벌써 첫 암모니아를 생산하기 시작했소. 발전소가 돌지 못해 증기를 보장받을수 없으니 부득불 증기기관차를 가져다놓고 하루에 수십톤씩 증유를 때면서 증기를 생산보장하고있소. 그러니 하루빨리 발전소를 돌려야 한단 말이요. 시운전을 하고나서 석탄이 걸리면 그땐 벌써 늦어.》

《탄광일군들이 탄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내 그런 말이나 듣고 돌아가라는거요? 그렇게나 할바엔 탄광걸음을 왜 하는가, 응?》

김일은 열이 올라 지팽이로 땅바닥을 쾅쾅 내리쳤다.

《어서 물러들 서. 감히 내 앞길을 막자고들어? 내겐 동무같은 부관 필요없으니 돌아가시오! 서기동무도 물러가오.》

허룡과 병욱이 주춤거리며 물러서니 김일은 지팽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갱안으로 들어갔다.

《1부주석동지, 잠간만…》

지배인이 덤벼치며 갱밖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안전모와 안전등들을 수집하여 김일과 그의 수행성원들에게 보장하였다. 언제 탄광창고에까지 가서 안전모들을 가져올 여유가 없었기때문이였다.

이윽고 김일은 탄부들이 타는 인차에 올랐다. 수행성원들이 말없이 그를 따랐다.

인차는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띄염띄염 전등불이 매달려 어둑시그레한 사갱속으로 미끄러져들어가기 시작했다. 김일은 여전히 분기가 치미는듯 얼굴을 잔뜩 찌프리고 덜컹거리는 인차에 몸을 맡기고있었다. 화력발전소를 빨리 조업하여 수령님께 보고드릴수만 있다면 불속이라도 천길바다속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뛰여들고싶은데 수행성원들이 자기의 이 불같은 심정을 몰라주는것만 같아 노엽기 그지없었다.

《지배인동무, 우릴 탄부들에게 안내하오.》

인차에서 내려 김일이 이렇게 지시하자 지배인은 주밋거리였다.

《저… 탄부들을 여기다 모여놓을수 있습니다.》

지배인은 널직하고 환한 권입장을 휘 둘러보았다. 그는 김일이 여기

까지 온것만도 큰것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아니, 탄부들이 일하는 곳까지 가봅시다.》 김일은 단호하게 말하였다.

지배인은 자기들이 일을 잘못하여 김일이 막장에 내려왔다고 저으기 죄스러움을 느끼며 걸음을 옮기였다. 김일이 절뚝거리며 그의 뒤를 따르고 림병욱이 곁에서 김일을 부축여주었다.

발밑에서 고인물이 철벅거리고 머리우에선 석수가 떨어지면서 옷이 젖어든다. 막장의 키가 낮아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리지 않으면 안되였는데 키가 큰 김일은 습관되지 않아 안전모를 쓴 머리로 자꾸 천정을 들이받게 되였다. 그때마다 림병욱과 허룡이 가슴을 조이느라 숨도 바로 쉬지 못한다는것을 김일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탄부들의 말소리와 오가드릴을 돌리는 약한 소음이 들려왔다. 드디여 탄부들이 일하는 마구리에까지 온것이였다.

《동무들, 김일 1부주석동지가 오셨습니다.》 김일의 앞에서 한걸음 먼저 당도한 지배인이 격정어린 큰소리로 말하였다.

탄부들은 놀라는 눈길로 김일의 일행을 맞이하였다. 지금까지 이처럼 높은 급의 간부가 마구리에 들어왔던적이 없었던것이였다.

《탄부동무들, 수고합니다.》

김일은 안전등빛에 탄가루가 묻어 까밋까밋한 얼굴들이 드러나는 탄부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었다.

김일은 탄부들을 둘러앉히고 자신도 앉으려고 자리를 보았다. 탄광지배인이 허둥거리며 자기의 흰 가락장갑을 벗어 버럭우에 깔려고 했다. 림병욱이 기가 찬듯 무엇이라고 혼자 투덜거리며 넙적한 돌 한개를 가져다놓고 그우에 지배인의 장갑을 깔아놓았다.

김일은 힐끔 장갑을 여겨보고 림병욱과 허룡의 부축을 받으며 그우에 털썩 엉치를 붙이였다.

《자, 편안히 앉아서 얘기해보자구.》

김일은 소탈하게 웃으며 담배갑을 열어 탄부들에게 담배를 한대씩 나누어주었다. 탄부들이 황송하여 담배를 받는데 김일은 문득 한사람의 손에 붕대가 감겨져있는것을 발견하였다.

《동문 손을 상했구만.》

김일은 그의 새까만 손을 따뜻이 잡아주었다.
《왜 작업장갑을 끼지 않고 일하오?》
《괜찮습니다.》
《로동장갑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모양이구만. 지배인동무, 어떻소?》 김일은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로동장갑같은덴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지배인이 죄스러운 어조로 대답하였다.
《한심하오. 지배인이 일하는 태도가 틀려먹었단 말이요. 동무, 손건사를 잘해야겠소.》
막장안에는 향긋한 담배연기가 떠돌고 탄부들의 얼굴에는 우선우선한 기운이 피여났다.
《그래, 담배들은 푼푼하게 가지고다니나?》
탄부들은 인차 대답을 못하고 슬금슬금 서로의 눈치들을 보았다.
《말을 못하는걸 보니 담배가 긴장한 모양이구만.》
한 중년탄부가 말하였다.
《1부주석동지, 탄부들에게 담배를 공급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장에 들어오면 사탕보다 담배를 더 찾게 됩니다.》
《그래, 아마 그럴거요.》
김일은 작업복 웃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들고 몇글자 적어넣었다.
《그리고 더 애로되는건 없소?》
《없습니다.》
《영양제식사랑 어떻소?》
《그만하면 좋습니다.》
《내 난장에 올라가서 영양제식사질이 어떤지 알아봐야지. 지배인동무, 탄을 캐는 탄부들이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해.》
이때 탄부들중 한 젊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김일에게 겁석 큰절을 하였다.
《동문 왜 갑자기 인사요?》 김일이 어리둥절하여 물었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인사하는겁니다. 난 아버지에게서 1부주석동지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젊은 탄부는 싱글싱글 웃으며 자랑하듯 말하였다.
《동무 아버지가 날 알고있나?》
《우리 아버지는 전쟁시기 최고사령부에서 복무하였습니다. 한번은 전선사령부에 련락임무를 받고 가는 도중에 적기의 공습을 겪다나니 넙적다리에 큰 파편이 세개씩이나 박혔답니다. 피를 흘리며 전선사령부에 도착하여 겨우 련락임무를 수행하고 쓰러졌답니다.
전선사령부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였는데 군의들은 다리를 잘라야 한다고 했답니다. 이때 전선사령부 군사위원이였던 1부주석동지가 최고사령부에서 온 군관을 무조건 원상대로 살려놓으라, 명령이다,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용서치 않을것이다 하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수술과정을 지켜보았답니다. 그래서 군의들이 각성하고 달라붙어 수술을 성과적으로 해내서 아버지는 다리를 보존하게 되였답니다.》
《음— 그런 일이 있었댔소.》 하고 김일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아버지는 1부주석동지에 대해 자주 말하면서 고마운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막장에서 1부주석동지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동무 아버지는 그때당시 수령님의 사랑의 해빛을 안고왔으니 여느 보통전사나 군관과는 달랐지. 그래 아버진 지금 무슨 일을 하시오?》
《예, 지금 탄광당비서를 하고있는데 출장갔습니다. 내가 1부주석동지를 만났다는걸 말하면 깜짝 놀랄겁니다.》
《그래? 한번 그 친구를 만나봐야겠군. 내 오늘 막장에 들어와보길 정말 잘했소.》
김일은 만족하게 웃다가 한결 저력있게 말하였다.
《탄부동무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금 전기문제때문에 얼마나 근심이 많으신지 모르오. 그런데 이 전기문제를 풀자면 석탄을 쾅쾅 생산하여 발전소들에 보내주는것이 중요하단 말이요. 그러니 한톤한톤의 석탄이 얼마나 귀중하오.》
《제1부주석동지, 석탄은 걱정마십시오.》
젊은 탄부가 웨치듯 말하자 다른 탄부들도 주먹을 흔들며 목소리를 합치였다.

《문제없습니다.》

《우리가 결사적으로 탄을 캐내겠습니다.》

김일은 탄부들의 진정이 넘친 결의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말하였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이 탄광의 갱막장에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큰 충격을 받으시였다.

(그 불편한 몸으로 막장에까지 들어가다니…)

처음엔 로투사의 불갈은 충정에 감동되시였고 다음엔 그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근심이 못 견디게 치밀어오르시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김일이 막장에서 나오면 부관을 꼭 만나 당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였다.

4시간후에 림병욱과의 통화가 이루어졌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제1부주석 부관 림병욱 전화받습니다.》 병욱이 숨에 차서 헐썩거리는 숨소리가 수화기에서 울려나왔다.

아마 부르심을 받고 냅다 달려온 모양이였다.

《부관동무, 1부주석동지가 탄광막장에 들어갔댔습니까?》

《예, 방금 막장에서 나오셨습니다.》

《어쩌면 동무는 그 말을 그렇게 태연하게 할수가 있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날카로운 어조로 추궁하시였다.

《1부주석동지가 청천강화력발전소건설장에 나갈 때 총비서동지께서 무리하게 사업하지 말데 대해 신신당부했다는것을 부관동무는 벌써 잊었습니까? 그리고 나도 부관동무를 따로 만나 1부주석동지를 잘 지켜드리라고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기억하고있습니까?》

《예, 제가 어떻게 그 말씀을 잊을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때문에 1부주석동지를 갱막장에까지 들어가게 합니까? 동무가 과연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요? 부관의 임무가 뭡니까? 항일의 로투사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혁명의 원로들이고 우리 당을 떠받드는 기둥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어떻게 되는지 동무가 모르오?》

《알고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1부주석동지의 건강을 소홀히 대하다니, 한심하단

말이요.》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계속하시였다.

《막장에 들어가 4시간이나 있다니…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힙니다. 석탄 몇만톤이 뭐라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욱이 주눅든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병욱의 딱한 립장이 리해되시였으나 다른 말을 할수가 없으시였다.

《동무들의 임무가 중요합니다.》 하고 그이께서는 병욱에게 강조하시였다.

3

탄부들을 석탄증산에로 불러일으킨 김일은 허룡, 림병욱과 청천강화력발전소건설장으로 향하였다. 그는 림병욱으로부터 **김정일**동지에게서 걸려온 전화내용을 전달받았다. 병욱이 **김정일**동지로부터 호된 추궁을 받았다는 말을 들으니 병욱에게 미안스러웠다.

《부관, 아까는 내가 동무에게 큰소리를 쳤는데 용서하라구.》

《제가 뭐 용서하구말구가 있습니까.》 병욱은 볼부은 어조로 말하였다.

《흠, 부관이 내게 의견이 많은것 같구만. 허서기도 나와 일하기가 힘들지?》

《괜찮습니다.》

승용차는 마가을의 한산한 벌을 끼고 달리고있었다. 김일은 생각에 잠겨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하였다.

《동무들이 나와 함께 일한지도 이젠 10년이 가까와오는구만.》

김일은 허룡이나 림병욱과 헤여져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것이였다.

내각 제1부수상시절부터 함께 사업하는 과정에 정이 든 사람들이다. 하지만 김일은 이 두사람이 다 자기에게 매여있기보다는 더 맞춤한 직위에서 큰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라는것을 알고있었다. 당에서 선발해보낸 일군들이 아닌가.

허룡은 혁명렬사유자녀로서 만경대혁명학원을 다니던 소년시절부터 수령님과 김정숙녀사의 사랑을 각별하게 받은 사람이다, 학원시절 총명한것으로 널리 알려졌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였다, 나를 따라다니면서 정치, 경제 각 분야 사업에 관여하면서 눈도 많이 텄지, 나 한사람에게만 매여있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림병욱인 또 어떤가. 고지식하면서 날파람있는 충실한 군관이다, 그 어떤 책임적인 사업을 맡겨도 실수없이 해낼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게서 비판을 자꾸 받으니 나에 대한 불만이 많을거야.

김일은 그동안 정이 든 서기나 부관을 보다 적중한 위치에로 떠나보낼 생각을 하니 마음이 울적해졌다.

물론 그들과 헤여질 생각을 한것은 즉흥적인것이 아니였다. 이 훌륭하고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자기에게 매여있는것을 괴롭게 여길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적은 이미전이였다. 그것이 림병욱이 **김정일**동지의 호된 비판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더는 미룰수 없는 문제처럼 다가들었을뿐이였다.

(리별이란 힘이 든거야. 하지만 나 혼자만을 생각해서야 안되지. 젊은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야 해.)

이윽고 김일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동무들이 그동안 나를 따라다니느라 고생들을 했지.》

허룡과 림병욱은 여느때없이 애정이 느껴지는 김일의 말에 놀라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김일은 원체 무뚝뚝한 사람이여서 조만해서는 감상적인 말을 입에 올리지 않는 사람이였던것이다.

《난 동무들을 잘 알고있소. 내 서기나 부관을 그만두고 한단위씩 맡고나가 본때있게 일을 해제낄만 한 능력들을 가지고있지.

허동무에게 말한다면 사실 1부주석의 서기라는게 간단한 자리는 아니요. 하지만 독자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갈수 없는 조건에서 일정하게 제한성을 가지고있소. 허서기의 동창생들중엔 한다하는 간부들이 많은

데 자존심이 상하는 때가 더러 있을게요. 나 한사람에게 매여있으니 오죽 답답하겠소. 나도 이젠 동무들을 더 붙들어두고싶지 않소.》

김일은 곁에 앉은 허룡의 손을 꼭 잡았다.

《떠나갈 생각이 있으면 제기하오. 내 다 들어주겠소.》

허룡은 불시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말하였다.

《1부주석동지, 저는 마지막까지 1부주석동지를 따라다니겠습니다.》

《괜히 그러는게 아닌가. 난 일없소. 솔직하게 말해보오.》

《솔직한 말입니다. 아직까지 1부주석동지곁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래?》

김일은 허룡을 이윽히 보다가 슬며시 눈길을 돌리였다.

《그렇다면 정말 고맙소, 이 변변치 않은 사람을 따라다니겠다니…》

김일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입을 열었다.

《림부관은 어떻소? 나때문에 힘들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게서 자꾸 비판을 받는데 좀 억울할거야.》

운전사옆좌석에 앉은 병욱은 눈굽이 달아올라 눈을 슴벅거리고 있었다.

《1부주석동지, 다시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1부주석동지가 진정으로 우리가 싫어지면 그땐 두말없이 쫓아버리십시오.》

《허허… 그러니 아직은 내가 싫지 않다는 소리로구만. 고맙소.》

김일은 앞좌석에 앉은 병욱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는 가슴에 무겁게 실려있던 큰 부담이 봄눈 녹듯 사라져버리는것만 같았다.

《난 별로 난데는 없는 사람이지만 사람복은 있는것 같소.》 김일은 느슨한 미소를 짓고있었다.

그해말에 우리 나라에는 례년에 없던 강추위가 들이닥치였다. 이로하여 마침내 전기와 증기생산에 들어간 청천강화력발전소 보이라착화용 중유압동관계통이 얼어들었다. 착화가 지연되면 보이라본체를 비롯한 전반계통에 치명적영향을 줄수 있었다.

김일은 발전소의 모든 사람들이 온갖 수단을 다해 물과 기름판으로 이루어진 전반계통의 동결방지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자신이 불망치를 들고 수백메터의 관로를 녹이는 로동자들속에 뛰여들었다. 증기가 뽀얀 속에서 작업복을 입고 검댕이가 묻은 얼굴로 젊은 로동자들과 함께 불망치를 든 김일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였다. 발전소건설장에 나와있던 중앙의 지도일군들도 불망치들을 들었다.

김일의 곁에는 국가시운전지휘부 책임일군이 서있었다. 전력공업부 부부장의 직책에 있는 그는 나라의 수력건설사업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이였다.

해방후 우리 나라 국장에 발전소가 있는것을 보고 전기기술자가 될것을 결심했다고 한다.

김일이 지난날 각지의 발전소건설을 추진시켜나가는 과정에 안면관계도 깊어지게 되였다. 웅기발전소를 건설하던 때 김일이 지도차로 내려와 찾는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냅다 달려왔는데 김일이 찌프린 얼굴로 보다가 물었다.

《동문 왜 뛰여다니는거요?》

《차가 낡아서 자꾸 고장납니다. 지금 수리중이여서…》

《지배인의 차바퀴가 제대로 굴지 않으면 일하기 힘들겠는데…》

《일없습니다. 난 어려서부터 륙상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달리기선수였지요.》

그후 김일은 발전소지배인을 하던 그의 차를 새것으로 바꾸어주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그를 만나면 《달리기선수》라고 부르군 했다.

지금 김일의 곁에 서있는 달리기선수는 그 별명과는 딴판으로 배가 좀 나왔고 동작이 굼떠보이였다. 왜서인지 그는 김일에게 자기의 속을 털어놓으려고 하였다.

《…이번에 1부주석동지와 여기서 함께 일하면서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뭘 배웠다는거요?》 김일은 퉁명스럽게 물었다.

《뭐라고 할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측면이라고 할가요. … 어쨌든…》

《됐소. 날 춰주는 소리를 할려면 그만두시오.》

《난 자기비판을 하려고 하는겁니다. 사실 전 강산호동무와 가까운 사이입니다. 산호동무에게서 그 소릴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소. 동무가 산호와 가깝든 말든 내게 무슨 상관이요?》

《내 산호동무가 1부주석동지에게서 혼쌀난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호동무가 잘못 나가게 된데는 제 잘못이 많습니다. 영천시에 온천치료를 갔다가 산호동무에게 아빠트보수 같은건 제껴놓고 우선 료양소와 휴양소를 잘 꾸려보라고 권고한것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어느새에 변질이 왔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소?》

김일은 새삼스러운 눈으로 달리기선수를 돌아보았다. 세월의 흐름속에 어느덧 새까만 머리칼이 반백이 된 그는 심중한 얼굴로 불똥을 뚝뚝 떨구는 불망치를 바라보고있었다.

(이번 시운전을 치르느라 이 동무가 수고가 많았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동문 솔직해서 내 마음에 드오. 참다운 일군이라면 스스로 자기를 반성하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게 좋소. 한가지 충고를 준다면 몸까기를 잘해서 달리기선수답게 더 젊어지시오.》

《고맙습니다. 충고를 명심하겠습니다.》

《이젠 관들이 다 녹은것 같소. 로동자들을 철수시킵시다. 그리고 동문 나와 함께 취수구류입구쪽에 가보자구. 강물이 얼어들어 물량이 작아지면 큰일이요.》

잠시후 김일은 국가시운전지휘부 책임일군과 같이 급한 걸음을 옮기였다. 수령님께 이미 생산보고를 올린 조건에서 그는 운영정상화를 위해 불철주야 분투하고있었다.

그날 밤 나지막한 현장지휘부가설건물의 한 방에서 김일은 발전기의 고르로운 동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평양하늘이 어려오는 창밖을 내다보고있었다.

(수령님, 청천강화력발전소에서 이미 가동한 발전기들이 순조롭게 돌아가고있습니다. 전기가 나오고 증기가 생산되고… 그리고 우리 일군

들도 성장하고있습니다. …)

그는 이렇게 밤이면 늘 수령님께 마음속으로 보고를 드리군 하였다.

전권대표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한 김일은 평양을 향해 청천강화력발전소를 떠났다.

승용차들은 얼마간 달리다가 조용한 강기슭에 멈춰섰다. 점심시간이 된것이였다. 부관과 서기들이 주먹밥들을 들고 차안에서 나왔다. 그들은 지방출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식사하는적이 많았다. 김일은 무척 검소하고 사치를 모르는 사람이였다. 삭정이를 주어모아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았다.

《1부주석동지, 평남도당 책임비서가 동석식사를 하자고 할 때 어째서 달아났는지 아십니까.》 허룡이 주먹밥을 먹으면서 말하였다.

《뭐 급한 회의가 있어서 가야 한다지 않았던가?》

며칠전에 평남도당 책임비서가 청천강화력발전소건설장에 왔던적이 있었다. 식사시간이 되여 김일이 식사를 같이하자고 했을 때 그는 딱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피했던것이다.

《사실은 말입니다. 그 사람이 1부주석동지와 함께 식사했대야 별로 먹을만 한게 없다면서 빼소니친겁니다, 하하.》

《그걸 허서기가 어떻게 아오?》

《그 사람은 나와 만경대혁명학원을 함께 다닌 친구지간입니다. 내가 1부주석동지가 식사에 청한다는 말을 했더니 〈그 아바이하고 식사를 해야 된장국에 풋고추 몇개이겠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초기를 만나지 않겠나.〉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긴 그래, 자네같이 대식을 즐기는 사람들은 피하는게 상책이야.〉하고 조언을 주었습니다.》

좌중에는 즐거운 폭소가 터지였다.

김일이 고급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생파나 된장, 군감자와 같은 소박한 음식을 즐긴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였다.

《허, 녀석들…》 김일도 웃으면서 말하였다.

《세상에 잘먹어서 오래 산 사람은 없어. 사람은 검박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해. 우리 수령님께서 지금도 가끔 강낭죽을 쑤어 달게 드신다는것을 모르오?》

점심식사를 끝내자 차들은 다시 달리기 시작하였다. 산을 낀 도로에서 솜옷을 입고 털모자를 푹 내려쓴 로인이 강대나무 두대를 바줄에 매여 끌고가는것을 보게 되였다. 김일은 차를 세우게 하였다. 로인은 어깨를 구부정하고 서서 땀이 줄줄 흐르는 얼굴로 숨이 차서 헐썩거리며 어리둥절한 눈으로 옆에 스르르 멈춰서는 승용차들을 쳐다보았다. 김일이 차문을 열었다.

《로인님, 어디 가십니까?》

《집으로 가지 어디 가겠습네까?》

《집이 어데바루입니까?》

《이 도로를 따라 쭉 내려가면 마을이 있습네다.》

《나무를 끌어다줄테니 어서 차에 타십시오.》

김일의 지시를 받은 수행성원들이 로인이 끌고가던 두대의 강대나무를 승용차뒤에 비끄러맸다.

승용차들은 다시 달리였다. 김일은 옆좌석에 송구하여 몸을 옹송그린 자세로 앉은 로인에게 물었다.

《나이도 어지간한데 로인님이 화목을 하러 다녀야 합니까?》

《어쩌겠습니까? 젊은것들이야 나라일을 할래기 바빠 돌아가는데 나도 육신을 놀려야지요. 아직은 나도 일없습네다. 겨울에야 화목이 많이 들지 않습네까.》

마을어귀에서 강대나무를 떨구어주었다. 로인은 여전히 어리둥절하여, 그러나 고마움이 짙게 어린 눈길로 김일이 탄 승용차를 바래우면서 손을 흔든다.

승용차를 타고가면서 김일은 허룡과 병욱에게 말하였다.

《인민들이 아직도 고생이 많소. 수령님께서 전기문제에 마음을 쓰시지 않게 되였나 보란 말이요. 청천강화력발전소를 조업하면 안주시민들에게 겨울에도 뜨뜻하게 온수난방을 보장해줄수 있다고 기뻐하신 수령님이시였소. 전기만 풀려 전기난방화를 실현하면 인민들이 힘들게 화목을 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김일의 깊은 사색을 싣고 달리던 승용차들은 영천시에 들어섰다. 김일이 전에 문제시되였던 그 아빠트들을 보고 가자고 하였던것이다.

려관앞에서 차를 세우고 내리니 마치 새로 건설한 아빠트들처럼 외

장재를 새로 바른 6층짜리 아빠트들이 눈에 띄였다. 김일은 자기가 말한대로 4층짜리를 6층짜리로 증축하였다는것을 대뜸 알아보았다.

김일은 그중의 한 아빠트에서 인민반장을 찾았다. 몸집이 체소하고 이악하게 생긴 중년의 녀인이 달려나왔다.

김일은 자기 소개를 하고나서 인민반주민들의 생활형편을 알아보았다. 인민반장녀인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하였다.

《비가 와도 물이 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도공사를 다시 하여 물도 잘 나옵니다. 증축을 해서 살림집도 새로 생겨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우리 행정위원장동지를 좀 표창해주십시오.》

《그건 인민반장아주머니가 의견을 제기하는겁니까?》

《내가 혼자 제기하는게 아니라 주민들의 반영이 그런겁니다.》

《그렇다? 그래, 행정위원장이 시내 인민들앞에서 자기가 일을 잘못하여 인민들에게 불편을 준데 대해 사죄를 했습니까?》

《하지 않구요. 그걸 들으면서 우리 당이 제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일이 아빠트의 한 집을 보자고 인민반장과 함께 6층으로 올라갔다. 김일이 들어간 집은 군제지공장에 다니는 로동자가 세대주라는데 두칸의 방이 아담하고 깨끗하게 정돈되여있었다. 위생실의 물탕크에는 물이 철철 넘치였고 회가루칠을 한 방들과 부엌의 천정에도 물 흐른 흔적이 없었다. 그제야 김일의 얼굴에는 슬며시 미소가 피여올랐다. 문득 그의 눈에 부엌구석에 놓여있는 자그마한 나무난로가 띄였다.

《이 난로는 무엇하는데 쓰는거요?》 김일은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인민반장이 나서서 자랑삼아 말하였다.

《이건 우리 군 철제일용에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나무 몇가치를 넣으면 식구 네명분의 밥을 20분이면 할수 있습니다. 주민들에게서 너무 호평이 좋아 다른 군에서도 와서 사갑니다. 난 우리 친척들에게 다 사서 보내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인민반장이 말하는게 다 사실이요?》

김일은 쓰기 편리하게 생긴 가벼운 난로를 들고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집주인녀인에게 물었다. 김일의 머리속에는 영천시로 오는 길에서 만났던 로인이 생각났다.

《예, 나도 이 난로를 이웃군에 사는 동생네 집에 보내주려고 사놓은겁니다. 사실 이런 난로를 만들게 하고 대대적으로 생산하게 한건 우리 행정위원장동지입니다.》
이때 밖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김일이 왔다는 통보를 받고 달려온 강산호가 급하게 집안에 들어섰다. 산호의 얼굴에는 이전에 보던 그런 활기가 넘치였다. 인민반장녀인이 산호를 보고 깍듯이 인사를 하였다.
《행정위원장동무, 오늘 와보니 영천시에 자랑이 많구만.》 하고 김일은 산호에게 웃는 얼굴로 말하였다. 《아빠트가 마음에 드오.》
김일은 산호에게 난로를 쳐들어보이며 계속하였다.
《그리고 난 이 난로도 마음에 드는걸. 나무 몇가치면 인차 밥을 지을수 있다는데 이게 얼마나 좋소. 나도 이런 난로를 좀 살수 있게 행정위원장동무가 도와주지 않겠소?》
《무슨 그런 롱담을 다하십니까?》 산호는 피식 웃음을 흘리였다.
《롱담이 아니요. 정말 난로를 가져갈 생각이요.》
《아니, 1부주석동지에게 이런 난로가 무엇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난로를 전국에 보급해야겠소. 지금 연료문제가 얼마나 긴장한가. 연료를 적게 들이면서도 효률성이 큰 이런 난로가 있으면 주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소. 특히 주민들이 리용하기가 편리할거요. …
관계부문 일군들을 모여놓고 방식상학을 하도록 내 조직사업을 하겠소. 영천시에서 설계도면과 난로견본들을 가지고와서 사람들에게 선전사업을 해야겠소.》
《알겠습니다.》
잠시후 밖으로 나온 김일은 산호의 팔을 잡아 슬그머니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끌고가더니 다정하게 말하였다.
《네가 그동안 수고많았다. 난 오늘 기쁘다.》
김일의 수척하고 주름많은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어리여있었다. 그것은 자식이 해놓은 일을 보고 만족해하고 대견스러워하는 아버지가 짓는 흐뭇한 웃음과 비슷한것이였다.
산호는 코마루가 찡해지고 가슴이 뭉클거리였다. 왜선지 그에게는 아직 얼굴을 보지 못한 친아버지가 환생한다면 김일이처럼 저렇게 웃을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던것이다.

이윽고 김일은 화제를 돌리였다.

《그래, 현철이는 평양에 올라갔느냐?》

《예, 이제는 한달이 되였습니다. 그런데 현철이의 고민이 심합니다. 결혼하기로 약정되였던 한설미가 등을 돌려댔다는가봅니다. 곁에서 보기가 얼마나 처량하던지.》

《그래?》

김일의 얼굴에 그늘이 지였다. 그는 강산호문제때문에 현철이와 설미사이에 마찰이 일어난것을 알고있었지만 그후 그들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악화되였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하였었다.

얼마나 다정하고 미더운 청춘들이였던가. 만수대대기념비건설장에서 그리고 대성산혁명렬사릉건설장에서 사랑을 아름답게 꽃피워가던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였다.

《현철이 일이 안됐구만.》 김일은 혼자말처럼 조용히 말하였다.

그때 그의 눈앞에는 왜서인지 전쟁이 끝난 후 중국에서 귀국하는 진성봉을 맞기 위해 평양역에 나갔을 때 보았던 어린 소년 즉 그림을 그리고있던 귀여운 장현철의 모습이 떠올랐다. 순진하고 공상적이고 희망이 풍부하던 소년과 고민에 지쳐 허우적거리는 오늘의 장현철이가 뚜렷이 대조되면서 가슴이 아릿해왔다.

4

1977년 3월 어느날 장현철은 백두산을 향해 평양을 떠났다. 렬차를 타고 혜산까지 와서 운이 좋게 인차 량강도혁명전적지건설돌격대의 자동차를 한대 잡아탈수가 있었다. 자동차는 혜산에서 식량을 싣고 삼지연으로 가는 길이였다.

얼굴이 우락부락하게 생겼지만 마음이 수더분해보이는 상고머리 운전사가 옆좌석에 앉은 장현철에게 물었다.

《그래, 준비를 든든히 하고 왔소?》
《무슨 준비 말입니까?》
《이렇게도 말귀가 어둡다구야.》 운전사는 답답하다는듯 혀를 찼다. 《백두산에서 살려면 간단치를 않아. 우선 옷을 두툼한것으로 껴입어야 해. 동무 솜옷은 좀 얇소. 도시에서 겨울을 나기에는 맞춤하겠지만 백두산추위에야 안되지.》
운전사는 현철이가 입은 솜옷을 만져보면서 말하였다.
《안에 많이 껴입었소?》
《예, 모내의를 입었습니다.》
운전사는 얼핏 보기에도 햇내기라는게 알리는 장현철을 가르치려 들었다.
《동무같이 단련이 부족한 사람들은 동상고를 미리 준비하는것도 좋아. 얼굴도 얼고 손과 발도 얼수 있거던. 하지만 이젠 엄혹한 겨울은 지났어. 봄이 왔거던. 그래도 여긴 아직 추워.》
《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아, 그렇지. 무엇보다도 마음의 준비가 중요한거지.》 운전사는 머리를 끄덕이고나서 계속하였다. 《먹는 걱정은 안해도 돼. 우리 돌격대는 식사질이 높아. 당에서 큰 관심을 돌려주고 전국적으로 지원물자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 동무가 배낭속에 뭘 가지고 가는게 있다면 미리 해치우는것도 괜찮아. 난 그런걸 싫다 하는 사람이 아니야.》
장현철은 부시럭부시럭 가방을 뒤져 빵과 당과류들을 듬뿍 꺼내 운전탁우에 올려놓았다.
《어서 잡수십시오.》
《허, 이거…》 운전사는 좋아서 입이 벌어졌다. 《동무한테는 말할 재미가 있구만.》
그는 한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닭알빵 한개를 집고 맛스럽게 뜯어먹는다.
《동무도 뭘 먹소.》
《아니, 난 먹고싶지 않습니다.》
현철은 그저 조용히 생각에 잠겨있고싶었다. 마음이 좋으나 수다스

럽게 느껴지는 이 상고머리운전사가 자기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이든지 다 주고싶은 심정이였다.

문득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아버지 장종학은 몇달전에 건설부 부부장으로 조동되였다가 지금은 해외에 나가있었다.

현철이 조국을 떠나는 아버지를 바래우려고 비행장에 나갔을 때 아버지는 측은한 눈길로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현철아, 산호아저씨때문에 네가 설미와 다투고 갈라졌다는것을 내다 안다. 다 내가 처신을 잘못했기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아니예요, 난 내 주장이 있어 내 맘대로 행동했어요. 아버지탓이 아니예요.》 현철은 머리를 흔들었다.

《하기야 너도 이젠 당당한 사내대장부이고 또 누구의 말에 따라가는 그런 약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라는것을 안다. 앞으로도 네 앞길을 네스스로 개척해나가거라.》

《알겠어요. 어제도 오늘도 난 별일없어요.》 현철의 코날이 두드러진 매끈한 얼굴에 도고한 웃음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외국에 나가서 건강을 해칠가봐 걱정될뿐인걸요.》

《내가 비판을 받긴 했어도 그게 다 사랑이고 믿음이라는것을 난 잘 알고있다. 오늘은 조국의 권위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업을 맡겨주니 어깨가 무거워진다. 당의 신임에 어떻게 보답하겠는지 난 그게 걱정스럽구나.》

아버지의 살이 빠지고 수척해보이는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의 빛이 어려있었다. 이윽고 그는 매 말마디들마다에 깊은 생각을 담는지 천천히 뜨직뜨직하게, 그러면서도 절절함이 느껴지는 간곡한 어조로 아들에게 말하였었다.

《내가 너에게 당부할건 사람은 사업과 생활에서 고지식하게 살아야 한다는거다. 에누리를 모르고 그저 순결한 마음으로 수령님과 당을 따라야 하는거야. 김일동지가 그렇게 살고있지 않느냐.》

현철은 이번에 량강도혁명전적지건설돌격대에 탄원하면서 해외에서 사업하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였다. 아직은 회답을 받지 못하였지만 아버지가 두손을 들어 찬동하리라는것을 현철은 믿고있었다.

(아버지의 기대와 당부에 어긋나지 않게 일해야 한다.)

자동차는 하얗게 흰눈이 덮인 수림을 끼고 뻗은 도로를 달리고있었다. 평양에서는 벌써 훈풍이 불고있었지만 이 백두산지구에서는 아직도 눈이 녹지 않았다. 현철의 손은 저도 모르게 솜옷 안주머니속으로 들어갔다. 사진 한장이 만져졌다. 그는 그 사진을 꺼내보려다가 곁에 운전사가 있다는것을 깨닫고 그만두기로 했다. 그 사진을 보면 수다스러운 운전사가 무엇이라고 시까슬러댈는지 모른다.

《…한번은 내가 한겨울밤에 원목을 실어나르다가 덜컥 차가 멎어버렸어. 왜 그랬는가? 그건 백두산의 엄혹한 추위에 디젤유가 얼어버렸기때문이야. 이런 난사라구야. 그래서 나는…》

현철은 손을 안주머니속에 넣고 사진을 만지작거렸다. 그 사진이야말로 현철이를 백두산으로 향하게 한 요인이였다.

한설미의 아름다운 얼굴이 눈앞에 선히 그려진다.

(설미, 난 널 리해해.) 하고 현철은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현철은 설미와 다투고 김일의 부탁대로 영천시에 내려가 강산호를 도와 불비한 아빠트들을 보수증축하는 일에 몸을 잠그면서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였고 또 설미라는 처녀의 모든것을 새롭게 알게 되였다. 지난날 그는 대체로 다른 사람들에 비한 자신의 우월감에 사로잡혀있었으며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눈아래로 우습게 보아왔었다. 그것은 설미에 대해서도 례외로 될수 없었다.

실지로 그는 설미보다 나이도 몇살이나 우여서 오빠노릇을 하는데다 머리도 훨씬 좋았고 아는것도 많았다. 그러나 총명하고 기민한 재능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전부가 아니였다. 설미처럼 고결한 성격, 언제나 당을 따르며 정의롭고 고지식하게 살려는 지향이 중요한것이였다. 현철은 자기가 지금까지 설미를 놓지 못하고 은연중에 그 처녀에게 매혹을 느끼게 되는것은 그의 결곡한 성미때문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였다.

하여 자신을 뉘우치는 모진 진통을 겪으면서 그는 더는 설미를 탓하지 않았고 이전보다 더욱 그 처녀를 사랑하게 되였다. 하지만 그는 설미를 더는 찾지 않았고 자기의 가슴속에 이글거리는 사랑을 억지로 죽여버리고저 안깐힘을 다했다. 자신을 새롭게 정립해가는 그 과정은 자존심이 지난날보다 몇배나 더 강해진 새로운 현철을 탄생시킨것만 갈

았다.
그는 한설미가 혁명전적지건설돌격대에 입대하여 백두산으로 간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처녀의 뒤를 좇을 생각은 없었다. 이제 와서 설미는 그에게 사랑과 희망, 추억이 범벅이 된 아득히 먼 빛처럼 떠오르는 것이였다.
《여 친구, 삼지연에 다 왔어. 여기에 우리 돌격대들이 자리잡고있소.》
현철은 운전사의 말에 생각에서 깨여났다. 가슴이 설레이였다. 아, 드디여 다 왔구나.
《차를 좀 세워주십시오.》
《가만 앉아있으라구. 돌격대지휘부까지 가자면 좀 더 가야 해.》
《아니, 난 걸어가겠습니다.》
운전사는 차를 세웠다.
《친구, 또 만나자구. 덕분에 잘 먹었네.》 운전사는 자기 배를 쓸어만지였다.
운전사는 호인다운 웃음을 남기고 차를 몰아 사라졌다.
현철은 맵짠 바람을 맞으며 서있었다. 빽빽한 수림우에 그지없이 깨끗하게 느껴지는 흰눈을 두텁게 들쓴 백두의 산발들을 휘둘러보았다.
그 어디라 할것없이 청춘의 심장을 격동케 하고 정신을 정화시키는 신비한 원소가 들어차있는것만 같은 항일의 옛 전장… 더 깊이 수림속으로 들어가면 붉은 기발이 날리는 항일빨찌산들의 숙영지를 만날수 있을것만 같았고 눈속을 헤치면 그분들이 쏜 총탄의 탄피들을 얻어볼수 있을것만 같았다. 바로 여기 백두의 밀림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항일혁명전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였다!
현철은 자기의 심장이 쿵쿵 소리내며 흉벽을 들이침을 기분좋게 느끼였다.
(여기서 나는 혁명선렬들의 넋을 가슴에 새기며 새생활을 창조해나갈것이다.)
현철은 손을 솜옷안주머니에 넣어 사진을 꺼내였다. 그 사진에는 삼지연못가에 나란히 선 김일과 한설미의 모습이 찍혀져있었다. 닫긴깃양복차림에 작업복을 덧걸친 김일은 엄숙했고 돌격대복을 입은 설미는

활짝 웃고있었다.

현철에게 이 사진을 가져다준것은 김일의 서기 허룡이였다.

《1부주석동지가 현철동무에게 이 사진을 전해주라고 해서 왔소.》

현철은 얼떠름하여 허룡을 쳐다보았었다.

《이 사진은 뭘 의미하는겁니까?》

《1부주석동지는 얼마전에 혁명전적지건설사업을 지도하러 백두산지구에 다녀왔소. 그때 한설미를 만나 사진을 찍었지.》

《그런데… 왜 나에게?…》

《1부주석동지는 다른 말이 없었소. 사진을 보고 동무가 잘 생각하고 결심하라는거였소.》

눈, 코, 입이 다 큼직큼직하게 잘생긴 허룡의 얼굴에 느슨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무슨 결심 말입니까?》

《그건 나도 모르겠소. 1부주석동지가 한 말은 그게 다요.》

허룡이 돌아간 후 현철은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 사진속에 깃든 뜻을 어렵지 않게 짐작하였다.

하여 백두산으로 가자는 결심이 내려졌다. 그렇다, 김일이 현철에게 바라는것이 바로 그것이였다. 현철은 말없이 자기에게 깊은 뜻을 깨우쳐주는 김일이 더없이 고마왔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세찬 바람에 눈발이 흩날리였다. 현철은 눈바람을 맞으며 걸음을 옮기였다.

(한설미, 난 널 찾아서 여기로 온것이 아니다. 난 우리 시대 청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나자신을 단련하기 위해 온것이다.)

현철은 가슴속에서 억센 의지를 가다듬으며 씩씩하게 걸어갔다.

(김일동지, 난 지금 기분이 상쾌합니다. 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백두의 혁명정신을 체질화해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1부주석동지가 나에게서 바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설미는 대대에 배치되여온 신대원을 보았을 때 깜짝 놀랐다. 장현철이 혁명전적지건설돌격대에 나올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설미였다. 대대장은 현철을 데리고 군대식으로 아담하게 지은 대대병실을 돌아보

며 앞으로 지켜야 할 생활준칙에 대한 말을 하고있었다. 설미는 식당앞에서 높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현철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기가 현철이를 사랑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설미에게 현철이만 한 남자는 눈에 뜨이지 않았다. 지성이 있고 인정이 많고 게다가 얼마나 잘생긴 남자인가. 처녀의 자존심에 그 어떤 죄의식까지 작용하여 현철의 곁을 떠났지만 결코 잊을수 없었던 남자가 현철이였다.

(어떻게 돌격대에 입대하게 되였을가?)

혹시 자기가 백두산지구건설돌격대에 있다는걸 알고 찾아온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현철이가 고맙게 생각되였다.

대대장이 현철을 이끌고 식당으로 다가오고있었다. 키가 크고 체격이 갱핏한 현철의 곁에 서니 작달막한 오달진 체구의 대대장은 더욱더 목이 앙바틈해보이였다. 설미는 후날 조용히 현철을 만나리라 생각하면서 주방안으로 몸을 숨기였다.

《여기가 식당이요. 식사시간은 아침은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7시 30분이요.》

식당문을 열어제끼고 현철에게 설명을 하던 대대장이 큰소리로 설미를 찾았다.

《후방참모동무, 여기 나오시오.》

설미는 화뜰 놀랐다가 얼굴이 활딱 붉어진채로 밖으로 나왔다.

《인사하오. 우리 대대 후방참모인 한설미동무요. 그리고 이 동무는 신입대원 장현철동무요.》

대대장이 이렇게 소개말을 하는데 그들은 서로 지그시 마주 쳐다보고있었다.

현철의 매끈한 얼굴에 기쁨과 흥분의 파도가 일어번지다가 어느새 가라앉고 고통의 구름이 끼기 시작하였다. 이내 자기를 수습한듯 침착하게 말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설미도 격앙된 감정을 억누르며 머리를 숙이였다.

《안녕하세요?》

대대장은 잠간사이에 그들사이에 오고간 감정의 교차를 눈치채지 못한채 설미에게 말하였다.

《후방참모동무, 신입대원 장현철동무를 축하해서 오늘 저녁 한상 잘 차려야겠소.》
《알겠습니다.》
현철은 대대장과 함께 식당을 떠나가는데 설미는 가슴이 허우룩해져서 서있었다. 《안녕하십니까.》하는 현철의 엄숙한 인사말이 그렇게도 그를 놀래웠고 섭섭함을 자아냈다. 설미는 《잘 있었니?》 하고 동생에게 말하듯 하는 허물없는 인사말에 너무나도 습관되여있었던 것이였다.
(괜찮아, 좀 생활하느라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거야. 그가 말했지. 용기를 내. 언제든지 희망을 잃어선 안돼.)
설미는 현철이와 함께 돌격대에서 생활하게 될 앞날을 그려보면서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5

당시 혁명전적지건설돌격대 평양시련대는 삼지연혁명사적관, 혁명사적관부대건물, 혁명사적관온실, 혁명사적관원림조성, 기존근로자답사각보수, 백두산혁명전적지에서 정점 휴계실보수, 백두교, 편의봉사망, 무두봉대학생각 그외에 삼지연읍지구에서 읍중학교 등으로 해서 방대한 대상들을 맡아 건설하고있었다.
현철이가 속한 대대는 삼지연혁명사적관지구의 건설을 담당하였다.
현철은 자신이 소유하고있는 건설부문의 전문지식과 신통한 판단력, 성실한 성격으로 인차 대대에서 지휘관들과 동무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 능력이 두드러지는 존재로 되였다. 그는 입대한지 몇달후에는 대대시공참모로 일하였고 1년이 가까와올무렵에는 대대참모장으로 임명되였다.
돌격대에서의 현철의 눈부신 발전은 설미를 경탄케 하고 기쁘게 하였다. 그러나 현철과 설미의 관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지속되고있었다. 현철은 마치 지난날의 인연은 잊어버리기라도 한듯 설미를 정중하게 대하였고 류다른 감정표현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 대신 온 정신을 일에 몰두하는것만 같았다. 그럴수록 설미는 은근히 속을 앓았다.

한번은 설미가 솜을 두툼하게 둔 벙어리장갑을 마련하여 남들이 보지 않는 기회에 현철에게 주었다. 보통작업장갑이 아니라 정성이 엿보이게 바느질을 잘한 깨끗한 장갑이였다.

현철은 놀라운듯 장갑을 보다가 설미에게 뜨거운 눈길을 보냈다.

《현철오빠, 작업장갑이 다 해졌더군요. 그래서…》 설미는 어쩐지 부끄러워나서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였다.

《나같은 놈을 다 생각해주니 고맙구만.》

《그건 무슨 말이예요?》

설미는 현철의 말투가 이상스러워 깔끔하게 눈을 치떠보았다. 그러나 현철은 더이상 깊이 속을 터놓을 생각이 없는듯 건성 웃음을 짓고 말을 돌리는것이였다.

《아니, 그저 그렇다는 소리요. 이번엔 동무의 성의를 고맙게 받아들이고 장갑을 받겠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날 위해 마음을 쓸 필요는 없을것 같소.》

괴로운듯 긴 한숨을 내쉬고 자리를 피하는 현철의 태도가 의혹을 자아내고 또 자신이 무시당한듯싶어 괘씸하기도 한 착잡한 심정을 안고 설미는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있었다.

(현철오빠가 이제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것일가? 혹시 그에게 다른 생각이 있는것일가?)

그후 현철은 설미가 준 장갑을 끼지 않았다. 설미는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남에게 주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서운함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다가 어떤 행사가 제기되여 돌격대원들이 깨끗한 복장으로 모여섰는데 그때 현철이 설미가 준 그 장갑을 끼고 나왔다. 그것을 본 설미는 기쁘기가 그지없었다. 현철은 작업할 때는 끼지 않고 소중히 건사했다가 특별한 날들에만 끼고 다니였던것이다.

그날 밤 설미는 잠들지 못하였다. 그는 눈앞에 그려지는 현철을 향해 자꾸자꾸 물었다.

《오빠, 어디 대답해봐요. 오빤 날 사랑하지요?》
그런데 현철은 웃고만 있을뿐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설미는 현철의 진속을 알고싶었으나 좀처럼 그럴만한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자기가 먼저 현철이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낼만 한 용기도 생기지 않았다.

어느 추운 겨울날 현철은 대대의 일부 력량을 데리고 공사에 필요한 막돌들을 시급히 확보할데 대한 과업을 받았다. 후방참모인 한설미가 대대와 떨어져 작업하는 그들의 식사를 보장할 임무를 받고 동행하게 되였다.
그들은 삼지연에서 멀리 떨어진 수림속에서 막돌원천을 찾아냈다.
저녁녘에 막돌들을 한자동차 실어보내였다. 돌격대원들은 다음차가 올 때까지 계속 막돌들을 채취하였다. 그런데 자동차는 더는 오지 못하였다. 도중에 고장이 났던것이다. 돌격대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차를 기다렸다. 우등불을 피우고 노래를 하며 시간을 보내였다. 한설미가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닦은 강냉이 반키로정도 가져온것이 있었는데 대원들은 그것으로 조금 요기를 할수 있었다. 주민지대와 멀리 떨어진 곳이여서 어디 가서 먹을것을 얻어올수도 없었다. 누구나 이제 좀 있으면 차가 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배고픔을 참으며 기다렸다. 밤이 깊어 대원들은 우등불곁에 누워 잠들기 시작하였다. 현철은 자기가 정황판단을 잘못하여 대원들을 고생시킨다는 자격지심으로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할것인가. 여기서 자동차를 기다리며 밤을 보내야 하는것인가? 아니면 걸어서라도 떠나야 하는가. 그 먼길을 어떻게…)
그는 우울하게 우등불만 바라보고있었다. 한설미가 옆에 다가와 앉았다.
《참모장동지, 얼굴색이 나쁘군요. 어디 아픈게 아닙니까?》
설미는 현철이가 자기를 엄숙하고 정중하게 대하는데 못 견뎌 오빠를 대하듯 하던 말투를 고치고말았었다.
《난 지금 자신을 타매하고있소. 대원들이 나때문에 저녁도 굶고 한지에서 자고있지 않소.》

《그게 참모장동지의 잘못으로 되는겁니까? 후방참모인 내 책임도 크지요.》
《그러니 우린 다 죄인인셈이구만.》
현철은 싱긋 웃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듯 한 진실한 웃음이였는데 설미는 현철의 그런 웃음을 보는것이 기뻤다. 설미와 다투고 갈라진 후에 현철은 설미와 마주서서는 조만해서 웃지 않았고 웃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 례의적인 웃음에 불과했던것이였다.
눈보라가 터졌다. 이깔나무들이 서로 부딪치며 내는 소리가 눈보라의 아우성소리와 엇갈리며 무시무시한 울부짖음처럼 들려왔다.
《후방참모동무.》 현철이가 조용히 말하였다. 《무섭지 않소?》
설미는 우둥불만 바라볼뿐 대답이 없었다. 현철이 피뜩 설미를 돌아보았다.
《내 소리가 듣기 싫은 모양이구만.》
《예, 듣기 싫습니다.》 설미는 새침해진 어조로 말하였다.
《듣기 싫다면 입을 다물겠소.》
《하나 묻자요. 참모장동지는 이젠 내 이름을 잊은게 아닙니까?》
《아니, 그건 무슨 소리요? 내가 한설미를 잊다니… 원, 괴이한 소릴 다 하는군.》
《그런데 동지의 입에선 언제나 후방참모라는 소리만 나오는군요. 난 동지가 날 이름으로 찾는 소리를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그랬던가, 허허…》
현철은 허거프게 웃었다. 우둥불의 너울거리는 화광이 현철의 서글픈 얼굴을 비치였다.
《난 동무가 떠나간 후에 자신을 신랄하게 돌이켜보았소. 난 동무를 찾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소. 다시는 한설미를 다정하게 부를 자격이 없다고 말이요.》
마침내 현철이 자기 속을 터놓는다고 생각하니 설미는 눈물이 나왔다. 현철에 대한 사랑과 동정이 가슴을 아프게 허비였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내가 인정없는 녀자라고 생각하겠지요?》
《난 동무를 탓하지 않소. 난 나자신만을 탓해왔소.》
설미는 호— 하고 한숨을 내쉬였다. 그는 안타깝게 장갑낀 손을 비

틀어댔다. 이윽고 설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오빠에게 졌어요. 내가 먼저 이런 말을 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난 언제까지나 오빠가 나를 찾아와 나를 변함없이…》

설미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리였다. 《사랑》이라는 그 말을 하기가 서슴어졌던것이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있던 설미는 용기를 낸듯 번쩍 머리를 쳐들었다. 설미는 장갑을 벗고 손으로 눈물을 씻어내고 계속하였다.

《난 언제까지나 오빠를 기다리고있었어요. 날 비웃지 말아요. 난 용감하게 고백하겠어요. 난 지금까지 한번도 현철오빠를 잊은적 없어요. 내 마음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한적이 없어요.》

설미는 두손에 얼굴을 묻었다.

《이젠 마음대로 하세요, 오빠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오빠가 싫다고 해도 내 마음은…》

현철은 굳어진듯 앉아있었다. 지나친 흥분으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난 널 잊으려고 했댔어.》

마침내 현철에게서 지난날과 같은 말투가 나오자 설미는 불시에 눈물이 솟구쳐나왔다.

《설미, 난 네게로 향하는 사랑을 죽여버리려고 했댔어.》

그러나 이 말은 현철의 가슴속에서만 울리고 종시 입밖으로는 나오지 못하였다. 설미에게서 사랑의 고백을 듣는 이 순간 왜선지 기쁨이 아니라 설음이 북받쳐올랐다. 그는 뜨거운것이 자기의 두눈에 고이는것을 느끼였다.

《오빠는 내가 막 밉겠지요?》

현철은 씁쓸하게 웃었다.

(왜 이럴가? 내가 왜 이럴가? 너는 설미를 사랑하지 않는가.)

《설미, 난 너외에 그 어떤 녀자도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하지만 난 두려웠어. 난 너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어.》

《나도 주저했어요. 그건 지금도 같아요. 우리가 결혼하면 과연 행복할수 있겠는가. 나야 오빠 아버지를 난처한 처지에 빠뜨린 녀자가 아닌가요?》

《아버지는 한번도 설미를 욕하지 않았어. 아버지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있으며 당원들앞에서 자기비판도 솔직하게 했어. 난 이런 아버지를 사랑하며 또 존경해. 지금 아버지는 중요한 사업을 책임지고 외국에 나가있소.》

《그래요? 정말 당의 신임을 크게 받았군요.》

《정말 그래. 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이고 난 나야. 부모들은 자식의 모든것을 책임지지 못해. 그건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난 생각해.》

《옳아요. … 난 언제나 현철오빠의 그러한 주견이 마음에 들었어요.》

무슨 생각엔가 잠겨있던 현철은 솜옷안주머니속에서 사진 한장을 꺼내였다.

《난 이걸 언제나 가슴에 품고다니고있어.》

설미는 현철이가 내놓는 사진을 보고 눈이 휘둥그래졌다.

《아니, 어떻게 이 사진이 오빠에게 있어요?》

《김일 1부주석동지가 나에게 보내준거야. 난 이 사진을 품고 백두산으로 달려왔어. 난 그분이 허서기동지를 통해 보낸 이 사진을 보면서 백두산으로 청년들을 부르는 시대의 목소리를 들었어.》

《오빠, 그런걸 난… 난 오빠가 나를 찾아온것이라고 속단했던적이 있었어요. 부끄러워요.》

현철은 희미한 미소를 짓고있었다.

《춥지?》

현철은 설미에게 자기의 솜옷을 벗어 씌워주었다. 설미가 거절하자 성을 내였다.

《난 춥지 않아, 하지만 네가 이 솜옷을 쓰지 않는다면 난 너무나 추워 견디기가 힘들거야.》

《그럼 쓰자요.》

설미는 현철의 솜옷을 어깨에 걸치면서 생긋 웃었다.

《벌써 내 몸이 화끈해지기 시작해, 몸이 달아오른단 말이야.》

《정말이예요?》

《정말이야. 어디 내 손을 만져봐.》

현철은 장갑을 벗고 손을 내밀었다. 설미가 조심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사랑에 못이겨 현철의 뻣뻣하고 거칠한 손을 자기의 볼에 가져다대였다.

《오빤 거짓말쟁이야. 이 손이 얼마나 차. 그러지 말고 함께 쓰자요.》

설미의 요구에 의해 현철은 그와 솜옷을 함께 걸치였다.

동무들은 지쳐서 잠들었다. 서로 그러안고 자는 사람, 꼬부리고 누운 사람, 나무에 기대앉아 코를 고는 사람… 각양각색의 모습들이 보이였다.

현철은 슬그머니 설미의 어깨를 꽉 그러안았다.

설미의 두눈에서는 다시금 눈물이 솟새여나왔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였다.

《정말 좋은 밤이예요. 평생 오늘을 잊을것 같지 못해요.》

장종학은 근 1년만에 사업차로 조국에 돌아왔다. 이제 몇가지 실무적인 문제들을 처리하고는 다시 외국으로 가야 하였다. 긴급한 일처리들을 하고난 다음 그의 발걸음은 백두산에로 향해졌다.

백두산은 해방전 그 어두운 세월속에서 언제나 동경하던 성산이였다. **김일성**장군님의 발자취가 스며있는 백두산지구의 혁명전적지들을 꾸리는 사업에 무엇으로든 기여하고싶었다. 아들 현철이가 돌격대원이 되여 그 건설사업에 참가한다는것을 알게 되였을 때 그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래서 부모들의 몫까지 합쳐 일을 잘하라고 회답편지에 당부도 했었다.

지원물자들을 가득 실은 소형뻐스를 타고 삼지연까지 오느라니 밤이 되였다.

그는 평양시련대를 찾아갔다. 이왕이면 아들이 있는 련대에 지원물자를 가져가고싶었다.

나이지숙한 부련대장이 위풍있는 행색의 장종학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련대장은 출장중이라고 하였다.

《아직 저녁식사를 못하셨겠군요.》 부련대장이 우선우선하게 말하였다.

《괜찮습니다. 뭐 싸가지고온게 있는데 대충 먹겠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했는데 함께 식사나 합시다.》
부련대장은 한사코 장종학을 지휘부식당으로 잡아끌었다. 배도 어지간히 고팠기에 못이기는체 하고 따라갔다.
풍성치는 못하나 깨끗하고 조촐한 음식들이 식탁에 차려져있었다. 부련대장은 술 한병도 꺼내놓았다.
《이 추위에 몸이 얼었겠는데 한잔씩 합시다.》
《술은 내가 가지고온것도 있습니다.》
《그건 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이 술을 마셔보십시오.》
장종학은 부련대장과 마주앉았다. 더운 방에서 알콜이 몸에 퍼지니 몸이 훈훈하게 풀리고 기분이 좋아졌다.
《백두산지구에 오니 술맛도 별로 좋아지는것 같습니다.》 하고 장종학은 말하였다.
《그렇지요? 백두산에 와보기 전에야 조선을 안다고 말할수 없지요. 인생을 살았다고 할수도 없구요.》
장종학은 이 부련대장이 명담을 하고있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장종학이 백두산에 처음 와보는것은 아니였다. 이전에 답사차로 왔던적이 있었다. 하지만 인생의 말년에, 더우기나 외국에 나가있다가 와서 백두산을 대하는 감정이 이전과는 달랐다. 그는 조종의 산 백두산앞에서 지금까지의 인생을 총화받는것만 같은 심정이였다.
이때 련대참모라고 하는 애티나는 얼굴의 돌격대 지휘관이 들어와 3대대의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이동작업을 하러 갔던 대원들이 돌아오지 못하고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래서?》부련대장이 마뜩잖게 말을 던졌다.
《3대대에서는 련대에서 자동차를 한대 보내줄것을 제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쩍하면 우에다 손을 내밀내기야. 지금 련대에 놀고있는 자동차가 어디 있소. 자체로 대책을 세우라고 하시오.》
련대참모는 무엇인가 더 말하려고 하다가 부련대장이 흘겨보자 건성거수경례를 하고 돌아섰다.
장종학이 부련대장의 말이 어쩐지 귀에 거슬렸지만 괜히 남의 일에 삐치는것만 같아 모르는척 하였다. 오래간만에 조국에 왔는데 매사에

자중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자칫하다간 인사도 모르는 사람으로 오인되기가 십상일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평양시련대에 지원할 생각을 하였습니까. 건설부에서 사업하는분이라면야 폭이 넓지 않겠습니까?》 하고 부련대장이 물었다.

《실은 내 아들이 여기 평양시련대에 있습니다. 장현철이라고 혹시 알겠는지…》

《장현철이라구요? 그 3대대 참모장 아닙니까?》

《3대대인줄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대참모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참모장이 맞습니다. 그 장현철참모장이야 인재지요. 우리 련대의 보배입니다.》

부련대장의 말에 장종학은 저도 모르게 사기가 올랐다.

이때 밖에서 법석하는 소리가 나더니 한사람이 다급한 걸음으로 뛰여들어왔다.

《부련대장동지, 1부주석동지가 오셨습니다.》

부련대장이 놀라서 벌떡 몸을 일으키는데 솜옷차림의 김일이 찬바람을 안고 들어섰다.

《이밤에 무슨 술이요?》

김일의 성난 목소리가 방안을 드르렁 울리였다.

김일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건설사업을 지도하면서 여러곳을 돌다가 밤중에 삼지연에 들어왔다. 그는 길가까이에 장현철과 한설미가 소속된 대대가 있음을 상기하고 거기에 들리였었다. 대대병실은 비여있었다. 직일관은 대대가 나무모를 뜨러 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음을 김일에게 보고하였다. 대대장은 고장난 자동차를 수리하는중이라고 하였다. 김일이 대대장에게 련대지휘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는가 알아보니 도와달라고 제기했는데 자체로 해결하라고 했다는것이였다. 하여 김일이 련대지휘부를 찾아온것이였다.

김일의 눈길이 장종학에게 와멎었다. 김일의 반달모양의 숱진 눈섭이 쫑긋거리고 언것처럼 푸르죽죽해진 얼굴에 놀란 표정이 어리였다.

《아니, 장종학동무가 아니요?》

《예, 접니다.》

장종학은 뜻밖의 장소에서 김일을 만나게 되여 반가움보다 먼저 가슴이 후두두 떨리였다.

《언제 귀국했소?》

《한 일주일 되였습니다. 이제 인차 또 출국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나타났소?》

《예, 지원물자를 가지고왔습니다. 좀전에 도착하여 부련대장동무와 식사를 하던중이였습니다.》

《식사를 하던중이라. … 식사야 해야지.》

김일은 눈길을 부련대장에게 돌리였다. 그의 시퍼런 얼굴에는 다시 서슬이 올랐다.

《동문 뭘하는 사람이요?》

《예, 전 부련대장입니다.》

부련대장은 왜서인지 후들후들 떨면서 대답하였다.

《내가 말하자는건 부련대장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뭘하고 앉아있는가 하는거요.》

《예, 전 이 손님이 지원물자를 가지고왔기에…》

《동무! 3대대에서 자동차가 고장나 련대지휘부에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데 팔짱끼고 앉아 뭘하고있소? 대원들이 이 추위에 한지에서 떨고있다는걸 모르는가? 그들은 저녁도 먹지 못했단 말이요.》

《당장 자동차가 없기에…》

《그게 부련대장이 하는 소리요? 참 한심하오.》

김일은 더 말할 기분이 없는듯 문을 닫고 나갔다. 부련대장과 장종학이 허둥지둥 그의 뒤를 따랐다.

김일은 제잡담 련대지휘부로 들어가 앞상을 마주하고 앉았다. 죄스러운 낯빛을 한 부련대장이 그앞에 차렷자세로 섰다.

《항일빨찌산들은 **김일성**장군님을 받들어모시고 왜놈들과 싸울때 모두 한가마밥을 먹었소.》

김일은 두주먹으로 앞상을 꾹꾹 누르며 말하였다.

《대원들이 굶으면 지휘관도 굶었소. 그 누군가가 못 먹으면 모든 대원들이 강냉이 한알도 목구멍으로 쉽게 넘기지 못했소. 그런 동지애가 없었다면 간고한 시련을 이겨내면서 조국해방을 이룩하지 못했을거요.

여보 부련대장, 동무들이 여기 백두산에서 단순한 건설을 하고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되오. 항일빨찌산들의 정신세계를 따라배우고 그들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길이 빛내이자고 당에서 혁명전적지건설사업을 내밀고있는게 아니겠소.》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고치오. 그리고 빨리 대책을 세우시오. 련대지휘부에 남아있는 자동차가 없다니까 전화로 각 대대들을 찾소. 다른 대대의 자동차라도 기동시켜야지.》

《알겠습니다.》

부련대장은 덤벼치며 전화통을 끌어당기더니 송수화기를 들었다.

잠시후 김일의 승용차는 자동차 한대를 앞세우고 3대대 대원들이 나무모를 뜨고있다는 장소로 향했다.

김일은 옆좌석에 앉은 장종학에게 말하였다.

《장동무,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인사가 안됐소. 용서하오.》

《별말씀을… 난 지금 바늘방석에 앉은것 같습니다.》

《그 부련대장이란 사람이 도대체 제정신이 있는 사람같지 않거던. 물론 동무도 부련대장과 함께 있었으니 3대대에서 자동차를 좀 보내달라는 소리를 들었겠지?》

《예.》

《그런데 왜 곁에서 보고만 있었소? 왜 따끔히 한마디 해주지 못했소?》

장종학은 이마에 내배는 땀을 닦았다.

《손님의 립장에 있다보니 부련대장에게 싫은소릴 하기가 딱했습니다.》

《손님의 립장? 아니, 외국에 갔다왔다고 해서 손님의 립장을 운운하는거요 뭐요? 듣기가 거북하구만.》

김일은 안타까움을 이기지 못해 목소리를 높이였다.

《그래, 동무는 이 나라 공민이 아니요?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오니 그래 원칙도 의분도 다 줴버렸소? 물론 혁명전적지건설사업에 지원하러 불원천리 찾아온것은 장한 일이요. 그런 면에서 난 동무를 높이 평가하오. 하지만 오늘 밤 일은 잘한것 같지 않소.》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변변치 못하게 구는지 저도 모

르겠습니다.》

장종학은 깊은 한숨을 내쉬였다. 그는 정말 자기자신이 저주스러웠다.

《장동무, 명심하오. 원칙은 하나요. 여기서 부주석의 립장이 다르고 평범한 로동자의 립장이 다르고 또 동무처럼 오래 조국을 떠나 살다가 온 사람의 립장이 다를수 없는거요. 난 장종학동무를 예나지금이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오. 수령님을 따르는 그 깨끗한 마음이야 변함없는 동무가 아니요. …

여긴 백두산이요. 후손만대를 두고 우리가 지켜가야 할 성산이란 말이요. 가는 곳마다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이 숨쉬는 곳에서 그 부련대장처럼 산다면 어떻게 하겠소. 백두의 혁명정신을 지켜싸워야 할 때는 언제든지 투사가 되여야 하는거요.》

장종학은 뜨거운 불망치가 머리를 후려치는듯 하였고 그 어떤 전류같은것이 온몸을 줄달음치는것만 같았다.

새벽이 푸름푸름 밝아올 때 현철은 대원들을 깨웠다.

《동무들, 자동차가 무슨 이상이 생긴것 같소. 대대까지 행군해갑시다.》

현철의 말은 대원들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떠납시다.》

《백두산이 우리를 지켜보는데 주저할게 뭡니까.》

돌격대원들은 발구들에 막돌들을 싣고 길을 떠났다. 허기진 몸들이였으나 씩씩하게 혁명가요들을 부르며 행군해갔다.

이때 눈보라속을 뚫고 자동차가 마주왔다. 운전칸에서 대대장이 뛰여내렸다.

《동무들, 미안하오. 자동차가 고장났댔소.》

대원들이 와 소리치며 달려갔다. 대대장을 얼싸안고 돌아가는데 김일이 그뒤에서 불쑥 나타났다.

《돌격대원동무들, 수고합니다.》

대원들이 놀라서 주춤거렸다. 장현철이 앞으로 나서며 힘차게 거수경례를 하였다.

《1부주석동지, 평양시련대 3대대는 지금 삼지연혁명사적관공사에 필요한 막돌들을 운반하는중입니다.》

《반갑소, 참모장동무.》

김일은 현철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도장을 찍듯이 툭 쳤다.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 그의 습벽의 의미를 잘 알고있는 장종학은 후대에로 이어지는 투사의 신념과 의지를 느끼였다.

(김일동지는 여전하구나.)

이윽고 김일은 대원들 한사람한사람의 손을 잡아주며 큰소리로 말하였다.

《모두 장하오. 혁명가요를 부르며 행군해오는 동무들을 보니 빨찌산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오.》

김일은 한설미의 손을 잡고 미덥게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그러안았다.

《설미야, 너도 빨찌산녀대원같다. 배고프지?》

《아저씨, 아직 견딜만 해요.》

설미는 행복에 겨운 미소를 짓고있었다.

김일의 모습을 장종학은 뜨거운 감동과 깊은 자책속에 바라보고있었다.

(인생의 여러 고비들에서 당신은 나를 이끌어주었고 지금도 역시 나를 이끌어주고있습니다.

당신의 생애는 수령에 대한 전사의 의리는 한생의 어느 한순간이라도 망각하지 말아야 하며 처음부터 마지막순간까지 언제나 줄기차게 흘러야 함을 참된 삶의 진리로 가르쳐줍니다.)

이윽고 장종학은 몰라보게 성장한듯싶은 아들을 향해 다가갔다. 아들옆에는 그지없이 아름답게 여겨지는 설미가 서있었다. 종학에게는 백두산의 품에서 자식들의 키가 커지고 몸이 한결 좋아진듯이 느껴졌다.

《현철아.》

현철은 아버지를 보고 와뜰 놀랐다가 《아버지!》하고 환희에 찬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예요?》

현철은 종학의 두팔을 꽉 잡고서 온통 웃음꽃이 핀 얼굴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듯 설미를 찾았다.

《설미.》

설미는 얼굴을 붉히며 주밋거리고있었다.
종학은 너그럽고 다정한 웃음을 지으며 설미에게 말하였다.
《설미야, 네가 현철이와 함께 있었구나.》
《아버님.》
설미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다가 그만에야 종학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모두들 용쿠나, 정말 장하다.》
이렇게 뇌이는 장종학의 두볼로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6

1979년 여름 김일은 또다시 몸이 불편하여 겨우 청사에 출근하고있었다. 옆에서 나날이 축가는 김일의 모습을 보는 허룡은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었다. 수령님과 **김정일**동지의 사랑속에 여러번 사경에 처했다가 소생한 김일은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전심전력 분투해왔다. 그런데 다시금 건강이 심상치 않으니 그 당자의 심정이야 얼마나 괴로우랴.
어느날 점심시간이였다. 허룡은 김일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정문가를 거닐고있는것을 보았다. 허룡이 시계를 보니 벌써 점심시간이 퍽 지났다. 무슨 생각에 잠겨있는것일가? 그 어떤 고민으로 식사시간마저 잊고있는것이 아닐가? 혹은 그 어떤 사색을 무르익히고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식사야 제때에 해야 할것이 아닌가. 허룡은 김일에게 점심시간에 대해 귀띔해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조심히 곁으로 다가갔다.
《1부주석동지, 식사시간이 되였습니다.》
김일은 힐끔 허룡을 보더니 다시 뒤짐을 지고 거닐었다.
《식사를 하러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일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허룡에게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외국수반을 맞이하러 비행장에 나가셨는데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소. 수령님께서 대외사업하시느라 점심식사를 제때에 못하시는데 전사가 어찌 먼저 식사하러 갈수가 있겠소.》

허룡은 가슴이 뜨겁게 젖어들었다. 아, 그런걸 그 어떤 고민을 하고있다고 생각했으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놈인가. 김일은 자나깨나 오직 한 생각, 그저 수령님 생각뿐이였던것이다.

《서기동무가 전화를 걸어 수령님께서 돌아오시였는지 알아보오.》

김일은 수령님께서 돌아오시였다는것을 알고서야 차에 올랐다.

김일이 집에 들어서니 뜻밖에도 맏손자 박광선이 달려나와 맞이하였다.

《할아버지, 앓으신다더니 어떻습니까?》

광선은 인사말을 하며 근심어린 눈길로 김일의 병색짙은 얼굴을 유심히 보았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자강도의 어느 한 공장에 3대혁명소조원으로 파견되여가던 때가 엊그제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행동거지가 퍽 진중해지고 육체적으로도 숙성해진듯싶은 광선의 모습을 보니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김일은 맏손자가 사랑스러웠으나 잔정을 표시할줄은 몰랐다.

《넌 어떻게 되여 평양에 왔느냐?》

김일은 손자가 혹시 할아버지를 등대고 사업규률을 위반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것이였다.

《만수대동상에 설치할 전광판을 만들어가지고왔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걸 만들 생각을 다 했느냐?》

《3대혁명소조로 평양을 떠나기 전날 할아버지와 함께 만수대동상을 찾아가지 않았댔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만수대동상을 더 밝고 환하게 모실수 있을가고 걱정하시던 모습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있었거던요. 전광판에 대한 착상은 내가 했지만 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이 다 합심하여 달라붙어 만들었습니다. 오늘 설치를 다 끝냈는데 공장에 돌아가기 전에 할아버지가 앓는다는 말을 듣고 병문안을 하자고 들렸습니다.》

김일의 누렇게 뜬 얼굴에 금시 환한 미소가 피여올랐다.

《네가 용쿠나. 내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너희들이 만들었다는 그 전

광판이라는걸 가서 봐야겠다.》

김일은 광선이와 함께 밤중에 승용차를 타고 만수대언덕으로 향하였다.

만수대언덕에 오르니 수령님의 동상 량옆에 설치된 전광판이 안겨왔는데 볼수록 마음에 들었다.

이제는 수령님의 동상이 더 빛나게 되였다.

김일은 만족하여 맏손자의 어깨를 두드려주었다.

《광선아, 용타.》

김일은 다시금 칭찬의 말을 하였다.

《그러고보니 네게도 빨찌산의 피가 흐르고있는게 틀림없구나. 우리 손자들이 그만하면 괜찮아. 충선이도 군사복무를 잘해서 표창휴가를 받고 집에 온다고 하더라.》

《우리 3대혁명소조에서는 지금 만수대언덕의 잔디깎는 기계도 새로 설계하였는데 지금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생각들이 기특하다. 네가 가면 그들모두에게 내 인사를 전해다구. 빨리 제작해서 만수대를 관리하는데 리용하면 얼마나 좋겠니.》

김일은 맏손자의 어깨를 슬그머니 그러안았다. 이젠 다 자란 손자의 억센 육체를 몸에 느끼니 어쩐지 가슴이 뭉클해졌다.

며칠후 김일은 삼지연대기념비제막식이 진행된다는 통보를 받게 되였다. 삼지연대기념비제막사를 김일이 하는것으로 예정되여있었댔는데 건강상리유로 림춘추부주석이 하기로 되였다고 한다.

《그렇게 됐구만.》하고 허룡에게 나직이 뇌이는 김일의 얼굴에는 서글픈 미소가 어려있었다.

아픔과 슬픔이 김일의 가슴을 마구 긁어대고있었다.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건설사업이 진행되던 그때부터 늘 마음을 쓰며 짬만 있으면 백두산지구로 가서 건설정형을 알아보고 지도하던 김일이였다. 삼지연대기념비가 건설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신념과 의지, 비상한 예지에 탄복하면서 고마움을 느끼던 김일이였다. 삼지연대기념비가 하루빨리 완공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대기념비가 완공되기만하면 그 제막사를 꼭 자기가 해야겠다고 벼르기도 했던 김일이였다.

그런데… 고대하던 그날이 왔는데 병든 몸이라 평양을 뜨지 못하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는가.

다음순간 김일은 주먹을 꽉 부르쥐며 생각하였다.

(아직 내가 다된 사람은 아니다.)

허룡은 긴장한 눈길로 여느때없이 흥분한 김일을 지켜보았다. 김일은 침통한 낯빛으로 창밖을 바라보고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가다듬고있었다.

(비록 제막사는 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삼지연으로 갈것이다.)

김일에게는 제막식참가자들에게 꼭 하고싶은 말이 있었다. 그것은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언급되지 않을 그런 말이였다.

(아직 기력이 남아있을 때…) 하고 그는 다시금 생각하였다.

《허서기, 삼지연대기념비제막식에 내 꼭 가겠으니 그리 알라구. 물론 제막사를 하자는건 아니야. 그저 내 그 제막식에 꼭 가고싶어서 그래.》

김일의 말이 얼마나 절절하였던지 허룡은 감히 반대의 말을 할수가 없었다.

7

삼지연대기념비제막식이 진행된 그날은 날씨가 유난히 따뜻하여 삼지연못은 맑고 깨끗한 하나의 커다란 거울이런듯 파문 한점 일지 않고 고요하였다. 그 주변의 푸른 숲도 숙연한 정적에 잠겨 이제 다가올 력사적인 순간을 기다리고있는듯싶었다.

못가의 대기념비교양마당에 꽃다발과 고무풍선을 들고 정렬해선 수많은 사람들이 림춘추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림춘추가 제막식을 선포하자 취주악이 울리고 알락달락한 고무풍선들이 맑게 개인 하늘로 날아올랐다.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꽃물결이 설레이는 속에 제막포가 벗겨지고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의 군복을 입고서 한손에 쌍안경을 잡고 서계시는 수령님의 동상이 사람들의 시야에 안겨왔다.

김일을 위시한 제막식참가자들은 대기념비를 돌아보았다.

김일은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며 오래도록 서있었다.

전설적인 청년장군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압록강을 건너 조국땅을 밟았던 항일전의 그날이 어제런듯 눈앞에 삼삼히 그려진다. 이 삼지연에서 휴식을 하면서 물도 마시고 진달래꽃도 꺾어들며 조국땅을 밟은 환희에 웃고 떠들던 항일빨찌산들… 그날 수령님께서는 김일에게 《덕산동무, 이곳 경치가 얼마나 좋소. 조국이 광복되면 우리 여기 삼지연에 휴양소를 꾸립시다.》 하고 말씀하시였다.

아, 그날의 수령님의 모습이 그립구나.

(얼마나 젊으신 모습이신가!)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노라니 너무나 감개무량하여 눈물이 나올지경이였다.

김일은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보았다. 림춘추를 비롯한 항일투사들이 웃으며 서있었다.

《1부주석동지, 수령님의 동상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읍시다.》 하고 림춘추가 말하였다.

《찍읍시다.》 김일은 기뻐서 투사들을 곁으로 불렀다.

그들속에는 한영덕이도 있었다.

《얼마나 뜻깊은 날이요. 모두 기억나겠지? 압록강을 넘어와서 이 삼지연의 물을 마시던 그때가 말이요.》

영덕이 한 항일투사의 등을 치며 《난 그때 이 꼬맹이가 우는걸 봤습니다.》하고 시까슬렀다.

그러자 《꼬맹이》라고 불리운 인민군장령이 《내가 울었나? 제가 울었지.》 하고 응수하는 바람에 한바탕 웃음이 터지였다.

항일투사들과 사진을 찍고나자 기다렸던듯 다른 사람들이 김일과 함께 사진을 찍자고 모여들었다.

뜻밖에도 장종학이 불쑥 김일이앞에 나타났다.

《아니, 장동무도 왔소? 난 아직 외국에 나가있는걸로 알았는데…》

《한영덕동무에게서 삼지연대기념비제막식이 인차 진행된다는걸 알고 일거리를 우정 만들어 귀국했습니다. 꼭 참가하고싶더라니까요.》

《잘 왔소. 이렇게 여기서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소.》

김일은 장종학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삼지연대기념비제막식에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많이 모여왔다.

국가가격제정위원회 책임일군인 정두환이도 왔다. 철도부장 박용석이도 왔고 력사연구소 지도원(당시)인 박은희도 참가하였다. 혁명전적지건설 돌격대원들도 제막식에 참가하였는데 그들속에는 장현철과 한설미가 있었다. 그러고보면 김일의 인생길에서 이러저러하게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많이 삼지연으로 모여든셈이였다. 그들모두가 수령님의 동상을 비롯한 여러 기념비들을 돌아보고 사진들을 찍느라 법석대고있었다.

그날 저녁 삼지연못가에서는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건설자들을 위한 연회가 있었다. 제막식에 온 당과 정부의 간부들도 연회에 참가하였다. 김일은 몸이 불편하였지만 연회탁에 나와앉았다.

(내 아직 기력이 남아있을 때…) 하고 그는 또다시 생각하였다.

연회가 시작되자 김일은 연단에 나가 마이크를 들었다. 그는 연회일정에도 없는 연설을 하려는것이였다. 그는 늘쌍 절감하고있던 감정을 격식없는 소박한 어조로 연회참가자들에게 토로하였다.

《…동무들! 여기서 평양까지 거리가 얼마요? 천리도 넘소. 그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쉬임없이 이 백두산지구를 오가시면서 여기에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만대에 길이 전할 대기념비를 훌륭하게 일떠세워주시였소.》

사람들은 격동된 심정으로 김일의 말을 듣고있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해 칭송하는것은 그이자신의 지시로 하여 당적으로 허용되지 않고있었다.

그러나 김일은 제막식날에 꼭 이 말을 하고싶어 불원천리 불편한 몸을 무릅쓰고 삼지연까지 온것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대기념비건설을 빛나는 예지로 지도하시면서 건설자동무들이 수고한다고 매일과 같이 렬차로 과일과 간식을 비롯한 식료품들을 보내주시였소. 우리 공화국력사에 이런 일은 일찌기 없었소.》

김일은 큰숨을 들이쉬고나서 힘주어 강조하였다.

《우리는 백두산지구의 혁명전적지들을 꾸리는 건설사업을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이 어느분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는가를 체험하였습니다. 우리 다시한번 똑똑히 가슴에 새깁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없으면 우리 혁명의 미래도 없습니다. …》
김일은 숨이 차서 잠간 쉬였다가 천천히 목소리를 높이여 말하였다.
《동무들, 우리모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시다.》
순간 연회장에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연회참가자들은 모두 일어서 감격에 겨워 소리높이 웨치였다.
《만세!》
그 소리는 백두의 수림을 뒤흔들며 멀리 메아리쳐갔다. 그 메아리의 충동을 받은것처럼 삼지연너머로 짙은 구름속에 잠겼던 백두산이 점차 자기의 자태를 웅건하게 드러내놓았다.
김일은 별안간 눈굽이 젖어들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만세!》의 합성이 터져오르는것을 목격하니 격정이 치밀어올랐던것이다. 그는 가슴이 후련하였고 힘이 생기였다. 그는 앓는 몸을 끌고 삼지연까지 온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자부를 느끼였다.
다음날 새벽 김일은 사람들을 데리고 백두산에 올랐다. 백두산으로부터 파도쳐간듯싶은 높고낮은 산발들이 내려다보이였다. 그의 눈앞에는 항일무장투쟁의 그 나날들이 떠올랐다. 그가 수령님을 모시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밟았던 그 땅, 혁명전적지들이 눈뿌리 뜨겁도록 안겨들었다.
이 백두산줄기를 타고 중국땅으로 가면 그가 수령님을 찾아 반일부대를 이끌고 행군한 그 험난한 길도 밟을수 있으리라. 장백현 홍두산밀영에서 수령님과 첫상봉을 한 후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에서 싸우며 걸어온 그 길은 몇천몇만리런가.
이윽고 해돋이가 시작되였다. 피빛을 띠였던 해는 점차 쇠물처럼 이글거리며 눈부신 빛을 내뿜는다. 백두의 산발들이 그 빛을 받아 활기를 띠며 설레인다.
찬란한 해돋이를 보노라니 그의 가슴은 신심과 희망으로 꽉 차서 한껏 버그러지는것만 같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여 우리 앞날은 창창하구나. 조선

의 행운이로다.)

김일의 두눈에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히였다. 백두산에 올라 이날처럼 크나큰 행복감을 느꼈던적은 일찌기 없었다고 그에게는 생각되였다.

이날은 김일이 자기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백두산에 오른 날이였다.

종 장

1984년 3월 10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일이 사망하였다는 **김정일**동지의 보고를 받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급히 평양으로 향하시였다. 가슴이 미여지는것만 같은 아픔과 상실감에 모대기는 그이의 머리속에는 김일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지난해 섣달그믐날 밤이 떠올랐다.

…학생소년들이 준비한 설맞이공연을 관람하러 나가니 김일이 보이지 않았다. 늘 그와 나란히 앉아 학생들의 설맞이공연을 보시군 했는데 김일이 없으니 기분이 좋지 않으시였다.

문득 앓고있는 김일을 병문안 갔을 때 그가 병이 다 나으면 돌아오는 4.15명절에 만경대에 가서 관성렬차를 타보겠다고 하던 말이 되새겨지면서 이상하게 섬찍한 느낌이 드시였다.

(혹시 그가 그 무엇을 예감하고 나를 위안하느라 한 말이 아니였을가.)

수령님께서는 설맞이공연이 끝나자 김일을 찾아 그의 집으로 가시였다. 뜻밖에 수령님을 뵈옵게 된 김일은 송구스러워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병이 더 심해지는 모양이구만. 학생들의 설맞이공연에 갔는데 동무가 보이지 않아 찾아왔소.》

《사실은 가려고 했댔습니다. 그러다가 병색이 도는 얼굴을 수령님께 보이면 또 걱정을 끼쳐드릴것만 같아서… 그래서 그만두었습

니다.》
수령님께서는 가슴이 뭉클해지시였다.
(이 고지식한 사람… 그저 생각은 하나뿐이군.)
《오늘 동무가 곁에 없으니 얼마나 허전했던지 모르오. 빨리 병을 고치고 일어나야겠소.》
수령님께서는 김일의 손을 꼭 잡아주시였다.
그날 밤 수령님께서는 김일과 마주앉아 함께 싸운 지난날에 대한 추억담을 나누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새해를 축하하여 그와 축배잔을 나누고싶으시였으나 그의 병치료에 나쁜 영향을 줄것 같아 참으시였다. …
(섣달그믐날의 그밤이 살아있는 김일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 되고말았구나.)
비보를 받고 평양으로 달리는 승용차안에서 수령님께서는 그때 김일과 축배잔을 나누지 못한것이 몹시도 후회되시였다.
(이렇게 될줄 알았더라면…)
얼마후에 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는 김일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회관에 도착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여 회관으로 들어가시였다. 장례식장에 먼저 와계시던 **김정일**동지께서 수령님을 맞이하시였다.
장내에는 《빨찌산추도가》의 비장한 선률이 울리고 명예위병대가 서있었다. 수령님께서는 꽃과 화환들에 둘러싸인 김일의 령구앞에 이르시였다. 그이께서는 묵상하고나서 더 다가가시여 김일의 얼굴을 내려다보시였다.
금시 살아서 《수령님, 오셨습니까.》하고 말할것만 같은 모습, 수령님께서는 눈물이 쏟아져나와 손수건을 꺼내시여 눈굽을 누르시였다.
(김일동무… 끝내 먼저 가는구만. 우리 함께 혁명을 더 하자고 약속하지 않았소. 그런데 그 약속을 버리고 이렇게 간단 말이요? 너무하오, 너무해.)
수령님께서는 한참 눈물을 흘리시다가 겨우 진정하시고 유가족들에게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이께서는 흐느껴울고있는 허창숙과 유가족들에게 말씀하시였다.
《어쩌겠습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우리가 있으니 의지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이윽고 수령님께서는 박용석을 비롯한 상제들을 데리고 휴계실에 들

어가시였다.

《김일동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를 쓸대로 다 써보았소. 모든 치료방법을 다 취했습니다.》

수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김정일**동지께서 받으시였다.

《그 성의를 잘 알고있기때문에 1부주석동지는 그저 일을 더 많이 하자고 기력을 다 짜냈던것입니다. 1부주석동지는 세상을 떠나기 3일전까지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박용석이 수령님께 말씀드리였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며칠전에 저를 불러 50년간 수령님을 모시고 일하면서 사랑과 신임만 받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보답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난 동지적의리를 다하자고 했을뿐이요.》하고 수령님께서는 추연하게 말씀하시였다.

《그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동무들은 다는 모를것이요.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그는 자기는 굶거나 통강냉이를 먹으면서도 사령부에만은 쌀을 떨구지 않으려고 험한 판에서도 늘 쌀을 한배낭씩 지고오군 했소. … 그는 일생동안 고생을 많이 했소.》

수령님께서는 다시금 손수건을 꺼내드시였다.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하신 그이께서는 김일에 대한 회고담을 더 하시다가 저력있는 목소리로 뒤를 다시였다.

《그는 일생을 혁명에 바쳤소. 그의 심장은 당과 혁명을 위해 한생 뜨겁게 불탔소.》

잠시후 휴계실을 나서신 수령님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장내에 울리는 추도곡에 귀를 기울이시였다. 그리고 누구에게라없이 말씀하시였다.

《저 추도가는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지은 노래였지. 〈몸은 비록 죽었어도 혁명정신 살아있다〉. 그래, 바로 그렇소. 김일이는 죽지 않았소. 그는 영원히 우리곁에 살아있을것이요.》

수령님께서는 활활 불타며 인민들을 혁명에로 부르는 김일의 심장이 보이는듯싶으시였다. 그것은 오직 하나만을 위해 뜨겁게 불탄 심장이였다.

(영원히 불타는 심장.) 하고 그이께서는 생각하시였다.

장편소설 **하나를 위한 심장**

저 자	**석남진**
편 집	**최정옥**
표지, 삽화	**류명구**
편 성	**강은정**
교 정	**정경진**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 쇄 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2
인 쇄	주체100(2011)년 7월 5일
발 행	주체100(2011)년 7월 10일

ㄱ－16172 값 180원

ISBN 978－9946－22－381－0